

도산서원이야기

-현판 비석 표지석 암각서를 중심으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도산12곡비

주차장

석간대

추로지향비



전교당

상덕사

광명실

진도문

옥진각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천광운영대

천연대

시사단

재작년에 도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되어 많은 탐방객이 서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원을 설명하는 분들에게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도산서원 이야기』를 간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사정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작년 2월에 창궐한 전염성 신종 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이 확산되면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서원에 관한 자료를 읽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다시 간행하면서 오탈자 교정은 물론이고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국가문화재 보물지정 등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관광거점 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산서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으로 안동에 대한 기억이 오래도록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고를 자세히 교정과 보완을 하여주신 이동구님께 감사드리며, 인쇄를 맡아주신 도서출판 청솔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 4.

도산서원 관리사무소장 유 창 원 삼가 씀

차 례

간행사 /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유창원

| | |
|----------------------------|-----|
| 01. 시작하면서 | 09 |
| 0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표지석 | 16 |
| 03. 국가지정 사적지 표지석 | 26 |
| 04. 하마비下馬碑 | 30 |
| 05. 추로지향비鄒魯之鄉碑 | 34 |
| 06.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 40 |
| 07. 도산서원중수기념비 | 48 |
| 08. 대통령기념식수표지석 | 58 |
| 09. 시사단비試士壇碑 | 64 |
| 10. 천연대天淵臺 | 74 |
| 11. 열정冽井 | 84 |
| 12. 농운정사隴雲精舍 | 90 |
| 13. 시습재時習齋 | 98 |
| 14. 관란헌觀瀾軒 | 102 |
| 15. 도산기 陶山記 | 106 |
| 16. 몽천蒙泉 | 118 |
| 17. 도산서당陶山書堂 | 122 |

차 례

| | |
|------------------------------|-----|
| 18. 완락재玩樂齋 | 130 |
| 19. 암서헌巖栖軒 | 136 |
| 20. 정우당淨友塘 | 140 |
| 21. 절우사節友社 | 146 |
| 22. 매화원梅花園 | 152 |
| 23. 진도문進道門 | 160 |
| 24. 광명실光明室 | 168 |
| 25. 진성이동준공공적기眞城李東俊公功績記 | 176 |
| 26. 홍의재弘毅齋 | 182 |
| 27. 이주부공사적李主簿公事績 | 186 |
| 28. 박약재約博齋 | 192 |
| 29. 도산서원陶山書院 | 198 |
| 30. 전교당典教堂 | 206 |
| 31. 한존재閑存齋 | 214 |
| 32. 춘추향사시분정판春秋享祀時分定版 | 218 |
| 33. 기일판忌日版 | 224 |
| 34. 숙종대왕전교肅宗大王傳敎 | 228 |
| 35. 원규院規 | 232 |
| 36. 향립약조鄕立約條 | 238 |

차 례

| | |
|---------------------------|-----|
| 37. 경재잠 敬齋簾 | 244 |
| 38. 백록동규 白鹿洞規 | 250 |
| 39. 사물잠 四勿簾 | 256 |
| 40. 속흥야매잠 夙興夜寐簾 | 260 |
| 41. 도산서원견각신치제문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 266 |
| 42. 정조대왕전교 正祖大王傳敎 | 272 |
| 43. 상덕사 尙德祠 | 278 |
| 44. 옥진각 玉振閣 | 288 |
| 45. 역락서재 亦樂書齋 | 294 |
| 46. 도산십이곡비 陶山十二曲碑 | 300 |
| 47. 석간대 石礪臺 | 314 |
| 48. 마무리이야기 | 3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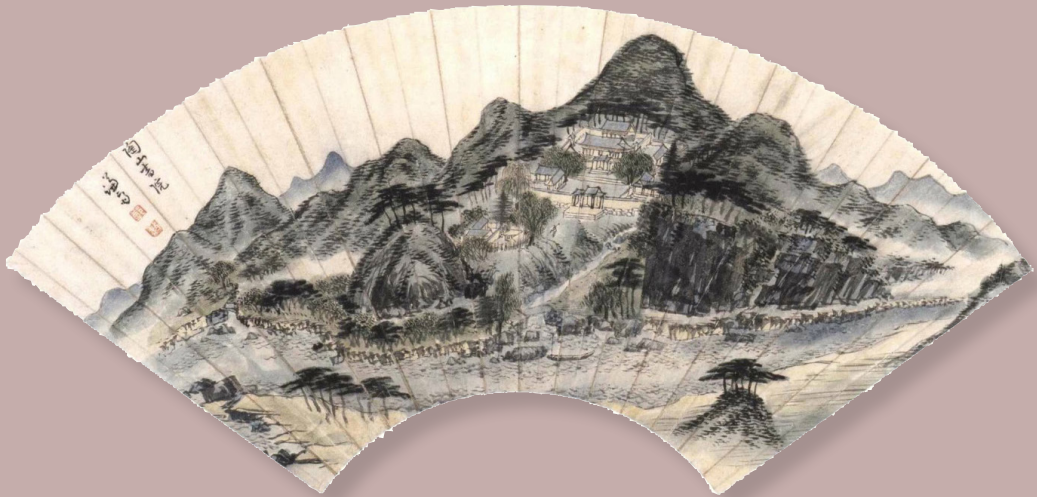
[부록]

| | |
|--------------------------|-----|
| 01. 퇴계선생 위패봉안 서원현황 | 325 |
| 02. 퇴계선생 관련 유물유적 문화재지정내역 | 326 |
| 03. 도산서원 연혁 | 328 |



도·산·서·원·이·야·기

01 시작하면서



도산서원도

정선(1676~1759. 호 겸재) 작.

수묵담채. 21. 3×56. 4cm.

간송미술관 소장

서원창설운동은 사람들의 참다운 공부를 위한 환경조성운동이었다

우리나라 서원제도의 성립은 16세기(특히 연산군 이래) 관학官學의 쇠퇴함과 아울러 잦은 사화 등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은둔생활과 중국의 서원제도와 주자朱子 숭배사상의 영향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¹⁾ 일반적으로 선사先師선현先賢을 봉사奉祀(추모하는 일)할 사당祠堂과 유생이 공부하는 재齋를 갖추어야 서원이 성립된다.

서원은 모셔진 선현先賢의 연고지에 설립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도산서원도 퇴계선생이 도산서당을 설립하여 역책易箴²⁾하기 전까지 학문 연구와 제자들을 가르치던 서당의 뒤편에 창설創設하였다. 곧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으로 넓혀졌다고 볼 수 있다.

‘서원書院’이라는 용어는 당唐나라 현종玄宗(在位, 712~756) 때 궁중에 있던 서적書籍의 편수처編修處(책을 만들던 곳)이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한 것인데, 송나라 때 지방의 사숙私塾(개인적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곳)에 조정朝廷에서 서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토록 하여 학교의 명칭이 되어 백록동白鹿洞(940年, 江西省 廬山) 악록嶽麓(976年, 湖南省 長沙) 석고石鼓(997年, 湖南省 衡陽) 수양睢陽(?年, 河南省 商丘) 등의 서원이 생겼다. 이후 서원은 선현先賢과 향현鄉賢(지방의 어진선비)을 제향祭享(추모하여 받들어 모심)하는 사우祠宇와 선비들이 공부하는 서재書齋를 아울러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까지 서재書齋 서당書堂 정사精舍 선현사先賢祠 향현사鄉賢祠 등과 삼우당三憂堂(文益漸, 1329~1398, 諡 忠宣) 선생을 모신 도천서원道川書院이 1401년(태종 1) 단성丹城(오늘날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지포止浦(金坵, 1211~1278, 諡 文貞) 선생을 모신 도동서원道洞書院이 1534년(중종 29) 부안扶安(현 전북 부안군)에 각각 세워졌으나 모두 사祠와 재齋의 기능을 겸비한 서원은 아니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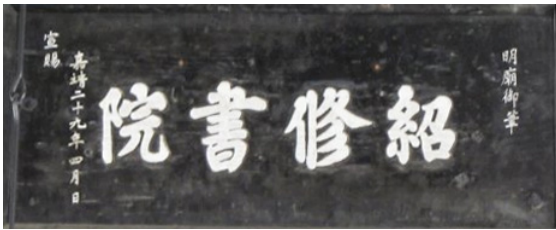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豊基郡守 신재愼齋(周世鵬, 1495~1554, 諡 文敏)선생이 관내 순흥順興 백운동白雲洞에 1289년(충렬왕 15) 고려에 신유학新儒學을 처음 소개한 회현晦軒(1243~1306, 諡 安珣, 諡 文成)선생과 그 손자까지가 글을 읽었던 숙수사宿水寺 자리에 사우祠宇(위패를 모시는 집)를 세워 향사를 지내고 서적을 구입하여 유생들을 모아 가르치니 이

1)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一潮閣, 2001, 13쪽 주)5.

2) 역책(易箴): 증자(曾子: BC 505~436,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 공자의 도를 계승하였음)가 죽을 때를 샅자리를 바꾸었다는 옛일에서 유래. 학식(學識)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臨終)을 이르는 말

3) [네이버 지식백과] 書院 (두산백과) 참조

서원이 사祠와 재齋를 겸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⁴⁾



소수서원 사액 현판
(소수서원 소장)

그 뒤 퇴계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중국 백록동서원 옛일처럼 조정에서 사액賜額(현판을 내려줌)과 재산을 내려 주도록 건의함⁵⁾에 따라 명종明宗은 1550년(명종 5) 이를 권장하는 뜻에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친필로 쓴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학전學田·노비奴婢를 급부給付(함께 주다)하면서 이들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免稅·면역免役의 특권을 내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서원의 설치는 전국에 걸쳐 명종明宗 때 29곳, 선조宣祖 때는 124곳에 이르렀고,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肅宗 때는 300여 곳에 이르렀고, 한 도道에 80~90곳의 서원이 세워졌으며, 국가 공인公認의 절차인 사액賜額의 청원에 따라 사액을 내린 서원도 늘어나 숙종 때만 해도 130여 곳이나 되었다.⁶⁾

초기의 서원은 존현양사尊賢養士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서원이 증설되어감에 따라 지방 양반층이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란은 인조仁祖 이후 꾸준히 있었으나 특권 계급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였다. 효종 숙종 때는 사액賜額에 대한 통제를 하고 누설

4) 김희곤, 『정신 위에 지은 한국의 서원』, 미술문화, 2019, 37~43쪽.

5) 『明宗實錄 10卷』, 5年 2月 11日(丙午) 2번째 기사 “豐基白雲洞書院, 黃海道觀察使周世鵬所創立, 其基乃文成公安裕所居之洞, 其制度規模, 蓋倣朱文公白鹿洞之規也. 凡所以立學令置書籍, 田糧供給之具, 無不該盡, 可以成就人才也. 李滉之請賜扁額, 書籍, 土田, 臧獲, 不可盡從, 而扁額及書籍二三件, 特命下送, 則遠方儒生, 必鼓舞欣感而興起也. 土田則周世鵬措置, 不爲不足, 仍而不改, 雖不給臧獲, 使喚之人, 出於其中. 且儒生讀書, 貴寂寞之境. 若監司·守令欲爲勸課, 煩其教令而檢束之, 則人不自由, 恐乖藏修游藝之道, 莫若勿撓之而已.”

『退溪先生年譜』, 嘉靖二十八年己酉[先生四十九歲] 十二月, 上監司書, 請白雲洞書院扁額·書籍, 啓聞頒降. [白雲洞在郡北小白山下竹溪之上, 乃前朝安文成公 裕故居也. 周世鵬爲郡守, 始創書院于其處, 祀文成, 且爲諸生遊學之所. 先生以爲東方舊無書院, 今始創見, 然教不由於上, 則恐遂廢墜. 上書監司, 請轉聞于上, 依宋朝故事, 頒降書籍, 宣賜扁額, 兼給土田·臧獲, 使學者有所依歸. 監司沈通源以聞于朝, 於是賜號曰‘紹修書院’, 令大提學申光漢作記, 頒降 四書·五經·『性理大全』等書. 書院之興, 始此.] 以病三辭于監司, 請解官. 不待報而歸. [行橐蕭然, 惟書籍數篋而已.]

6) 이호일, 『살아있는 역사의 거울, 서원을 찾아서』,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7쪽.

자累設者(거듭 창설하는 사람)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었으나 잦은 정권 교체로 오히려 더 많아졌다.

1738년(영조 14)부터 서원정비에 들어가 200여 곳을 철폐하였으나 그래도 700여 곳이 남아 있었으며 1864년(고종 1)에 집권한 대원군大院君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철폐하여, 서원의 설치를 엄금하고 그 이듬해 5월에는 가장 위세威勢를 부렸던 만동묘萬東廟⁷⁾와 화양서원華陽書院⁸⁾을 폐쇄한 이후 적극적으로 서원의 정비를 단행하여, 사표師表가 될 만한 47곳(書院 27, 世德祠 20)만 남기고 모두 훼철毀撤(헐어서 걷어 버림)하였다. 도산서원은 훼철되지 않은 서원에 포함된다.

퇴계선생을 모시는 서원은 전국에 34곳이었으나 도산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훼철되었다가 그 후 복설과 신설이 되어 현재 11곳에서 향사를 모시고 있고, 복설을 추진 중인 2곳이 더 있다.(부록 1 참조)

도산서원陶山書院은 도산서당 뒤편에 1574년에 창건하였다

퇴계선생退溪先生(1501~1570, 諱 李滉, 諡 文純)이 57세(1557년) 때 서당의 터를 정하고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61세 때 완공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렀다. 그리고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1574년에 제자弟子들과 지역 선비들이 의견을 모아 서원을 창건하였다. 창건 후 여러 번의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만세萬世의 스승인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이어 오랜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사적지(제170호, 1969. 5. 28. 지정)로 보호하고 있다.

2019년 7월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가운데 한 곳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7) 萬東廟: 1703년(숙종 29)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神宗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을 제사지내기 위해 충북괴산 청천면 華陽里에 세운 사당. 1689년 宋時烈이 賜死되기 전 權尙夏에게 神宗과 毅宗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부탁했다. 1776년 사액되어 유생집합 장소로 폐단이 심하여 대원군 때 철폐되었으나 다시 복귀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다.

8) 華陽書院: 1695년(숙종 21) 宋時烈을 제향하기 위해 權尙夏 鄭澮 등 노론이 주도해 충북괴산 화양리에 설립했으며, 다음해 사액을 받았다. 노론집권기에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는 등 송시열을 제향한 서원 가운데 위세가 가장 큰 서원이었다. 화양서원은 권세가 막강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심했다. 횡포가 거듭되자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

서원 안팎에 설치한 문자文字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도산서원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도산서원은 지형지물과 경관, 건조물, 역사, 의례 등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건물에 걸려있는 현판懸板과 경내외의 표지석標識石과 비석碑石 그리고 암각서岩刻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판이나 주련柱聯과 비석, 암각서는 대부분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다. 한문을 읽기 어려운 현대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한문을 모르고 해석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 한문을 모른다고 해도 그림처럼 구도構圖와 색상色相 조형미造形美 등을 기준으로 감상한다면 흥미와 즐거움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현판과 금석문은 세 번 태어난다고 한다. 붓으로 쓸 때, 글씨를 판자나 돌에 새길 때, 그리고 새겨진 글씨를 볼 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쓰는 이와 새긴 이가 혼신을 쏟았지만 세 번째는 보는 이의 마음으로 감상해야 한다. 현판이나 비석 속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 예술의 세계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⁹⁾

현판은 널판에 글자만 새긴 것도 있고 테두리로 장식하여 뒤틀림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현판을 돋보이게도 하고 있다. 현판은 서예, 서각, 목공,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를 보낼 수 있다.

나무에 새긴 현판은 연륜年輪이 오래되면 변질되기 마련이다. 도산서원의 현판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서각전문가(李晶煥, 1947년생, 대구 거주)에게 의뢰하여 모두 모각模刻하여 걸었다. 옛 현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2016년 유네스코 아세아 태평양 기록유산 '한국의 편액'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서원 담 안에는 15동棟의 집과 담으로 연결하여 지붕이 얹혀진 17곳의 문이 있다. 집에는 고유한 이름을 지어 용도에 따라 당堂, 사祠, 재齋, 각閣, 실室, 청廳, 서당書堂, 정사精舍, 현軒, 요寮, 사舍, 서재書齋라고 하면서 현판을 걸었거나 걸지 않은 집도 있다. 문門은 진도문進道門과 유정문幽貞門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 없으며, 현판은 진도문에 만 걸려있다.

궁궐이나 서원, 사찰, 누정 등에는 고유한 이름 다음에 용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9) 김남인, 『名筆 역사와 해학의 글씨를 만나다』, 서해문집, 2011, 6쪽.

있어 그 집의 규모나 쓰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도산서원에는 당堂은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는 집으로서 서원에서 시행되는 모든 강학과 의례를 진행하는 공간이고, 사祠는 위패를 모신 집으로 경건하고 엄숙하며 조심스럽게 존모尊慕(존경하고 그리워 함)의 의례를 봉행하는 곳이고, 청廳은 사祠에서 봉행하는 의례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면서 제수를 관리하고 장만하는 곳이고, 재齋는 공부하고 수양하는 사람이 기거하는 집이고, 각閣은 중요한 유물이나 책판을 보관 전시하는 곳이고, 실室은 책을 보관하는 방이고, 서당書堂은 가르치는 곳이고, 정사精舍는 배우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현軒과 요寮는 서당과 정사에 있는 마루와 방이고, 사숙은 서원의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기거하는 유생의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고, 서재書齋는 책을 보관하면서 공부하는 곳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집에 현판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 용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집은 현판을 걸지 않았다. 즉 전사청典祀廳, 장판각藏板閣, 고직사庫直舍가 그렇다.

도산서원은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

진도문進道門을 기준으로 아래는 서당구역書堂區域이고, 위는 서원구역書院區域이다. 서당구역은 퇴계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조성하였고, 서원구역은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졌다. 역락서재亦樂書齋와 옥진각玉振閣은 따로 독립된 부속시설이다. 서당구역의 집들과 역락서재는 퇴계선생이 이름을 짓고 현판글씨도 쓰셨고, 서원구역과 옥진각은 퇴계선생이 창건에 관여하였던 역동서원易東書院¹⁰⁾의 건물 이름을 옮겨 온 곳도 있고, 후학들이 짓고 써서 건 곳도 있다.

퇴계선생이 조성造成하고 경영經營하셨던 건물이나 지형지물은 선생이 남긴 「도산잡영陶山雜詠」¹¹⁾에서 조성경위나 이름의 뜻 등을 알 수 있으나, 선생의 후학들이 건축하고

10) 역동서원: 1570년 退溪선생의 발의로 고려 말기 학자 禹倬(1263~134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원래 지금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오담에 창건하였으나, 1684년(숙종 10) 사액을 받은 후 1868(고종 5)년 훼손되었다가 1969년 경북 안동시 송천동에 복원되었다. 1991년 역동서원 소재지가 안동대학교 교지로 편입되면서 안동대학교에 기부되었다.

11) 「도산잡영」: 퇴계선생이 도산서당에서 거처하면서 직접 읊었던 漢詩 七言十八絶과 五言四十八絶을 모은 시집이다. 시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제자들이 연구하고 勉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당 내외의 여러 건물과 시설, 그 명칭의 유래, 자연경관에 대한 느낌과 그곳 생활을 담고 있어 도산서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선생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退溪先生文集卷之三』에 수록되어 있다.

경영하였던 서원은 영건과정營建過程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봉안문(퇴계선생 위패를 사당에 모시는 글), 축문(퇴계선생을 추모하는 글), 그리고 약간의 편지들이 있으며, 「도산지陶山誌」¹²⁾가 간행되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¹³⁾ 다만 1959년 11월 4일 상덕사尙德祠를 수리하면서 발견된 기록에 보면 1574(선조 7)년 4월 9일에 상량上樑(대들보를 올림)하였다고 하고 참여한 목수木手의 이름이 있으며, 1775년 9월에 단청丹靑과 참여한 화공畵工의 이름이 있었고 도산서원에 다른 상량문은 없다고 하였다.¹⁴⁾ 건물배치는 도산서당의 정신精神을 이은 점이 있고, 건물이름은 선생의 건축관建築觀을 이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추측推測하고 있다.¹⁵⁾ 즉 퇴계선생께서는 동쪽에 서당書堂, 서쪽에 정사精舍를 배치하여 위치位次(자리의 순서)를 다르게 설정하셨는데, 서원에서는 동쪽에 사당祠堂과 장판각藏版閣, 서쪽에 전사청典祀廳과 고직사庫直舍를 배치하였고, 서당의 동쪽에 방이 없으니 강당講堂 동쪽에도 방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건물 이름에는 선생이 창건을 주도하였던 역동서원易東書院의 상현사尙賢祠, 명교당明教堂, 입도문入道門을 도산서원에서는 상덕사尙德祠, 전교당典教堂, 진도문進道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도산서원 답사踏査는 퇴계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참 뜻이 있다¹⁶⁾고 한다.

그래서 서원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과 표지석, 비석, 암각서를 통하여 퇴계선생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서원 운영에 얽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탐방探訪하는 동선動線을 따라 가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2) 「도산지」는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http://peopel.aks.ac.kr>)에는 李守淵(1693~1748, 호 靑壁)의 저술로 소개되고, 『眞寶李氏上溪派譜 上』, 陶山書院, 1986, 12쪽·42쪽에 李守淵과 李世源(1721~1788, 號 洛浦)에게 각각 저술이 있다고 기록(12쪽, 42쪽)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종류 모두 전하지 않는다.

13)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글항아리, 45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丁淳睦 교수는 2가지로 解析하였다. 즉 “첫째는 所藏된 記錄(記, 案, 錄 등)이 書院史이므로 구태여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었고, 둘째 별도의 院誌를 마련하는 것은 서원 권위에 不敬스럽다는 儒林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丁淳睦, 「陶山書院沿革」, 『陶山書院實測調査報告書』, 安東郡·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91, 33쪽.

14) 도산서원고문서(한국국학진흥원 기탁), 「己亥廟宇重修時日記」, “十一月初四日 朝。-中略- 諸員探尋 廟宇上樑文有無. 則樑木有書云. 皇明萬曆二年甲戌四月初九日上樑. 木手金莫同羅億壽劉銀金林千鄭石年金命同. 又其傍斗盤子內有書云. 乾隆二十年乙亥九月念日丹靑. 書員僧自仁. 草菴浮石僧性運性眼. 覺華僧天鵬四人. 同力. 望日終. 陶山書院只此而已. 無他樑頌文.”

15) 이상해, 「퇴계의 서원 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李佑成 編, 『陶山書院』, 2001, 도서출판 한길사, 293~318쪽.

16)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창작과 비평사, 1997, 162쪽.



도·산·서·원·이·아·기

0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표지석

UNESCO 世界遺産 登載 標識石



160.0×80.0×25.0cm



2019.7.6.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유산 등재 선포 때 환호장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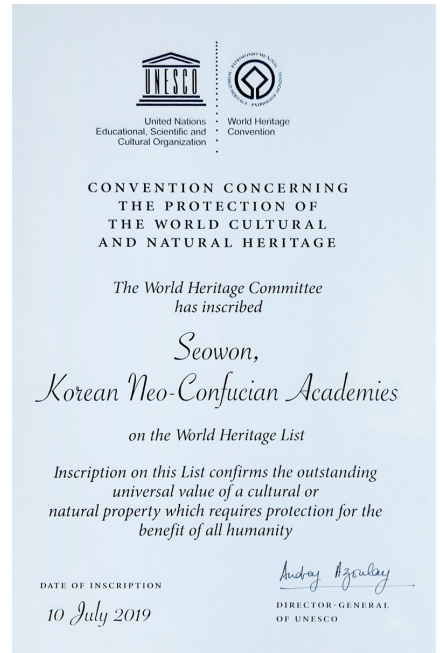
도산서원을 비롯한 9곳 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UNESCO에 세계유산世界遺産으로 등재되었다는 표지석標識石이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2019년 7월 6일 옛 소비에트연방에 속해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수도首都 ‘바쿠’의 컨벤션센터(Heydar Aliyev Center)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을 심의 의결하여 등재를 선언宣言하고, 7월 10일에 등재결정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에서 1,121번째이고 한국에서는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총장 명의의 등재인증서登載認證書를 한국의 문화재청장에게 보내왔다. 문화재청장은 이 인증서를 9월 5일 각 서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한국의 서원’ 보존계획과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안동시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유교박물관 특별전시실에 도산·병산 서원전書院展을 7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었고, 11월 12일에 퇴계선생께 아뢰고¹⁾ 기념식과 표지석 제막을 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2010년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도산서원 소장)

1) 李東耆, 「告由文」, 『陶山書院, ‘韓國의 書院’으로 UNESCO 世界遺産에 登載되다. -告由禮 및 記念式 資料-』, 陶山書院, 2019, 11, 6쪽. 維歲次 己亥年 十月戊戌朔 十六日癸丑(양력 11. 12.) 後學 安東市長 權寧世는 先師 退陶李先生께 삼가 아뢰나이다. 선생께서 性理學을 現實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未來를 밝히도록 發展시키셨고, 이를 實踐하는 道場으로 書院을 勸獎하여 定着토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書院 가운데 금년 6월초 4일(양 7. 6.)에 陶山書院을 포함한 아홉 곳을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의 第43次 世界遺産委員會에서 性理學 理想實現의 證據이자 傳播에 이바지한 ‘卓越한 普遍的 價值’를 認定하여 ‘世界의 遺産’으로 登載를 宣言하였습니다. 선생께서 念願하셨던 인간다운 삶의 實踐道場인 한국의 서원이 世界의 書院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學問은 世界人類의 幸福을 밝히는 등불이며, 한국의 서원은 世界人이 인간다운 삶을 실천하는 道場이 되었습니다. 이를 紀念하여 같은 달 28일(양 7. 30.) 安東市가 支援하여 韓國國學振興院에서 陶山과 屏山 兩 書院의 遺物展示會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認證書가 서원에 到着되었음과 아울러 인증서를 부착한 標識石을 주차장 入口에 設置하였습니다. 月川趙公께 함께 아뢰나이다.

유산으로 등재를 위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쳐서 현존하는 서원이 600여 곳²⁾이 있으나, 조선후기에 훼손廢撤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모습과 제향祭享을 잘 유지하며, 국가 사적지史蹟地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는 9곳의 서원을 선정하였다.³⁾

2011년 1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등재추진이 시작되었다. 도산서원에서는 2011년 4월 14일 구성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籌備委員會’부터 참여하여 그 동안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해체되어 문화재청으로 업무가 옮겨지기도 하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반려판정返戾判定을 받아 신청서를 철회撤回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문가 워크숍 11회, 국내외 학술회의 6회, 해외의 비슷한 유산 비교연구 해외출장 3회, 실사평가 등 각종 회의 39회(실사평가, 간담회, 대책회의, 신청서작성 등) 등에 참여하였고, 확인점검 9회, 국내외전문가의 현지실사現地實査 8회(사진, 자문, 예비, 본실사 포함) 등을 실시하며 추진하였다.⁴⁾

이러한 전 과정을 이끌며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한국의 서원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박사를 서원 역사상 최초로 도산서원에서 경자(2020)년 가을향사에 퇴계선생계 초헌관으로 술잔을 올리며 이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아뢰었다.

2) 2019. 9. 5.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2019~2024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는 649곳이라고 함.

3) 이배용·정만조·이상해, 「한국의 서원」,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한국의 서원 유산 1』, 한국서원연합회, 2014, 15~16쪽.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대상 서원 선정 현황

| 서원 | 소재지 | 주향 | 창건년 | 사액년 | 사적지 지정 |
|------|-------|---------------------|------|------|---------------|
| 소수서원 | 경북 영주 | 안 향(회헌, 1243~1306) | 1543 | 1550 | 1963. 1. 21. |
| 남계서원 | 경남 함양 | 정여창(일두, 1450~1504) | 1552 | 1566 | 2009. 5. 26. |
| 옥산서원 | 경북 경주 | 이언적(회재, 1491~1553) | 1573 | 1574 | 1967. 3. 8. |
| 도산서원 | 경북 안동 | 이 황(퇴계, 1501~1570) | 1574 | 1575 | 1969. 5. 28. |
| 필암서원 | 전남 장성 | 김인후(하서, 1510~1560) | 1590 | 1662 | 1975. 4. 23. |
| 도동서원 | 대구 달성 | 김굉필(한훤당, 1454~1504) | 1605 | 1607 | 2007. 10. 5. |
| 병산서원 | 경북 안동 | 류성룡(서애, 1542~1607) | 1613 | 1863 | 1978. 3. 31. |
| 무성서원 | 전북 정읍 | 최치원(고운, 857~?) | 1615 | 1696 | 1968. 12. 19. |
| 돈암서원 | 충남 논산 | 김장생(사계, 1548~1631) | 1632 | 1659 | 1993. 10. 18. |

4) 李東耆, 「經過報告」, 『陶山書院 '韓國의 書院'으로 UNESCO 世界遺産에 登載되다. -告由禮 및 記念式 資料-』, 陶山書院, 2019, 8~9쪽.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주주·배향配享으로 모셔진 선현 또는 서원이 퇴계선생과 관련이 없지 않다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은 154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창건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창건 6년 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선생께서 향사 때 의례절차를 정비하고 상용축문常用祝文을 제정하였고⁵⁾ 나라에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편액을 내려 주도록 청원⁶⁾하였으며 「서원십영書院十詠」이라는 시詩에서 ‘나라의 은혜 입어 국학이 되었네.’라고 축하하였고⁷⁾, 면학을 권장하는 시⁸⁾ 여러 편을 지어 유생들에게 읽도록 하였으며 그 중 한 편이 서원입구 경림정景濂亭에 시판으로 제작되어 걸려있다. 경림정景濂亭 현판도 퇴계선생이 쓰셨다고 한다.⁹⁾ 서원 운영이 부실 되어 감을 안타까워하며 당시 군수와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시정을 요구¹⁰⁾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향主享이신 회헌晦軒(安珣, 1243~1306, 諡文成)선생이 도입한 성리학性理學을 퇴계선생께서 집대성하여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함양 남계서원濞溪書院은 주향으로 모신 일두一蠹(鄭汝昌, 1450~1504, 諡文獻)선생을 『회시조사서回示詔使書』¹¹⁾에 퇴계선생께서 더 기록 하였고, 또 「서원십영書院十詠」에서 서원을 존송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¹²⁾ 이 시는 남계서원 입구 표지석 뒷면에 새겨져 있다. 남계서원에서는 원규院規를 퇴계선생께서 지은 「이산원규伊山院規」에 두 개

5) 영주시, 『소수박물관 학술총서 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특별기획전 최초사액서원 소수서원』, 2019, 126~127쪽.

6) 李滉, 「上沈方伯通源」, 『退溪先生文集 卷之九』.

7) 李滉, 「書院十詠 竹溪書院 豐基」, 『退溪先生文集卷之四』 “竹溪風月煥宮牆. 肇被恩光作國庠. 絃誦可能追白鹿. 明誠誰似導南康.”

8) 李滉, 「白雲洞書院. 示諸生. 己酉 赴?邑後」, 『退溪先生文集卷之一』 “小白南墟古順興. 竹溪寒瀉白雲層. 生材衛道功何遠. 立廟尊賢事匪曾. 景仰自多來俊碩. 藏修非爲慕騫騰. 古人不見心猶見. 月照方塘冷欲冰”. 李滉, 「四月二十二日. 將見諸生於白雲書院. 馬上卽事」, 『退溪先生續集卷之二』 “錦水寒添夜雨清. 朝雲新捲衆山青. 野棠滿路吹香霧. 角角時聞雄雉鳴”. 李滉, 「景濂亭 亭在白雲洞」, 『退溪先生文集別集卷之一』 “草有一般意. 溪含不盡聲. 遊人如未信. 蕭洒一虛亭”

9) 李翼, 「訪白雲洞記」, 『星湖先生全集卷之五十三』 “沿竹溪而東北. 行至洞中臨水得小亭. 卽所謂景濂也. 有楷草兩扁額. 楷是退溪老先生墨迹 而草乃黃孤山筆也”

10) 李滉,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 丙辰 郡守安瑞卽文成公之後」,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丁巳 郡守金慶言」, 『退溪先生文集卷之十二』.

11) 鄭錫胎,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4』, 退溪學研究院, 2006. 63쪽 “1567(宣祖 元). 7. 17. 明나라 隆慶帝(穆宗) 登極詔使(正使 許國, 副使 魏時亮)가 ‘朝鮮에 孔孟의 心學과 箕子의 洪範九疇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의 물음에 答辯한 글”이다. 이 글에 우리나라 유학자로 예조에서 김재(吉再), 김종직(金宗直), 김안국(金安國)을 올렸으나 퇴계선생이 추가로 우탁(禹倬), 정몽주(鄭夢周),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윤상(尹祥), 이언직(李彦迪), 서경덕(徐敬德)을 추가로 올렸다.

12) 李滉, 「書院十詠 藍溪書院 咸陽」, 『退溪先生文集卷之四』 “堂堂天嶺鄭公鄉. 百世風傳永慕芳. 廟院尊崇眞不?. 豈無豪傑應文王”



조향을 더하여 시행하고 있다.¹³⁾ 배향이신 동계桐溪(鄭蘊, 1569~1642, 諡 文簡)공은 퇴계선생 장남(李塈, 1523~1583)의 묘갈명墓碣銘도 지었다.¹⁴⁾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은 제향하는 회재晦齋(李彦迪, 1491~1553, 諡 文元)선생을 『회시조사서』에 퇴계선생께서 더 보태셨고, 회재선생 「행장行狀」을 퇴계선생께서 지어 ‘선생의 덕업과 행적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훌륭한 도학자로 존송하였다.¹⁵⁾ 원규 또한 퇴계선생의 「이산원규」 중 7개 조향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¹⁶⁾ 서원 옆 자계천변紫溪川邊 암석에는 퇴계선생 글씨 ‘세심대洗心臺’가 새겨져 있고, 또 회재선생 후손가後孫家 독락당獨樂堂에서 퇴계선생 유묵을 국가 보물로 지정¹⁷⁾받아 보존하고 있기도 하다.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은 주향으로 모신 한훤당寒暄堂(金宏弼, 1454~1504, 諡 文敬)선생을 퇴계선생께서 『회시조사서』에 더 보탬은 물론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사후에 포상한 뜻으로 미루어 보면 분명히 ‘근세 도학의 종주宗主’가 될 것¹⁸⁾이라고 하였고, 배향위로 모신 한강寒岡(鄭述, 1543~1620, 諡 文穆)공은 퇴계선생의 고제高弟(학문이 높은 제자)¹⁹⁾로서 가르침을 원규院規(서원의 학칙)에 반영하고 서원현판을 스승 글씨로 집자集字²⁰⁾하여 걸었다.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은 주향인 하서河西(金麟厚, 1510~1560, 諡 文正)선생이 성균관 유학시절에 퇴계선생과 헤어질 때 지은 시에 ‘선생은 영남의 빼어난 인물이고 이백李白(701~762, 중국 당나라 천재 시인)과 두보杜甫(712~770, 중국 당나라 詩聖)의 문장에 왕희지王羲之(307~365, 중국 東晉의 書聖)와 조맹부趙孟頫(1254~1322, 중국 원나라 서예가)의 필체筆體를 지니

13) 瀟溪書院, 「院規」, 『瀟溪書院誌』, 1935.

14) 鄭蘊, 「墓碣銘」, 『悅話 第16號(世德誌)』, 眞城李氏大宗會, 1995, 318~319쪽.

15) 李滉, 「晦齋李先生行狀」,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九』.

16)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玉山書院誌』, 1993, 嶺南大學校出版部, 36~37쪽.

17) 보물 제524-2호(2006. 7. 18. 지정), 보물 제526-2호(2006. 9. 1. 지정).

18) 李滉, 「答盧仁甫」, 『退溪先生文集卷之十二』 “金先生道學淵源. 固非後學所敢測者. 然以先朝追之意推之. 斷然以爲近世道學之宗也.”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54권』, 역사교육학회 2015, 189쪽.

19) 陶山書院, 『陶山及門諸賢錄』, 1913.

20) 鄭述, 「書道東書院額板下」, 『寒岡先生別集卷之二』, “李先生嘗拳拳致意於金先生書院之建. 惜乎其不及於先生之時. 以得備於十書院也. 文集中. 有書院十詠. 而只有九書院. 不備十數. 若在其時. 則親題額號. 何後焉. 諸書院額. 多先生所自寫. 今者書院重新. 而道東嘉命. 錫自九重. 宣額將下. 適又於先生書額之中. 得四大字摹刻. 送于書院. 先師舊筆. 聖主寵額. 將交映內外. 庶幾使學者知所宗範. 亦所以成李先生之遺志也. 寧不幸歟. 凡我入院之士. 盍相與觀瞻想慕. 深體道東之意. 勉勉不已. 思所以不墜也哉. 萬曆丁未秋七月日. 後學西原鄭述. 謹書”

셨다.'라고 존모하였다²¹⁾. 이 시는 2018년 7월 시중에 매물賣物로 나와 하서선생 친필진 위親筆眞僞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배향된 고암鼓巖(梁子澈, 1523~1594)공은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된 인물²²⁾이기도 하다.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주향인 사계沙溪(金長生, 1548~1631, 諡 文元)선생과 퇴계선생의 관계가 확인되는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그의 아버지 황강黃岡(金繼輝, 1526~1582)선생께서 경상감사 재직시절에 도산서원 창설을 도우셨고²³⁾, 배향된 동춘당同春堂(宋浚吉, 1606~1672, 諡 文正)공은 「환벽정環碧亭(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소재)중수기」에서 “우리 퇴도退陶 선생은 진실로 백세의 스승이므로 선생의 한 마디 말씀이나 한 글자도 학자들이 진귀하게 여겨 아끼고 보물로 소중히 간직하는데, 더구나 올바른 성정性情에서 나온 시詩이겠는가. 아버지께서는 바로 율곡栗谷선생의 문인으로 퇴도에 대한 존모尊慕를 전해 받았다.²⁴⁾고 하였고, 또 꿈속에서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꿈을 기록하다 記夢

임자(1672)년 1월 11일 밤 꿈에 퇴계 선생을 모시고 함께 자면서 간절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꿈 깬 뒤에도 남은 향기가 몸에 가득하므로 느낌이 있어 이 시를 짓는다.

壬子元月十一日夜夢. 侍退溪先生聯枕從容. 承誨款懇. 覺來. 猶覺餘芬襲體. 感而有作

| | |
|---------------------|------------------------|
| 평생 동안 퇴도 선생 흠양했더니 | 平生欽仰退陶翁 |
| 사후에도 정신이 감통하였네. | 沒世精神尙感通 |
| 오늘 밤 꿈속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 此夜夢中承誨語 |
| 깨어 보니 달빛만 창문에 가득하네. | 覺來山月滿窓櫺 ²⁵⁾ |

또 배향된 우암尤菴(宋時烈, 1607~1689, 諡 文正)공은 퇴계선생 친필 「주자서절요서문朱

21) 「河西年譜」, 『河西先生全集附錄卷之三』十二年癸巳 先生二十四歲 遊泮宮. 與退溪李先生講學. 時經己卯士禍. 士氣沮喪. 諱言道學. 而先生一見退溪. 深相契合. 源源講劇. 甚有麗澤之益. 未幾. 退溪還鄉. 先生以詩贈別. 有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之句. 「退溪年譜」, 『退溪先生年譜卷之一』二年癸未. 先生二十三歲 是歲. 先生始遊大學. 時經己卯之禍. 士習浮薄. 見先生學止有法. 人多笑之. 所與相從者. 惟金河西麟厚一人而已. 先生未幾還鄉. 河西以詩贈別. 有云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 ※'先生二十三歲'는 誤記인 듯함. 先生三十三歲가 맞음.

22) 陶山書院, 『陶山及門諸賢錄』, 1913.

23) 李野淳, 「司憲府持平鄒川孫公行狀」, 『廣瀨文集卷之十一』“仍請于方伯金黃岡繼輝. 創陶山祠. 傾俸助資”

24) 宋浚吉, 「新寧縣環碧亭重修記 辛亥」, 『同春堂先生文集卷之十六』“況我退陶先生. 誠百世之宗師. 其片言隻字. 學者猶且珍愛而寶藏之. 況言之精者. 出於性情之正者耶. 先君子即栗谷先生之門人. 尊慕退陶. 實有所受”

25) 宋浚吉, 「記夢」, 『同春堂先生文集卷之二十四』.



子書節要序文」을 읽고 ‘발문跋文’을 짓기도 하였다²⁶⁾. 특이한 것은 1940년에 배향된 신독재慎獨齋(金集, 1574~1656,諡 文敬)공의 묘소 인근에 금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도산서원에서 그 불허不許를 충청남도 지사에게 진정陳情한 사실도 있었다. 이 진정서가 국립민속박물관 종가전宗家展(2013.12.4.~2014.3.10.)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주향이신 고운孤雲(崔致遠, 857~?, 諡 文昌)선생 유촉지인 합천 가야산伽倻山, 마산 월영대月影臺, 봉화 청량산淸涼山을 퇴계선생이 찾아가며 추모하신 시²⁷⁾를 남겼고, 배향인 영천자靈川子(申潛, 1491~1554)선생의 「묵죽도墨竹圖」에 화제畵題 3편을 지으셨다²⁸⁾.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은 고제인 서애西厓(柳成龍, 1542~1607, 諡 文忠)선생을 주향으로 제향하고 있으며, 서애선생은 21세 때 퇴계선생 문하에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으며²⁹⁾ 은퇴 후에도 도산陶山을 생각하며 슬프고 처량하여 천고의 한이 되어 올려보고 내려봐도 흐느낌만 나네.」라고 술회述懷하였으며³⁰⁾, 스승의 「연보年譜」에 '발문跋文'을 지어 간행하기도 하였다³¹⁾.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선생을 주향으로 모신다. 선생의 강학처 뒷편이 서원으로 확

26) 宋時烈, 「書李文純公筆蹟後」, 『宋子大全卷一百四十七』 “偶因李君聖彌得見此帖於懷川之茅舍. 其溫厚安和之意. 藹然見於筆墨畦徑之外. 古人德性. 豈獨於言行事業而見之哉. 帖中又多晦菴夫子山中諸作. 時余迫於飢寒. 暫辭山樓. 而方切病鶴之思. 益有所感於心而識之云. 崇禎紀元之重光大淵獻孟春日. 恩津辱人不敢名”

27) 李滉, 「望伽倻山 癸巳」, 『退溪先生文集別集卷之一』 “伽倻山在古伽倻. 連峯疊嶂高嵯峨. 縹氣漫漫接紫霄. 疑是聖母凌蒼霞. 靈神異跡訪遺俗. 古記相傳莽眞訛. 山中聞有海印寺. 金堂玉室眞仙家. 崔仙去後一千載. 白雲寂寂留山阿. 古閣唯餘藏灑墨. 玄壇不復養芝砂. 至今猿鳥嘯青瑩. 石徑埋沒蒼苔多. 我欲南尋智異問至道. 歸來及見山桃花. 紅流洞裏青竹杖. 喚起崔仙從以萬素娥. 彈佩琴弄雲月. 一醉千日遊無何”

李滉, 「月影臺」, 『退溪先生文集卷之一』 “老樹奇巖碧海堦. 孤雲遊跡總成烟. 只今唯有高臺月. 留得精神向我傳”

李滉, 「蓮臺月夜」, 『退溪先生文集卷之三』 “坐看東嶺吐水輪. 萬壑金波潑眼新. 物象悅爲姑射白. 梵宮疑與廣寒隣. 因思周老鴻濛語. 庶見崔仙鶴背身. 上界真人司下土. 豈無雲漢憫斯民. 時久早「退溪先生文集卷之三/詩」.

28) 李滉, 「題靈川子墨竹」, 『退溪先生文集卷之二』 “舊竹飄蕭新竹長. 林間奇石狀奇章. 不知妙墨傳湘韻. 唯覺風霜滿一堂”
李滉, 「題靈川畫竹. 八絕. 申公潛自號靈川. 善梅竹」, 『退溪先生文集外集卷之一』 “溪藤一幅賤. 月庭萬尺影. 已超半全形. 寧論長短境. 竿摧枝亦披. 烈氣凜猶在. 森森抽四三. 亦有凌雲態. 苔蘚陰崖古. 風霜苦節新. 寒齋資目擊. 颯爽動精神. 飄蕭帶暮烟. 淅瀝鳴寒雨. 更覺攪騷腸. 淒風動湘浦. 舊竹短而勁. 饕風猶力戰. 新竹挺未成. 何以當撼颯. 嘗笑老杜錯. 竹多安有惡. 滿地盡風霜. 看看久愈樂. 自有堅貞節. 何妨偃蹇身. 子陵逢漢帝. 橫足動星辰. 綠竹何太瘦. 亭亭歲寒姿. 捐生餐雪日. 讓國食薇時”

李滉, 「題靈川子墨竹二絕. 與石川. 松岡. 分題同賦」, 『退溪先生文集別集卷之一』 “舞月危梢隱兩旗. 和烟?露有孫枝. 只今丹鳳無消息. 猶保堅貞歲晏知”

29) 「西厓先生年譜」, 『西厓先生年譜卷之一』 “四十一年壬戌. 先生二十一歲 九月. 謁退陶李先生于陶山. 留數月. 受近思錄等書. 自是. 潛心性理之學. 講明踐履. 必以聖賢爲指歸. 李先生大加稱賞”

30) 柳成龍, 「陶山」, 『西厓先生文集卷之一』 “忽忽流年瀉. 悠悠舊迹虛. 人文今寂寞. 天意竟何如. 落日江波動. 荒原古木疎. 悲涼千古恨. 俛仰祇成歎”

31) 柳成龍, 「退溪先生年譜跋 庚子」, 『西厓先生文集卷之十八』.

장되었다. 선생께서 지으신 「이산원규」³²⁾가 강당에 걸려있다. 강학하시던 곳과 주변경물은 선생의 삶과 체취가 배어있고 「도산잡영陶山雜詠」³³⁾이라는 시집詩集으로도 엮여있다. 건축물과 경물에 설치된 현판과 표지석 등의 글들은 선생의 가르침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향 또는 배향된 선현을 존모하거나 학문적 또는 사승師承(스승과 제자로 연결)관계도 있지만 서원 창설과 운영에도 관련이 있었다. 퇴계선생이 역시 「서원십영書院十詠」 ‘총론’에서 ‘다행히 여러 서원이 있어 선비를 이끌어 가리라’라고 기대하며³⁴⁾ 우리나라에서 서원으로 하여금 도덕적 이상사회理想社會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다. 이제 그 소망이 세계인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유산 등재는 1950년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고대 유적보존을 위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은 1950년대 이집트에서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 하이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이집트 아스완 지역과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유적들이 물에 잠길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년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네스코는 곧바로 세계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전개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드디어 1972년 1월 16일 유네스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여 이 협약에 따라 등재하여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무형유산과 기록유산도 별도의 보호협약에 의하여 등재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세계유산이 2019년 7월 현재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121점 가운데 문화유산 869점, 자연유산 213점, 복합유산 39점이다. 무형유산은 전 세계 117개국 429건(2018년 등재기준)에 이르고, 기록유산은 124개국 및 8개 기구 432건(2017년 등재기준)에 이른다.

한국에는 세계유산이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 불국사(1995년),

32) 李滉, 「伊山院規」,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一』.

33) 李滉, 「陶山雜詠 并記」, 『退溪先生文集卷之三』.

34) 李滉, 「書院十詠 總論諸院」, 『退溪先生文集卷之四』 “白首窮經道未聞. 幸深諸院倡斯文. 如何科目波瀾海. 使我閒愁劇似雲”

창덕궁(1997년), 수원화성(1997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 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으로 총 14점이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공동등재),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년),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2018년)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유산을 등재했다.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조선왕실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년)로 총 16건이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가장 많다.³⁵⁾

특히 안동에는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2010년)’,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2018년)’,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2019년)’이 있고, 기록유산으로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전하는 현판이 ‘한국의 편액(2016년)’과 ‘만인의 청원, 만인소(2018년)’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인류무형유산으로 ‘하회별신굿’을 등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어느 도시보다 많은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별칭別稱을 뒷받침하고 있다.

35) <http://heritage.unesco.or.kr>(유네스코와 유산)의 유산현황을 옮긴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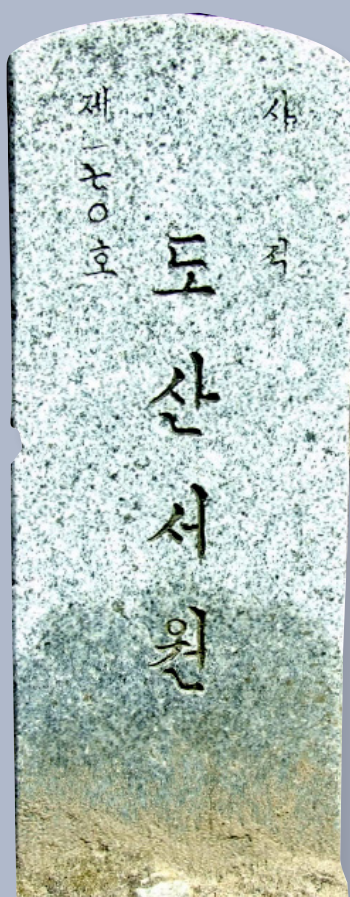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03

국가지정 사적 표지석

國家指定 史蹟 標識石



77.0×30.0×14.5cm



2010.6.17. 도산서원 주변 항공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도산서원은 1969년 5월 28일에 국가문화재 사적史蹟 제170호로 지정되었다

표지석標識石은 주차장 동편 안내판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有形, 무형無形, 기념물記念物,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로 나뉜다.¹⁾ 유형문화재는 중요한 정도에 따라 국보國寶와 보물寶物로 구분하고, 무형문화재는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하고, 기념물은 사적지史蹟地, 명승지名勝地,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나뉘고, 민속문화재는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로 구분하여 지정 보호하고 있다.²⁾ 또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서원 전체가 기념물로서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상덕사尙德祠와 삼문三門(제211호. 1963.1.21.), 전교당典教堂(제210호, 1963.1.21.), 도산서당(제2105호. 2020.12.28.), 농운정사(제2106호, 2020.12.28.)가 유형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시사단試士壇이 시도유형문화재(제33호, 1973.8.31.)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도산서원 외에도 퇴계선생과 관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 즉 보물이 13건(건물 4, 유물 7, 문집 1, 문집목판 1), 명승 2건, 지방문화재 8건이 있다. 또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도립공원 1곳과 UNESCO에서 세계적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보호되는 유산도 2건(문화유산 1, 기록유산 1)이 있다. (부록 2 참조)

도산서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1939년 11월 18일 처음 보물로 지정하였다가³⁾ 다시 1940년 7월 31일에 전교당典教堂과 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尙德祠附正門及四周土塼을 국보로 지정⁴⁾하고, 그 표지석은 1942년 2월 24일(양력 3. 21.)에 신문神門 밖과 대문에 세웠다.⁵⁾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는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

1) 법률 제16596호 일부개정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2조

2) 법률 제16596호 일부개정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23~26조

3) 『東亞日報』 1939.11.18. 字記事. NAVER 뉴스라이브러리.

4) 『朝鮮日報』 1940. 8. 1. 字記事. NAVER 뉴스라이브러리.

5) 『藏板閣修理時日記』신사, 2. 24. 기사,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自郡廳輸石牌二介來. 立於神門外及堂前求立之外門'

포되었다. 이듬해 1월 21일에 상덕사와 내삼문 그리고 전교당이 보물(제210호, 제211호)로 지정되고 1969년에 서원전체가 사적지(제170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도산서당(제2015호)과 농운정사(제2106호)가 2020년에 지정되었다.

도산서원에는 건물과 같이 외형적인 것 외에도 중요한 전적들을 많이 소장되고 있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서원의 책[典籍]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⁶⁾는 원규院規에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책들을 문화재위원회로 반출搬出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난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원전적 모두가 2003년 4월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고 부터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여러 차례 문화재지정 신청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퇴계선생문집 목판(1600년판)은 2016년 2월 22일에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계명대학교啓明大學校에 소장되어있는 문집文集을 실사實査하는 과정에서 목판도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지정되었다.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전적에는 조선시대 내사본內賜本(임금이 하사한 책)과 퇴계선생 친필本親筆本 또는 수택본手澤本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전적典籍과 고문서古文書가 사회사社會史와 서원문화 연구에 중요하므로 문화재로 지정이 시급하다.

6) 書不得出門



도·산·서·원·이·야·기

04

하마비

下馬碑



도산서원 입구 하마비

105.0×23.5×23.5cm. 66.0×30.0×13.5cm

‘하마비’와 ‘차량진입금지’ 표지석이 함께 서 있는 곳은 이곳뿐일 것이다

주차장에서 매표소 맞은편 도산서원 진입로 입구에 도산서원을 안내하는 안내판과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下馬碑’라고 새긴 표석과 자동차출입을 제한한다는 ‘차량진입금지’ 표석이 함께 서 있다. 아마도 하마비와 차량진입금지의 표석이 함께 서있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뿐일 것이다.

‘하마비’는 말에서 내리라는 옛날 표식이다. 오늘날에는 차에서 내리라는 말이다. ‘차량진입금지’는 오늘날의 표지로 차량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하마비’는 조선시대 성현聖賢이 태어나신 곳이나 모신 사당祠堂과 묘소 앞을 지나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라는 표지이고, ‘차량진입금지’는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좁아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서원 정문 앞 마당도 넓지 않아 차량을 세워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현을 향한 경건敬虔한 마음과 타인을 위하여 배려配慮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이다.

실제로 1637(인조15)년 6월 23일에 서원 앞(谷口巖 앞길)을 말을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 안동판관安東判官이 서원의 노복奴僕을 불러서 제지하지 않았음을 나무랐다고 한다.¹⁾

이러함에도 지금도 이를 무시하고 빗장을 열고 차량을 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특수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퇴계선생 생가와 묘소 가는 입구에도 세워져 있다

도산면陶山面 관내에는 하마비가 본래는 온혜리 노송정에서 북쪽으로 약1.5km 정도 지점인 운곡리雲谷里 입구에 있었고, 토계리土溪里 옛 안동경찰서 도산지서 터 뒤에는 ‘퇴도선생묘하동문退陶先生墓下洞門’이라고 새겨진 하마비가 있으며, 또 관리사무소 남쪽 낙동강변 석간대石礮臺 앞에[현 선착장] 있었다. 운곡리 입구의 하마비는 최근에 용수사龍壽寺에서 뽑아가서 보관하면서 새로 제작하여 그 자리에 설치하였다. 석간대 앞의 것은 선착장을 만들면서 없어졌다. 운곡리雲谷里 입구에는 옛날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 서울에서 도산서원에 오려면‘죽령-두월-매정-운곡-온혜-서원’의 길을 이용하였으며 서울

1) 金玲(황동권 외 역), 『국역 계암일록 6』, 한국국학진흥원, 2014, 67쪽.

서 내려와 도산서원을 오려면 노송정老松亭 앞을 지나야 하니 퇴계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으로서 말에서 내리라는 표지라고 구전口傳되고 있다. 토계리 옛 도산지서 터 뒤에는 퇴계선생 묘소墓所와 가묘家廟(신주를 모신 사당)를 모신 종택宗宅이 멀지 않으니 말에서 내리라는 것이고, 옛 석간대 앞의 하마비는 퇴계선생의 위패位牌(앉아계신 자리의 표시)를 모신 도산서원 앞을 지나가게 되니 말에서 내리라는 것이다. 하마비는 안동 태사묘 앞을 비롯하여 서울의 성균관, 종묘, 전국의 향교, 서원, 세덕사 등 많은 곳에 세워져 있다. 필자가 2018년 11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된 퇴계학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답사한 하노이 문묘文廟(공자 등 성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 앞에도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마비는 태종12년에 처음 세워졌다

하마비의 유래는 1412(태종12)년 예조禮曹에서 ‘대소신민大小臣民(모든 신하와 백성)으로 종묘宗廟(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와 궐문闕門(대궐 문)을 지나는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여기는 자는 헌사憲司(사헌부)로 하여금 규찰糾察(질서를 바



서울 종묘 하마비

로잡아 통제함)해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건의하였다.²⁾ 태종은 1413년 2월에 예조에 나무로 만든 표목標木을 세우게 하였고, 표목 전면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대소 관리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고 쓰여 있었다. 2백여년 지난 1663(현종4)년 10월에 돌에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라는 글을 새겨 세웠다. 누구나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는 의미이다. 종묘의 하마비는 경운

궁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하마비는 높이 132cm, 너비 58cm, 두께 20cm이다. 태종실록에는 신분에 따라 말에서 내리는 거리가 나와 있다. 1품 이하는

2) 『태종실록 24권』, 태종12년 11월 5일 기사 “其一, 『曲禮』曰: 國君下齋牛式宗廟, 大夫士下公門式路馬. 先儒釋之曰: 當云下宗廟式齋牛. 『小學』書曰: 下公門式路馬, 所以廣敬也. 乞依古制, 大小臣民過宗廟及闕門者, 皆下馬, 以爲恒式, 違者, 憲司糾理.”

10보步 거리에서, 3품 이하는 20보 거리에서,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말을 내려야 한다.³⁾ 1품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등이다. 고위관료는 5~7m, 중간관리는 10~15m, 하급관리는 20m 앞에서 예의를 차려야 했다. 하마비가 없어도 종묘, 궁궐, 문묘文廟(성균관과 향교에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는 말을 타고 입장할 수 없었다.



베트남 하노이 국자감 앞 하마비
(2018.11.19. 안병걸 교수 촬영)

3) 『태종실록 25권』, 태종13년 1월 21일 기사 “立標木于宗廟及闕門洞口. 禮曹啓: 闕門洞口, 宜倣華制立標木, 題其面曰大小官吏過此者, 皆下馬, 入此者, 不得由中道行. 至闕門外, 一品以下距十步, 三品以下距二十步, 七品以下距三十步下馬. 宗廟洞口, 亦立標題其面曰大小官吏過此者, 皆下馬. 從之.”



도·산·서·원·이·아·기

05

추로지향비

鄒魯之鄉碑



기단 84×185×95.5cm.

대석 25.×151×59cm.

비석 59×121×30.5cm

앞

庚申十二月
八日敬詣
陶山書院拜
退溪先生講
堂展仰遺規
益覺欽遲刻
石爲記
曲阜孔德成



뒤

이 전서篆書 추로지향과 가는 해서楷書는 공자 77대종손 공덕성박사가 도산서원 원장 재임시에 쓴 것이다. 예로부터 예안과 안동을 추로지향이 라 일컫은 것은 멀리 중국의 공자와 맹자가 살고 있던 노魯와 추鄒 두 나라에 비한 것이며 이 말은 성인이 살고 있던 고장이란 뜻이다. 해서의 국역은 다음과 같다. “경신년 12월 8일 삼가 도산서원에 나아가 퇴계선생 신위에 배알하고 강당에 올라 끼치신 원규를 읽고 흠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여 이를 돌에 새겨 기록하다. 곡부 공덕성은 쓰다.”

眞城 李家源 謹并書

1981년 11월 25일

陶山書院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별칭別稱을 이 비석에서 착안하였다’

매표소 앞 하마비에서 약 100m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는 말은 퇴계선생의 유업遺業(남기신 업적)을 기리는 뜻으로 중국의 공자孔子가 살았던 노魯나라와 맹자孟子가 살았던 추鄒나라에 비유한 것이다. 1517(중종12)년 12월 28일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고 한 기사가 『중종실록』에 처음 보인다.¹⁾ 그 후 영남지방을 추로지향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특히 정조²⁾는 영남 일대가 평소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위사람을 친애하고 예를 숭상하고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예안禮安에는 수령의 선정비善政碑(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기념비석)가 없다고 들었다. 나쁜 일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거니와 잘한 일 또한 입을 열어 칭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뜻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그 풍속이 어찌 순후淳厚(순박하고 두터움)하지 않은가³⁾라고 하였다.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부르는 것도 이 비석과 관계가 있다. 김휘동金輝東(2002.7.~2010.6.재임) 전 안동시장이 바로 이 비석 앞에서 착안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⁴⁾

공자의 77대 연성공 공덕성박사 글씨를 새겼다

이 빗돌 글씨는 공자의 77대 연성공衍聖公 공덕성孔德成박사(1920~2008)가 1980년 12월 8일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상덕사尙德祠에 알묘하고, 그 이튿 날 당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이던 춘곡春谷(李東俊, 1915~1988)과 함께 대전 유성온천儒城溫泉에서 쉬면서 전날의 소감을 쓴 글씨이다.⁵⁾ 큰 글씨는 전서篆書, 작은 글씨는 해서楷書이다.

한자漢字의 글씨모양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 즉 전서篆書·예서隸書·초서草書·해서楷

1) 『中宗實錄 31卷』, 中宗12(1517)年 12月 28日 1번째 기사.

2) 正祖: 1752~1800, 조선 제22대 왕, 재위 1777~1800년, 이름은 祿, 자는 亨運, 호는 弘齋, 영조의 손자이고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 후 규장각을 설치하고 신진 학자들을 등용하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해나갔지만 갑작스런 죽음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시호는 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고, 능호는 健陵이다.

3) 『日省錄』, 正祖13(1789)年 6月26日 記事 “嶠南一方素稱鄒魯以其親上事長尙禮重義也曾聞禮安無守令善政碑惡因無論善亦不欲開口稱道其意豈不休美其俗豈不淳”

4) 경북일보. 2011. 6. 17.자

5) 李章佑, 「春谷先生과 孔德成 교수와 함께」,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設立25周年紀念-初代理事長春谷李東俊先生追念集-』,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2003. 129~130쪽

書·행서行書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 등 옛 글자를 정비하고 글자의 모양을 정리하여 통일한 것이 전서篆書이다. 전서를 사무용으로 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예서隸書이고, 이를 빨리 쓰기 위하여 초서草書가 생겼으며, 초서를 반듯하게 쓴 것이 해서楷書이고 초서와 해서의 중간 정도 흘려 쓴 것이 행서行書이다.

빋돌은 콘크리트로 쌓아 화강암 석판을 붙인 기단基壇 위에 아자문양亞字文樣을 도드라지게 새긴 대석臺石을 설치하고 그 위에 올렸다.

공덕성 박사는 태어나 100일만에 연성공衍聖公으로 봉해졌다

공덕성 박사는 공자의 혈통을 바로 이어받은 후손 가운데 중국 산둥성 곡부의 공부孔府를 떠난 분이다. 당시 중국 국민당國民黨 정부를 이끌던 장개석蔣介石(1887~1975)⁶⁾이 1949년 대륙을 떠나 대만臺灣(Taiwan)으로 정부를 옮길 때 많은 황금과 문화재와 국지중보國之重寶(나라의 중요한 보물)라고 하여 성현聖賢[孔子·孟子 等]의 직계혈손도 함께 갔다. 이 때 공덕성 박사도 포함되었다.

공덕성 박사는 1920년 곡부의 공부孔府에서 어머니 왕씨에게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당시의 대총통이던 서세창徐世昌(1857~1936, 중화민국 초대총통)으로부터 연성공衍聖公으로 봉해졌다.

‘연성’은 공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고귀함을 뜻한다. 기원전 195년 천하를 통일한 유방劉邦(BC247~BC195)이 한고조漢高祖12년(BC195)에 공자의 9세손 공등孔騰(孔子 9世孫)을 봉사군奉祀君으로 봉한 후 공자의 혈통을 바로 이어받은 후손은 군君에서 후侯로 승격되었다. 당唐 현종 때 35세손부터 문선공文宣公으로 봉하였고, 송宋 인종 때(1055년)부터 46세손을 연성공으로 봉했다가 봉성공奉聖公으로 바꾸지만 다시(1104년) 연성공으로 고쳐서 800년간 지속되었다. 1935년 1월 18일 남경정부南京政府⁷⁾는 연성공을 ‘대성지성선사봉사관大成至聖先師奉祀官’이라는 관직으로 변경시켜 특임관特任官의 지위를 부여했

6) 장개석[1887~1975]: 중국 정치가. 만주사변 후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선 내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는 방침을 세워 군벌을 이용, 오로지 국내통일을 추진하였다. ‘자유중국’ ‘대륙반공’을 제창하며 중화민국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서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7) 南京政府: 1927년 4월 蔣介石에 의한 反共 쿠데타 직후에 좌파의 武漢政府에 대항하여 우파의 蔣介石이 수립하였으며, 9월에 武漢政府를 흡수하였다. 또한 32년의 제1차 上海사건 때는 일시 洛陽으로 옮겼고, 37 40년의 중일전쟁 때는 漢口와 重慶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중일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南京으로 돌아왔으나, 국민군 공산군의 내전에 패하여 타이완으로 밀려난 후로는 南京政府의 이름은 자연히 소멸되었다.

다. 그리고 국공내전國共內戰때 장개석이 대만으로 데리고 가서 고시원장考試院長과 총통 부자정總統府資政[총통자문]을 역임하였고 대만대학 교수로서 학문적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⁸⁾ 2008년 10월 28일 향년 89세로 대만 대북시에서 별세하였다. 이때 퇴계선생 16대 종손의 제문을 가지고 종손 숙부 이동한李東翰(1934~2014)박사가 가서 조의弔儀를 하였다.

무자년 11월 12일 한국 문순공 이퇴계 십육대주손 근필은 감히 대성지성문선왕 77대 연성공의 영좌 앞에 밝게 아칩니다.

오호 애재라! 공께서는 이 세상에 88년을 사심에 강물에 근원이 있고 언덕에 산맥이 있듯 백성에게 만이가 되시고 유림에게 모범이 되시어 온 세상이 우러러 공경하기를 상서로운 봉황과 기린처럼 하였습니다. 지금 공께서 서거하심에 유림은 퇴락하고 선비들은 쓸쓸하여 마치 강물이 근원을 잃은 듯하고 언덕과 산맥이 나뉘는 듯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퇴계학을 다시 일으킬 때 공께서는 멀리서 한국 도산서원으로 날아오셔서 원장을 담당하는 노고를 사양하지 않으셨고, 행복하게도 공께서 옥같은 글을 써주셔서 「추로지향」은 도산서원에 세우고 「퇴계학연구원」 현판은 연구원 건물에 걸고 「박문약례」 족자는 박약회 마루에 걸었습니다. 때는 천하가 성인의 가르침을 애타게 바람에 충심으로 헤아리고 꾀하시어 공께서 큰 업적을 이루리라 믿었는데 하늘이 공을 데리고 가버려 갑자기 별이 떨어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유림은 넋을 잃고 한없이 통곡하였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아득하여 모범을 쫓아갈 수 없어 한 잔의 술로 영결하려니 오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호 통재라! 오호 통재라!

한국 문순공 이퇴계 16대주손 근필은 울며 고합니다. 동한이 대독하오며 퇴계학연구원 간사장 이윤희와 박약회 사무국장 이육원을 동반하였습니다.⁹⁾

「2015. 4. 7. 權甲鉉 譯」

그리고 공덕성 박사의 손자孫子인 공자 79대 연성공 공수장孔垂長(당시 37세) 내외도 2012년 3월 7일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춘계향사 때 상덕사에 알묘 하고 종택을 방문하

8) 공덕성 박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shanghaicrab>(글 黃驚濤)」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9) 李東翰, 「大成至聖文宣王七十七代衍聖公靈座之前」, 2008 維歲次戊子年十一月壬寅朔十二日丙辰, 韓國文純公李退溪十六代胄孫根必, 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七十七代衍聖公靈座之前. 嗚呼哀哉. 公之生於世, 八十有八年. 江河有源, 丘原有龍, 民有宗胄, 儒有典範. 舉世欽仰, 瑞鳳祥麟. 今公之逝也, 儒垣頽落, 土立孑子, 如江河失源, 丘龍支裂. 昔吾等復興退溪學時, 公自遠飛來韓國陶山書院, 不辭擔負院長之勞. 幸有公之玉筆, 鄒魯之鄉碑, 立於陶山書院, 退溪學研究院之額, 懸於院舍, 博文約禮之簇, 掛於博約會堂. 時天下, 懇求聖教, 衷心度謨, 仰公有爲, 天不慙遺, 遽報星沉, 儒林喪魄, 慟哭靡定. 天涯茫茫, 典型莫追, 一盃爲訣, 五內如裂. 嗚呼慟哉, 嗚呼慟哉. 韓國文純公李退溪十六代胄孫 根必 泣告 東翰代讀 陪 退溪學研究院幹事長 李允熙 博約會事務局長 李毓源.

였고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특별강연도 하였다.

공자의 후손과 퇴계선생 후손의 직접적 교류는 1920년부터였다

당시 경남 산청에 설립한 배산서당培山書堂에 공자孔子의 영정影幀을 모시기 위하여 퇴계선생 13대 종손인 하정霞汀(李忠鎬, 1872~1951)공께서 편지를 공자의 77대 연성공衍聖公(孔德成, 1920~2008)에게 보내면서 시작하였다.¹⁰⁾ 이후 연성공이 한국을 방문하여 퇴계학연구원, 박약회, 퇴계선생 종택, 도산서원 등을 세 차례 방문을 하였으며 또 2001년 10월 5일 안동 낙동강변에서 열린 세계유교문화축제에 연성공의 누이인 공덕무여사孔德懋女史(당시 85세)와 퇴계선생 16대 종손 이근필李根必(당시 70세)님이 함께 성화에 점화를 하였으며, 퇴계선생 15대 종손 서거 때(2009. 12. 23.)는 조문사절로 대만에서 공묘孔廟 관계자를 파견하였고, 학술회의 등은 수차례 교류가 있었다. 퇴계선생 후손도 곡부공부孔府와 대만의 공묘孔廟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의를 다졌고, 공덕성박사의 서거(2008. 11. 4.)때 애도하는 조문단을 같은 달 28일에 파견하였다. 앞으로도 후손들의 우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10) 李毓源 編, 『孔李兩家交驩百年史』, 2014, 495~498쪽, 한국일보 2010. 10. 5. 기사.



도·산·서·원·이·야·기

06

천광운영대

天光雲影臺



66.0×30.0×13.5cm



퇴계선생의 유식공간遊息空間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시던 곳이다

안동댐이 축조되기 전에 낙동강변 도로에서 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곡구谷口라고 하였다. 곡구의 동쪽에 천연대天淵臺 서쪽에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일명 운영대 혹은 천운대라고도 하였음)가 있어서 서원입구의 기둥 같았다. 이 천광운영대는 퇴계선생의 유식공간遊息空間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하여 1563(癸亥)년 3월에 쌓았다.¹⁾

안동댐의 축조(1975년)로 곡구가 수몰이 되어 석축을 쌓고 흙을 채워 없애지면서 계곡溪谷이 넓은 마당으로 변하고 서쪽 산기슭을 잘라서 진입로를 새로 닦았다. 이때 천광운영대도 5m정도 높게 석축을 쌓아 마당과 평면을 이루게 하고 낭떠러지 쪽에 목책을 두르고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천광운영대는 퇴계선생께서 주자朱子の ‘관서유감觀書有感(책을 읽으며 느낌)’이라는 시에서 이름을 지으셨다.

책을 보며 느낌이 있어

觀書有感

조그만 연못이 거울처럼 열리니

半畝方塘一鑑開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노니네.

天光雲影共徘徊

문건대 어찌하여 이리 맑은고

問渠那得清如許

근원에서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네.

爲有源頭活水來

어젯밤 강변에 봄비 내려서

昨夜江邊春水生

크나큰 전함도 깃털처럼 떠오르네.

鱗鱗巨艦一毛輕

이전에 힘들여 옮기려 애썼는데

向來枉費推移力

오늘은 강 가운데 저절로 가네.

此日中流自在行

앞의 시는 공부로 닦은 맑은 마음을 읊으셨고, 뒤의 시는 내용이 어려운 책이 어느 순간에 꿰뚫어 보일 때의 쾌감이 쌓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느낌을 읊었다. 결국 난관을 잘 참고 이겨내면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이다. 일을 피함은 사람이고, 일을 이룸은 하늘이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들 어찌 자연의 힘에 비하겠는가? 어려운 글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는 가르침이다.

1)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 卷之三 記』 “天光雲影臺. 癸亥三月所築也. 在天淵臺西麓上. 與天淵臺齊等. 一名天雲臺”

앞의 시에 대하여 제자 간재(李德弘, 1541~1596)공이 선생께 질문을 하니 ‘반 이랑 네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 열리니(半畝方塘一鑒開)’라는 것은 마음의 전체가 맑고 허명(虛明)한 기상을 말하였고,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天光雲影共徘徊)’라는 것은 마음의 큰 작용이 사물에 흠어진 기상을 말하고, ‘묻노니 어찌서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問渠那得清如許)’라는 것은 그 체(體)와 용(用)을 전체적으로 말하였고, ‘근원에서 활수가 흘러오기 때문이네(爲有源頭活水來)’라는 것은 천리의 본연(本然)을 밝힌 것이라 하고 썼다.²⁾

이 시에서 인용하여 이름을 지은 강릉 선교장(船橋莊) 입구의 활래정(活來亭)과 같이 전국에 누대와 정자 혹은 지명이 많이 있다. 모두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퇴계선생은 ‘천광운영대’에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셨다

퇴계선생도 『도산잡영』이라는 시집(詩集)에 남긴 ‘천광운영대’라는 제목의 시에서 주자(朱子)가 공부를 통하여 맑은 마음을 지니고 어려운 글에서 진리를 밝히려는 것과 같이 다짐을 하며 이 대(臺)에 오르는 제자들에게도 공부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다.

천광운영대

거울 같은 활수에 하늘 빛 구름 그림자 비치는데

관서유감 깊은 깨우침 방당에 있네.

나도 지금 맑은 못가에서 뜻을 얻었으니

주자께서 당시에 길이 감탄하던 것과 흡사하구나.

天光雲影臺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

운영대 위로 새 길을 열어야 함을 선생께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곡구(谷口)가 안동댐으로 수몰(水沒)이 되니 서원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져 지금의 주차장에서 천광운영대 위쪽 산허리를 잘라서 길을 만들었다. 이때 퇴계선생께 아뢰된 고유

2) 李德弘(장재호 역), 「계산기선록 상」, 『간재집 1』, 한국국학진흥원, 2018, 448쪽.

문이다.

을유년 정월 십오일[양1975.2.25.]에 유학 김기수 등은 감히 아뢰옵니다.

부자께서 도산의 한 구역을 얻으셔서 천연과 운영의 두 대로 이름을 지으셔서 머무르고 보시며 무궁토록 하신 뜻이 어찌 대수롭게 하셨겠습니까? 뒤에 갓을 쓰고 복장을 갖춘 선비로서 누구 인들 당시에 남기신 아름다운 자취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도 사랑하고 그리워하지 않은 이 가 없이 보호하고 지킨 419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난리도 겪었으나 아직까지 나무를 벤다든가 옮긴다는 근심이 없었는데 뜻 밖에도 정부로부터 나라의 이익과 백성에게 넉넉 함을 만들기 위하여 서원 앞 강 하류를 막게 되니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 푸른 물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서원으로 들어가는 길마저도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 지금 새 길을 운영대 위로 열어야 하므로 하늘이 만든 모양을 깎아내야 하는 것을 막지 못하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뭉개어 없애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짐을 헤아릴 길이 없어서 대에 올라서 근심스럽게 배회하고 방황할 따름이오니 바라옵건대 사당에 계시는 부자훈령께서도 어찌 이 일을 즐겁게 여기시겠습니까? 감히 그 사유를 아뢰옵니다.³⁾

「國譯：南冕周」

선생께서 천광운영대를 조성하신 뒤에 400여 년이 넘도록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선생의 뜻을 받들어 아끼고 지켜 왔었다. 그러나 국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정부에서 하류를 막아 전기를 얻고 홍수와 가뭄을 이겨보자고 하니 곡구谷口에 물이 차게 되고 서원을 출입하는 길이 없어지게 되어 천광운영대 위로 새 길을 열어야 함을 선생께 조심스럽게 아뢰는 것이다.

결국 정문正門인 곡구谷口로 드나들던 서원을 억지로 천광운영대 위 산록山麓을 잘라 결문을 만들어 드나들게 되었다.

혹시 곡구의 경관이 조금이나마 회복될지 기대해 본다

안동댐 이전 곡구는 앞에 낙천洛川이 유유히 흐르고 건너편에 시사단 비각과 아름다

3) 「進入路開設 告由文」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維歲次乙卯正月戊子朔十五日壬寅幼學金基秀等敢昭告于退陶夫子之廟揶揄我夫子得此一區陶山命名天淵雲影兩臺留示无窮者意豈徒然哉後之冠儒服儒者孰莫不愛慕 當日之遺芬芳躅而一石一木護守於四百十九年之久而其間世亂屢經尙無剪拜之患不意自政府以營利國澤民之計防水院前下流不但后孫之奠居沉入於滄波之中院入之路將爲不測之淵今開新路於雲臺之上斷傷天形勢不可力止則只恨世途之抹撥人心之險惡有不可巨測而登臺惆悵徘徊彷徨之不已况伏惟 夫子在廟之 靈豈可悅豫於是役哉敢告厥由以聞”

리 소나무들이 서원을 향해 읍揖하듯 우거졌고, 서쪽의 넓은 송림松林은 탐방객이 쉬며 즐기는 곳이었고, 동쪽에는 탁영담에서 솟아 오른 석벽위에 천연대가 있었다. 곡구에는 서쪽에 크고 잘생긴 무실송無實松⁴⁾이 안내하듯 서 있고, 동쪽에는 곡구암谷口巖이 다 소곳이 손님을 맞이하고, 서원을 바라보면 간류澗柳를 비롯한 우거진 수목들 사이로 몽천과 열정에서 흐르는 개울이 심 없이 재잘거린다. 앞에는 개울을 건너는 돌다리가 있고 고개를 들면 숲 사이에 은은히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바라보였다. 그 길을 따라 오르면 봄에는 기화요초가 반겨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과 실바람이 땀을 식히고, 가을에는 색동으로 치장한 계곡이 반갑게 맞이하고,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서원을 향해 읍揖을 하는 송림에 후조後彫(혹독한 추위에도 시들지 않은)의 의리를 배운다.

이러한 곡구 앞에 말이나 사람이 걸어서 다니던 길이 1930년대에 신작로新作路로 넓어졌고, 1953년에 장교長郊(부내와 청고개 들)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수로農水路를 천연대와 석간대 사이의 신작로 땅 밑에 만들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높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배수구排水口를 설치하면서 곡구암谷口巖이 머리만 보이고 남반南泮(남쪽 강변)이 없어졌다. 그리고 1974~5년 안동댐 건설로 도산서원 주변 경관이 크게 변화될 뿐 아니라 동서로 통하던 길도 없어지고, 정취 어린 곡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니, 서원에서 애일당과 농암, 석간대, 천광운영대와 그 아래 송림, 곡구암, 무실송, 돌다리, 천연대 각자, 시사단, 반타석, 역천 등의 보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진정하였다.⁵⁾ 정부에서는 ‘도산서원보호 및 진입로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산서원의 보존 및 주변조경의 설계, 시공방침과 진입도로의 노선결정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⁶⁾ 이 결정에 따라 애일당은 마을 뒤에 이건(후에 가송 올미재마을에 다시 옮김)하고, 석간대는 그 옆 언덕에 옮기고, 천광운영대는 5m정도 높이의 석축을 쌓아 이설되는 진입로와 높이를 같게 하고, 시사단은 주변 흙을 10m정도 쌓아 그 위에 비와 비각을 옮기고, 서원 정문 앞 계곡과 곡구는 석축을 쌓고 메꾸어 넓은 마당이 되었다.

특히 35번국도(분천리 주차장)에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여는 데 사유림을 훼손

4) 무실송(無實松): 솔방울이 열리지 않는 아름답지 소나무였다. 잎은 다른 소나무와 비교하여 가늘고 연한 초록색이고, 몸통은 옅은 붉은 색으로 굴피가 역세지 않았다. 전하는 말로는 ‘퇴계선생께서 심으셨다’고도 하였다.

5) 陳情書. 陶山書院古文書, (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968. 11.

6) 매일경제 1973. 3. 17. 기사

하여야 하므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의 한강변의 많은 대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덕소 강변대로 등)와 같이 부내에서 토계로 이어지는 강변으로 교량을 설치하였다면 산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경관이 보존되었음은 물론이고 서원을 진입하는 곡구도 조금이라도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

2013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수물선 상한에 옛 접근로 2.5km를 재현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1970년 서원 앞 곡구 (국가기록원 제공)



현 곡구 전경
(2015년 가을)



도·산·서·원·이·아·기

07

도산서원중수기념비



비신 : 130.0×141.2×38.0cm



1970.12.8. 도산서원 보수정화공사 준공식 장면
(국가기록원 제공)

도산서원중수기념비

한밤 메기습 낙동강 언덕에 아늑하게 자리잡아 이 나라의 한 교육사상의 원천지가 열렸으니 이곳이 곧 동방유학을 집대성한 퇴계이선생께서 일찍이 경학을 연구하여 실천에 옮기고 수많은 경세치용經世致用の 인재를 길러낸 도산서당이다. 선생이 역책易箴하신 뒤에 제자들이 또 서원과 사우祠宇를 세워 제향모시고 끼친 글을 외워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송絃誦의 소리가 들리었다. 선생의 도덕과 학문은 실로 이조 일대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으므로 그 전기의 성리학性理學과 후기의 실학이 모두 이에 연원淵源하였고 역대의 임금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탐독하여 나라 다스리는 원리로 삼았다. 그 사이 몇 백의 성상을 지났으나 한 뉘 푸새나 한 알 조약돌이라도 감히 자리를 바꾸지 못하였고 다만 옥우屋宇와 담장은 때로 기울고 닳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는 오로지 도산유림의 맡은 임무이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특지를 내려 국고를 기우려 중수의 사업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비단 하나의 문화재로 보존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의 학문사상과 그 애국심을 만대의 사표로 삼으려는 뜻이다. 이에 서선철의 도학을 숭앙하고 선인의 업적을 이어받는 거룩한 공적이 이루어졌으므로 빗돌을 세우고 이 글을 새겨 뒷 세상에 밝게 알리려 한다.

一九七〇년 十二月 六일 선생역책 후 四백주년

이가원은 글을 짓고
김응현은 글씨를 쓰고
문화공보부가 세우다

도산서원을 정화 보수한 사실을 기념하여 빗돌에 새긴 기록이다

이 비석은 1969년 9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도산서원을 정화 보수한 사실을 기념하여 빗돌에 새긴 기록이다. 빗돌에는 연민淵民(李家源, 1917~2000)이 짓고, 여초如初(金膺顯, 1927~2007)가 쓴 비문을 새겨 문화공보부에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체는 판본체板本體이다. 한글 서체는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반포된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글만의 독특한 서체가 형성되어왔다. 크게 판본체와 궁체宮?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이 창제된 당시의 판본체를 시작으로 하여 국한문 혼서체, 궁체로 변화되었다. 인쇄용으로 사용되던 판본체는 읽기는 쉽지만 쓰기가 어려워 쓰기 편한 필사체筆寫體로 변화되면서 궁체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본체와 필사체로 구분되는 한글 서체는 한자의 전서篆書 예서隸書 초서草書 해서楷書 행서行書의 변화 과정을 단기간에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글 서체에는 판본체와 궁체 외에도 과도기 형태의 서체인 오륜체五倫體와 민간에서 사용했던 서체들이 있었다고 한다.

비석은 화강석으로 주춧돌을 연상聯想하는 모양으로 다듬은 기단基壇(22.0×121.0×96.0cm) 위에 역시 화강석을 한옥의 지붕모양으로 비신碑身을 조각하였다. 그 앞면에 중수기重修記를 새긴 검은 석판(80.0×120.0×2.0cm)을 붙였다. 이 비석은 1976년까지는 곡구谷口의 신작로에서 서원으로 가는 돌다리 옆에 설치되었다가 곡구가 물이게 되자 현재 자리로 옮겼다.

서원이 수몰에서 제외되도록 동참할 것을 전국유림에 호소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자원을 활용한 전기電氣를 생산하고 한수해旱水害 조절을 위하여 정부에서 낙동강에도 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상되는 댐 축조지점이 서원으로부터 약 8km 하류인 다래(현 도산면 동부리 부용봉 남쪽)로서 이곳에 댐을 만들면 도산서원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서원에서 당회

堂會를 열어 130여명의 이름으로 전국유림에 통문¹⁾을 보내어 서원을 지키는 데 같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정부에서 물을 막아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여 도산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문서 삼가 생각해보니 도산陶山이라는 한 구역은 곧 우리 퇴도부자退陶夫子께서 학문을 강론하시며 은거하셨던 곳이고 또한 문하의 여러 선비들이 왕래하며 가르침을 청했던 곳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곳의 강산江山이 앞으로 모두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하는 처지가 되어 당시의 유촉遺躅에 다시는 영향影響이 기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선비들만이 개인적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탄식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림士林이 모두 두 연원이 있는 집안의 후손이 아니지 않으니 이 일과 이 변變을 또한 감히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정부에서는 다래 앞의 강에서 물을 막아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래는 곧 도산과 이어져 있는 하류下流입니다. 강이 크고 골짜기가 험준險峻하여 만약 이곳을 막는다면 그 담긴 물이 부자夫子의 혼령을 모신 사당祠堂을 잠기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국가의 큰 계획과 국민의 이익과 혜택을 비록 막을 수는 없지만 위아래 수십 리토의 미리 정한 곳으로 조금 변동變通한다면 문화 발상發祥의 지역이 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계획이 되는 두 가지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그리고 아무런 폐단弊端도 없을 것입니다. 하필 이곳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 봄에 기공起工한다고 신문지상新聞紙上에 게재揭載하니 아아! 통탄痛嘆할 일입니다. 이곳이 어찌 당국이 평소에 분명하게 지적指摘한 곳이겠습니까? 이것은 필시必是 회사會社의 담당 기사技師가 두 가지를 온전히 하는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발전發電하는 계획만 일삼은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당국의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무리들의 선발대先發隊이니 만약 현지 사정을 안다면 마땅히 변경하는 명령을 급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국내의 여러 군자들께서는 당국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목소리로 사정事情을 말하여 의혹疑惑을 풀고 잘 처리되는 방법을 속히 강구講究해주시면 천만千萬 다행이겠습니까.

임인년 11월 20일(양력 1962. 12. 16.)

「國譯: 權甲鉉. 2014. 12.」

1) 〈政府有防水發電之營 陶山書院 守護 通文〉, 全州柳氏涵碧堂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伏以陶山一區, 卽我退陶夫子講道棲息之所. 門下諸賢往來請業之地也. 不料此地, 江山將盡, 入於桑瀾怯海, 而當時遺躅, 無復影響之可憑矣. 是不但近省土類之獨自驚惶憂嘆, 國內士林, 舉莫非淵源家後承, 則此事此變, 亦不敢不告也. 近者政府有防水發電之營於月厓前江. 月厓卽陶山接武之下流也. 江大而峽峻, 若防是處, 國家之大計, 生民之利澤, 雖不可沮遏, 稍有變通於上下數十里前定之地, 則文化發祥之域, 爲國澤民之計, 兩全而無弊矣. 何必以此地爲準, 而以明春起工, 揭于新報紙上, 噫噫痛矣. 此豈當局之素所指的哉, 是必會社技員, 罔念兩全之道, 只事發電之計也. 積水之量, 有足以浸沒於, 夫子妥靈之祠矣. 第念當局諸公, 俱是吾黨之前茅, 若知實地情狀, 宜其急急移處變更之命矣. 伏願國內, 僉君子, 同聲陳情於當局未事之前, 速爲解惑善處之道, 千萬幸甚. 壬寅陰十一月二十日”

「제묘상덕사증건일기癸卯(1963년)尙德祠重建日記」²⁾에 전북 남원全北 南原, 의성義城, 흥해興海, 경산慶山 등의 향교鄕校와 유회소儒會所 「진정서사본陳情書寫本」이 접수된 기록으로 보아 전국 유림에서 정부에 진정陳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968년 1월 17일 안동다목적댐 건설계획 발표³⁾에 도산서원이 수몰위기에 처해 지자 당시 유림대표 20여명이 청와대와 건설부 장관을 방문하여 보호해 줄 것을 진정⁴⁾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정부에서 1969년 1월 11일 도산서원을 아산 현충사顯忠祠와 함께 문무文武의 상징으로 성역화聖域化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⁵⁾ 이 계획은 박정희대통령朴正熙大統領(1917~1979, 재임1963~1979)의 특별지시로 시행하게 됐으며⁶⁾ 내용은 건물과 흙담을 다시 고치고 대지를 녹지대綠地帶로 형성하고, 환경미화를 하며 안동댐으로 인한 보호를 위하여 독을 쌓는다는 것이었다.

서원성역화는 1969년 10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2월에 준공하였다

1969년 10월 6일 도산서원 정문 앞에서 당시 양택식梁鐸植(1924~2012) 경북지사와 이수성李壽成 문화공보부 차관이 참석하여 정화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여 82,826,400원을 투입 1970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발표⁷⁾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8일에 기공식이 거행되었던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준공식竣工式이 거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致辭에서 “우리는 전통문화의 가치 있고 품위 있는 밝은 면을 찾아내어 그 속에 숨어 있는 민족의 예지叡智와 숨어있는 금지를 개발, 문화적 자주성을 견고히 지키고 정신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번 도산서원의 보수공사는 건물과 환경정화 및 문화재 보존에 의의가 있지만 퇴계선생의 학문사상과 애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장道場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도산서원을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2) 「癸卯尙德祠重建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3) 매일경제 1968. 1. 17. 자.

4) 동아일보 1968. 11. 19. 자.

5) 경향신문 1969. 1. 11. 자.

6) 문화공보부, 『도산서원중수지』,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0, 35쪽.

7) 매일경제 1969. 10. 7. 자.

8) 동아일보 1970. 12. 8. 자.

박정희 대통령은 성역화를 추진하면서 두 번 방문하였다

1969년 10월 14일과 1970년 12월 8일이다. 첫 번째 방문에서 기공식 직후에 보수정화의 구체적 방향설정을 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공사 내역 확인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을 첫 번째 방문 때 이야기를 소개드리고자 한다. 필자가 약관弱冠(20살)에 도산면 서기書記로 1969년 8월에 발령받아 9월부터 대통령 도산서원 방문을 대비하는데 파견되었다. 여기에 책임자는 당시 안동군청 재무과장과 세정계장이었다. 주요임무는 도산서원 경내외境内外와 대통령이 지나는 주변의 정비작업이었다. 도산서원 입구에서 상류로 2km정도부터 서원 정문 앞까지 강변과 계곡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헬기장 설치와 비포장도로의 평탄작업과 모래를 깔고, 경내에는 잡초와 오물을 제거하고 건물에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었다. 본인은 인근 마을에서 인력을 구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거드는 것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도산서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한 결과 계남溪南(도산서원에서 상류로 2km정도 지점)에서 서원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서원 경내에도 말끔히 청소가 되었다. 대통령 일행은 10월 14일 오후 3시30분 경에 군용 헬리콥터 4대가 준비된 헬기장에 착륙하여 승용차로 이동하여 곡구峽에서 내려 100여m의 계곡을 걸어서 정문에 도착하였다. 역락서재 앞에 모인 환영군중을 향하여 손을 들어 답례한 대통령은 정문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옷깃을 여미고 신발의 먼지를 털 다음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다. 이때 대통령의 왼편에 양택식 경북지사, 오른편에 이동영 부산대학 교수가 수행하였는데 양택식 지사가 대통령이 멈춘 것을 모르고 먼저 계단을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대통령보다 몸이 비대한 지사가 황급히 내려오는 장면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였다. 또 전교당에서는 대통령은 북쪽에서 남향으로 앉고 동편에 유림 어른, 서편에 수행한 장관 등이 앉아서 환담을 하다가 유림 어른들이 모두 꿇어앉은 자세를 본 대통령이 역시 꿇어앉자 수행원들도 자세를 고쳐 앉기도 하였다.⁹⁾

이 날 대통령은 위대하신 퇴계선생을 모신 서원이 초라하다고 여기고 “빛나는 유적으로 보수하라”고 수행한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⁰⁾

9) 「己酉陶山書院重修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969. 10. 14.(음 9. 4.) 記事 “朴大統領下午三時半頃來院四十分留院後出發”

10) 동아일보 1969. 10. 15. 자.

외관과 견고성을 위주로 하여 역사적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년간 연인원 24,456명과 96,616천원(국비 62,416천원, 도비 30,000천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보수정화공사는 건물은 해체하여 낡은 목재와 기와를 교체하였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그리고 상·하 고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청丹靑을 새로 하였고, 흙담을 철거하고 사괴석四塊石 돌담으로 바꾸었고, 걸어 다니는 통로는 박석薄石을 깔았으며, 모든 계단과 축대는 장대석長臺石으로 쌓았고, 담장 안팎을 막론하고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잔디를 깔고 그 위에 단풍, 목련 등 크게 자라면 건물을 덮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었다. 또 정문에서 진도문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에 옥향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단청은 선비의 집에 어울리지 않고, 담장에 다듬은 돌로 쌓은 것은 금지된 제도를 어기면서 외관과 견고성을 위주로 하여 역사적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고, 특히 보존가치가 있어서 1963년 1월에 보물 제211호로 지정한 상덕사 주변 토병土屏(흙담)을 보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헐고 네모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높이 쌓은 것은 보물로 지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지적을 하였다.¹¹⁾ 또 겨울철에 시공한 시멘트 공사가 문제가 되었고,¹²⁾ 1년 7개월 만에 기왓장이 꺾질이 벗겨지고 담장에 금이 가고 옥진각에는 빗물이 썰 우려가 있어 긴급보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¹³⁾

성역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담장과 돌계단은 좋은 점도 있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은 한 번 이상 보수를 했거나 보수를 하고 있고, 담장 안팎에 심어진 나무는 건물에 위해危害하기도 하고 경관도 해치고 있어서 많이 베어냈지만 몇 그루가 남았고 마당에 깔린 잔디는 한 곳도 없이 제거되었고, 정문에서 진도문에 오르는 길 양쪽에 심었던 옥향나무는 목단으로 교체되었다. 다듬은 돌로 공사한 담장과 계단 축대 통로는 그대로이다. 그간 박정희대통령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계당국의 잘못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다듬은 돌로 시공한 담장 등은 아직까지 견고하여 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 예산 절약에는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 경향신문 1970. 11. 3. 자.

12) 동아일보 1973. 4. 18. 자 및 경향신문 1970. 12. 26. 자.

13) 동아일보 1973. 4.1 8. 자.



1970.12.8. 말끔히 정비된 진도문 입구
(국가기록원 제공)



현재 진도문 입구
2020. 5. 5. 황대영 촬영



도·산·서·원·이·야·기

08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이 금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12월 8일
도산서원 성역화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도산서당 앞에 심었다가 1972년 고사(枯死)한
나무를 대체하여 이듬해 새로 심었으며 그 후 크게
성장하여 주변과 조화를 지 못해 2018년 11월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

62.0×82.0×13.0cm



1970.12.8. 기념식수장면
(국가기록원 제공)

대통령 기념식수 이식移植을 알리는 비석이다

이 비석은 1970년 12월 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원의 보수정화 공사 준공을 기념하여 금송錦松을 심은 이후 네 번째 표지이다.

첫 번째는 각목角木에다 대통령 기념식수라고 쓰고 그 옆에 두께가 얇은 각목 위에 집 모양으로 다듬은 판자에 금송을 심은 경위를 쓴 표지판을 세웠다. 그 후 나무가 썩어 보기가 흉하게 되자 철거하고, 화강석 대석위에 네모난 화강석 석판에 검은색 얇은 석판을 붙여 흰색으로 '박대통령각하기념식수'라고 크게 쓰고 '이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청와대 집무실 앞에 심어 아끼던 금송으로서 도산서원 경내를 더욱 빛내기 위해 1970년 12월 8일 손수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라고 새겨서 나무 옆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는 심은 지 2년 후에 죽어서 같은 수종으로 다시 심었다는 것과 일본이 원산이라는 것이 알려져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보도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여 2011년 11월 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문안¹⁾으로 비문碑文을 바꾸어 다시 설치하였으나, 금송이 크게 자라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여 서원 운영위원회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27일에 현재 자리로 옮겨 심고 표지석을 세웠다.



1) "이 곳은 1970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산서원 성역화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청와대 금송을 옮겨 심었던 곳이나 1972년 고사(枯死)됨에 따라 1973년 4월 동 위치에 같은 수종으로 다시 식재하였다."

류희걸柳熙杰 전 안동시립민속박물관장의 도산서원 금송이야기

도산서원 금송에 대하여 류희걸柳熙杰 전 안동시립민속박물관장의 블로그²⁾에 올려진 ‘도산서원 금송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금송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서 잎이 보통소나무보다 5~6배 더 크고 굽다. 일본 특산종으로 정원수로 많이 심으며 물에 잘 썩지 않고 강하여 건축·가구재로 많이 쓰인다. 세계 3대 정원수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 남부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임에도 백제 무녕왕릉의 관재棺材로 쓰인 것은 무슨 까닭일까. 관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굳이 일본의 금송을 가져다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공으로 받은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금송은 1972년 11월에 말라죽고 말았다. 당시 안동군, 경북도, 문화공보부에서 합작으로 비밀리에 다시 심었다. 국비 500,000원으로 1972년 12월 6일 한국원예기술주식회사(대표 민진호)와 계약하여 1973년 4월 25일에 다시 심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 죽었을 것으로 분석되어 언저리에 밤알만한 자갈을 깔고 물 빠지는 도랑을 만든 다음 정성껏 심었다. 당초 기념식수는 한 줄기였는데 다시 심은 금송은 두 줄기였다. 그렇다고 한 줄기를 자르자니 또 죽을까 걱정이 되어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도산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가지는 박대통령이고 작은 가지는 대통령부인 육영수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하였고 잘 자라던 나무가 공교롭게도 육영수여사가 1994년 8월 15일에 뜻하지 않았던 흉탄에 맞아 사망하니 그 다음 달부터 작은 가지가 말라 죽게 되니 유언비어가 더 확산되어 마른 가지를 감히 제거할 수 없었다. 그때 당시 건설부장관이었던 김재규가 안동군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듣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도산서원에 와서 마른 가지를 베었다. 그 후 각지벌레와 응애 때문에 생육이 부진하고 한 가지가 죽게 되었다는 임업시험장의 진단결과 살충제를 살포하여 방제를 하였더니 생육상태가 좋아졌다. 그리고 금송이 정말 일본이 원산지일까? 옛날 우리조상들은 금송을 임금의 관재로 사용했음에도 오늘날 우리는 관상수로조차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였다.

2) <http://blog.daum.net/3000-byun/18283823>

백제 무령왕릉의 관재棺槨가 금송이라고 밝혀지기도 하였다

금송의 학명은 *Sciadopitys verticillata*이다. 세계 3대 정원수(금송, 히말리아시다. 아로가니아)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수종이다. 우리나라 묘목시장에서도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금송이여 관상수 왕자로다’라는 광고문구가 신문지상에 광고되기도 하였다.³⁾ 1991년 10월에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의 관재棺槨가 금송이라고 밝혀지자⁴⁾ 더욱 인기가 있었다.

1998년 2월에 전국 주요사적지에 40~60%가 외래수종이고 현충사에 일본이 원산인 금송이 심어져 있음이 밝혀지고, 독립기념관에는 외래수종을 제거하였음이 보도되자⁵⁾ 금송의 수난은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에 계명대학교 김종원金鍾元교수가 1천원권 지폐紙幣의 도안에 그려진 도산서원 금송이 일본이 원산이므로 지폐도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 이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국민여론에 따라 2003년 3월에 안동시에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고 서원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연내 이식하겠다고 발표⁷⁾하기에 이르고, 정부에서는 2006년 1월에 1천원권 지폐의 도안을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鄭敼 作)」로 교체하기로 발표⁸⁾하였으며, 2013년 8월 11일에 안동시에서 도산서원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송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밖으로 이식한다고 하였다.⁹⁾ 그리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대표 혜문스님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도산서원 금송이전과 정신적 피해위자료 1천만 원 청구소송이 2013년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재판에서, 혜문스님이 금송의 이전시기와 장소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였다.¹⁰⁾

3) 동아일보 1990. 3. 14. 자.

4) 동아일보 1991. 10. 21. 자.

5) 매일경제 1998. 2. 27. 자.

6) 국민일보 2000. 11. 12. 자.

7) 한국일보 2003. 3. 7. 자.

8) 서울신문 2006. 1. 18. 자.

9) 연합뉴스 2013. 8. 11. 자.

10) 매일신문 2013. 8. 14. 자.

대통령기념식수라는 시대성과 역사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월 24일 보도¹¹⁾에 의하면 아산 현충사 본전 앞 금송은 보존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1990년대부터 현충사에 일본 왕실의 상징 중 하나인 금송이 심어져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으나 2010년 12월 문화재위원회는 ‘금송은 외래수종이 맞지만, 대통령 기념식수라는 시대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 결정하였고, 같은 달 30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 스님)’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현충사 본전 내 금송 존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문화재청은 금송을 존치할 계획이지만 교문위에서 재검토를 의결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을 하여 2015년 2월 초에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금송을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기념식수라는 시대성과 역사성이 일본 원산 또는 상징보다 더 중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조선일보 2015. 2. 25. 자.



도·산·서·원·이·아·기

09

시사단 비석

試士壇碑石



173.0×68.5×26.8. 역질사암

(2011.3.23. 서헌강 촬영)



시사단 비각
(2011.3.23. 서현강 촬영)



옛 시사단 <1972.4. 시사단
(동국대 이해은 교수 제공)>



현 시사단

정조16년 음력 3월 25일(1792. 4. 16.) 실시된 도산별과陶山別科의 과장科場이었다

천광운영대에서 강 건너 섬 위에 작은 비각碑閣이 있는 곳이다. 도산별과陶山別科는 도산별시陶山別試라고도 한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正祖(1752~1800, 在位 1776~1800, 號 弘齋)가 퇴계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추모하고 영남지역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도산서원에서 과거시험을 치르도록 명령 하였다. 이 명령서를 전교傳敎라고 하는데 현판으로 제작되어 전교당 대들보 아래에 걸려있다. 명령을 받은 규장각 각신 극원履園(李晩秀, 1752~1820, 諡 文獻) 등 사신들이 도착하여 과거시험을 치르고자 하였다. 이때 예상 밖에 선비들이 많이 모여 도저히 서원 경내境內에서는 어려워 강 건너 송림松林에서 치르게 되었다. 모인 선비가 가득하여 1만 명까지 접수하였으니¹⁾ 아마도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 외에도 시종드는 사람, 마부, 구경꾼 등 수 만 명이 법석거렸을 것으로 추측²⁾하기도 한다. 시험장에 들어온 선비는 7,228명이고 제출된 답안지[試券]는 3,632장이었다.³⁾ 이 과거의 합격자가 4월 15일(양 5. 5.)에 발표하였는데 등급을 크게 상·중·하로 나누고 각 등급에서 또 구분을 하였다. 그래서 강세백姜世白(1748~1824, 號 皓隣)·김희락金熙洛(1761~1803, 號 故寔軒)은 삼상三上에 합격하여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임금 앞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고, 삼중三中에 2명, 삼하三下에 26명이 합격하였다. 정조는 이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편집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책자를 만들어 인쇄 간행토록 하고 책판은 도산서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⁴⁾ 이 책이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이다. 그 후 1796년 성균관 반촌에서 봉행된 치제의 일기인 「반촌치제일기類村致祭日記」와 합본하여 도산서원에서도 간행하였다.

「반촌치제일기」는 선생 9대 종손인 성류정省流亭(李志淳, 1762~1807)공이 평안도 영유현령에 제수되어 부임하여 종택에 모신 선생 사판祠版을 근무지인 영유현(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받들기 위하여 모시고 가던 중에 서울을 경유하게 되어 왕명으로 반촌에서 치제를 봉행한 기록이다. 이 일기는 2017년 진성이씨상계문중운영회에서 국역하여 『척

1) 한국국학진흥원, 「사제일기」,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160쪽.

2) 박종홍, 「陶山紀行」, 『思想界』 1963년 6월호, 299쪽.

3) 李忠鎬 編, 『嶠南賓興錄, 卷之二』, 도산서원, 1922. “入門七千二百二十八名 收券三千六百三十二名”

한국국학진흥원, 「사제일기」,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160쪽에는 3,730여 장임.

4) 한국국학진흥원, 같은 책, 478쪽.

념무침惕念無添』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비석과 비각은 1796년 처음 세웠는데 5년 후에 허물었다가 1824년에 다시 세웠다

이 도산별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1796(정조20)년에 단壇을 쌓고 영의정 변암樊巖(蔡濟恭, 1720~1799, 諡 文肅)이 짓고 쓴 비문碑文을 새겨서 세웠다.

성상16년 임자일[음력 3월 24일, 양력 1792. 4. 15.]에 각신 이만수李晩秀를 파견하여 도산에 있는 문순公文純公을 모신 서원에서 제사를 올렸다. 이에 앞서 서양의 사특邪惡한 학문이 우리 동방에 흘러 들어와 서울로부터 점차로 퍼져 기호지방까지 영향을 끼쳤으나 유독 영남 70고을에서는 한 사람도 오염된 사람이 없었다. 왕은 그 점을 감탄하여 “이것이 바로 선정신先正臣 퇴계 선생의 교화이다.” 하시고 이에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명命해 제사를 올리게 하니 드넓은 흙모를 담은 것이다. 제문은 임금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고 또 어제御製를 내리니 부賦가 한 편이요 경전經典의 뜻을 묻는 것이 한 편이었다. 명하기를 제사를 끝내고서 전교당에 좌정하여 여러 유생들을 불러 진도문進道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각기 자신들의 장기대로 응제應製하게 하여 시권試券을 가지고 오라 하였다.

각신은 3월 22일에 예안현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서원으로 나아가 형세를 둘러보았는데 도산 서원 경내는 터가 좁아서 많은 선비들이 모일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강 남쪽 모래 밭 잔디 한 구역을 골라 정리하여 기다리게 하였다. 또 다음날 이른 아침에 향축을 받들고 오니 모여든 여러 선비들이 만여 명이나 되었다. 복장을 단정히 하여 서로 허리 굽혀 맞이하였고 모든 집사관 및 집사 유생들은 동쪽에 차례로 서고 조정의 선비들은 서쪽에 차례로 서서 제례에 참례하였다. 나머지는 차례로 신문神門을 향하여 섰는데 진도문 밖에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시각이 되자 각신은 알자의 인도를 받으며 왕이 내린 제사를 예법에 맞게 봉행하였다.

25일 강 남쪽에다 시험장을 열자 여러 선비들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걸어서 질서 정연하여 조금도 소란하지 않았다. 드디어 두 그루 소나무사이에서 과제課題를 걸자 무릎을 꿇고 우러러 보고서 일어나 절하여 예법을 어그러뜨리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답안지를 거두니 3,700여 장이나 되었다. 시험을 마치고 말에서 그것을 싣고 와 왕에게 결과를 보고하니 왕께서 고하를 채점하여 갑과甲科에 두 사람을 뽑아주셨고 그 나머지는 등위에 따라 상을 내려 주셨다. 또 각신의 주청으로 윤음이 내려는데 과거시험장에 들어온 선비들이 서로에게 인사하고 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가상하게 여겨 포상으로 경상도 감영으로 하여금 속히 급제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풍악을 울리며 그들을 위로해 주게 하였다. 또 명하기를 전교 및 제문을 새겨 전

교당에 게시하고 그것을 목판에 새겨 간행하여 우등인 4명의 답안지와 여러 좌목과 합격자 명단을 그 책판에 덧붙여 한 책으로 만들고 책판은 도산서원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하였다.

이에 모든 고을 선비들은 입을 모아 의논하기를 ‘이 일은 옛 부터 드물게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크나큰 은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성을 크게 하여 후인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에 왕께서 내려주신 제목을 게시한 곳에다 단을 꾸미니 그 단은 모두 세 층계로 이루어졌다. 상단은 돌로 쌓아 그 안에는 모래를 깔아서 비를 세우고 각을 건립하고자 했고 중간 단에는 제목을 게시했던 두 그루의 소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게 되니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편에 있어서 곧 바로 전교당과 강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 드디어 그 단의 이름을 시사단이라고 지었다. 이미 돌을 장만하고서 사람을 서울로 보내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해 달라고 청하였다. 나는 위와 같이 그 내용을 짓고서 다시 덧붙였다.

이선생께서는 우리 동방의 부자이십니다. 선생께서 오로지 힘쓰신 바는 오직 공자의 도이신데 공자께서는 사람을 가르칠 때 네 개의 과목으로 나누었으니 대개 사람은 누구나 성인일 수 없고 재주는 각기 치우치게 마련이다. 비록 시우의 조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치우친 것을 온전하게 하여 집대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자께서는 사과로 나누어서 온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중용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였으니 그 가르침은 참으로 지극하도다.

지금 영남의 선비들은 사학邪學에 물들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하여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또 혹시 공령문자功令文字를 가지고 성세聖世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사로 삼아 노력을 그만 두게 되면 공령문이 성인의 사과四科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과목에 해당되는지를 나는 알 수 없노라. 반드시 세속의 공리로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원대한 일에 뜻을 세워 죽은 뒤에야 그만 두어야만 비로소 위로는 성조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선정신 이선생의 끼친 교화를 어기지 않는 것이리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이 점을 애중愛重하게 여겨서 사양하지 않고 이처럼 힘쓰게 하노라

명銘하노라

도산의 물줄기 넘치고 넘치게 흐르는데

그 위에 단이로다.

단에는 계급이 있고

물에는 연원이 있나니

단에 오르고 물에 나아가니

류類를 따라 뜻을 펴노니

선생의 덕화요

성주聖主의 은혜로움 일세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상감사원임 규장각제학 채제공이 짓고 글씨도 쓰다.

1796(丙辰)년 처음 세웠다가 1801(辛酉)년에 변을 당하여 1824(甲申)에 새로 세움⁵⁾

그런데 비석의 끝에 '1796년 처음 세웠다가 1801년에 변을 당하여 1824년에 새로 세움(丙辰始立辛酉遭變甲申改建).’이라는 기록이 있다. 세운 지 5년 후(1801년)에 이 단이 변을 당하여 허물었다가 1824년에 다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명확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당시 정치적으로 벽파僻派들이 시파時派와 남인南人들을 탄압한 신유박해사건辛酉迫害事件⁶⁾과 비문을 지은 채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기록이 한 선비의 일기⁷⁾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1799(己未)년 1월 18일에 채제공이 사망하고⁸⁾, 1800년 6월 28에 정조正祖가 승하하여 같은 해 7월 4일에 순조純祖가 11세 나이로 즉위하니 대왕대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당시 56세)가 수렴정정垂簾聽政을 하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와 남인과 시파를 축출逐出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01(辛酉)년 2월에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일어났고⁹⁾, 같은 해 12월 18일에 채제

5) 蔡濟恭, 「陶山試士壇碑銘」, 『樊巖先生集卷之五十七』, “聖上十六年壬子. 遣閣臣李晚秀. 賜祭于陶山李文純公書院. 先是. 西洋邪學. 流出我東. 自京師浸淫. 及於畿湖間. 獨嶺以南七十州無一人污染. 上歎曰. 此先正遺化也. 於是. 命近臣以祭. 所以寓曠感也. 祭文. 上所親製. 又下御題賦一經義一. 命祭罷. 坐典教堂. 招諸生入進道門內. 俾各以其長應製. 捧券以來. 閣臣用三月二十二日. 到禮安縣. 明日詣院下. 周覽體勢. 以門內地狹. 多士不能容. 擇江之南沙平草軟一區. 使設排以待. 又明日早朝奉香祝來. 諸生會者近萬. 整巾服鞠躬以迎. 於是諸執事官及執事儒生序于東. 參祭朝士序于西. 餘皆以次向神門立. 至進道門外. 時至閣臣隨謁者導. 賜祭如禮. 二十五日. 開場于江之南. 諸生拱手徐步. 秩然無喧鬧聲. 遂揭題于兩株松. 跪而瞻起而拜. 罔或失儀. 及收券. 爲三千七百餘張. 試訖馭券來. 既復命. 上親考校高下. 特賜賚等者二人第. 其餘給分施賞有差. 又因閣臣奏. 下綸綽褒嘉入場生有揖讓風. 令本道觀察使速入格諸人. 張樂以饋之. 又命傳教及祭文. 刊揭典教堂. 又刊板印進. 而優等四券與諸般座目榜目. 附諸板作爲一冊. 板藏陶山院中. 一路章甫合辭議曰. 此千古稀有之盛學曠典也. 若不有標識. 豈所以侈聖恩而詔後人乎. 乃就璇題懸揭處築以壇. 壇凡三層. 上壇環以石鋪以莎. 以圖樹碑建閣. 中壇揭題兩松入其中. 一東一西. 正與典教堂隔江相對. 遂名之曰試士壇. 既伐石. 走入京師. 要濟恭記其事. 濟恭作而復曰. 夫李先生. 我東夫子也. 先生所傳. 惟夫子之道. 而夫子教人有四科焉. 蓋人非聖人. 才各有偏. 雖以時雨之化. 不可皆得以全其偏而集其成也. 是以設其科以四. 使天下之人無不可以入其中者. 其教也至矣. 今夫嶺南人士之不染邪學. 誠賢矣. 若以是自足而止. 又或以功令文字之得雋於聖世. 意以爲能事畢矣. 則未知功令於聖人之教. 何科之可屬. 必也勿以世俗功利爲心. 立志於遠者大者. 死而後已. 方可上不負聖朝作成. 下不負先正遺化. 不亦美哉. 愛重之篤也. 不辭而相勉如此. 銘曰.

陶水洋洋. 其上也壇. 壇有階級. 水有淵源. 登壇臨水. 觸類而伸. 先正之化. 聖主之恩.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原任 奎章閣提學蔡濟恭撰并書 丙辰始立辛酉遭變甲申改建”

6) 1801년(순조 1) 신유년에 일어난 천주교도 박해사건.

7) 국역 河窩日錄: 柳懿陸(1785~1833, 號 守軒, 居 河回)이 1796(12세)~1802(18세)년간에 기록한 日記를 2015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번역 출간함.

8) 류의목(김명진 외 역), 『국역 하와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5, 137쪽.

9) 류의목, 같은 책, 286쪽

공의 관직이 추탈追奪(죽은 사람의 벼슬을 빼앗음)되니¹⁰⁾ 당시 예안현감 김직행金直行(1800. 8. 15.~1805. 閏 6. 25. 在任)¹¹⁾이 아전에게 명령하여 파괴한 것으로 확인된다. 1월 16일 자 기사에 보면 중형宗兄(柳宗睦, 1763~1810)이 1802년 1월 16일에 계상溪上(현 퇴계종택)에 다녀와서, 도연서원道淵書院(봉화 춘양에 1693년 건립 鄭述와 許穆 祭享)의 제향이 금지당하고, 소수서원에서 번암공 화상畫像(초상화)을 빼앗긴 일과 함께 시사단 파괴상황을 상세히 알아버지게 말씀드린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안의 시사단을 부숴 철거한 일을 소자가 이번 걸음에 목격했습니다. 당초에 예안 수령이 아전을 보내어 시사단 비각 및 비석을 헐고 파괴하게 했는데, 아전이 들어가 아뢰에 수령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니, 아전이 “도끼날로 그 비석을 절단하고 그 기둥을 베어 이미 길가에 넘어뜨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령은 허투루 명을 받들었다고 하며 매질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아전이 그 비석을 부수고 조각조각을 내었으며, 또 비각으로 세웠던 기와와 돌을 곳곳마다 도끼로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고는 크게 웃고 갔습니다.¹²⁾

번암樊巖공이 1823년에 복작復爵되니¹³⁾ 이듬해에 다시 단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지었다. 「시사단비각중건 상량문」¹⁴⁾에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위 사실史實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비석은 짙은 녹색 역암礫岩(conglomerate)을 다듬어 앞과 좌우 측면에 글자를 새겼다. 머리 부분 없이 화강암 대석臺石 위에 세워져 있다. 역암은 퇴적암堆積岩의 한 종

10) 『순조실록 3권』 순조 1(1801, 신유)년 12월 18일 기사 참조.

11) 『승정원일기』, 순조 즉위(1800)년 8월 15일 자 및 순조 5(1805)년 윤 6월 25일 자 參照.

12) 류의목, 같은 책, 349~350쪽. 禮安試士壇 小子今行目睹矣. 蓋當初禮安倅送吏. 毀破壇閣及碑石. 及入奏. 倅問何以爲之. 吏曰. 以斧齒斷其碑. 而斬其柱. 已顛付於道傍矣. 倅以奉命歇後. 杖之復出. 吏碎其碑. 片片破毀. 又其所立閣瓦與石. 逐處斧破爲屑無餘. 因大笑而去.

13) 『순조실록 26권』, 순조 24(1824, 갑신)년 4월 7일 기사 참조.

14) 李龜星,〈試士團碑閣重建上樑文〉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聖上二十四年甲申五月癸亥朔初八日庚午 通訓大夫前行豐基郡守安東鎭管兵馬同僉節制使李龜星謹告于 -中略- 豈意遭民淚暮雲之餘 遽有恠鬼椎半夜之處 伎倆則背馳君父 毀壞盛典之無前 蓄積者來賊相臣 撞破偉畫之垂後 壇場遭一番兵火 曷勝龍亡虎逝之歎 江天經升載星霜 徒切山哀浦思之感 委君命於草莽 士氣有萎靡之羞 付吾道於榛蕪 時事值厄窮之會 果天運無往不復 幸士論重建是圖(여찌 유민들이 저녁구름에 눈물 흘릴 것을 생각이나 했으랴. 갑자기 괴귀들의 야만 번괴가 있었는가. 기량은 군부를 배치하여 전에 없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축적한 것은 상신이 와서 도적질하여 후세에 남길 위화를 파괴하는 것일세. 단의 자리가 한 차례의 병화를 겪었으나 용망호서의 한탄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20년의 세월을 겪었으나 한갓 산애포사의 감회가 간절할 뿐일세. 초망의 선비일 때에 군명을 받으니 힘이 없는 사기가 부끄럽고 우리 도가 없어져 갈 무렵에 불이니 시사는 역국일 때를 만났네. 과연 천운은 가면 오지 않은 법은 없으나 다행히도 사론들이 다시 세우기를 계획하였네.) -下略-

류로 자갈이나 모래 찰흙 등이 퇴적되어 굳어진 암석이다. 청량산淸涼山이 대부분 역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의 시사단비와 비각을 다시 세우고 짓기 위하여 1823(순조 23)년 7월 8일에 도산서원에서 도회道會(도내 유림회의)가 열렸다. 이때 400여 명이 모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채제공의 문집인 『변암집變巖集』도 간행토록 결의가 되어 안동 봉정사鳳停寺에 간역소刊役所를 정하여 이듬해 간역을 마쳤다.¹⁵⁾

재현再現되는 도산별과도 시사단에서 시행한다면 그 의미가 한층 더할 것이다

1993년부터 도산별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3월 25일(1792년 시행일)에 도산별과를 안동시장이 주최하여 도산서원에서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한시백일장도 열고 있다. 전국에서 매년 200여명의 선비들이 모여 참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학생부를 추가하여 젊은이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확대하고 있다.

도산별과를 치른 자리가 1975년 안동댐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기게 되어 인공 섬을 만들고 비碑와 비각碑閣을 옮겨 놓았다. 당시에 소나무 숲을 다시 조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2018년 11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갈수渴水 때만 건너다니던 잠수교(폭 4.45m, 높이2.9m)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다.¹⁶⁾ 기왕이면 시사단에도 주변의 흙을 더 모으고 소나무를 심어 가꾸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해마다 재현再現되는 도산별과도 시사단에서 시행한다면 그 의미가 한층 더할 것이고, 도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에도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15) 「變巖先生集刊所日記」, 和敬堂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6) 경북매일, 2018. 11. 13. 자.



시사단 앞 나룻터
(1976 여름. 울산공대 임충신 교수 촬영)



도·산·서·원·이·야·기

10
천연대
天淵臺



68.0×28.0×16.0cm



천연대는 퇴계선생이 절벽 위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드신 그대로이다

도산서원 동쪽 산자락이 낙천洛川으로 내려와 멈춘 곳이 천연대天淵臺이다. 이 산자락을 취미봉翠微峯이라고 한다. 퇴계선생께서 59세(1559년) 9월 9일 온계의 친척들과 벽오碧梧(李文樑, 1498~1581)와 함께 올라서 중구절(重陽節, 陰曆 9月 9日)놀이를 하고, 두목杜牧(803~852, 호 樊川, 중국 晚唐前期 詩人)의 ‘구월휴호상취미九月携壺上翠微’라는 시구詩句에서 골라 취미봉이라 하셨다¹⁾.

천광운영대는 안동댐으로 인하여 진입도로를 이설하면서 석축을 쌓아 대를 높였지만 천연대는 퇴계선생께서 큰 바위 절벽위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드신 그대로이다. 다만 안전사고를 대비한 목책과 표지석을 근래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퇴계선생연보』에 1558년 3월에 창랑대滄浪臺²⁾를 쌓았고 후에 ‘천연天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기록이³⁾ 있으나 전해(1556년, 丁巳) 9월 29일에 매암梅巖(李叔樑, 1519~1592)에게 답한 편지⁴⁾에 근일 부내의 여러분과 그 곳에 모여 승려 신여信如 등으로 하여금 대를 만들게 하여‘창랑’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였고, 제자 성재惺齋(琴蘭秀, 1530~1604)의 기록에는 1558(무오)년 3월에 승려 신여愼如 등에 명하여 물가에 대를 쌓도록 했다.⁵⁾고 하였으나, 이 대는 1556년 9월에 명령하여 1557년 3월에 완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름도 이때 ‘창랑’이라고 한 듯하다. 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송암松巖(權好文, 1532~1587) 연보에 보면 1559년 3월에 선생을 모시고 천연대에 올라 천연天淵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⁶⁾

1) 鄭錫胎,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2』, 退溪學研究院, 2005, 557쪽

2) 滄浪: ① 넓고 큰 바다의 푸른 물결(滄波), ② 중국 漢水의 하류 지역.

杜甫 詩: 惜別行送向卿進奉端午御衣之上都 “卿到朝廷說老翁 飄零已足滄浪客(당신께서 조정에 가시거든 이 늙은이에 대해 말하되, 신세 딱하게 떠돌아다니며 이미 창랑의 나그네 되었다고 하오.)”

屈原: 漁父辭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漢修 詩: 木落 “塵纓未濯久 明發問滄浪(먼지 묻은 갓끈을 오래 씻지 못했으니, 내일은 창랑을 찾아가리라.)”

3) 『退溪先生年譜卷之一』,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 三月, 築滄浪臺, [後改名‘天淵’]”

4) 李滉, 「答李大用[叔樑 丁巳]」, 『退溪先生文集卷之二十七 書』 “近與汾川諸君, 會于其上, 令僧信如輩, 鑿築爲臺, 號曰“滄浪”, 形勝絕佳”

5)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 卷之三 記』 “天淵臺戊午三月令僧愼如輩臨水築臺始名滄浪者此也”

6) 權靖夏, 「松巖先生年譜」, 『松巖集別集』 “十四年己未先生二十八歲三月, 往陪李先生. 登天淵臺. 有詩上李先生曰”

천연대天淵臺는 『시경』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노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골라낸 이름이다

천연대天淵臺는 『시경』 「한록」편 ‘대아문왕지십大雅文王之什’에서 골라내어 지은 이름이다. 즉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노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천연天淵’을 뽑은 것이다.

퇴계선생은 「도산잡영陶山雜詠」에서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자연의 운행이 활발하니 그들이 날고 뛰어노는 하늘과 연못은 정말 오묘하고, 강가에 높게 있는 천연대에 올라 이치를 살펴보는 마음과 눈이 활짝 열려 『중용中庸』의 「명성편」을 세 번이나 거듭 외우려다.고 하였다.

| 천연대 | 天淵臺 |
|---|---------|
|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것을 그 누가 시켰나? | 縱翼揚鱗孰使然 |
| 하늘과 못에서 묘하게 활발히 유행하네. ⁷⁾ | 流行活潑妙天淵 |
| 강둑에서 종일토록 마음의 눈을 열고 | 江臺盡日開心眼 |
| 명성편明誠編 ⁸⁾ 을 세 번 되풀이 외우네. ⁹⁾ | 三復明誠一巨編 |

‘연비어약’의 설명에서 진실한 도道의 미묘한 작용이 아래위로 밝게 드러나고 흘러서, 움직임이 가득 차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고, 대개 도의 본체와 작용은 원래 없는 곳이 없지마는 ‘연비여천 어약우연鳶飛戾天 魚躍于淵’이라는 말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서 제각기 제자리에 머물러 뒤바꿀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7) 활발히 유행하네: 『시경(詩經)』에, “솔개는 날아 하늘에 달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노네[鳶飛戾天, 魚躍于淵]”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중용(中庸)에서 인용하였다. 주자(朱子)가 해설하기를, “이것은 천지의 조화가 활발히 유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8) 명성편(明誠編) 큰 편: 『중용』의 「비은장(費隱章)」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1장과 제22장에 “참되기 때문에 저절로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되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천하에서 지극히 참된 사람만이 그 성품을 다할 수 있나니 그 성품을 다할 수 있게 되면……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惟天下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可以與天地參矣]”라는 말이 나온다.

9) 삼복(三復): 항상 가슴속에 명심하며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 중에 “흰 옥돌 속에 있는 오점(汚點)은 그래도 깎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을 한 번 잘못해서 생긴 오점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인 남용(南容)이 매일 이 구절을 세 번씩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가 이를 훌륭하게 여겨 자신의 조카딸로 처를 삼게 했던 고사가 있다. 『論語 先進』.

천연대 아래는 탁영담이고, 탁영담에 반타석이 있고, 동쪽에는 동취병산이,
서쪽에는 서취병산이 남쪽 멀리 부용봉에서 만남이 바라보인다

강원도 황지潢池에서 출발한 낙천洛川은 태백의 협곡을 헤치고 내려와 청량산의 절경을 만들고 단사丹砂와 천사川沙와 석담石潭의 굽이를 돌아 탁영담濯纓潭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서취병산 아래를 부딪쳐 남쪽으로 분천汾川을 지나간다.

탁영담의 맑은 물에는 갯가지 물고기들이 유영遊泳하니 하늘에는 해오라기가 평화롭게 날아들고, 반타석盤陀石은 수천 년을 그 자리를 지키며 강 건너 들판에는 철철이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백성들 삶에 걱정이 없으니 신선神仙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맑은 날 밝은 달이 떴을 때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안동팔경安東八景¹⁰⁾의 한 곳으로 ‘도산명월 또는 탁영담의 달밤’이라고 한다. 실제로 몇 해 전 추석날 밤 12시경 천연대에 올라 본 적이 있다. 그야말로仙境仙境이 이런 곳인가? 하고 가슴이 벅찬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휘영청 밝은 달은 창공蒼空에 솟아 있고 그 아래 잔잔한 물결은 달빛을 반사하여 전복껍질이 물위에 누워 춤을 추는 듯하며 멀리 동취병산 아래 드리운 안개 속 풍경은 꿈속을 헤매는 듯하였다.

퇴계선생께서 「도산잡영陶山雜詠」에서 탁영담 맑은 물에 갯끈을 씻을 수 있어 기쁘고, 센 물살에도 꺾이지 자리를 지킨 반타석은 어여쁘며, 흰 구름이 둘러있는 동취병산은 어느 화가의 그림인지 의문이고, 뜬 구름이 제멋대로 푸르른 서취병산이 더욱 좋으며, 구름 속에 반만 보인 부용봉은 이름이 아름답다고 읊으셨다.

10) 1. 仙漁暮帆 선어대 해질녘, 2. 歸來朝雲 귀래정 아침구름, 3. 西岳晚鐘 서악사 저녁 종소리, 4. 臨淸古塔 임청각 옛 탑, 5. 鶴駕歸雲 학가산 머문 구름, 6. 燕尾細雨 제비원 가랑비, 7. 陶山明月 도산 밝은 달, 8. 河回淸風 하회 맑은 바람
安東八景 詩(지은이 : 未詳)
仙漁臺下銀魚肥 선어대 아래에 은어들은 살쾜고
歸來亭上白雲遊 귀래정 위에는 흰구름 노니는데
西岳寺樓前日樂 서악사 누 위에서 즐거웠던 지난날
臨淸閣軒古時愁 임청각 마루에서 옛 시름 겨워하네
鶴駕山影照三郡 학가산 그늘은 세 고을에 드리우고
燕尾園名傳萬秋 연미원 이름은 만세에 이어지니
西厓祠前松竹綠 하회마을 앞에는 송죽이 푸르고
退溪門下洛江流 도산서원 아래는 낙동강이 흐르누나.

탁영담

어부가 당시에 혼자 술에 갠 이를 비웃었으나¹¹⁾
 어찌 공자께서 간절히 경계하신 말씀¹²⁾만 하겠는가
 내가 와서 뱃전 치며 풍월 읊으니¹³⁾
 도리어 맑은 못에 갇곤 씻을 수 있음이 기쁘도다.

濯纓潭

漁父當年笑獨醒
 何如孔聖戒丁寧
 我來叩櫓吟風月
 卻喜清潭可濯纓

반타석

도도한 탁류 속엔 얼굴 문득 숨겼다
 잔잔한 물 흐를 때면 비로소 분명하네.
 어여쁘다, 이렇게 세찬 물결 부딪쳐도
 천고토록 반타석은 꿈적도 았구나.

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동취병산

웅기종기 못 봉우리는 왼쪽 푸른 병풍인데
 비 갠 뒤 산 아지랑이 때때로 흰 구름이 비꼈네.
 잠깐 동안에 변화하여 비를 날리니
 이것이 영구¹⁴⁾의 붓끝에서 나온 것인가 의심되네.

東翠屏山

簇簇羣巒左翠屏
 晴嵐時帶白雲橫
 斯須變化成飛雨
 疑是營丘筆下生

서취병산

우뚝 솟은 못 봉우리 서취병이 아닌가?
 가운데는 절¹⁵⁾이 있고 아래엔 정자¹⁶⁾ 있네.
 시 읊으며 마주 보니 늦은 저녁이 더욱 좋아¹⁷⁾

西翠屏山

巖巖羣峯右翠屏
 中藏蘭若下園亭
 高吟坐對眞宜晚

11) 어부가 ... 갠 이들: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어부(漁父)를 만나서, ‘세상 사람이 다 취하였는데 나만 홀로 깨었으므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였다’ 하니, 어부는, ‘세상 사람이 다 취하였거든 술 찌꺼기라도 먹지 아니 하고 왜 추방을 당하였는가’ 하고는, 돛대를 두드리고 가면서, ‘창랑(滄浪)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갇곤을 씻을 것이요. 창랑수의 물이 탁하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 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을 따라서 산다는 뜻이다.

12) 공자께서 ... 경계하신 말씀: 『맹자(孟子)』에, “어떤 어린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를, ‘창랑수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갇곤을 씻고 창랑수의 물이 탁하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 하니, 공자가 듣고 제자들에게, ‘애들아, 들어라. 맑으면 갇곤을 씻고 탁하면 발을 씻는다니 이것은 창랑수의 맑고 탁하기에 달려있구나’ 하였다” 한다.

13) 도연명의 시에 이르기를, “초가를 달빛 아래 노를 두드리며, 강물을 앞에 두고 벗들과 이별하네[叩?新秋月 臨流別友生]” 하였다. 『靖節先生集 卷3』 「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

14) 이영구(李營丘): 송(宋)의 산수화가(山水?家) 이성(李成)의 호.

15) 영지산의 절인 듯싶다. 蘭若(난야): 범어(梵語)로서 아란야(阿蘭若)의 약칭으로, 절을 이르는 말. 고요하여 고뇌와 번민이 없는 곳이란 뜻이다.

16) 농암 위 애일당이다.

17) 두보의 「白帝城樓」에 「翠屏宜晚對」가 있음. 후에 주자가 이를 인용하였음.

구름이야 뜨건 말건 만고에 푸르구나.

一任浮雲萬古靑

부용봉

芙蓉峯

남쪽을 바라보니 높은 봉우리 반쯤 보이는데

南望雲峯半隱形

부용봉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芙蓉曾見足嘉名

주인 또한 연하의 고질병¹⁸⁾ 있으나

主人亦有烟霞癖

초가집¹⁹⁾ 지으려는 깊은 뜻 오래도록 못 이뤘네.

茅棟深懷久未成

안동댐이 만들어지고부터는 천연대서 즐기던 절경은 물이차면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잠기고,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탁영담을 메꾸어 여울에 불과하여 반타석은 보일 듯 말 듯하다.

2018년 11월 안동시 발표²⁰⁾에 의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량을 더 하류에 건설한다고 하니 현 잠수교를 철거하여 강물의 흐름을 원활케 하여 본래의 경치를 복원하는 것도 도산서원의 경치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석벽에 새긴 ‘천연대天淵臺’라는 큰 글씨는 아계 이산해鵲溪 李山海의 글씨이다

천연대 아래 수직垂直에 가까운 암벽巖壁에 해서체楷書體로 ‘天淵臺’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다. 큰 글씨는 각각 90×90cm정도이고 옆으로 작은 글씨가 3줄이 새겨져²¹⁾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큰 글씨를 처음 새긴 기록과 수리修理를 한 기록인 듯하다. 큰 글씨는 1600년에 월천月川(趙穆, 1524~1606)의 요청에 따라 아계鵲溪(李山海, 1539~1609, 諡 文忠)가 쓴 글씨이다.²²⁾ 이 글씨를 새기고 상덕사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18) 연하의 고질병: 당 나라 처사 전유암(田遊岩)이 찾아간 고종황제(高宗皇帝)에게 말하기를, “신은 천석고황(泉石膏肓)이요 연하고질(煙霞痼疾)입니다” 하였다.

19) 주희가 복건성(福建省) 무이산(武夷山)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이루고 나서 지은 시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가운데 「정사(精舍)」라는 제목으로 “거문고와 책을 벗 한 사십 년에, 몇 번이나 산중객이 되었던고? 하루에 땀집이 이루어지니, 어느덧 나의 천석이로다[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라고 읊은 것이 있다.

20) 매일신문, 2018. 11. 11. 자.

21) 辛丑一月日, 亥七月, 丙九月重.

22) 李山海, 『鵲溪遺稿 附錄』 「鵲溪 李相國 年譜」, 만력 28년 경자(1600, 선조33), 공의 나이 62세, “趙月川 등 제공이 退溪先生의 遺意로 天淵臺를 축조하고 공에게 天淵臺란 臺額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하여 벼랑 끝 바위에다 새긴 다음, 告由文을 지어 선생의 사당에 고하였다.” 「출처: 한국고전종합DB」.

천연대에 이름을 새긴 것을 아뢰는 글

만력29년 신축 10월 1일[양력 1601. 10. 26.] 문인 조목 등은 감히 퇴도선생 사당에 밝게 아뢰옵나이다.

아! 우리 선생께서 이 산을 얻어 이 대를 쌓아 이름을 ‘천연’이라 한 것이 어찌 우연이며, 제자들이 오늘 돌벼랑을 뚫고 이름을 새겨 무궁토록 보인 것도 어찌 우연이었습니까?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뜰의 풀은 무성하나 광풍제월²³⁾ 같은 마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어, 매번 이 천연대에 올라 바라보면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뛰어 연못 위로 오르는 것이 옛날 그대로 정말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한탄스럽고 슬퍼 배회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온종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일이 늦추어지거나 미루어지고, 세상의 도덕 풍조가 오르고 내리니, 이 천연대가 폐해지거나 흥해지고 보존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인들이 선생의 유적을 추모하여 그 장소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저희들의 회포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북받치는 감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돌벼랑 위에 있는 이 셋 글자가 강 언덕에 밝게 걸려있어 서원 입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갑자기 본다면 어찌 그 때문에 뛰듯이 기뻐하며 마치 당시의 솔개와 물고기의 취지를 보는 듯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재상 산해[李山海]가 쓴 ‘天淵臺’라는 큰 글자 셋을 돌벼랑에 새겨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곳을 유람하는 자로 하여금 자사²⁴⁾와 정자²⁵⁾께서 밝히신 ‘상하에 드러난다²⁶⁾’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뛰고 나는 것이 선생께서 평소 완락하신 뜻과 나란하니, 눈만 들면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면, 어찌 여기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돌아보는 사이에서 마음과 눈을 열어, 이미 어두워진 나머지에서 하늘 이치를 밝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이 벼랑과 돌을 비록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도가 가득 있다

23) 光風霽月: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한 인품을 형용한 말. 『宋書』 「周敦頤傳篇」에 北宋의 시인이자 書家인 黃庭堅이 주돈이를 존경하여 쓴 글이 있다. ‘정견이 일견기를 그의 인품이 심히 고명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과 같다. [庭堅稱 基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 광풍제월이라는 말은 훌륭한 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또 ‘霽月光風’, 줄여서 ‘光霽’라고도 한다.

24) 子思(BC483?~BC 402?): 중국 고대 魯나라의 학자. 이름 伋. 자사는 字로서 공자의 손자이며, 4서의 하나인 『中庸』의 저자로 전한다. 曾子의 學을 배워 유학의 전승에 힘썼다. 맹자는 그의 제자의 제자이며, 공자-증자-자사-맹자로 이어지는 이 學統은 宋學에서 특히 존중된다.

25) 程子: 중국 송나라의 程明道(1032~1085)와 程伊川(1033~1107) 두 형제를 말하며 이(二)정자라고도 한다. 모두 유교 철학자. 周簾溪에게서 배우고 理를 최고의 범주로 삼아 道學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26) 『中庸章句』의 「費隱章」에, “군자의 도는 費하되 隱하다. … ‘詩’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거늘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라고 하니 상하에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君子之道 費而隱…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한 말을 끌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朱子(朱子)는 “費는 用의 넓음이고, 隱은 體의 은미함이다”라고 하고,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은 理의 用으로서 費라고 하였는데, 李子修는 ‘상하에 드러난다’는 ‘察’자를 은미한 ‘體’인 ‘隱’으로 생각한 것이다.

[目擊道存]²⁷⁾는 것이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아! 천연대가 비록 무너져도 돌은 구르지 않으며, 세상이 비록 변해도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의 도덕은 위와 아래에 밝게 드러나 있어 그 하늘이며 그 연못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속世俗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돌볼 가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 사당에 계시는 선생의 명령께서 묘정을 오르내리시니 감히 경건하게 아뢰어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²⁸⁾

아계鵝溪는 나이 7~8세도 되기 전에 능히 큰 글자를 썼고, 글씨를 다 쓰고 나면 발에 먹물을 묻혀서 종이 끝에 자국을 찍으니, 사람들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²⁹⁾라고도 하였고, 이산해가 다섯 살이 되자 처음 병풍 글씨를 쓰는데 붓 움직이는 것이 신과 같고 글자 획이 완전히 용과 뱀이 달려가는 것 같았으므로 신동神童이라고 명성이 자자하여 당시의 고관들이 와서 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일찍이 먹물을 발바닥에 칠하고 종이 끝에 찍어 어린 아이의 발자국임을 표시했으며 인가에서 지금도 전해오면서 보고 있다³⁰⁾고도 하였다.

27) 目擊道存: 보자마자 道가 있다는 것은, 子路가 일찍이 孔子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溫伯雪子를 만나고자 하신 지 오래였는데,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공자가 이르기를 “그런 사람은 한 번만 보아도 도가 있는 줄을 알 수 있으니, 또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若夫人者 目擊而道存矣 亦不可以容聲矣]”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莊子 田子方』.

28) 趙穆, 「刻天淵臺告文」, 『月川先生文集 卷之六』, “維萬曆二十九年歲次辛丑十月乙丑朔。門人趙穆等敢昭告于退陶先生之廟。猗歟我先生。得此山築此臺。而命之以天淵者。豈偶然哉。而弟子之今日鑿崖石銘此名。而留示無窮者。亦豈徒然哉。惟先生去世。于今三十年餘。庭草已蕪。而光風未泯。霽月凝輝。每一登臺而望焉。則鳶之飛而戾乎天。魚之躍而出乎淵者。依然固有在也。感慨惆悵。徘徊而不釋者竟日。而況人事之推遷。世道之陞降。臺之廢興存亡。亦不可知。則後之人。追先生之遺迹。欲知其處而未得者。安知其不如吾儕今日之懷。而或甚焉者乎。徘徊徬徨。感慨不歇。忽觀此崖石上茲三字者。昭揭江阜。輝映山門。則寧不爲之躍如也。若見當時鳶魚之趣者耶。茲以李相山海所書天淵臺三大字。刻于崖石。庶令千載之下來遊斯地者。其於思程所贊上下察也。活潑潑地。竝與先生平日玩樂之意。舉眼斯得。則豈不有以開心目於指顧之間。明天理於既晦之餘乎。然則斯崖也斯石也。雖謂之目擊道存。可也。噫。臺雖壞而石不轉。世雖變而名不泯。惟先生道德之昭著于上下。其天其淵。豈不韋然。豈不遠哉。雖被世俗笑侮。有不足恤者。噫。惟先生在廟之靈。陟降庭止。敢不敬告以聞。”

29) 權應仁, 『松溪漫錄 上』, “鵝溪李相公山海甫。年未髫髻。能書大字。求者坌集。書罷足濡墨汁。印迹紙尾。人尤異之”

30) 배한철, 『고전으로 읽는 우리역사 42』, 『매경프리미엄』, 2018. 5. 7. 자. 李德洞(1566~1645, 號 竹泉, 諡 忠肅) 著, 『竹窓閑話』 재인용.



천연대각자
(2007년 겨울. 이동구 촬영)



도·산·서·원·이·야·기

11

열정

冽井



52.0×28.0×16.0cm



‘열정井’은 선생께서 돌샘이 달고 차갑다¹⁾고 하신 그 샘이다.’

서원 정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장대석을 ‘우물 정’ 모양으로 쌓은 앞에 ‘열정井’을 세로로 쓴 표지석이 보인다. 이 표지석은 1970년 도산서원 보수정화공사 때 세운 표지석이다. 돌을 잘라내어 글씨를 쓸 자리만 갈아서 글씨를 쓰고 그 외에는 다듬지 않았음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모양의 표지석을 「도산잡영陶山雜詠」에서 확인되는 지형지물의 현장에 1970년에 세웠던 것이다.

‘열정井’은 『역경易經』²⁾ 48번째 ‘수풍정괘水風井卦’의 글에서 골라낸 이름이다.

“우물이 마을을 연다. 우물을 고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우물에서 우물로 왕래하나 물이 말라 두레박을 내리지 못하고, 마침내 두레박마저 잃으니 흉하다. 우물이 더러워 먹을 수 없게 되니 오래된 우물인데도 날아드는 새가 없다.

골짜기의 우물을 독 뱀은 두꺼비가 지키고 있으니, 두레박이 깨져 새는 것과 같다. 우물을 청소해도 먹을 수 없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물을 길어 먹고 왕이 밝다면, 더불어 그 복을 받으리라. 우물을 치는 것은 허물이 없다. 우물은 차고 맑아야 하며 끓임 없이 샘솟아 모두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우물을 잘 거두되 덮어 막지 않으니, 믿음이 있으므로 근원적으로 길하다.”³⁾

이 괘사卦辭(고대 중국의 문왕과 주공이 주역의 괘와 효를 설명한 글)는 우물은 마을을 열고 고치는데, 마을에 꼭 필요한 우물을 고치지 않으니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다니기만 하고 우물을 고치지 않았으니 물은 거의 말라 두레박줄 역시 물이 있는 바닥까지 미치지 못하며, 결국 두레박마저 걸리고 말아 물을 퍼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게 된 우물이라면 그것이 설혹 오래 전부터 내려온 유서

1) 李滉, 「陶山雜詠(并記)」, 『退溪先生文集卷之三』, “石井甘冽”.

2) 『易經』: 유교의 기본경전인 五經의 하나. 본래의 명칭은 易 또는 周易이었는데 占書된 것이 유교의 경전이 되면서 易經이 되었다. 전체 구성은 上經 下經과 해설부분인 十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占卜을 위한 原典과도 같은 것이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凶運을 물리치고 吉運을 잡느냐 하는 처세상의 지혜이며 나아가서는 우주론적 철학이기도 하다. 周易이란 글자 그대로 周나라 시대의 易이란 말이며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夏나라 때의 連山易, 殷나라 때의 歸藏易이라는 역서가 있었다고 한다. 역이란 말은 變易, 즉 ‘바뀐다’, ‘변한다’는 뜻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다. 『주역』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특히 宇宙哲學을 논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유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복술의 원전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3) 水風井 井改邑 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 汔至 亦未繙井 羸其瓶 凶 井泥不食 舊井 无禽 井谷 射射 甕敝漏 井渫不食 爲我心恻 可用汲 王明 並受其福 井甃 无咎 井 冽寒泉食 井收勿幕 有孚 元吉.

깊고 큰 우물이라고 해도 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우물에 두꺼비가 독을 쏘아 대며 지키고 있음은 두꺼비가 주인 행세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 이런 우물은 청소를 해도 먹을 수 없으니 안타까운데 이 우물을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게 할 사람은 왕뿐이니 왕이 밝다면 더불어 물을 마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물의 양이나 마실 수 있는지를 살펴서 차고 맑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덮개를 덮지 않으면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마실 수 있으니 좋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를 개혁해 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퇴계선생께서 이 우물을 발견하고 서당을 세우게 되어 기쁘다고 시를 지으셨다

차가운 우물

서당 남녘에 돌샘이 달고 차갑도다.
오랫동안 묻혀 있었으니 이제부터 덮지 말라.

冽井

書堂之南 石井甘冽
千古烟沈 從今勿冪

바위 사이 솟는 샘이 맑고도 차가워라
저절로 솟아 흐르니 마음 어이 슬프리오
한가한 이 사람이 서당 세웠으니
표주박 한잔 물을 진실로 서로 얻었도다.

石間井冽寒
自在寧心惻
幽人爲卜居
一瓢眞相得

옛 선비들은 수양修養하는 곳에 샘을 꼭 만들었다. 샘은 쉬지 않고 새물을 솟아 갈증을 해소하게 하듯이 선비는 항상 스스로를 깨우쳐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같아서 샘은 곧 선비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샘은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산새도 찾지 않게 된다. 샘은 덮어두지 않고 늘 쳐서, 심 없이 새물을 길어 올릴 때에야 비로소 스스로 역할을 하게 된다.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에 몽천蒙泉과 열정冽井을 두었듯이 다산茶山(丁若鏞, 1762~1836, 諡 文度)공도 귀양지이지만 다산초당에 약천藥泉을 둔 것도 차를 우려내는 물이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선비정신을 기르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의 ‘열정湧井’은 물을 마실 수 없다

안동을 도산서당 앞의 ‘열정湧井’과 비유比喩하여 마을은 옮겨가도 우물은 남아 있고, 물을 길어가도 줄지 않으며, 우물은 또한 주인이 따로 없어 오가는 사람이 목을 축인다는 것이다. 안동이야말로 늘 솟아나는 우물 같아 오는 사람마다 선비정신을 길러가는 고장이다.⁴⁾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안동댐을 만들면서 서원 앞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독을 쌓고 계곡에 흙을 채워 마당이 되니 ‘열정湧井’이 묻히게 되자 우물에도 둘레를 더 높이 쌓고 장대석으로 땅 위에 ‘우물 정’ 모양을 만들었다.

우물은 더 깊어지고 물은 지표수가 스며들어가서 마실 수 없도록 오염되어 그 옆에 현대식 수도시설을 하였다.

본래는 곡구谷口에서 올라와 작은 돌다리를 건너면 길 아래에 우물이 있었다. 도산서당 시절부터 곡구가 메워지기 이전까지는 이 우물을 사용하였다.

지금이라도 돌을 다듬어 옛 우물(湧井)모양을 만들어 수도를 연결하여 물을 솟아나게 하여 표주박으로 떠서 마실 수 있게 설치를 하게 되면 퇴계선생께서 바라시던 ‘열정湧井’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좋은 관광자원도 될 것이다.

4) 김종해, 「안동, 새로운 번영시대를 꿈꾸다」, 『국회보』, 2011년 8월호.



박정희 대통령 곡구길 행보
(1970.12.8. 국가기록원 제공)



도·산·서·원·이·야·기

12

농운정사

隴雲精舍



66.2×31.0cm



농운정사 전경

도홍경의 고사故事에서 ‘농운隴雲’을 골라 이름으로 삼으셨다.

농운정사隴雲精舍는 도산서당의 부속시설로서 선생께 배우는 제자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곳이다. 선생 시 「농운정사」에서 중국 양나라 때 선비가 은거隱居(숨어서 삶)하였던 고사故事의 ‘영상다백운嶺上多白雲’에서 ‘영嶺(고개 영)’자를 ‘농隴(고개이름 농)’자로 고쳐 ‘운雲’자와 함께 정사의 이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도홍경(陶弘景, 458~536, 중국 양나라 학자)은 약관弱冠(나이 20살)에 제왕시독諸王侍讀을 지내고 뒤에 구곡산句曲山(중국 江蘇省에 있음, 일명 茅山 이라고도 함)에 숨어 살았는데, 양 무제(梁武帝, 재위 502~549)가 큰 일이 있으면 글을 보내어 문의하니 사람들이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 하였고, 무제가 ‘산중에 무엇이 있는고[此中何所有]?’하고 물으니

| | |
|---------------------------|---------------------|
| 산속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한 시 | 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 |
|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 山中何所有 |
| 고개 위에는 구름이 많도다 | 嶺上多白雲 |
| 다만 스스로 기뻐할 수는 있으나 | 只可自怡悅 |
| 가져다가 그대에게 줄 수는 없노라 | 不堪持贈君 ¹⁾ |

라는 시詩를 지어 답했다는 고사故事가 전한다.²⁾

| | |
|------------------------|---------|
| 농운정사 | 隴雲精舍 |
| 도홍경이 고개 위 구름 두고두고 사랑하여 | 常愛陶公隴上雲 |
| 오직 홀로 기뻐하나 임에겐 못 보냈네. | 唯堪自悅未輸君 |
| 늦게 집을 엮고 그 중간에 누웠으니 | 晚來結屋中間臥 |
| 한가한 맘 그 반을 들 사슴과 나누려다. | 一半閒情野鹿分 |

글씨는 퇴계선생의 친필로서 예서체隸書體이다

일반적으로 예서는 가로가 긴 사각형으로 가로획의 끝부분을 삐쳐 쓴 글씨이다. 퇴계선생은 정사각형으로 가로획 끝부분을 위로 삐쳤음이 특징으로 확인된다. 또 이 현

1) blog.naver.com/kjschina/221014445313 참조.

2)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7.

판에서 특이한 점은 ‘구름 운雲’자에 ‘이를 운云’자가 1자 더해져 있다. 『서도자전書道字典』에 찾아보니 집첩集帖 예변隸辨에 이러한 글자가 보인다.

현판을 세로로 만들어 테두리에는 아무 그림 없이 누런색만 칠해져 있다.

이 집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자漢字로 ‘공고’ 자이다

영문英文으로는 ‘H’자 또는 옛날 길쌈(옷감을 짜는 일)을 하던 베틀에 날줄을 매는 ‘도투마리’ 모양을 하고 있다. 퇴계선생께서 공부하는 학도들이 거처할 집이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염원으로 처음 설계를 하셨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방에는 크고 작은 창문이 많고, 마루는 마주보는 한쪽만 터져 있는 특징이 보인다. 방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이고, 마루 역시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여 시원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농운정사는 최대한 욕망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연의 멋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퇴계선생의 동심이 조각한 건축물일 것이다.”³⁾고 하는 건축학자도 있다.

2015년 3월에 삭은 기와와 목재 교체를 위하여 해체하니 대들보에 1964년 3월 28일 오후 4시경 기둥을 세워 상량하니 정사를 처음 지은 1557년으로부터 지금 408년이 되어 다시 짓는다. “甲辰三月辛卯朔二十八日戊午申時立柱上樑 精舍始築嘉靖丁巳距今四百八年 重建”이라는 목서가 써져 있었다. 그런데 「도산서당 영건기사」⁴⁾에 퇴계선생께서 1557년(嘉靖丁巳)에 터를 정하고 서울에 가서서 1558년에 옥사도屋舍圖(설계도)를 그려 보냈고, 1560년 7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1월에 서당이 완공되었으며 농운정사는 서당 서쪽에 세웠다고 하셨으니 터를 정하신 해 정사丁巳를 지은 해로 보는 듯하다. 2015년 5월에 준공하여 상덕사에 아뢰된 글이 다음과 같다.

3) 김희곤, 「정신 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2」 『월간 건축사 통권 제603호(2019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 2019. 07. 31.

4)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卷之三』 “嘉靖六年丁巳先生得書堂基址於陶山之南 -중략- 戊午七月先生赴召入都寫屋舍圖子一本書與 -중략- 庚申七月始役十一月堂成堂凡三間軒曰巖棲齋曰玩樂合而扁之曰陶山書堂堂之西構精舍八間軒曰觀瀾齋曰時習寮曰止宿舍而扁之曰隴雲精舍”

2015년 농운정사수리를 아뢰는 글⁵⁾

2015년 6월 16일 후학 김병일은 감히 선사 퇴도이선생님께 아뢰나이다.

엎드려 생각 하옵컨대.

선생이시여! 백세의 큰 스승이십니다. 회암晦菴 선생을 사숙하시고 유학의 도를 크게 밝히셨습니다. 시내는 수사洙泗를 나누었고 산봉우리는 무이武夷와 같이 빼어났습니다. 빙옥과 같이 투명한 자질이요 송백과 같이 올곧으셨습니다. 안으로는 도학을 온축하셨으며 밖으로는 문장을 발산하셨습니다. 현우를 모두 살려주시고 남을 공경으로 대하셨습니다. 성학십도의 진실한 공부는 하늘과 함께 전해 질 것입니다. 도산은 높고도 높으며 낙수는 양양히 흐릅니다. 계개繼開의 업적 높기도 하여 우리의 도학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박문약례의 공정으로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셨습니다. 1557년에는 농운정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정사에서 학문을 강론 할 때 부지런히 힘써 나아갔습니다. 공부를 청하는 유생들 구름같이 모였으며 어진 선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행동이 그대로 여서 세상의 윤리강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우러러 사모하니 인품과 지조가 고결하셨습니다. 유학이 복두처럼 뚜렷하였으며 덕이 높고 업적이 넓으셨습니다. 비와 바람에 씻기고 깎인 것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너지고 허술함 몇 해였는가? 지금에 와서 중수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걱정하고 안동시장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부식된 재목은 새것으로 바꾸고 번와하고 수선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201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나같이 옛 법도를 따랐으며 혹시라도 바꾸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자夫子께서 남기신 높은 풍절 세상이 영원토록 전하겠습니다. 이에 알묘례를 올리며 감히 경건하게 아뢰나이다.

「國譯: 지은이」



5) 金昌會, 「龍雲精舍 重修告由文」, 博約齋文簿.

維歲次 乙未五月朔日癸亥 後學 金炳日 敢昭告于

先師退陶李先生 伏以

猗歟先生 百世宗師 私淑晦菴 大闡斯道 溪分洙泗 峰秀武夷
氷玉之質 松栢之貞 蘊爲道學 發爲文章 賢愚咸得 接人以敬
十圖眞工 與天共長 陶山巖巖 洛水洋洋 繼往開來 吾道復興
博文約禮 精思力踐 嘉靖丁巳 始成龍雲 講道精舍 孜孜勉進
請業雲集 樞衣群賢 知行合一 扶植綱常 舉世仰慕 山高水長
斯文星斗 德崇業廣 風磨雨洗 屢變滄桑 頽毀積年 今將重修
政廳軫念 府白施惠 腐木替代 黼瓦繕補 甲午始役 工訖乙未
一遵舊制 無或易改 夫子遺風 傳于永世 茲因參謁 敢告虔告 <撰 金昌會>.

준공 460년 만에 국가문화재 보물 제2106호로 지정되었다

2020. 12. 29. 자 문화재청 보도 자료의 지정사유⁶⁾를 보면 이렇다.

“조선시대 향촌에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학문과 교육의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드문 사례로, 퇴계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향촌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지었으며 그에 인접해서 제자들이 거처하며 공부할 수 있는 농운정사를 지으셨다. 스승과 제자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의 영역 안에서 거처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 다른 곳에서도 널리 이루어졌겠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으며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드물게 남아있는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운정사는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젊은 시절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이며,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유적이요, 이 건물에서 공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중에는 상덕사에 종향된 퇴계선생의 제자 조목趙穆(1524~1506, 號 月川)을 비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김성일金誠一(1538~1593, 號 鶴峯)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류성룡柳成龍(1542~1607, 號 西厓)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거처한 곳이다.

건축형태에서 도토마리 집의 원형을 살려 지은 교육시설의 뛰어난 사례로 꼽히며, 그 평면은 가운데 몸채를 두고 전면과 후면 양 끝에 마루방과 헛간을 갖춘‘工’자 형태를 이루었다. 건립을 맡았던 승려장인 법연法蓮의 구상에 근거한 것이며, 그의 제자 정일淨一에 의해 완성되었다. 도토마리 집은 지금도 안동지역 민가에 일부 남아있으며 16세기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용되었던 건축형태로 보이며, 18, 19세기 중부지방 사찰의 대방은 도토마리 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양식은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형태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유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운회陶雲會는 도산서당 ‘陶’자, 농운정사 ‘雲’자를 모은 이름이다

퇴계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도운회陶雲會라

6)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12.29.

는 모임이 있다. 선생께서 학문을 가르치던 도산서당과 제자들의 기숙사였던 농운정사에서 ‘도陶’와 ‘운雲’을 한 자씩 따서 모임의 이름을 정하였다는 말이 있다.⁷⁾ 즉 스승과 제자들의 후손들 모임이라는 뜻이다. 모임은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⁸⁾에 수록되었거나 퇴계선생 학문을 사숙私淑(훌륭한 분의 학문과 사상을 마음속으로 본받음)한 선현의 후손들이 2000년 12월 20일에 결성하였다. 2001년 4월 6일에 상덕사에 아뢴 글은 다음과 같다.

신사년 4월 정축삭 초육일 임술에 도운회장 후학 풍산 류영하는 삼가 선사 퇴도선생께 밝게 고 하나이다. 성현의 학문은 천년이 되어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도다. 정자 주자의 도를 잇고 공자 맹자의 심법을 전하셨도다. 공경하여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사 종주를 이으셨도다. 지금의 이 세상에 이르러서 이단의 교가 횡종하는구나. 이의 욕심을 탐하고 구하여 뒤흔든 인륜을 소멸시키는 도다. 강개하여 탄식하는 모든 선비들이 사문의 모임을 가졌으니 급문의 자손들과 사숙인들의 후손들이 술선수범하여 조선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금년은 선생께서 탄신하신 오백주년으로 기념행사를 도와서 퇴폐한 풍속을 진화시킬 새 유학을 기초로 하여 골고루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오며 사유를 갖추어 감히 고하옵나이다.⁹⁾

「李昌京 謹譯」

현재 전국에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하고 있다.

7) 김병일, 『선비처럼』, 주)나남, 2015, 218쪽.

8) 李野淳 編, 『陶山及門諸賢錄』, 陶山書院, 19세기: 이 책은 원래 權斗經(1564~1725, 호 蒼雪齋)이 100여 명의 퇴계선생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溪門諸子錄’을 엮은 바 있었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퇴계선생의 후손 守淵(1693~1748, 호 靑壁) 守恒(1695~1768, 호 山後齋) 등이 자료를 수집하고, 뒤에 李野淳(1755~1831, 호 廣瀨)이 다시 자료를 추가하여 총 309인의 事蹟을 수록하여 陶山書院에서 19세기 중엽에 간행하였다.

9) 退溪先生誕辰500周年紀念事業後援會 編, 『退溪先生誕辰500周年 紀念事業白書』, 2002, 433쪽.

維歲次 辛巳 四月 丁丑朔 初六日 壬戌 陶雲會長 後學 豊山 柳寧夏 敢昭告于先師 退陶 李先生 伏以 聖學千載 世貿不遷? 洛道紹 孔孟心傳 恭惟 先生 集成統宗 至于斯世 異教橫縱 貧求利慾 掃除彝倫 慨嘆諸士 設會斯文 及門雲仍 私淑後孫 率先垂範 無?先祖 維茲今歲 誕辰五百 助以行事 進化頽俗 爲基爲礎 均施斯學 敬陳一辭 具由敢告 「金日大 謹撰」.





도·산·서·원·이·아·기

13

시습재

時習齋



27.7×57.3cm



시습재 전경

배우고 익혀서 진리를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농운정사 동편 마루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방을 지칭하는 현판으로 볼 수 있다. 재齋는 일반적으로 방을 이르기 때문이다. 시습時習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말로 『논어論語』¹⁾에서 따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이다. 퇴계선생께서 시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가 알에서 깨어나 쉼 없이 날개 짓으로 날기를 연습하여 비로소 창공을 날듯이 거둡 생각하고 실천하여 참 맛을 얻으면 삶은 고기와 같이 입과 턱을 즐겁게 한다.’는 염원을 담기도 하셨다.

시습재

날로 명성 일삼아서 새 날 듯이 익히고는
거둡 생각 다시 실천 때때로 나아가오
공부가 이룩되어 깊은 맛을 얻고 보면
아름답게 삶은 고기 입에 맛을 뿐이리요

時習齋

日事明誠類數飛
重思複踐趁時時
得深正在工夫熟
何啻珍烹悅口頤

‘시時’자를 자세히 보면 옥편에서도 찾기 힘든 글자이다.

현판의 글씨는 역시 퇴계선생이 쓴 예서체隸書體이다. 이 글씨에서 특이한 점은 ‘시時’자에 ‘일日’자의 ‘日’ 속에 비둘기를 그린 것과 ‘토土’자의 위 가로 획을 두 점으로 이은 것이다. 『서도자전書道字典』이라는 책에서도 찾기 힘든 글자로서 선생께서 글자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창작한 듯하다.

현판 크기도 작고 테두리는 하였으나 아무런 그림이 없어 소박하게 느껴진다.

1) 『論語』, 「學而編」: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도·산·서·원·이·아·기

14

관란헌

觀瀾軒



25.3×56.7cm



관란헌 전경

물결이 주는 교훈을 깨우쳐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라는 가르침이다

농운정사 서편 마루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글씨는 역시 퇴계선생이 쓰셨다. “전서·예서·해서의 서풍이 어우러져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편안한 글씨”¹⁾라고 한다. 글자대로 번역하면 ‘물결을 바라보는 마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결이 주는 교훈을 깨우쳐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공자孔子가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도다.”라고 한 이른바 「천상탄川上嘆」을²⁾ 이천伊川(程頤, 1050~1103, 북송시대 철학자) 선생이 “천상탄川上嘆은 도道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의 움직임은 쉬이 없어서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물은 흘러 끊임이 없고 물질은 생겨나서 다하지 않으니 모두가 도道와 한 몸이 되어 밤낮으로 그침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니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순수함이 그치지 않을 것”³⁾이라고 하였다. 즉 유행불식流行不息하는 도체지본연道體之本然에 견주어 배우는 사람은 끝없이 노력하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맹자孟子는 “물을 볼 때에는 반드시 물결을 보아야 그 물이 장대長大한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물은 작은 구멍이라도 채우지 않으면 흐르지 아니하고 구멍을 하나하나 채우며 마침내 바다에 도달한다. 군자가 성인의 뜻을 두고 덕을 닦아 나가는 데 있어도 하나하나의 덕을 차례차례 완성시켜 나아가지 아니하면 성인聖人 같은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⁴⁾고 하셨다. 이와 같이 선현들의 가르침에서 근거하였다.

관란헌

觀瀾軒

넓고도 양양하니 그 이치 어떻게

浩浩洋洋理若何

일찍이 성인께서 이렇다고 탄식했소

如斯曾發聖啓嗟

1)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현판도록① 뜻이 담긴 현판 扁額』, 2009, 43쪽.

2) 『論語集註』, 「子罕第九 16章」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天地之化 往者過 來者續 無一之停 乃道體之本然也 然其可指而易見者 莫如川流 故於此 發以示人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斷也.

3) 『論語集註』, 「子罕第九 16章」 “程子曰 此道體也 天運而不已 日往則月來 寒往則暑來 水流而不息 物生而不窮 皆與道爲體 運乎晝也 未嘗已也 是以 君子法之 自強不息 及其至也 純亦不已焉”

4) 『孟子』, 「盡心章句 上 24章」 “觀水有術 必觀其瀾 日月有明 容光必照焉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 君子之於道也 不成章不達”

도체⁵⁾가 다행히도 이로부터 나타나니
공부를 하려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幸然道體因茲見
莫使工夫間斷多

현재 관란헌에서 낙천洛川의 물결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

1970년 정화사업淨化事業으로 돌담을 쌓으면서 담의 높이를 높였고 1975년 곡구谷口가 안동댐 수몰지가 됨에 따라 정문 앞 계곡을 마당으로 만들고 그 끝에 나무를 심어 시야視野를 가렸기 때문이다. 실행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2013년에 안동시에서 수립한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에 담은 토담으로 옛날과 같이 복원하고 정문 앞 마당을 낮추어 옛 곡구의 형체라도 재연再演한다고 하였다. 기대를 해 볼 뿐이다.

5) 道學의 本體이다.



도·산·서·원·이·야·기

15 도산기 陶山記



166cm×42cm



도산서원도 일부
강세황(1713~1791) 1751년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 而命之曰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竈 故名之以其實也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 山之在左曰東翠屏 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清涼 至山之東 而列岫縹緲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峩 兩屏相望 南行迤邐 盤旋八九里許 則東者西 西者東 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 水在山後曰退溪 在山南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趨 至山之趾 則演漾泓渟 沿泝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並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峯下 峯卽西者東 而合勢之處也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偏於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篁遶廊 巖麓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野人田其中以資易之 有浮屠法蓮者幹其事 俄而蓮死 淨一者繼之 自丁巳至于辛酉 五年而堂舍兩屋粗成 可棲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 取朱先生名堂室記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之語也 東一間曰巖栖軒 取雲谷詩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之語也 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觀瀾 合而扁之曰隴雲精舍 堂之東偏鑿小方塘 種蓮其中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對平築之爲壇 而植其上梅竹松菊曰節友社 堂前出入處 掩以柴扉曰幽貞門 門外小徑緣澗而下 至于洞口 兩麓相對其東麓之脅 開巖築址 可作小亭 而力不及 只存其處 有似山門者曰谷口巖 自此東轉數步 山麓斗斷 正控濯纓潭上 巨石削立 層累可十餘丈 築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曰天淵臺 西麓亦擬築臺 而名之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 盤陀石在濯纓潭中 其狀盤陀 可以繫舟傳觴 每遇潦漲 則與齊俱入 至水落波清 然後始呈露也 余恒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

尋社 巡圃蒔藥 探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
 滿壁 對案嘿坐 兢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發於憤悱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
 心思繹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
 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 是則閒居養疾 無用之功業 雖不能
 窺古人之門庭 而其所以自娛悅於中者不淺 雖欲無言 而不可得也 於
 是 逐處各以七言一首紀其事 又有蒙泉冽井庭草潤柳菜圃花砌西麓南
 汧翠微寥朗釣磯月艇鶴汀鷗渚魚梁漁村烟林雪徑櫟遷漆園江寺官亭
 長郊遠岫土城校洞等 五言雜詠二十六絕 所以道前詩不盡之餘意也 嗚
 呼 余之不幸晚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
 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病益深
 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
 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粲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雖然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
 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
 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羣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
 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
 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或曰 古之愛山者 必得名山以自託 子之不居清涼 而居此何也 曰 清涼
 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樂山樂水 缺一不可 今洛川
 雖過清涼 而山中不知有水焉 余固有清涼之願矣 然而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曰 古人之樂 得之心而不假於外物 夫顏淵之
 陋巷 原憲之甕牖 何有於山水 故凡有待於外物者 皆非真樂也 曰 不然
 彼顏原之所處者 特其適然而能安之爲貴爾 使斯人而遇斯境 則其爲樂
 豈不有深於吾徒者乎 故孔孟之於山水 未嘗不亟稱而深喻之 若信如吾

子之言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 是必有其故矣 或人唯而退

嘉靖辛酉日南至 山主老病畸人記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도산기¹⁾

영지산(靈芝山)²⁾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내려 도산(陶山)이 되었다. 어떤 이는, “그 산이 두 번 솟았기 때문에 도산이라 불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산중에 옛날에 질그릇을 굽던 부엌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따라 이름 하였다”한다.

산이 그다지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며 앉은 위치도 치우침이 없어, 주위의 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이 산을 향하여 두 손 맞잡고 읊(揖)하면서 둘러 안고 있는 것 같다.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취병(西翠屏)이라 한다. 동취병은 청량산(淸涼山)에서 나와 이 도산 동쪽에 이르러서 여러 봉우리가 보일락 말락 하고, 서취병은 영지산(靈芝山)에서 나와 이 도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아있다. 동취병과 서취병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휘감아 8·9리쯤에서, 동쪽에서 온 것은 서쪽으로 들고 서쪽에서 온 것은 동쪽으로 들어 남쪽 들판 아득한 곳에서 합세한다.

도산 뒤에 있는 시내를 퇴계(退溪)라 하고, 도산 남쪽에 있는 것을 낙천(洛川)이라 한다. 퇴계는 도산 북쪽을 돌아 도산 동쪽에서 낙천으로 들고, 낙천은 동취병에서 나와 서쪽으로 도산 기슭 아래에 이르러 넓고 맑고 쌓이고 출렁거린다. 여기서 몇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이 깊어 배가 다닐 만하며, 금 같은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가우니 여기가 이른바 탁영담(濯纓潭)이다. 이 물이 서쪽으로 달려 서취병의 벼랑에 부딪치고는 드디어 그 아래의 물과 합치고, 남쪽으로 큰 들을 지나 부용봉(芙蓉峰) 아래로 들어가니, 그 봉(峯)은 바로 서취병(西翠屏)이 동취병(東翠屏)으로 와서 합세(合勢)한 곳이다.

내가 처음에 계상(溪上)에 터를 잡고 시내를 굽어 집 두어 칸을 엮어서 책을 간직하고 양줄(養

1) 1561(명종16)년 11월에 지으신<도산잡영(陶山雜詠)>의 머릿글이기도하다. 이記는 1566(명종21)년에 임금께서 관직을 제수하고 특명으로 상경을 하시다가 병을 얻어 중도에 사퇴하자 왕이 화공을 보내어 도산풍경 그림을 그리고 이 글을 쓴 병풍을 만들어 愛玩하였다(《退溪先生年譜》 61·66歲 條 參照)

2) 영지산: 경북 안동 도산면 동부 분천 토계 온혜 의일리에 걸쳐있는 산이다(정상: 444m). 동쪽으로 뻗은 줄기의 남쪽 기슭에 도산서원이 있고 그 앞에 낙동강이 흐른다. 영지산 남쪽은 농암선생의 고향인 부내[汾川]이고, 북쪽은 퇴계선생의 고향인 온계(溫溪)로, 퇴계선생이 먼저 이 산의 주인[靈芝山人]으로 하였는데 농암선생이 은퇴하여 영지정사(靈芝精舍)를 경영하며 주인임을 주장하여 퇴계선생이 양보한 시가 두 편의 문집에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지산은 현 북쪽 5리에 있고, 용두산(龍頭山) 남쪽 줄기가 뻗어온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拙)하는 곳³⁾으로 삼았으니, 대체로 벌써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⁴⁾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 어졌다. 그리고 계상(溪上)은 너무 한적하여 포부를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아 다시 옮기기로 작정 하고 도산 남쪽에서 이 땅을 얻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골이 있어,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려다 보이고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였으며,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며 돌우물은 물맛이 달고 차가워⁵⁾ 참으로 수양할 곳⁶⁾으로 적당하였다. 어떤 농부가 그 안에 밭을 일구고 사는 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샀다.

법련(法蓮)⁷⁾이란 승려가 거기에 집짓는 일을 맡았다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죽었으므로, 정일(淨一)이란 승려⁸⁾가 그 일을 이어받았다. 정사년(1557, 명종12)에서 신유년(1561, 명종16)에 이르기 까지 다섯 해 만에 당(堂·도산서당)과 사(舍·농운정사) 두 채가 그런대로 이루어져 거처할 만하였다. 서당은 모두 세 칸인데, 가운데 한 칸은 완락재(玩樂齋)라 하였으니, 이는 주자(朱子)의 「명당실기(名堂室記)」⁹⁾에 “완상하여 즐기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樂而玩之 固足以終吾身而不厭]”라고 한 말에서 취한 것이다. 동쪽 한 칸은 암서헌(巖棲軒)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자의 「운곡(雲谷)」시에, “능하지 못함¹⁰⁾을 스스로 믿은 지 오래거니 산속에 거처하며 미미하나마 효험 바라네”¹¹⁾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 그리고는 합해서 도산서당(陶山書堂)이라고 편액을 걸었다.

- 3) 양拙(養拙) : 재능이 부족하여 한가로이 지냄. 흔히 은사(隱士)의 겸사로 쓰인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숨기고 살아감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진(晉)나라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 “못 묘한 이치를 누르고 생각을 끊어 마침내 한가로이 노닐며 양拙하노라[抑衆妙而絕思 終優游以養拙]” 하였다. 당(唐)나라 전기(錢起)는 「춘소우직(春宵寓直)」시에서 “양拙하며 버릇대로 구름 속에 누우니, 낭관(郎官)이 되어 새처럼 깃들었네[養拙慣雲臥, 爲郎如鳥棲]”라 하였다.
- 4) 선생 50세 2월에 처음으로 퇴계 서쪽(현 종택 왼편)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보다 먼저 하명동 자하봉(霞明洞 紫霞峯) 아래(도산초등학교 옛터)에 땅을 얻어 집을 짓다가 끝내지 못했고, 다시 죽동(竹洞 : 현 종택에서 하계 가는 길 가운데 왼편 계곡)으로 옮겼으나 또 골이 좁고 시냇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계상(溪上)으로 정하였으니 무려 세 번이나 옮겨 살 곳을 정한 것이다. 한서암(寒栖菴)을 지었다. 집의 이름을 정습(靜習)이라 하고, 그 안에서 글을 읽었다. 선생연보(先生年譜) 50세조(歲條).
- 5) 석정갈일(石井甘冽) : 「역경(易經)」의 정괘(井卦) “정렬한천식(井冽寒泉食)”에서 의미를 취하였다.
- 6) 비둔지소(肥遯之所) : 「역경(易經)」의 천산둔괘(天山遯卦) “상구는 살찌게 물러남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上九 肥遯 无不利], 상에 가로되 ‘비둔무부리(肥遯无不利)’는 의심할 바가 없음이라[象曰 肥遯无不利 无所疑也]”
- 7) 법련(法蓮) : 당시 용수사(龍壽寺)의 승려. 선생께서 이문량(李文樑 : 號 碧梧, 1498~ 1581)에게 보낸 편지에 “그 땅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본다면 감히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겠는데 중 법련이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니 이는 하나의 기이한 인연입니다. 내가 떠나 올 때 법련이 다짐하기를 먼저 기와를 구워 놓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달 준(廩 : 선생 長子)의 편지에 ‘법련이 먼저 집부터 지으려고 하니 몸날이 되어 일을 시작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을 지을 도본부터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겨울철 한가할 때에 하나하나 자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8) 부도(浮屠) : 본래 범어(梵語 : sanskrit)의 음역(音譯)으로 부처(Buddha)를 가리킨다. 또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갈무리하는 사리탑(舍利塔) 또는 승탑(僧塔)을 이르기도 하고 승려(僧侶)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스님을 말한다.
- 9) 「명당실기(名堂室記)」 : 주자(朱子)의 서재(書齋) 회당(晦堂)에 걸린 기문(記文).
- 10) 남송(南宋)의 학자인 유자휘(劉子翬)는 주희(朱熹)의 아버지와 벗이었는데, 그가 주희의 자(字)를 원회(元晦)라 지어 주며 남긴 축사에 “나무는 뿌리에 감추어야 봄의 자태가 찬란히 퍼지고 사람은 몸에 감추어야 신명이 안에서 넉넉하다[木晦於根 春容燁敷 人晦於身 神明內]”라고 하였다. 여기서 ‘능하지 못한’ 것은 이 말을 ‘실천함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11) 이 구절은 주자의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 중 회암(晦庵)을 노래한 시에 나온다.

농운정사(籠雲精舍)는 모두 여덟 칸이니, 재(齋)는 시습(時習), 료(寮)는 지숙(止宿), 헌(軒)은 관란(觀瀾)이라고 하여, 모두 합해 농운정사(籠雲精舍)라고 편액을 걸었다. 서당 동쪽 구석에 조그만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堂)이라 하였다. 또 그 동쪽이 몽천(蒙泉)이다. 몽천 위 산기슭을 파서 암서헌과 마주 보도록 평평하게 단을 쌓고는 그 위에 매화·대[竹]·소나무·국화를 심어 절우사(節友社)라 불렀다.

서당 앞 드나드는 곳을 사립문으로 가렸으니 이를 유정문(幽貞門)이라 하고, 유정문 바깥의 오솔길이 시내를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깎고 터를 닦으니 조그만 정자 하나를 지을 만하나, 힘이 모자라서 짓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 두었다. 이곳에 마치 산문(山門)과 같은 바위가 있으니 이것이 곡구암(谷口巖)이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돌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바로 탁영담에 이르는데, 그 못가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 있으니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뒹직하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고, 위는 하늘 아래는 물이어서 술개 날고 물고기 뛰고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然臺)라 하였다.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라 하였다.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반타석(盤陀石)¹²⁾은 탁영담 가운데 있는데, 그 모양이 넓적하여 배를 매어두고 술잔을 돌릴 만하다. 큰 홍수를 만날 때면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아진 뒤에 비로소 드러내곤 하였다.

나는 늘 고질병을 달고 있어 비록 산에 살더라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근심과 걱정을 조식(調息)한 뒤 때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면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다가 감개(感慨)가 생기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암서헌에서 정우당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를 찾기도 하며, 발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뒤흔들며 꽃을 따기도 하였다. 혹은 바위에 앉아 샘물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거나, 냇시터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가까이하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책이 가득 쌓여있어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 마음을 잡고 이치를 궁구하여 간간히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 먹는 것도 잊었다.

12) 소식(蘇軾 : 소동파) 시 「유금산사(遊金山寺)」에도 반타석(盤陀石)이 보인다.

생각하다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벗을 찾아 물어보며,¹³⁾ 그래도 알지 못할 때는 분발해 보지만 억지로 통하려 하지는 않고 우선 한쪽에 밀쳐 두었다가, 가끔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렇게 하고 다음날도 그렇게 하였다. 또 산새가 울고 초목이 무성하며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눈과 달빛이 어리는 등 사철의 경치가 다 다르니 흥취 또한 끝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춥거나 덥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큰비가 올 때가 아니면, 어느 날이나 어느 때나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고 나갈 때도 이와 같이 하였고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것은 곧 한가히 지내면서 몸 조리(調理)하기 위한 쓸모없는 일이라서 비록 옛사람의 문정(門庭)을 엿볼 수는 없으나 스스로 마음속에 즐거움을 얻음이 알지 않으니, 아무리 말이 없고자 하나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이르는 곳마다 칠언시(七言詩) 한 수(首)로 그 일을 적어 보았더니, 칠언절구(七言絕句) 열여덟 수를 얻었다. 또 「몽천(蒙泉)」, 「열정(冽井)」, 「정초(庭草)」, 「간류(澗柳)」, 「채포(菜圃)」, 「화체(花砌)」, 「서록(西麓)」, 「남반(南洲)」, 「취미(翠微)」, 「요랑(廖朗)」, 「조기(釣磯)」, 「월정(月艇)」, 「학정(鶴汀)」, 「구저(鵠渚)」, 「어량(魚梁)」, 「어촌(漁村)」, 「연림(烟林)」, 「설경(雪徑)」, 「역천(櫟遷)」, 「칠원(漆園)」, 「강사(江寺)」, 「관정(官亭)」, 「장교(長郊)」, 「원수(遠岫)」, 「토성(土城)」, 「교동(校洞)」 등 오언절구(五言絕句)로 여러 경치를 읊은 스물여섯 수가 있으니, 이는 앞의 시에서 다하지 못한 뜻을 말한 것이다.

아! 내 불행히도 뒤늦게 아득히 먼 변방(邊方)에서 태어나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이 없으면 서도 산림(山林)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 알았었다. 그러나 중년(中年)에 들어 망령되이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엎는 속에서 나그네로 여러 해를 보내다가 거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뻔하였다. 그 뒤에 나이가 더욱 들고 병이 더욱 깊어지며 처세는 더욱 곤란해지고 보니,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비로소 굴레에서 벗어나 전원(田園)과 의기투합하고 보니, 앞에서 말한 산림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으로 닥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늘그막을 편히 보낼 곳을 여기 말고 또 어디 가서 구할 것인가?

비록 그러하나 옛날 산림을 즐기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현허(玄虛)를 그리워하고 고상(高尚)함을 일삼아 즐기는 사람이요, 둘째는 도의(道義)를 즐겨하며 심성(心性)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심한 경우 새나 짐승처럼 살면서 그것을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자의 주장

13) 자어이택(資於麗澤): 학우(學友)끼리 서로 도와 학문과 품성을 닦는 일, 즉 같이 공부하는 친구. 「주역 중택태 상」에 “연결(결린) 못이 태(兌)이니 군자가 본받아서 강습하느니라[易經 重澤兌 掛 象曰 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하였다. 두 못이 붙어 있으니 서로 번갈아 맑아지고 불어나며 유익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벗들과 같이 공부하니 서로 유익해진다는 뜻이다.

에 의하면, 즐기는 것이 조박(糟粕)뿐이어서 전할 수 없을 만큼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구할수록 더욱 얻지 못하게 되니, 그 무엇이 즐겁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힘쓸지 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또 어느 겨를에 이른바 세속의名利(名利)를 좇는 것이¹⁴⁾ 내 마음에 들어움을 알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산(名山)을 얻어 자신을 의탁하였거늘, 그대는 왜 청량산에 살지 않고 여기 사는가?”하여, 내가 답하기를, “청량산은 만 길이나 높이 솟아서 까마득하게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든 사람이 편안히 살 곳이 못 된다. 또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려면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되니, 지금 낙천(洛川)이 비록 청량산을 지나기는 하나 청량산에서는 낙천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청량산에서 살기를 진실로 바란다. 그런데도 청량산을 뒤로 하고 이 도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여기는 산과 물을 겸하고 또 늙고 병든 이에게 편하기 때문이다”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즐거움을 마음에서 얻고 바깥 물건에서 빌리지 않았다. 대개 안연(顔淵)의 누항(陋巷)¹⁵⁾과 원헌(原憲)의 옹유(甕牖)¹⁶⁾에 무슨 산과 물의 즐거움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무릇 바깥 물건을 기대하면 그것은 모두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하여, 나는 또, “그렇지 않다. 안연이나 원헌이 처신한 것은 다만 그 형편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편안해 한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런 경지를 만났더라면 그 즐거워함이 어찌 우리들보다 깊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공자나 맹자도 일찍이 산수를 자주 일컬으면서 깊이 인식하였던 것이다. 만일 그대 말대로 한다면 ‘점(點)을 허여(許與)한다’는 탄식이 왜 하필 기수(沂水) 가에서 나왔으며¹⁷⁾ ‘이 해를 여기서 마치겠다’¹⁸⁾는 바람을 왜 하필 노봉(蘆峰) 꼭대기에서 읊조렸겠는가?¹⁹⁾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하자, 그 사람은 “그렇겠다”하고 물러갔다.

- 14) 「초사(楚辭)」 「구장(九章) 추사(抽思)」에 “일찍이 길을 알지 못했더니, 달과 별을 통해 방향을 알았네. 서울[鄢]로 빨리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함은, 영혼이 길을 알았지만 홀로 가서 함께할 이 없기 때문이네[曾不知路之曲直兮 南指月與列星 願徑逝而不得兮 魂識路之營營]” 하였다. 「주자전서(朱子全書) 초사집주 권4(楚辭集注 卷4)」
- 15) 「논어 용야(論語, 雍也)」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다, 안회(顔回)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顔回)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顔回)여!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라고 하였다.
- 16) 공자의 제자 원헌(原憲)이 노(魯)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생필품을 엮어 지붕을 덮고 축대로 문을 내고 뽕나무로 지도리를 삼고 살았는데, 자공(子貢)이 집에 찾아와 무슨 병이 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하고, 도를 배우고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병이라고 들었다. 나는 가난할지언정 병이 들지는 않았다.” 하니, 자공이 부끄러워하였다. 《장자(莊子), 양왕(讓王)》
- 17)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여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하였다. 《논어, 선진(先進)》
- 18) 주자의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에 “온 종일 스스로 즐겨도[卒歲聊自娛]”라는 구절이 있다.
- 19) 주자가 1175년 가을에 건양현(建陽縣) 서북쪽 70리 거리에 위치한 노산 꼭대기 운곡(雲谷)에다 회암(晦庵)이라는 초당을 짓고 은거하였다. 《회암집 권78, 운곡기(晦庵集 卷78, 雲谷記)》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16) 동지(冬至)에 노병기인(老病畸人)²⁰⁾이 적다.

<역주 : 권갑현 2020.12. .>

‘도산기陶山記’는 『도산잡영陶山雜詠』의 서문序文이다.

1561년 가을에 도산서당이 비로소 완성되어²¹⁾ 11월에 도산서당과 주변을 오고 가며 읊으신 시를 정리하여 엮어서 『도산잡영陶山雜詠』라고 하고 그 서문으로 쓰신 글이다.

『도산잡영』은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이르는 곳마다 칠언절구七言絶句 18수를 얻었으나 여기서 다하지 못한 여러 경치를 오언절구五言絶句로 26수와 또 주인이 다른 경치 4곳²²⁾을 더하여 모두 48수를 엮은 시집詩集이다. 서당과 정사는 물론이고 각 재齋와 헌軒의 시에서 수신과 강학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심하여야 할 마음가짐을 밝히셨고, 주변에 대해서는 당시의 경관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역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여 심신 수양에 힘쓰도록 강조하셨다. 이후 많은 후학들이 심신 수양의 지침으로 여기며 운자를 빌려 다짐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농운정사 지숙료 서쪽 문 위에 걸었다.

‘도산기판’은 2020.11.27.~28.에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열린 ‘퇴계선생 서세 450주년 추모 행사’ 때 전시되었던 서각 작품 가운데 「도산기陶山記」를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사서 서원에 기증하였다. 이를 2021.3.13.에 퇴계선생께 아뢰고 농운정사 관련한 북벽에 걸었다.

告由文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五十四年 辛丑二月 朔日 後學 金炳日은 삼가 先生께 업드려 告하
나이다.

20) 노병기인(老病畸人) : ‘늙고 병들었으며 독특한 지행(志行)으로 세속을 초탈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선생 자신을 일컬은 것이다.

21) 선생 60세 11월에 도산서당을 이루었다고 하나,《退溪先生年譜》先生六十歲 十一月 “陶山書堂成” 60세에는 농운정사는 거칠게 완성되고 서당은 오히려 이루지 못하였고, 61세 가을에 비로소 도산서당이 완성되었다고 함《退溪先生年譜補遺》[先生六十歲] (譜)陶山書堂成 “時精舍粗完書堂尙未成” [先生六十一歲] “秋陶山書堂始成” 自是四方來學者益衆

22) ①농암簞巖 : 애일당 앞 강물에 있는 바위, 이현보李賢輔의 호號. ②분천汾川 : 이현보李賢輔와 이문량李文樾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 ③하연賀淵 : 분천 앞 강물이 머문 곳, 이종량李仲梁의 호號. ④병암屏巖 : 애일당 북쪽 골짜기에 있는 초막, 이숙량李叔樑의 호號

先師 退陶先生께서는 孔孟의 心學을 傳하셔서 綱常을 굳게 세우시고 程朱의 道學을 이으시니 우리 東方의 萬世師表이십니다.

先生께서 떠나신 후 450년이 지난 지금까지 先生의 가르침과 끼치신 아름다운 香氣는 더욱 짙어져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先生께서는 晩年에 考槃의 樂地로 삼아 道義를 講磨하시고 弟子를 養成하시던 陶山書堂과 隴雲精舍는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先生의 기침소리와 弟子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동안 後學들은 先生의 素朴한 모습과 高尚한 뜻이 담긴 書堂과 隴雲精舍는 옛 모습을 잘 保存하기 위해 애써 왔으며 先生께서 직접 쓰신 懸板은 永久히 간직하기 위하여 原板은 韓國國學振興院에 寄託하고 模刻本을 揭示하였습니다.

지난해 逝世450周年記念行事의 一環으로 安東市에서 書刻家 16代孫 晶煥에게 依頼하여 啓明大 童山圖書館에 所藏된 『退溪雜詠』중 「陶山記」를 模刻한 懸板을 陶山書院에 寄贈하였습니다.

「陶山記」는 先生께서 陶山書堂 建立에 대한 所懷와 感興 周邊自然에 대한 禮讚이 담겨진 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先生의 道學思想을 기리고자 觀瀾軒 止宿寮 門楣에 揭示코자하여 그 事由를 敬虔히 告하나이다. 아울러 月川趙公께도 아뢰입니다;

2021. 3. 13 15代孫 安東文化院長 東秀 謹撰

이때 전시된 작품은 대구에 거주하는 선생16대손 정환晶煥(1947년생)이 틈틈이 선생께서 직접 쓰신 작품들을 세긴 30여점을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 후 한 두 작품은 도산서원 등 관련단체에, 나머지는 한국국학진흥원 기증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도산기판 제막 (2021.3.13. 류종승 촬영)



도·산·서·원·이·야·기

16

몽천

蒙泉



50.0×26.0×10.2cm



퇴계선생께서 '서당의 동쪽에 몽천이 있다'라고 하셨다.

도산서당 유정문 아래 동쪽에 장대석으로 4각으로 만든 작은 우물 앞에 '몽천蒙泉'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이 우물은 '퇴계선생이 세숫물로 사용하였다고' 필자가 어릴 때에 들었다. 몽천은 퇴계선생 시 「도산잡영」의 '몽천蒙泉'에 서당 동편에 샘이 있어 몽(書堂之東 有泉曰蒙)이라 하였고, 「도산잡영」 서문인 「도산기」에서도 동편에 '몽천'이 있다(又其東爲蒙泉)고 하였다. 지금 이 자리는 서당의 동쪽으로 보기가 어렵다. 1739년 음력 6월 15일 폭우暴雨로 몽천에 물이 넘치고 암서헌 익침翼簷(날개처마)이 떠나려가서 고쳐야한다는 「고유문告由文」¹⁾과 그해 12월 20일 『청대일기靑臺日記』의 기사²⁾를 보면 이때 몽천이 문혔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긴다.

도산서원 건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성균관대 李相海 교수)도 서원을 방문하여 몽천의 본래자리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지하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재찬李載瓚 씨(전 농어촌개발공사 안동지사장)와 함께 서당 동쪽 절우사 북쪽 산기슭을 살펴서 돌샘이 있을 만한 지점을 찾았으나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土砂를 막고 계곡의 물이 잘 흐르도록 도랑을 정비하면서 콘크리트로 석축이 쌓여 있어 발굴이 어렵게 되었고, 콘크리트 석축을 깨고 발굴한다 해도 이미 물길이 막혔을 것이며 석축이 없으면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몽괘蒙卦'와 관련하여 찾으려 하셨던 것이다

퇴계선생께서 서당 동쪽에 샘이 있어 몽천蒙泉이라고 하셨다. 샘에 내재한 자연의 원리 또는 법칙을 『주역周易』의 '몽괘蒙卦'와 관련하여 발견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샘을 통해서 사색하였던 자연의 원리 또는 법칙을 표현한 시가 바로 '몽천蒙泉'이다.

어린 샘

서당 동편에 샘이 있어 몽이라 하니,
무엇으로 체험할고, 바름을 기르는 공부일세

蒙泉

書堂之東 有泉曰蒙
何以體之 養正之功

1) 「告由文」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山潦瀑注水溢蒙泉 -이하생략-”

2) 權相一(장재석 역), 『국역 청대일기 3』, 한국국학진흥원, 2015, 265쪽, “陶山 巖棲軒이 올 여름 수재로 동쪽 반 칸이 무너지고, 평상도 떠나려가 즉시 改修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변이다. 蒙泉은 가는 물줄기로 평상시 흘렀다가 끊어졌다고 하고, 또 몽천은 낮고 암서헌은 높는데, 아무리 물이 갑자기 불어났기로서니 어떻게 이처럼 수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 | |
|------------------------|--------|
| 산 밑에 솟은 샘이 그 괘효 몽이되니 | 山泉卦爲蒙 |
| 그 상이 아름답기에 나는 이를 실천하리라 | 厥象吾所服. |
| 그 때에 맞춤을 어찌 감히 잊으리요. | 豈敢忘時中 |
| 더욱 생각할 건 과단성있는 가르침이네. | 尤當思果育 |

몽천은 퇴계선생이 『주역周易』 64괘 가운데 4번째 ‘산수몽괘’에 나오는 “상전에 이르기를 산 아래 샘이 솟아나는 것이 몽이니 군자가 과감히 행하면 덕을 기를 수 있다(象曰山下出泉 蒙 君子以果行育德)”라는 괘사에서 찾은 이름이다.

몽蒙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童蒙을 구함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니, 처음 점을 치면 알려주고 두 번 세 번 점을 치면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알려주지 않으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단전象傳에 이르길 몽蒙은 산 아래 험한 것이 있고, 험해서 그치는 것이 蒙이다. ‘몽형蒙亨’은 형통하여 행하니 때로 가운데이고, ‘동몽童蒙을 구함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한다’는 뜻은 거둔다는 것이다. ‘처음 점치거든 알려주다’는 군선 가운데 있고, ‘두 번 세 번 하면 더럽히는 것이니 더럽히는 것은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몽蒙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몽으로써 바른 것을 기르는 것은 성인이 되는 일이다.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산 아래 샘이 솟아나는 것이 몽蒙이니, 군자가 이로써 과감히 행하며 덕德을 기르게 된다.³⁾

배우는 사람의 능동적인 의지와 진실한 마음가짐임을 강조한다

몽蒙은 무성하게 자란 풀에 의하여 덮여 있는 모습을 뜻하는 글자인데, 여기에서 ‘어둡다(昧)’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사물이 태어나 아직 어릴 때는 몽매하기 때문에 ‘어리다(稚)’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산 아래가 험난하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다면 몽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童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니, 처음 점을 치면 알려주고 두 번 세 번 점을 치면 모독하는 것이다. 모독하면 알려주지 않으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하고 있다. 즉 배우는 사람이 스승에게 적극적인 자세와 정성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하고, 엄격한 가르침과 포용력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사람의 능동적인 의지와 진실한 마음가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山水蒙 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象曰 蒙 山下有險 險而止蒙 蒙亨 以亨行 時中也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志應也 初筮告 以剛中也 再三瀆 瀆則不告 瀆蒙也 蒙以養正 聖功也 象曰 山下出泉 蒙 君子以果行育德.



도·산·서·원·이·야·기

17

도산서당

陶山書堂



58.5×27.8cm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제공)



도산서당
(2011.3.23. 서헌강 촬영)

‘도산陶山’은 뒷산을 이르는 것이다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짓는 일을 마치고 지으신 「도산기陶山記」에 “영지산靈芝山에서 다시 뻗었으니 ‘도산’이라고도 하고, 이 산에 옛 사람들이 도자기陶磁器를 굽던 터가 있어서 ‘도산’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¹⁾ 그런데 순임금(중국 상고시대 태평성대를 이끈 군주)이 왕이 되기 전 질그릇을 구울 때 인격과 「귀거래사」를 읊고 자연으로 돌아간 도연명陶淵明(365~427, 名潛, 중국 송나라 초기 시인)을 본받고자 하는 선생의 마음을 표현하였다.²⁾ 고 하기도 하나, 선생은 시 「도산서당」의 자주自註에 “‘도陶’의 뜻은 기문에 보인다. 지금 시詩에서 혹은 일이었던 사실로, 혹은 성姓을 가지고 ‘도陶’자를 서로 이어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일 밖의 것으로 일을 비추어 뜻을 붙인 것이다”³⁾라고 하셨으니 지명과는 관계가 없는 일(일 밖의 짓)을 일(순임금 고사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비추어 시詩에다 붙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순임금과 도연명을 본받기 보다는 그들의 삶을 함모하시지 않았을까?

도산서당

순임금이 친히 그릇 구우면서⁴⁾ 즐겁고 편안하셨고

도연명 몸소 농사하니 즐거운 얼굴이셨다.⁵⁾

성현의 그 심사를 내가 어찌 터득하리

늘그막에 돌아왔으니 한가롭게 지내리라.

陶山書堂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도陶’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질그릇을 의미한다. 질그릇은 흙을 곱게 정선精選하고 반죽하여 그릇의 형체를 만들어 유약釉藥(도자기에 발라 구우면 빛이 나는 액체)을 발라 높은 온도의 불에 구워야 비로소 쓰임이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선생께서 순임금과 도홍경, 도연명의 삶을 함모하기도 하였지만, 서당현판에 ‘도산陶山’을 선택하신 의미는 질그릇을 만드는 정성精誠으로 제자를 기르시겠다는 다짐과 공부하는 제자들도 흙이 갖은 노력과 고난을 거쳐야 쓸모 있는 그릇이 되듯이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1)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 而命之曰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 故名之以其實也’

2) 『왜 도산서당인가. 도산서당 창건 450주년 특별전 경의 마음으로 사람을 빛다』, 한국국학진흥원, 2011, 10쪽.

3) 琴輔, 「陶山記考證」, 『梅軒文集 卷之二』, “陶山書堂. 先生本註. 陶義見記. 今詩中或事或姓點綴陶字. 乃事外嘆事以寓意耳”

4) 處舜이 일찍이 河濱에서 질그릇을 구웠다.

5) 陶潛의 歸去來辭에 眴庭柯以怡顏(뜨락의 나뭇가지를 보고 얼굴 기뻐라)고 하였다.

이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산山자를 상형문자로 산을 그리신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으로 보인다. 즉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공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여 정상頂上에 올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으로 짐작된다.

현판은 세로글씨로 새겨서 서당 남쪽 벽 가운데 기둥에 걸려 있다

퇴계선생께서 쓰신 예서체隸書體를 가미한 해서체楷書體이다. 이 현판 글씨의 특이한 점은 ‘산山’자를 상형문자로 쓰셨고, ‘서書’자의 ‘일日’에 가운데 획을 새鳥를 그리셨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별도로 설명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으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여겨진다. 이 현판 글씨에 대하여필획이 두툼하면서 짜임새가 있어 안정감이 든다.⁶⁾ 고도 하고편안한 기분은 주지만 정통성을 벗어난 상당히 독창적인 글씨로 기본적으로 안진경체顔眞卿體의 웅혼雄渾(웅장하고 막힘이 없음)한 기풍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산山’자를 상형자象形字로 구성하고 ‘서당書堂’두 글자에서 예서에서 볼 수 있는 파책波磔(글씨의 획의 끝을 가로로 뾰족하게 뻗히는 방법)을 가미한 점은 이채롭기 그지 없다.⁷⁾ 고도 한다.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장종규張鍾圭씨는 도산서당 현판글씨에 대하여 “선생께서 쓰시고 손수 각刻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단아한 서풍에 소박한 각법이다.”라고 하고, “도陶자는 단아한 해서체이고 산山자는 산 모양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인데, 서書자는 해서와 예서를 섞어 쓴듯한데 일日자 가운데 새 모양을 그린 것은 태양 속에 산다는 삼족오三足鳥를 형상화한 것 같고, 당堂자는 예서체로 쓰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생께선 각 서체에 정통하셨고 융합하여 한 폭에 표현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퇴계선생의 글씨에 대하여 성재惺齋(琴蘭秀, 1530~1604)는 “필법은 단정하고 굳세고 아름답고 중후重厚하여 다른 명가에서 기이하고 괴상함을 숭상할 뿐인 것과는 같지 아니하였다.”⁸⁾고 하였으며, 우암尤庵(宋時烈, 1607~1689,諡 文正)은 “따뜻하고 편안하며 화목한 의중이 필묵에 드러나 있다. 옛 삶들의 덕성을 어떻게 언행言行과 사업에만 볼 수 있는

6) 김남인, 『名筆 역사와 해학의 글씨를 만나다』, 서해문집, 2011, 234쪽.

7) 『소장 현판도록① 뜻이 담긴 현판 扁額』, 한국국학진흥원, 2009, 40쪽.

8)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卷之三』 “先生筆法端勁雅重非如他名家尙奇怪而已”

가?”⁹⁾라고 하였고, 간이簡易(崔垞, 1539~1612)는 “퇴계선생의 글씨를 보면, 단정하고 장중하면서도 힘이 뻗쳐 나와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데, 간혹 초서草書로 쓴 경우에도, 바른 법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이 평생 동안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쌓아 왔던 그 공부가 어쩌면 이 글씨 속에서 하나의 자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니 사람이 그 글씨를 눈으로 직접 접하게 될 때, 어찌 사뭇되고 편벽된 마음만 없어질 뿐이겠는가.”¹⁰⁾라고도 하였고, 또 연경재研經齋(成海應, 1760~1839)는 “높고 빼어나다”¹¹⁾고 하였다.

선생은 약관에 이미 문장뿐 아니라 글씨에서도 뛰어났다

33세 때(1533년) 성균관 유학 시절 공부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날 하서河西에서 전별시에 “부자夫子는 영남의 준수한 인재이고 이백李白(701~762, 字 太白, 중국 당나라 시인)과 두보杜甫(712~770, 字 子美)의 문장과 왕희지王羲之(307~365, 중국 東晉의 서예가)와 조맹부趙孟頫(1254~1322, 중국 元나라의 서예가)의 글씨였네”¹²⁾라고 하셨으니 당시에 성균관에서 명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61세 때 문봉文峯(鄭惟一, 1533~1576)의 「한거이십영閑居二十詠」에 화답하신 시 중에 ‘습서習書’¹³⁾ 라는 시에 “근세에 조맹부와 장필張弼(1425~1487, 號 東海, 중국 명나라 서예가)의 글씨가 성행하나 모두 후학을 오도誤導(잘못 지도함)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고 세주細註로 지적하고는 “자법字法은 심법心法의 끝에서 나오니 글씨를 연습하는 것은 명필이 되려함이 아니네.”라고 하고 “조맹부를 따라 배우자니 옛 법을 잃을까 걱정이고 장필을 흉내 내자니 허풍을 떨까 두렵구나.”라고 하였으니, 20대에 송설체松雪體와 왕희지체를 익혀 스스로 서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갑이 지나

9) 宋時烈, 「跋」, 『宋子大全卷一百四十七』, 書李文純公筆蹟後, “其溫厚安和之意. 藹然見於筆墨畦徑之外. 古人德性. 豈獨於言行事業而見之哉”

10) 崔垞, 「識」, 『簡易文集卷之三』, 退溪書小屏識. “況先生書. 端重遒緊. 雖或作草而不離正. 平生心不放工夫. 未必不蹟於斯焉. 人之接目. 何啻邪僻之去也.”

11) 成海應, 「書畫雜識」, 『研經齋全集續集冊十六』, 題東賢筆蹟後 “退溪筆意高逸”

12) 『退溪先生年譜卷之一』, “夫子嶺之後秀才 李杜文章王趙筆”

※ 年代가 誤記인 듯한. 河西(金麟厚)가 14세에 불과하여 성균관 입학 자격이 없음. 嘉靖十二年[先生三十三歲]의 記事로 看做됨. 河西年譜에도 嘉靖十二年癸巳 先生二十四歲條에 같은 記事가 收錄되었음.

『河西先生年譜』, 『河西先生全集附錄卷之三』, 二十四歲 遊泮宮. 與退溪李先生講學. 時經己卯士禍. 士氣沮喪. 諱言道學. 而先生一見退溪. 深相契合. 源源講劇. 甚有麗澤之益. 未幾. 退溪還鄉. 先生以詩贈別. 有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之句.

13) 李滉, 「和子中閑居二十詠」,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習書 [近世, 趙·張書盛行, 皆未免誤後學] 字法從來心法餘, 習書非是要名書. 蒼義制作自神妙, 魏晉風流寧放疎. 學步吳興憂失故, 效顰東海恐成虛. 但令點畫皆存一, 不係人間浪毀譽.”

면서 송설체의 곱고 아리따운 꾸밈새와 장동해체張東海體의 분방하고 거친 과단성을 경계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선생 글씨는 학문의 성숙과 함께 끊임없는 습자로 완숙된 서체를 이룩하셨다고 할 수 있다.

광헌공廣軒公의 사랑채를 본떠서 한 칸 집을 지으려 하셨다

도산서당은 목조와가 맞배지붕에 동·서쪽에 날개처마를 단 세 칸 반으로 방과 마루와 부엌으로 구성되었으며 동편 날개처마 아래에는 살평상을 꾸몄다. 도산서당은 본래는 퇴계선생께서 내살미[川沙: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살고 계시는 광헌공廣軒公(李賢佑, 1470~1560, 良齋 李德弘 祖父)의 사랑채를 본떠서 한 칸으로 지으려 하였는데 공사를 하던 정일靜一(승려)이 마루 한 칸을 더 늘려 지었다¹⁴⁾고 한다.

1556년에 면진재勉進齋(琴應璫, 1540~1616) 등 제자들이 이곳을 찾아서 선생께 좋은 터가 도산 남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와보시고 평생 찾던 학문할 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며 기뻐하고 제자들과 아들, 손자를 데리고 다시 살펴보고 거듭 감탄하며¹⁵⁾ 시를 읊으셨다. 이듬해에 착공하여 1561년 봄에, 농운정사는 가을에 준공하였으니 4년 여가 걸렸다.¹⁶⁾

창건 후 현재까지 2번의 수해와 오랜 세월로 훼손되어 6번의 수리를 한 기록¹⁷⁾이 있다. 2번의 수해는 1635(인조 14)년 5월 20일(양력 7. 4.)¹⁸⁾과 1739(영조 15)년 6월 15일(양력 7. 20.)¹⁹⁾이다. 모두 폭우로 인한 계곡물이 넘쳐 암서헌 동편 날개처마가 붕괴되었다. 특

14) 권오봉, 『예딘길』, 우진출판사, 1988, 152쪽.

權斗經, 「退陶先生言行通錄卷之三」, 『增補退溪全書四』,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71., 49쪽. “○川沙祖父家斜廊一間未足於接客蔽雨以茅廣軒以板先生每見歎其儉素寒栖巖栖兩軒皆依其制舊宅亦如之其尙淳崇儉如此。巖栖補簷近易以瓦殊非先生之本意云(良錄○良齋祖父李公賢佑巖栖弟居川沙先生詩所謂幽篁川沙李丈居者也)○玩樂齋新建。先生顧德弘曰。吾意本在矮屋。而木工當我入齋於墳庵。自作張皇。高大至此。心自愧恨。切欲改作。而力不及焉。齋高廣皆八尺”(良錄○齋高八尺廣八尺) 李德弘, 「溪山記善錄 下」, 「良齋先生文集卷之六」.

15) 권오봉, 위의 책, 150~151쪽.

16) 『퇴계선생 연보』에는 선생 60세(1560년)에 서당을 이루었다(陶山書堂成. [自是又號陶翁. 堂凡三間, 軒曰‘巖栖’, 齋曰‘玩樂’, 精舍七間, 名曰‘隴雲’. 先生每至陶山, 常居玩樂齋, 左右圖書, 俯讀仰思, 夜以繼日. 家貧蔬糲僅充, 而攻苦食淡. 他人視之, 疑其不堪, 而先生裕如也. 蓋先生於道, 所見益親, 所造益深, 有以自樂而忘外慕, 故雖處窮約之中, 而能怡然自得, 不知老之將至也. 其後, 學徒於精舍之西, 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也]고 하나, 『선생 연보 보유(이야순 찬)』에는 1560년에 정사는 거칠게 완성됐으나 서당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고, 1561년 가을에 서당이 비로소 완성(秋陶山書堂始成)되었다고 하였다.

17) 陶山書院 別有司 編, 『儀禮 稿』, 2011.

18) 김령(장재석 외 역), 『국역 계암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3, 564쪽.

19) 「告由文」,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739(을미년).

히 1739년 수해로 몽천의 물줄기가 끊어졌다²⁰⁾고 한다. 서당을 하필이면 도랑가에 지었을까. 폭우가 쏟아지면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동쪽의 산이 높아 겨울이면 한 낮이 되어야 햇살을 받을 수 있으니 의문이 생긴다. 퇴계선생께서는 훌륭한 조경가로서 집터를 정할 때 조경을 먼저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정우당과 절우사를 조성하여 완상玩賞(즐거 구경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²¹⁾

서당의 지붕은 간재良齋(李德弘, 1541~1596)가 1571년 6월에 완성한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에 “암서헌은 근래에 기와로 바꾸었는데 전혀 본의가 아니라고 한다.”²²⁾하였다.

또 “서당이 초가草家였다가 1799년경에 기와집으로 바꾸었다”²³⁾는 이야기도 있다.

마당에 회양목淮陽木[Korean box tree]으로는 노거수老巨樹라고 할 수 있는 한 그루가 살고 있다. 이 회양목은 이창호李昶鎬(1880~1952, 宜仁出身)공이 1949년 상유사上有司 재임 때 심었다는 설이 있다.²⁴⁾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의 학문의 실험장이고, 도학의 수련장이었으며, 나아가 16세기 우리나라 철학연구의 본산으로서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전당殿堂이었다.

준공 460년이 지나 국가문화재 보물 제2105호로 지정한 문화재청 보도자료²⁵⁾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561년 봄에 준공한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의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집이 들어선 터는 선비가 학문에 침잠沈潛(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사색함)하고 자연을 관상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건물은 전체 3칸의 작은 규모지만 후면과 서쪽 끝에 텃기둥을 세우고 동쪽 끝에는 날개처마를 두어 한 사람의 선비가 거처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을 갖추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도산서원을 세우면서는 서당 건물과 농운정사를 그대로 둔 채 그 뒤로 서

20) 권상일(장재석 역), 『국역 청대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265쪽.

21)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가 2019. 7. 10. 퇴계선생의 조경관련 연구를 위해 답사하면서 밝힌 견해이다. 자연적으로 물을 담아 연꽃을 기를 수 있는 곳(정우당)과 넷 절우(松·竹·梅·菊)를 키울 수 있는 곳(절우사)을 가장 가깝게 완상할 수 있는 곳에 서당을 세웠다고 하였다.

22) 李德弘, 「溪山記善錄 下」, 『良齋集 卷五』, “此巖棲則近易以瓦殊非本意云”

23) 吳熙常, 「陶山記行[己未 1799]」, 『老洲集卷之十五』, “昔以草蓋而今改以瓦”

24) 이 說은 李昶鎬公의 큰집 曹孫 李東蓍(1934년생), 從孫子 李東寧(1936년생), 孫子 李東鐸(1936년생)의 증언이다. 宜仁에 있었던 晩守堂(楚山宅 사랑채) 정원에서 기르던 것으로 1948년경에 옮겨 심은 것으로 증언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25)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 12. 29.

원을 조성하여 선현의 유적을 온전하게 보존하였다.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퇴계선생께서 마지막 10년을 보낸 곳으로, 선생이 살아계실 때 건물모습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선생께서 주요한 저술 작업을 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으로, 16세기 선비들이 추구한 건축적 이상理想이 잘 구현된 건물로 평가된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 안에 마루와 온돌, 부엌 각 1칸의 간결한 실내 구성을 하여 선비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소박하면서 기능적인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설치하여 단정한 건물 외관을 이루었다. 선현의 유적과 서원이 경내에 함께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도산서당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71.2. 도산서당 전경
(국가기록원 소장)



도·산·서·원·이·야·기

18

완락재

玩樂齋



30.3×62.0cm



퇴계선생이 학문을 연구하시고 심신을 수양하시던 방이다

현판은 퇴계선생 글씨이다. 납작한 것이 예서의 틀을 본뜬 해서¹⁾라고 한다. 완락재玩樂齋는 선생께서 주자朱子(朱熹, 1130~1200, 號 晦庵,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의 명당실기名堂實記²⁾에 “『중용中庸』을 읽고 ‘수도지교修道之教’에 대하여 논하면서 반드시 계신戒愼·공구恐懼로 시작한 것을 보고서야 경敬을 유지하는 근본을 알았고, 또 『대학大學』을 읽고서 명덕明德의 차례를 논하면서 반드시 격물格物·치지致知로 시작을 삼은 것을 본 뒤에 의義를 밝히는 단서端緒를 알았다. 이윽고 두 가지 공효功效로 일동일정一動一靜이 서로 용用이 되고 또 주자周子(敦頤, 1017~1073, 號 濂溪,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부합되는 것을 본 뒤에야 또 천하 이치의 유명幽明·거세鉅細·원근遠近·심천深淺이 하나로 관통되어 말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완미玩味(잘 생각함)하고 즐기면 내 평생 하더라도 물리지 않기에 충분한데, 어느 겨를에 이 밖의 것을 흠모하겠는가.”³⁾ 라는 글에서 인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읊으신 시가 있다.

완락재

경을 주로 해도 의를 모으는 공부를 해야하니
소홀하지도 조장하지도 않아야 점차 무르익어 통하리
염계의 태극도의 묘한 경계 알고 보니
천추에 이 기쁨 같은 것을 알았노라

玩樂齋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경전을 등 뒤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방안은 서쪽과 북쪽 벽이 서가書架이고, 또 서쪽에 골방 같은 공간이 있고 남쪽에 따로 창이 나왔다. 제자 성재성齋(琴蘭秀, 1530~1604)가 “서가를 방 아래쪽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또한 뜻이 있습니까?”라고 여쭙었더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잠자고 기거하는 곳인데 경전經典(성현들의 글)들을 등 뒤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

1)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도록, 42쪽.

2) 「明堂實記」: 朱子の書齋 晦庵에 걸린 記文, “讀中庸. 見其所論脩道之教而必以戒愼恐懼爲始. 然後. 得夫所以持敬之本. 又讀大學. 見其所論明德之序而必以格物致知爲先. 然後. 得夫所以明義之端. 既而觀夫二者之功. 一動一靜. 交相爲用. 又有合乎周子太極之論. 然後. 又知天下之理幽明鉅細遠近淺深無不貫乎一者. 樂而玩之. 固足以終吾身而不厭. 又何暇夫外慕哉.”

3) 先生 自註: 朱子名堂室記 以持敬明義動靜脩還之功爲合乎周子太極之論 足以玩樂而忘外慕 今以名齋 而日加警焉.

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서 천여 권을 좌우서가에 나누어 꽂아 두시고 또한 화분 하나 책상 하나 벼루집 하나 안석 하나 지팡이 하나, 침구, 점석, 향로, 혼천의渾天儀(별자리를 연구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고 남쪽 벽 윗면 뒤에 가로 선반을 설치하고 옷상자와 서류함을 비치했다. 이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⁵⁾고 한다.

서당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서쪽에 골방 같은 공간의 용도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자세히 설명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경전을 등 뒤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이곳이 침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할 따름이다.

옥진각을 짓기 전까지 선생 유품이 도산서당에 진열되어 있었다

『계암일록』의 1628(인조6)년 정월 5일 기사에 “완락재의 향동자香童子(향꽃이) 및 옥서진玉書鎭 옥도서玉圖署 등이 보이지 않으니 이는 병인(1626)년 감시監試(生員, 進士試, 9. 16~17.)를 치를 때 잡인雜人들이 모여 들어와 이런 허물을 초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⁶⁾ 1626년 가을까지는 향동자 및 옥서진 옥도서도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옥진각에 옥서진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와는 다른 옥서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옥도서玉圖署’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생의 유묵에서 낙관落款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퇴계선생은 도서圖署가 없다고 알려져 왔다. 위 기사에서 도서를 소장하였음이 확인되고, 또 보물 제548-2호(2010. 1. 4.)로 지정된 『선조유묵』가운데 날인⁷⁾되어 있어서 도서圖署를 사용하셨음이 증명된다. 이러한 유품 가운데 화분과 침구는 세월이 오래 되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서책은 광명실에 보관되었고, 그 외에는 1970년 옥진각을 짓기 전까지 이곳에 진열되어 있었음이 서원을 방문한 선비들의 시문詩文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경재잠」, 「백록동규」, 「명당실기」 등을 역시 벽에 붙여 두시고⁸⁾ 매일 답이 올 무렵에 일어나 의관정제衣冠整齊를 하고 읽으며 정좌靜坐를 하셨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세월이 오래되어 벽에 붙여진 잠명箴銘(마음에 새겨야 할 성현의 말씀)

4)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卷之三』 “蘭秀問書架之不設燕寢下方者亦有意乎先生曰此是余之寢處及起居之所經訓在後背之未安故如是”

5) 琴蘭秀, 위의記事, “古書千餘卷分插左右書架又有一花盆一書床一硯匣一几一杖寢具簾席香爐渾天儀南壁上面後橫架置衣箱書箴此外無他物”

6) 金령(신상목·장재석 역), 『국역 계암일록 4』, 한국국학진흥원, 2013, 2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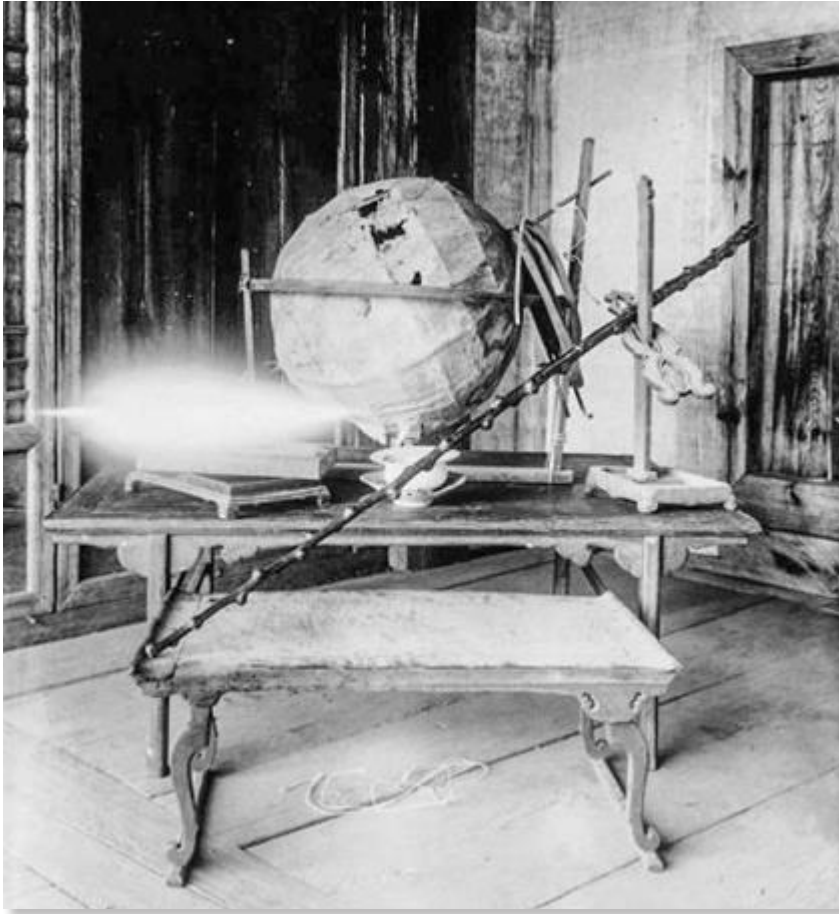
7) 李志淳 編, 『先祖遺墨』, 1.十一冊[眞城李氏族譜] 第一張, 2.十六冊[歐公詩選], 第一張, 3.十七冊[延平問答後錄] 第四張.

8) 琴蘭秀, 위의記事, “敬齋箴白鹿洞規名堂室記亦揭于壁上”

이 낡고 종이 먹어 해져서 어느 날 도배를 하여 한 글자도 볼 수 없도록 한 일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유림儒林들이 회의를 하여 도배를 시킨 상유사上宥司를 문적文籍(서원에 출입하는 선비들의 명부)에서 삭제하였다는 고사古事가 전하기도 한다.⁹⁾ 뿐만 아니라 선생 역책 후에 선비들이 수없이 방문하여 이 방에 유품과 벽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선생을 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을 기행문이나 일기 등에서도 확인된다. 선생 유품 가운데 혼천의渾天儀와 혼상渾象은 세월이 오래되어 탈색과 훼손이 심하여 더 이상 보존도 어렵고 전시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서 2018년 8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현 상태라도 보존처리가 되도록 하고, 안동MBC에서 복원한 혼천의와 혼상을 기증받아 옥진각에 전시하고 있다.



9) 李瀾, 「謁陶山書院記」, 『星湖全集 五十三卷』, “琴生云此室以先生手澤之存. 陋弊而不敢修改. 先生簡記筆迹井并在壁間. 近有一院長某. 以改繕遺宅. 白于方伯. 方伯亦不敢靳其需. 於是得紙厚. 盡塗而剗新之. 今無一字留者. 於是士林集議. 削院長名於籍中. 至今爲譏笑嗟惋也”



혼천의
도산서당 유물(1920년대)



도·산·서·원·이·야·기

19

암서헌

巖栖軒



29.0×54.5cm



퇴계선생은 도산서당 마루를 암서헌巖栖軒이라 하고 현판도 걸었다

선생은 암서헌巖栖軒은 “주자朱子の 시 「운곡십이영雲谷十二詠」 중의 ‘스스로 오랫동안 능하지 못했다고 믿었기에 바위에 깃들어서 약간 효과를 바라노라.’¹⁾라는 말씀에서 골라 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생은 암서헌 시에 ‘증자曾子是 안자顔子더러 가득하여도 빈 듯하다.’ 하였는데 ‘병산屏山(劉子暈, 1101~1147, 朱子스승)은 처음에 주자를 감발케 했네, 암서의 깊은 뜻을 늘그막에 알았으니 박약博約²⁾연빙淵冰³⁾ 스스로 소홀할까 두렵구나.’라고 하여 증자의 실약허實若虛⁴⁾의 다짐과 같이 자신도 박문약례博文約禮의 실천을 위해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 같이하리며,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하라如臨深淵 如履薄冰⁵⁾는 자세로 정신집중을 다짐하였다.

암서헌⁶⁾

증자는 안연더러 실하면서 허한 듯 하다했으니
병산은 처음에 이를 끌어 주자를 계발했네.⁷⁾
바위에 깃드는⁸⁾ 뜻 늦게야 알았으니
박약이니 연빙이니 공부 허술할까 두렵소.

巖栖軒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棲意
博約淵冰恐自疎

[국역: 허권수 2016]

자세히 보면 ‘암巖’자가 특이하다

현판 글씨는 역시 퇴계선생 글씨로서 “쓰기보다는 그린 듯한 예서풍의 글씨로 고

1) 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 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

2) 博約: 顏淵의 學問하는 態度, 論語 子罕 篇에 博我以文 約我以禮 (문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서 나를 요약하여 주셨다), 顏淵 篇에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학문은 넓게 배우고 예로서 요약하면 도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3) 淵冰: 曾子의 必生 工夫를 말함. 論語 泰伯 篇에 曾子有疾 召門弟子 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증자의 병이 위중하자 제자들을 불러서 나뉘발을 보고 나의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조심하여라 신중할 진저 마치 깊은 물 웅덩이에 다다른 듯 살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라고 하였으니 내 이제야 알겠노라 제자들이여) 라고 하였다.

4) 『論語』, 「泰伯篇」,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吾友嘗從事於斯矣”

5) 『詩經』, 「小雅篇」, ‘小旻’ “不敢暴虎 不敢憑河 人知其一 莫知其他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6) 先生 自註: 曾子稱顏淵有若無 實若虛 屏山字晦庵 以是祝之 晦庵詩 自信久微能 巖棲冀微效 名軒以自勵.

7) 병산(屏山): 유자휘(劉子暈)의 호. 자 彥沖, 1101~1147. 주자는 16세에 스승 유자휘로부터 원회(元晦)라는 자를 받았다.

8) 암서(巖棲): 암석 위에서 삶. 동굴과 나무 위에 거처함. 은거(隱居)함.

매한 기풍을 느낄 수 있다”⁹⁾고 한다. ‘암巖’자를 자세히 보면 厂아래 ‘敢’자가 앞의 변이 ‘工’아래 ‘日’로 쓰여져 있다. 『서도대자전書道大字典』에도 ‘암巖’자를 예서隸書로 쓸 때 ‘工’자 아래 ‘月’을 쓰는 경우는 있으나 ‘工’아래 ‘日’로 쓴 것은 보지 못했다.

암서헌 동편 날개처마 아래에 살평상이 설치되어 있다.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에 “동쪽에 날개처마를 덮었다[東面覆翼簷]”고 하고 살평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¹⁰⁾ 살평상은 “한강寒岡(鄭述, 1543~1620,諡 文穆)이 안동부사 재임 때 설치하였다”는 설이 있다고도 하고 또 “선생의 남기신 뜻을 받들어 만들었다”고도 하고 있다.¹¹⁾ 그리고 “퇴계 선생 생전부터 날개처마는 있었던 것이어서 한강寒岡공이 만든 것은 바닥에 와상처럼 꾸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였다.”¹²⁾ 근세에는 아예 한강이 기증했다고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¹³⁾ 그러나 『한강문집寒岡文集』 등 한강 관련기록에는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찾지 못했다. 또 계암溪巖(金垠, 1577~1641,諡 文貞)이 남긴 『계암일록溪巖日錄』과 매원梅園(金光繼, 1580~1676)의 『매원일기梅園日記』에 한강寒岡의 안동부사 재임기간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도산서당 살평상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간재良齋(李德弘, 1541~1596)의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에는 “내살미에 있던 조부의 집 사랑채 한 칸이 손님을 맞이하기 부족하여 띠 풀을 엮어 비를 가리고 널빤지를 붙여 난간을 넓혔다. 선생이 보시고 그 검소함에 감탄하여 한서암과 암서헌을 지을 때 모두 이 제도를 모방하였다.”¹⁴⁾고 하였으므로 살평상의 한강 설치 설은 허구虛構일 가능성도 있다.

9)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도록, 42쪽.

10)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卷之三』.

11) 金粹應, 「左行日記」, 『直齋文集卷之三 雜著』, “在東邊附廳是我寒岡鄭文穆公爲安東府使時閱其狹窄作平床加設云” 李漢, 「陶山祠」, 『星湖僿說 卷十七』, “陶山書堂軒之東附小半間與軒通架梯爲廳事如今 臥人牀樣此寒岡承遺意爲之者” 河範運, 「東征日記」, 『竹塢先生文集 雜著』, “寒岡鄭先生奉先生遺志構此夾廳云”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3』, 한국국학진흥원, 2015, 265쪽. “퇴계선생께서 계실 적에 암서헌이 좁아서 동쪽에 평상을 두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신 것을 寒岡(鄭述)이 안동부사였을 때 유지를 받들어 평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등

12)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115쪽.

13) 朴鍾鴻, 「陶山紀行」, 『思想界11卷 第6號』, 1963. 6, 288~300쪽. “巖栖軒에 附樓이 달려 軒과 더불어 廳을 이루어 이곳만은 바닥이 약간 별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退溪 생전에 뜻은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그의 歿後에 門人 鄭寒岡이 선생의 유지를 이어 追成한 것이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창작과 비평사, 1997, 156쪽. “살평상은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로 있을 때 기증한 것이고”,

정우락, 「도산서원을 대한 문화론적 독해」, 『영남학 제27호』, 2015, 275쪽. “정구鄭述(寒岡, 1543~1620)가 살평상을 만들어 도산서원에 기증한 것도 강학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14) 李德弘, 「溪山記善錄 下」, 『良齋集 卷五』 “川沙祖父家斜廊一間未足於接客蔽雨以茅廣軒以板先生每見歎其儉素寒栖巖栖兩軒皆依其制舊宅亦如之其尙淳崇儉如此”



도·산·서·원·이·야·기

20

정우당

淨友堂



36.0×29.0×17.2cm



도산서당 마당 동쪽에 정사각형의 작은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을 ‘정우당淨友塘’이라고 하는데 표지석이 북쪽 못 독 옆에 서향으로 세워져 있다. 한자漢字를 그대로 옮긴다면 ‘깨끗한 벗이 사는 못’이라는 것이다. 깨끗한 벗은 바로 연꽃을 이르는 말이다.

퇴계선생이 1560년 도산서당을 짓고 서당 동편에 작고 네모진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연을 심어 ‘정우당’이라고 하고¹⁾ 자연의 이치가 닿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염계濂溪(周敦頤, 1017~1073, 중국 송나라 유학자)는 오로지 연꽃만을 사랑하였으니 그 향기가 벗을 하기는 어렵고 깨끗하다고만 하기도 두렵다고 하였다.

정우당²⁾

사물마다 모두 하늘의 묘한 이치 품었거늘,
주렴계周濂溪는 무슨 일로 그대만을 사랑했나?
향기로운 그대 덕德 생각하면 벗하기 어려우니,
정淨 하나로 일컫는 것 치우칠까 두렵구나.

淨友塘

物物皆含妙一天
濂溪何事獨君憐
細思馨德真難友
一淨稱呼恐亦偏

정우당의 못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자리는 마당과 평면을 이루는 장대석으로 둘러쳤고 못 안쪽은 자연 강돌과 시멘트로 쌓아져 있다. 본래는 모두 자연석으로 쌓았으나 1970년 보수정화공사 때 장대석과 강돌로 바꾸었다. 못 안에는 서당 동쪽 계곡물을 받아 채워 수련을 키우고 있다.

연꽃은 꽃 중의 군자君子라고 하였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렴계周濂溪가 「애련설愛蓮說」이라는 글에서 국화는 꽃 중의 은자隱者라고 하였고, 모란은 부귀富貴의 꽃이라고 하였는데, 연꽃은 꽃 중의 군자君子라고 하였다. 연꽃은 진흙탕에 살면서도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속은 비었으나 즐기는 곧 아 남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향기는 멀수록 맑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지고 놀 수 없어

1) 李滉, 「陶山雜詠 陶山記」,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1561,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曰淨友塘”

2) 先生 自註: 濂溪愛蓮說稱蓮美非一 而曾端伯獨呼爲淨友 恐未盡也(염계의 애련설에 연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다. 曾端伯은 홀로 그를 정우라 불렀으니, 염계의 칭송이 미진해서 그런 듯싶다).

서 꽃 중의 ‘군자’라고 하였다.

애련설

물과 물에 풀과 나무의 꽃에는 사랑스런 것들이 참 많다. 진흙나라 도연명은 국화만 좋아했고, 이씨의 당나라 이래로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나는 연꽃만을 좋아하거늘 그건 진흙에서 자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김에도 오염하지 않고, 가운데는 통하고 밖은 곧으며 덩굴이나 가지를 갖지 않고 향은 멀수록 맑음을 더한다. 곧고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더럽히며 가지고 놀 수는 없다.

국화로 말하자면 꽃 중의 은둔자요. 모란은 꽃 중의 부유한 자며, 연은 꽃 중의 군자이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 도연명 이후 들리는 소리 드문데 연을 사랑하는 이 또한 몇이나 있을까?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분명 많을 것이다.³⁾

우리나라에도 애련지^{愛蓮池}와 애련정^{愛蓮亭}이 많다

「애련설^{愛蓮說}」은 중국에서도 많이 읽혀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정원 조성에 많은 영향을 입혀 못을 파고 정자를 짓고 ‘애련지’와 ‘애련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창덕궁 후원에 1692(숙종18)년에 만들어진 연못이 애련지^{愛蓮池}이고 정자는 애련정^{愛蓮亭}으로 우리나라 전통정원으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소개되고 있다.⁴⁾ 퇴계선생 숙부 송재^{松齋}선생께서 안동부사 시절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정자를 애련정^{愛蓮亭}(지금은 안동시 성곡동에 옮겨져 있음)이라고 하였고, 퇴계선생도 주렴계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밝히고 연꽃을 사랑함을 기리는 시를 짓고 머무르는 곳에는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고 마음을 수양하는 거울로 삼았다.

염계의 연꽃 사랑

하늘이 선생 낳아 하늘과 땅을 열었으니,

濂溪愛蓮

天生夫子闢乾坤

3) 周敦頤, 「愛蓮說」, 水陸草木之花 可愛者甚蕃 晉陶淵明 獨愛菊 自李唐來 世人 甚愛牡丹 予獨愛蓮之出於 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 而不可褻玩焉 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 噫 菊之愛 陶後鮮有聞 蓮之愛 同予者何人 牡丹之愛 宜乎衆矣.

4)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7, 217~218.

맑고 깨끗한 마음 한 점 티끌도 없네.

灑落胸懷絕點痕

맑고 텅빈 속을 가진 한 꽃을 사랑하니

却愛清通一佳植

꽃 중의 군자로서 오묘함이 말을 할 수 없네.

花中君子妙無言

선생은 거처를 옮길 때 마다 정원과 원림園林을 경영하셨다

그곳에는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곳은 선생의 취미와 성품 뿐 아니라 사상과 자연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도산서당 주변에는 인공을 더한 정원조성으로 사철 꽃을 보며 자연과 계절을 느끼고 지형과 지물의 이름은 경서經書와 선현들의 저술과 고사故事에서 따왔으니 선생의 생각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도산서당 정원에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곡구와 천연대 운영대 탁영담과 동·서취명은 물론 부용봉까지 아우르는 원림園林을 경영하셨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집안에 인공으로 만든 정원과 자연 속에 집이 들어가고 정자亭子와 대臺를 설치하여 자연 전체를 정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⁵⁾ 이것이 중국과 일본의 전통정원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5)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창작과 비평사, 1997, 158쪽.





도·산·서·원·이·야·기

21

절우사

節友社



53.0×26.0×14.0cm



도산서당 동쪽 기슭에 절개節概 있는 네 벚을 심으셨다

도산서당 마당에서 동쪽으로 담 밖에 ‘절우사節友社’라는 표지석이 있다. ‘절개가 있는 벚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서당 동쪽 산기슭을 다듬은 곳에 매화와 국화가 심겨져 있고 그 둘레에 대나무 몇 그루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을 짓고 61세(1561년)되는 해 3월에 동쪽 산기슭에 화단을 만들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를 심었다. 즉 세한삼우와 사군자의 하나인 국화를 심고 ‘절우사節友社’라 이름을 지었다.¹⁾ 그리고 느낌이 얹히지면 책을 뽑아 지팡이 짚고 나가서 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壇에 올라서 사社를 찾기도 하였다.²⁾ 사社는 곧 절우節友들이다. 절우가 세한삼우歲寒三友와 국화이다. 세한삼우는 겨울을 견디는 나무이고 국화는 겨울이 오기 전에 찬 서리를 이겨내는 풀이다. 엄동설한이 닥치기 전에 찬 서리부터 내려 못 식물들이 잎을 떨어뜨리는데 국화는 오히려 꽃을 피우고 있어 선택하였을 것이다.

옛 선비들은 군자의 인품을 닮은 식물을 수양의 모델로 삼아 왔다

옛 부터 선비들은 생태적 특성이 군자의 인품을 닮은 나무나 풀을 세한삼우歲寒三友 또는 사군자四君子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지으면서 수양의 모델로 삼아왔다.

세한삼우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겨울철 세 벚이라고 하여 지조 있는 선비인 군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출세를 했다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도 변치 않고 찾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하는데 사계절에 맞추어 배열한 것이라고 한다. 매화는 설한풍 속에서도 맑은 향기와 함께 봄을 제일 먼저 알리고, 난초는 깊은 산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퍼트리고 국화는 늦가을 찬 서리를 맞으며 깨끗하게 꽃을 피우고,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는 등 생태적 특성이 군자의 인품을 닮았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세한후조歲寒後彫의 지조가 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퇴계선생의 할아버지(諱 繼陽, 號 老松亭)께서 계유정난癸酉靖難(1453

1)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萬曆四十年辛酉 先生六十一歲 三月, 築節友社”

2) 李滉, 「陶山記」, 「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년 세조의 왕위 찬탈사건) 후에 노송老松에 의탁倚託하신 뜻은 “대개 세한歲寒의 절개와 지조를 스스로에게 기대期待하여 구차苟且하게 태양을 향하는 꽃나무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것³⁾과 추사秋史(金正喜, 1786~1856)공이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스스로 밝힌 발문跋文에서도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소나무의 지조를 예로 들었다.

세한도 발문(발취)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하는 처신을 돌이켜보면, 그 전이라고 더 잘한 것도 없지만, 그 후라고 전만큼 못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예전의 그대에 대해서는 따로 일컬을 것이 없지만, 그 후에 그대가 보여준 태도는 역시 성인에게서도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성인이 특히 추운 계절의 소나무, 잣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다만 시들지 않는 나무의 굳센 정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역시 추운 계절이라는 그 시절에 대하여 따로 마음에 느끼신 점이 있었던 것이다.⁴⁾

그리고 고산孤山(尹善道, 1587~1671)공은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구천九天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라고 「오우가五友歌」에서 소나무의 지조를 노래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⁵⁾고 하셨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록수와 낙엽수의 차이가 드러나듯,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 「애국가」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구절이 있다. 잎을 마르게 하는 찬 서리와 엄동 설한의 칼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소나무가 우리 민족의 기상이라고도 하고 있다.

매화는 매서운 찬바람을 견디고 우아한 꽃향기로 봄을 알린다

매화는 설한풍 속에서도 맑은 향기와 함께 봄을 제일 먼저 알리고, 우아한 꽃과 은은한 빛깔을 지니고 있어 고고한 선비와 비교된다. 옛날부터 선비들은 매서운 찬바람에 시달려도 굽힘이 없고 얼음과 눈을 이겨내는 매화의 맑고 강인한 성질을 사랑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기르고 강인한 기상을 다지는 데 이를 본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선

3) 金道和, 「老松亭記」, 『拓菴先生文集卷十五』, “公之託於老松者, 蓋以歲寒自期, 而不屑爲向陽之花木者也”

4) 金正喜, 「跋文」, 『歲寒圖』, 1844. “今君之於我 前而無可焉 由後而無損焉 然由前之君 無可稱 由後之君 亦可見稱於聖人也 耶 聖人之特稱 非徒爲後凋之貞操勁節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

5) 『論語』, 「子罕 第九」,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비들은 매화를 노래함으로써 자기의 정신과 의지를 그 속에 투영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실을 지키려는 다짐을 하였다. 퇴계선생도 매화를 아끼고 사랑하여 매화를 주제로 하는 시를 많이 읊으시고 그 가운데 91수를 시집詩集으로 엮어 남기셨다. 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불결하신 모습을 매화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화분梅花盆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셨고,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는 매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셨다.⁶⁾

대나무의 세한고절歲寒高節이 선비들의 기질과 닮았다

대나무는 뿌리가 단단하므로 덕을 세우고, 성질이 발라서 자기 몸을 서게 하고, 속이 비어서 도道를 체득하고, 마디는 곧아서 뜻을 세운다고 한다. 군자도 근본이 단단해야 뽑히지 아니하고, 성질이 발라야 휩쓸리지 아니하고, 속이 넓어야 도량도 넓고, 절개가 굳어야 행실을 부지런히 같고 닦아 고락을 한결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⁷⁾ 고려 말 학자 윤곡耘谷(元天錫, 1330~?)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굽을 마디이면 눈 속에서 푸를 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⁸⁾고 하기도 하고 고산孤山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절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라고 하였다.

국화의 찬 서리를 이기는 굳은 지조와 절개가 군자의 큰 덕목이다

국화는 늦가을의 추위와 서리를 이겨내고 깊은 산속이나 아늑한 정원 어느 곳에서도 꽃을 피워 향기를 낸다. 고난과 악조건에도 꽃을 피우는 국화의 굳은 지조와 절개는 물론 높은 기상과 품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군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선비들은 국화를 한 없이 사랑하며 국화를 통하여 변함없는 뜻과 마음을 나타내고자 국화를 길러왔다.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772~846, 중국 당나라 시인)는 국화를 무척 사랑하

6) 李安道, 「考終記」, 『蒙齋集』.

7) 白居易, 「養竹記」, 『古文眞寶』, “竹本固, 固以樹德. 君子見其本, 則思善建不拔者. 竹性直, 直以立身. 君子見其性, 則思中立不倚者. 竹心空, 空以體道. 君子見其心, 則思應用虛受者. 竹節貞, 貞以立志. 君子見其節, 則思砥礪名行, 夷險一致者”

8) 元天錫, 「絕義歌」, 『耘谷詩史』.

였다. 그의 나이 42세(813년)에 지은 「동원완국東園蕪菊」⁹⁾이라는 시에서 가을은 조락凋落(잎이 시들어 떨어짐)의 쓸쓸함과 더불어 깊어가고 한 해 살이 풀들은 푸름을 잃고 시들고 뜯은 황량하고 피폐한데 홀로 피어난 국화를 보니 마음이 환해진다고 읊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인묵객들이 국화를 노래하고 그림을 그렸다. 근세에도 미당未堂(徐廷柱, 1915~ 2000)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다.

선생은 네 절우와 지조를 지키자는 풍상계風霜契를 맺으셨다

퇴계선생께서도 꽃과 식물을 좋아하셔서 읊으신 시가 많다. 특히 50세(1550년)에 한서암을 지으시고 광영당光影堂이라는 작은 못을 만들어 주변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연을 심으시고 본인과 함께 여섯 친구가 사는 곳이라는 ‘육우원六友園’이라고 하셨다. 또 10년이 지난 뒤에는 도산서당마당 못에는 연蓮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못 옆에 화단을 만들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와 함께 풍상계風霜契를 맺으셨다.

절우사 節友社

도연명의 동산¹⁰⁾은 술, 국화, 대 셋이니

松菊陶園與竹三

매화는 어찌하여 그 속에 끼지 못했나?

梅兄胡奈不同參

나는 이제 그대들과 풍상계를 맺었노라.

我今併作風霜契

굳은 절개 맑은 향기 너무나도 잘 알기에.

苦節清芬儘飽諳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의 터를 잡으시고 곳곳에 이름을 지으셨는데 거의 그 형태나 역할을 알 수 있는 대臺 정井 천泉 당塘 봉峯 등인데 유독 절우사 만 사社를 붙였다. 사社는 옥편에 찾아보면 귀신(社稷壇), 단체(社團), 모임(會社) 등으로 쓰인다. 선생께서는 풍상계風霜契를 맺으셨으니 ‘지조 있는 벗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셨음을 알 수 있다.

9) 東園蕪菊[白居易]

少年昨已去 芳歲今又闌 如何寂寞意 復此荒涼園
唯有數叢菊 新開籬落間 攜觴聊就酌 爲爾一留連
近從年長來 漸覺取樂難 常恐更衰老 強醉亦無歡

園中獨立久 日淡風露寒 秋蔬盡無沒 好樹亦凋殘
憶我少小日 易爲興所牽 見酒無時節 未飲已欣然
顧謂爾菊花 後時何獨鮮 誠知不爲我 借爾暫開顏

10) 陶園은 쯤나라 處士 陶潛(도연명)의 田園을 가리킨다. 그의 「歸去來辭」에 ‘전원에 장차 풀이 우거지리니 어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田園將蕪胡不歸)’라고 한 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빌려온 말이다. 「歸去來辭」에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三徑就荒)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꽃꽂하다(松菊猶存)’라고 하였다. 三徑: 前漢의 장후(蔣詡)가 송경(松徑) 죽경(竹徑) 국경(菊徑)의 세 길을 만들어 오직 구중(求仲)과 양중(羊仲)이란 두 친구만 오게 하여 함께 놀았다 한다.



도·산·서·원·이·야·기

22

매화원

梅花園



53.3×22.1×15.0cm



도산서당에서 서쪽으로 나오면 매화나무 밑에 붉은 글씨로 ‘매화원梅花園’이라고 새겨진 작은 돌을 볼 수 있다.

이 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준규金俊奎씨가 서원 앞 강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무언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주어진 것이다. 이 돌에다 퇴계선생의 『매화시첩』에서 ‘매화원梅花園’이라는 글자를 모아 새겨서 현재의 자리에 놓은 것이다.

이곳은 도산서당 후원後園으로 퇴계선생께서 ‘화체花砌’라고 하셨다.

선생께서 도산서당에서 강학하실 때에는 완만한 경사傾斜를 형성하면서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갖가지 산야초가 늘 꽃을 피우고 있어서 한가할 때 시를 읊던 장소였고, 이른 새벽에 이슬 내린 꽃잎을 감상하던 장소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빼어났으니 아름다운 구경거리가 아닌 것이 없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깨끗한 곳으로 그윽한 자태와 향기가 아름다우니 조용한 날에는 시를 읊고 이른 새벽에는 산책을 하며 이슬을 머금은 꽃잎을 살피셨다고 하신 시詩가 「도산잡영陶山雜詠」에 실려 있다.

꽃과 섬돌

서당 뒤 못 꽃들이 섞여 심겨져 찬란하니,
천지의 그 정영이 아름다운 구경 아님 없으랴.
화단 한 굽이에 사람 자취 안 보이고
그윽한 향내 빼난 자태 아름답네
바람 자는 한낮에 시를 읊던 그 곳이요
이슬 내린 새벽 꽃을 보던 때일세.

花砌

堂後衆花 雜植爛爛
天地精英 莫非佳玩
曲砌無人跡
幽香發秀姿
風輕午吟處
露重曉看時

서당 뒤편에 서원을 짓기 위한 터를 고르게 되니 야생화는 없어지고 광명실 아래에 매화를 심어 후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땅의 깊이가 낮고 기후가 맞지 않아 매화나무가 오래도록 살지 못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퇴계선생께서 매화를 무척 사랑하였기 때문에 매화를 가꾸지 않을 수 없다. ‘매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매화나무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지 않을까 하는 염원으로 선생이 쓰신 글씨를 새겨서 놓은 것으

로 보인다.

퇴계선생은 세한삼우歲寒三友와 사군자四君子 모두를 좋아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화梅花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매화로써 적막함을 달랬고, 매화를 찾는 것을 신선神仙을 만나는 것처럼 여겼으며, 돈독敦篤(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함)하게 좋아하는 정은 가까운 벗과 같이 친하였고, 사모慕하는 마음이 일일一日이 여삼추如三秋 같았으며, 어느 때고 관심이 식은 적이 없고, 조급할 때나 위태로울 때에도 매화를 잊지 않았으며, 매화를 읊으며 마음을 의탁하였다.

선생께서 42세(임인, 1542년)때부터 ‘옥당억매玉堂憶梅’를 시작으로 70세(경오, 1570) 봄 ‘도하매분호사김이정부안도손아선재기래희제일절운都下梅盆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船載寄來喜題一絕云’까지 매화를 주제로 시를 지으셨으나 대부분이 중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노년에 들어 도학道學이 무르익을수록 매화시梅花詩를 많이 지었으니 매화시와 도학적 정신 세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매화를 실로 여러 면으로 묘사하셨다. 그러나 그 여러 면의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것은 크게 보아 ‘깨끗하고 맑음[淸淨] 또는 깨끗하고 참됨[淸眞]’이었다.

퇴계선생 매화시 중에 애절한 정情을 나누셨다는 시詩를 소개하면

선생께서 68세 12월 16일에 『성학십도』를 선조임금(당시17세)께 올리고 귀향운허를 기다리시며 다음해 1월 하순 계상서당의 매화가 망울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선陶仙(도산서당 매화)을 그리워하며

도산 매화를 생각하다 서울에서
호숫가 도산서당 몇 그루 매화꽃이
봄철을 맞이하여 주인 오길 기다리네
지난 해 국화시절 그대를 저 버렸으나
아름다운 그 기약 어찌 또 버릴까

憶陶山梅 在漢城
湖上山堂幾樹梅
逢春延停主人來
去年已負黃花節
那忍佳期又負回

| | |
|-------------------------------------|---------|
| 병인년 ¹⁾ 이 되어서는 바다 신선 만난 듯 | 丙歲如逢海上仙 |
| 정묘년 ²⁾ 은 나를 맞아 하늘에 오르는 듯 | 丁年迎我似登天 |
| 어찌하여 마음이 오랫동안 풍진에 물들어 | 何心久被京塵染 |
| 매화와 꿈긴 인연 다시 잊지 못하고. | 不向梅君續斷絃 |

라고 읊으셨고,
선생 69세 3월 2일에 귀향歸鄉의 유지諭旨(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글)를 전해 듣고 3일에 애
완愛翫하시던 분매盆梅와 이별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주고받으셨고,

| | |
|---------------------------------------|----------|
| 서울 집에서 분매와 주고 받다 | 漢城寓舍盆梅贈答 |
| 매선이 정겹게도 외로운 이 몸 벗해주니 | 頓荷梅仙伴我涼 |
| 객창은 쓸쓸해도 꿈속은 향기로웠네. | 客窓蕭灑夢魂香 |
| 그대와 함께 못 가는 귀향길 ³⁾ 이 한이 되나 | 東歸限未攜君去 |
| 서울의 먼지 속에서도 고운 자태 지녀주오. | 京洛塵中好艷藏 |

| | |
|------------------------------------|---------|
| 매화가 답을 하다 | 盆梅答 |
| 듣자하니 도선 ⁴⁾ 도 우리 마냥 외롭다니 | 聞說陶仙我輩涼 |
| 임께서 오시기를 기다려 좋은 향기 피우리니 | 待公歸去發天香 |
| 바라오니 임이여 마주 앉아 즐길 때 | 願公相對相思處 |
| 옥설과 같이 청진함을 함께 잘 간직해 주오. | 玉雪清真共善藏 |

선생 69세 3월 17일에 도산서당에 도착하여 도선陶仙이 환영하고 선생께서 귀향歸鄉
이 늦어 미안함을 주고받으신 시詩는 다음과 같다.

| | |
|-----------------------|------------|
| 늦봄에 도산에 이르러 매화와 주고받다 | 季春至陶山 山梅贈答 |
| 부귀와 명리가 어찌 그대와 어울리랴 | 寵榮聲利豈君宜 |
| 풍진 쫓던 지난 삶에 백발이 다 되었네 | 白首趨塵隔歲思 |

1) 1566(명종21)년 왕명으로 상경 중 득병으로 귀향, 왕이 실망하여 陶山圖를 그려 陶山記와 함께 병풍을 제작 애완.

2) 1567(명종22)년 6월 상경, 명종승하, 관직사퇴 귀향.

3) 서울서 竹嶺을 거쳐 내려오는 길, 鳥嶺길을 西歸라고 함.

4) 도산서당에 심은 매화.

지금은 다행히도 낙향 윤허 받았으니
하물며 오심이 내가 활짝 꽃 필 때였던가.

此日幸蒙天許退
況來當我發春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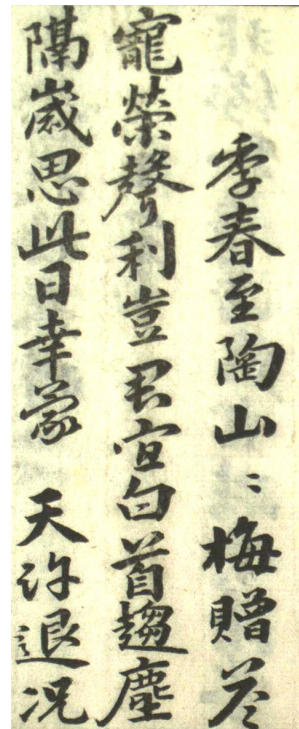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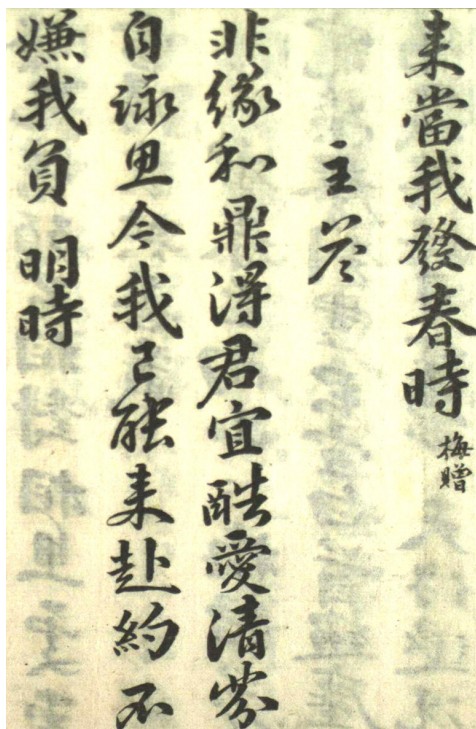
주인이 답하다

主答

화정과鼎⁵⁾이 탐이 나서 그대 사랑함 아니라
맑은 향기 좋다보니 사모하여 절로 읊네.
나 이제 기약대로 그대 앞에 왔으니
꽃 핀 시절 농쳤다고 허물은 말아주오

非緣和鼎得君宜
酷愛清芬自詠思
今我已能來赴約
不應嫌我負明時

선생 69세 4월 2일 고봉高峯(奇大升, 1527~1572) 시의 운자를 빌려 서울에 남겨 둔 분매盆梅에 대한 그리움을 읊으신 시詩이다.



퇴계선생 유묵 《매회시첩》 일부

5) 和鼎: 옛 날에 매실을 솥에 쪄서 그것으로 소금 대신에 간을 맞추는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을 和鼎이라 하는데 轉하여 대신의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國政을 잘 요리하는 것을 화정이라 한다. 따라서 화정은 '국에 간을 맞추다' 또는 '국정을 조정하다'의 뜻으로 쓴다. 따라서 이 시에서 '和鼎'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 시의 의미도 물론 달라질 것이다.

| | |
|--------------------------|--------------|
| 기명언이 화답해 온 분매시를 차운하여 보내다 |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
| 그대를 모진 눈바람 속에 맡겨두고 | 任他鬻虐雪兼風 |
| 나는 창가에서 탈 없이 맑고 외롭게 지냈다네 | 窓裏淸孤不接鋒 |
| 고향산천 돌아와도 그대 걱정 그치지 않으니 | 歸臥故山思不歇 |
| 선녀 같은 참됨이 티끌 속에 있음이 애처롭네 | 仙眞可惜在塵中 |

선생 70세(경오, 1570년) 3월 27일에 서울의 분매를 도산에서 만나 반가움을 읊으신 시詩이다.

서울에 있는 분매를 호사자 김이정(名 就礪, 1526~?, 號 簪齋)이 손자 안도(1541~1584, 號 蒙齋)에게 부탁하여 배에 실어 보내오니 기뻐서 이를 시제로 삼아 한 절을 읊다.

都下梅盆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船載寄來喜題一絕云

| | |
|------------------------|---------|
| 먼지를 뒤로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 脫却紅塵一萬重 |
| 속세밖에 찾아와 여윈 늙은이와 짝을 하네 | 來從物外伴癯翁 |
| 안달하는 그대가 이 몸 생각 없었다면 | 不緣好事君思我 |
| 빙설같은 그 얼굴 해마다 어찌 볼까. | 那見年年冰雪容 |

이러한 선생의 매화사랑과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주변에 안동시에서 매화공원을 만들려고 하였다.

도산서원과 주변, 퇴계종택으로 가는 길옆과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었고, 종택에도 앞밭을 매화원으로 조성하였다. 몇 년 동안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봄이면 매화꽃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한 때는 안동MBC에서는 매화축제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겨울의 혹독한 추위 탓인지 토질 탓인지는 모르나 나무의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면서 매화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릉 오죽헌이나 거창의 동계고택 등에는 수 백 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매화와 비교하여 보면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다. 매화의 성장과 관련한 환경과 토질 등을 조사하여 이곳에 맞는 수종을 선택함은 물론이고 환경과 토질을 개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지금이라도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도산서원 앞마당 수수매화
(2010.4.23.)



도·산·서·원·이·야·기

23

진도문

進道門



76.0×209.0cm



도산서원의 외삼문外三門이 진도문進道門이다

서원의 일반적인 구조는 들어가는 길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다음이 문루門樓이고, 다음이 외삼문이고, 다음이 마당인데 좌우에 동·서재東·西齋가 있고, 마당 북쪽에 강당講堂이 있고, 강당 뒤편에 사당祠堂을 모셨는데 사당에 들어가는 문이 내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살문은 훌륭한 선현先賢의 위패位牌를 모신 신성神聖한 지역임을 알리는 것이고, 문루는 공부하는 선비들이 쉬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집회의 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외삼문은 서원을 출입하는 문으로서 이 문안에서는 선비로서 체통을 지키며 경건敬虔하고 엄숙嚴肅하게 행동을 하여야 한다. 외삼문은 문루 아래, 또는 따로 문을 설치하거나, 문을 하나로 꾸민 경우도 많다.

삼문三門은 대체로 사람이 출입하는 문과 신神이 출입하는 문으로 구분한다. 가운데 문이 신이 출입하는 문이다. 양 측면 문은 사람이 출입한다. 명실 공히 서원의 정문인 셈이다.

진도문은 도산서원의 외삼문인 셈이다. 그런데 삼문이 아니다. 문설주 아래에 부방목附枋木이, 위에 홍살을 설치하였다. 부방목은 신문神門의 표지이고 벽사辟邪(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의 의미도 있다. 홍살은 신성神聖한 곳의 표지이고 이 문안에서는 경건敬虔하게 예禮를 갖추어 행동을 하라는 경고의 표지이다. 부방목은 사찰의 일주문이나 종묘宗廟의 정문正門(蒼葉門)과 정전正殿, 성균관成均館정문에도 설치되어 있다. 도산서원에는 처음 들어오는 정문¹⁾, 진도문, 사당의 삼문 중 중문에 부방목이 있다. 홍살문은 왕능과 선현先賢을 모신 사당 진입로에서 흔히 발견된다. 또 효자 또는 열녀의 정려문 위에 설치된 곳도 있다. 도산서원에는 진도문과 정문 문설주 위에 설치되어 있다.

정문은 별도의 문 이름이 없다. 건립연대도 기록을 찾지 못했으나, 160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허주虛舟(李澄, 1581~?)의 「도산서원도」와 월탄月灘(金昌錫, 1652~1720)의 「도산도」에 이미 정문과 담장이 그려져 있고, 겸재謙齋(鄭澈, 1676~1759)의 「도산서원도」(1721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와 「도산서원 부채그림」(1735년, 간송미술관 소장), 표암豹菴(姜世晃, 1713~1791)의 「도산서원도」(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도 보인다. 1600년 『퇴계선생문

1) 정문: 도산서당 앞 大門, 「1969 陶山書院修理時日記」에 「正門 또는 外進道門」라고 표현함(例 正門前石階工事, 外進道門石階工事).

집』간행 후서원을 창설한지 오래되지 않아 재실과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 토지와 기물이 부족한 것을 모두 계획을 세워 조치토록 기약하였다.²⁾는 기록에서 1600년대 초반에 정문과 담장을 장관각藏板閣과 상고직사上庫直舍와 함께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 이 된다. 진도문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고 원주圓柱를 세웠다.

진도문進道門은 도道를 깨우치려 용감하게 나아가라는 뜻이다

“의지를 굳세게 하면 뜻을 굳게 지켜 잘못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나아가는 데 용감하다[剛則守得定不回 進道勇敢]”라는 횡거橫渠(張載, 1020~1077, 중국 북송시대 철학자)의 말³⁾에서 인용하였다고 한다. 즉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해야 용감하게 도道を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道란 무엇인가? 도를 추구하는 학문을 도학道學이라고 한다. 도학은 중국의 송대宋代(960~1279)에 크게 일어난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의 별칭이다. 북송北宋(960~1127)의 럽계濂溪(周敦頤, 1017~1073,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 횡거橫渠 안락安樂(邵雍, 1011~1077, 중국 宋나라의 시인, 諡 康節), 명도明道(程顥, 1032~1085, 중국 北宋의 유학자) 이천伊川(程頤, 1033~1107, 중국 北宋의 유학자) 등 이른바 오군자五君子에 의해 창도·전개되고, 남송南宋(1127~1279)의 주자朱子에 의하여 집대성된 송학宋學을 말한다. 이러한 도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회현晦軒(安珦, 1243~1306, 소수서원 주향)선생께서 도입하여 조선이 개국하면서 국가적 이념이 되어 더욱 발전하면서 정착되었다.

현판 테두리의 조각과 문양은 군자의 기상으로 도에 나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현판의 글씨는 심인조沈仁祚(1555~1605)가 썼다⁴⁾고 하나 근거가 확실치 않다. 또 누가 새기고 만든 것을 걸었는지도 기록을 찾지 못했다.

글씨에 대해서 강하면서 날카롭다⁵⁾고 하고, 현판은 서원 내 다른 현판과 비교하면

2) 李野淳, 「軍資監主簿永川李公行狀」, 『廣瀨文集卷之十一』, “且書院創設未久. 凡齋厨棟宇之未完者. 田土器用之未贍者. 亦皆籌畫措置”

3) 朱子 編, 「存養類」, 『近思錄』, 六十五條, “橫渠先生曰 -중략- 人又要得剛 太柔則入於不立 亦有人生無喜怒哀怒 則又要得剛 剛則守得定不回 進道勇敢 -하략-

4) 국립대구박물관, 『도산서원특별시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마음』, 2016, 45쪽.

5)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도록, 46쪽.

정성을 들여 화려한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테두리(변죽 또는 전이라고도 함)를 구름모양으로 조각하여 국화를 그렸고, 가로와 세로의 선대에도 구름을 조각하고 그렸다. 국화는 군자의 기상氣像을 표현한 것이고, 구름은 비를 만들어 씩씩하게 만물을 소생시키므로 진도문을 출입하는 선비는 군자의 기상으로 만물을 소생시키려는 도道로 나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원 전체 경내境內에서 진도문을 중심으로 바깥은 서당구역書堂區域이고, 안쪽은 서원구역書院區域으로 구분된다. 즉 바깥은 퇴계선생께서 학문연마와 제자를 기르던 구역이고, 안쪽은 후세의 선비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우치는 구역이다. 도산서당을 확장하여 도산서원이 되었다. 서원에 출입하는 선비들은 진도문 바깥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느낌으로 받아 안쪽에서 깨우쳐서 참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된다.

진도문을 출입하는 선비는 원규를 준수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신범절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서원의 행신범절行身凡節은 질서를 확립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인聖人の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욕망을 억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다.

진도문은 복인服人(부모 또는 인척의 상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예복禮服(한복에 도포, 갓 착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복인이 들어와야 할 때에는 서쪽의 작은 문을 사용하여야 한다.⁶⁾ 아무 일 없이 서원에 오거나 도포道袍(선비가 예복으로 입는 겹옷)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밥을 주지 말라⁷⁾고도 하였다. 퇴계선생께서도 예법禮法을 비웃고 성현聖賢을 업신여기며 경서經書를 어지럽히고 도리道理를 거슬러서 나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예법禮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함께 의논하여 물리쳐라 -중략- 까닭 없이 알리지도 아니하고 자주 들락날락해서는 아니 되며, 무릇 의관衣冠과 행동과 말을 각각 착실하게 살피고 힘쓰며 서로 살펴주어 착하게 하라고 하셨다.⁸⁾

6) 「陶山書院儀節草. 丙辰二月」,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總則 “進道門出入 服人與不具禮服者不許出入 服人入院則從西夾門出入”

7) 完議, 「丁卯八月十七日」,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無事入院者 勿爲支供事 不着道袍而入院 則亦勿支供事”

8) 李滉, 「伊山院規」,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一 雜著』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經反道, 醜言辱親, 敗羣不率者, 院中共議擯之.-중략-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 言行之間 各務切儆 相觀而善”

서원에서 지켜야할 행신범절行身凡節은 모신 선현을 극진히 받든다는 몸과 마음의 자세이다. 도산서원에도 행신범절을 문서로 규정화하여 시행⁹⁾하지만 오랜 세월 관습으로 전해오는 범절이 있다. 무장공수보행無杖拱手步行(지팡이를 없이 공손한 걸음), 연장자우대年長者優待, 흰화잡담엄금喧譁雜談嚴禁(시끄러운 잡담 금지) 등이다. 특히 퇴계선생께서 계신 상덕사는 물론이고 가까운 진도문 안에서 엄격히 지켜졌으나, 2001년 이후 의절의 변경¹⁰⁾에 편승하여 행신범절마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도문에는 삼태극이 그려져 있다

이 삼태극三太極 그림은 언제부터 무슨 의미로 그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서광명실 창건일기에 동·서재와 함께 단청을 한다는 기록이 있어서 진도문은 그 이전부터 단청이 되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삼태극도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태극三太極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천지인天地人’ 또는 ‘천지인조화사상天地人造化思想’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태극二太極’에 대해서는 ‘우주본체론宇宙本體論’¹¹⁾으로 해석하면서 삼태극三太極의 의미는 ‘천지인天地人’ 또는 ‘천지인조화사상天地人造化思想’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의 ‘태극원기 함삼위일太極元氣 函三爲一’ 사상에 근거하여 ‘음양덕陰陽德’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¹²⁾하기도 한다. 삼태극 문양은 세계유산 대상 서원 가운데 도산서원에서만 진도문과 내삼문에 그려져 있다.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 내삼문에는 삼태극의 돌아가는 방향이 진도문의 것과 반대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태극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

진도문 안 오른편에 달린 북은 명고鳴鼓이다

공자께서 제자 염구冉求(BC 522~BC 489)의 정치적 능력을 인정하여 당시 노나라 실권자인 계강자季康子에게 추천하였더니 염구가 계강자의 가신家臣이 되어 권력과 출세에

9) 원규(퇴계선생 찬), 의절초(1915년경 제정), 원무처리규정 및 시행세칙(1977년 제정), 완의 등.

10) 상덕사 여성출입, 의례봉행 낮 행사 전환 등.

11)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음양의 생성으로 설명하는 이론.

12) 김명희, 「삼태극의 의미 고찰」, 『문화재 제45권 제1호(2012.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4~ 15쪽. 이 논문은 “cafe.naver.com/baekjesupporter/599”에 올려져 있음.

눈이 멀어 부정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자 공자께서 우리 무리가 아니니 북을 울려 죄를 성토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¹³⁾ 이 고사古事에서 유래하여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벗어나거나 원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 북을 쳐서 규율을 바로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명고鳴鼓는 향교나 서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가까운 병산서원 만대루에도 걸려 있다.

13) 『論語』, 「先進篇」,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子曰 非吾徒也 小子 鳴鼓而攻之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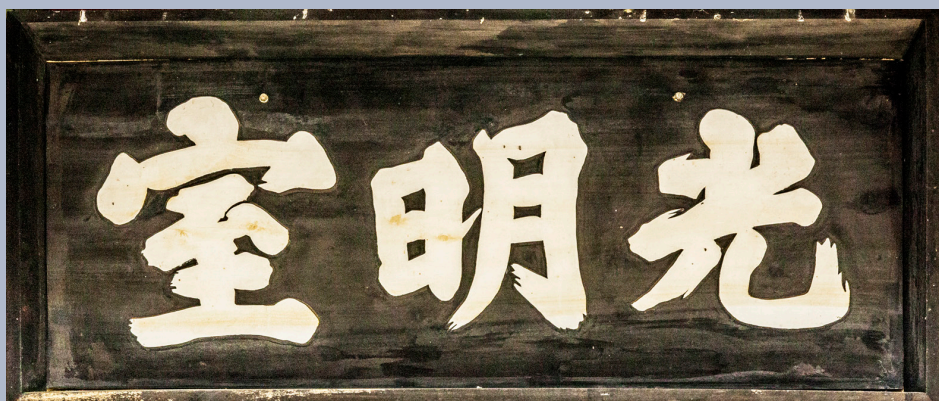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24

광명실

光明室



48.2×108.3cm

46.5×106.2cm



서원의 서책書冊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다

광명실光明室은 누마루형식 목조 두 칸 집으로 진도문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되어있다. 퇴계선생께서 “역동서원易東書院의 장서각藏書閣을 주자朱子の 「장서각명藏書閣銘」¹⁾에 ‘우리에게 광명을 끼쳐주었네[惠我光明]’라는 글에서 따서 광명실光明室이라고 하였다”²⁾고 하였다. 또 『시경詩經』 「주송경지周頌敬之」에 “나 소자가, 총명하지 못하여 공경하지 못하나, 날로 나아가고 달로 진보하여, 배움을 이어 밝혀서 광명함에 이르고자 한다[維予小子 不聰敬止 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라는 말도 있다.

배움의 길은 깊고 멀어서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하여 그만두는 것은 진정한 배움의 태도가 아니다. 배움의 성과가 깊은 데까지 이르러 빛이 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공부하는 태도였다. 즉 평생학습이라야 올바른 학문의 태도라는 것이다. 또 『오례통고五禮通考』³⁾에 “만고에 변치 않을 성현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롭게 밝은 빛을 준다[萬歲訓彝 惠我光明]”라는 글도 있다. 훌륭한 성현의 말씀을 담은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밝은 빛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에서 차가운 겨울 날 밤 주무시다가 일어나 읊은 「산당야기山堂夜起」라는 시에서 책 속에 참맛이 있어 기쁘게 실컷 먹으니 진귀한 요리보다 낫다[書中有珍味 飫沃勝珍庖]”고 하고, 또 역동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보여 준 시에서 “그대들과 함께 즐거운 가운데 귀중한 보배(서책)를 서로 살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싶네[與君共此閒中樂 珍重相看日日新]”라고 하셨다.

현판 글씨는 퇴계선생의 친필이다

정확히 말하면 동광명실에는 역동서원의 광명실 현판을 모각模刻한 것을 걸었고, 서광명실은 본 현판을 걸었던 것이다. 동광명실 현판은 1775(영조 51, 乙未)년에 정당正堂(典敎堂) 동두東頭에 서각書閣을 처음 지어 역동서원의 광명실 현판을 모각하여 걸었다⁴⁾가,

1) 朱熹, 「藏書閣書廚字號銘」, 『朱子大典 卷85 箴』, “於穆元聖 繼天測靈 出此謨訓 惠我光明 永言寶之 匪金厥篇 含英咀實 百世其承”

2) 李滉, 「易東書院堂齋名號」, 『退溪先生續集卷之八, 雜著』, “藏書閣曰光明室 朱子藏書閣銘. 惠我光明”

3) 『五禮通考』: 秦蕙田(1702~1764, 清나라 江蘇사람)이 지은 禮書.

4) 「書冊置簿 乙未五月十五日」,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乙未春 始造一間於正堂東頭 摸來易東書院光明室三字以扁之 卽先師手筆 而以其藏書 則同也”

1819(순조 19, 己卯)년 동광명실을 신축하면서 동광명실에 다시 걸었다.⁵⁾ 서광명실 현판은 역동서원이 휘철(1871년)되면서 전적典籍을 비롯한 책판, 현판 등 모든 것을 도산서원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1939년 서광명실을 증축하여 역동서원에 걸었던 현판을 걸었다.⁶⁾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두 현판이 어느 광명실에 걸었던 것인지는 구분이 확실치 않으나 그 크기는 차이가 있다.⁷⁾

이 현판글씨에 대해서 서미書尾에서 중후한 맛이 풍긴다. 단정하고 정중하며 굳세다. 선생의 인품과 학식, 꽃꽂하고 깔끔한 선비상이 묻어 있다. 한 획 한 획에 절도가 있어 대유大儒의 학자다운 자태가 그대로 담겨있다.⁸⁾고 한다. 지금의 현판은 2009년에 다시 새겨서 걸었다. 옛 현판은 훼손 또는 도난을 우려하여 모두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보관하고 있다.

1775년 정당동두正堂東頭에 처음 서각書閣을 지었다

서원 서책은 창설 때부터 한존재閣存齋 벽장壁藏에 보관하였으나 협소하고 습기 등으로 변질變質 우려가 있어 1775(영조 51)년에 전교당 동쪽에 서각書閣을 지어 서책을 옮겼고,⁹⁾ 이곳에도 40여 년간 보관하면서 서책 량이 많아져서 좁고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훼손毀損이 우려되어 1819(순조 19)년 진도문 동쪽에 누마루 형태로 두 칸을 지어 서책을 옮겼다.¹⁰⁾ 그 후 120년 동안 서책이 불어나 진도문 서쪽에 같은 형태와 규모로 더 짓고 보관하고 있던 역동서원의 광명실 현판을 걸었던 것이다.¹¹⁾

동광명실에는 선생 수필본手筆本(퇴계선생께서 직접 쓰신 책) 및 수택본手澤本(퇴계선생께서 공

5) 李家淳, 「陶山光明室上樑文」, 『霞溪集 卷十』, “多士莫不欽崇 特揭二字光明 曾取書閣銘餘意 是承百代嘉惠 謹模易院藏舊題 尊閣益嚴”

6) 「西光明室?建 日記」, 陶山書院 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己卯(1939)八月十二日 “揭東西室懸板 蓋易東書院舊有光明室扁額 卽老先生手筆也 東室創建時 摹取而刻 揭之易東 撤院後 移奉是扁於本院 而板多剝缺 今修補改塗 而揭于西室”

7) 목판연구소, 『한국의 편액1』, 한국국학진흥원, 2016, 68~69쪽. 설명하는 글에 둘 다 ‘동쪽건물의 편액이다’라고 하였고, 규격은 ‘48.2cm×108.3cm’와 ‘46.5cm×106.2cm’로 각각 다르다.

8) 김남인, 「名筆 역사와 해학의 글씨를 만나다」, 서해문집, 2011, 235쪽.

9) 주 4) 참조.

10) 李家淳, 「陶山光明室上樑文」, 『霞溪集 卷十』.

11) 「西光明室刱建 日記」, 陶山書院 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 역동서원의 모든 현판(12점)을 휘철 당시(1868. 고종5년) 도산서원 옮겨 보관하다가 ‘광명실’ 현판을 제외한 현판(11점)은 1969. 9. 6.(양 10.16.) 역동서원 관계자(禹聲九 등)들이 방문하여 인수하여 갔다. 「己酉陶山書院重修日記」, 陶山書院 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九月六日 記事.

부하시던 책)과 내사본內賜本(임금이 서원에 내려 보낸 책)을 보관하고 서광명실은 문도門徒들의 문집류文集類 등을 보관하였다. 서책의 관리는 들어온 책은 진도문 밖을 나갈 수 없다는 「원규院規」의 규정規程¹²⁾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었다. 서원에 임무를 맡은 모든 사람이 모임 때(享祀, 堂會 等)가 아니면 광명실을 열 수 없었다. 특별한 경우에도 상·하·별유사 등 3인 이상 입회하여야 열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두 번(春·秋) 서책을 점검하고 말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이를 포쇄曝曬라고 하는데 이때 수량은 물론 보관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렇게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서원보다 많은 전적典籍과 고서류古書類를 소장할 수 있었다.

광명실의 제일 보물은 『사문수간師門手簡』이다. 제자 월천月川(趙穆, 1524~1606, 居 禮安)이 1550년(明宗 5年, 退溪 50歲, 月川 27歲)부터 1570년(宣祖 3年, 退溪 70歲, 月川 47歲)까지 20년 동안 스승으로부터 받은 편지 109통通을 65세(1588년)때 8책冊으로 장첩粧帖(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엮음)하여 책상에 두고 봉람奉覽하며 스승을 숭모하였다. 그 뒤 1773(계축)년 7월 도산서원에서 구입하여¹³⁾ 보관하다가, 1792(정조 16년)년 도산별과陶山別科를 시행하고 봉명사신奉命使臣 이만수李晩秀(1752~1820, 號 屐翁, 諡 文獻)가 서원의 서책을 열람하고 ‘서원에 보관 중인 좋은 책을 가져오라’는 임금의 하명이 있었다고 하며 『사문수간師門手簡』을 가지고 가서 어전에 올렸고, 정조임금은 이를 살펴보고 2년 뒤(1794년) 「발문」을 짓고 승지 학록鶴麓(李益運, 1748~1817, 諡 靖肅)으로 하여금 도산서원에 반납하게 하였다.¹⁴⁾ 이 책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보존하고 있으며, 1990년과 2008년에 국제퇴계학회 경상북도지부와 안동문화원에서 각각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1970년 12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광명실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2003년 4월에 모든 전적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보존하고 있다

근래에 서원이나 사찰뿐 아니라 고택에 보관하던 유물의 도난사건과 화재 등 재난이

12) 李滉, 「伊山院規」,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一 雜著』, “書不得出門”

13) 陶山書院古文書, 韓國國學振興院 寄託, 『書冊秩』, “師門手簡八卷癸丑七月買得于月川趙德鳳”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정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 대학원, 2020.2, 박사학위 논문, 18쪽.

14) 丁淳睦, 『師門手簡』解題,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の 편지「師門手簡」』, (社)國際退溪學會慶尙北道支部, 1990, 19~21 쪽.



1970.12.8. 박정희대통령 광명실 시찰
(국가기록원 제공)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3년 4월 14일에 양 광명실의 전적과 고서류들을, 같은 해 6월 23일에 장판각의 책판冊版들을 한국국학진흥원의 장서각藏書閣과 장판각藏版閣에 각각 옮겨서¹⁵⁾ 보관하고 있다. 이때 옮겨진 것이 10,788점(고서류 4,605, 고문서 2,128, 서화 11, 목판류 4,014, 기타 30)¹⁶⁾이었다. 현재 동·서 광명실에는 근세에 발간된 서책들로 2019년말 현재 2,567책(퇴계학분야 340, 비퇴계학분야 1,965, 서원문부 262)¹⁷⁾이 보관되어 있다. 서원의 고전적과 목판들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옮기던 날(2003. 4. 14, 음력 기묘 3. 13.) 상덕사에 아뢰은 고유문¹⁸⁾은 다음과 같다.

계미년 3월 13일[양력 2003. 4. 14.] 후학 류단하¹⁹⁾는 감히 밝게

선사 도산부자 퇴계이선생 영령께 고하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선생께서는 선비들의 모범이시고 국가의 원로이셨습니다. 우리 동남지역을 인도하시어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재주에 따라 가르치시어 각기 그 그릇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인재가 크게 일어나 국가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좌우에 책을 두시고 학문에 힘쓰셨습니다. 서가에 가득한 경전을 보존함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계속

15) 陶山書院別有司, 『儀禮 稿(增補版)』, 2011, 「광명실 서책이관 고유문」 및 「광명실서책 수장 고유문」. 연합통신 2003. 4. 16. 자 보도 “도산서원은 지난 14일부터 이들 동안 500년 가까이 보관하던 퇴계 선생이 남긴 책을 비롯해 목판, 문집 등 7천여점을 옮겼다.”

16) 김종석, 「해제」, 『陶山書院 古典籍』, 韓國國學振興院, 2006, 10쪽.

17) 도산서원운영위원회, 「2019년 1월 업무보고서」, 참조.

18) 柳端夏, 「光明室藏書國學振興院寄託告由文」, 博約齋文簿.

維歲次癸未三月乙巳朔十三日丁巳 後學柳端夏敢昭告于

先師陶山夫子退溪李先生之靈 伏以 先生 斯文著龜 國家元老 倡道東南 講業雲集 隨才陶鑄

各成其器 人材蔚興 邦家之基 左圖右書 藏而修之 滿架填典 保存無漏 繼至今日 猶存乎澤 現在文庫 無不虛率 將移國院 長久之策 今爲搬出 萬感交錯 伏惟尊靈 勿咎勿責 謹告虔告.

19) 柳端夏(1914~2007): 본관 豊山, 자 友川, 겸암선생 후손, 하회 거주, 己卯(1999) 正謁 都執禮.

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아직도 그 가르침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고가 허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국학진흥원에 옮겨서 더 오래도록 보존하려 하옵니다. 지금 옮기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어지럽습니다.

앞드려 생각하오니 존령께서는 허물하시지도 꾸짖으시지도 마시옵기를 삼가 경건하 게 아뢰옵 나이다.

도산서원의 고전적과 목판들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광명실에 보관되었던 고전적 가운데 고문서는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1988년 조사하여 영인과 탈초를 하여 『도산서원고문서I·II』를 1994년에 간행하였고, 1855(철종 6)년 도산서원에서 시행된 「사도세자추존만인소 思悼世子推尊萬人疏」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라는 제목으로 2018년 5월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03년에 기탁된 고전적과 목판에 대한 목록집 『도산서원 고전적』을 2006년에 간행하였다. 또 도산서원 기탁 자료를 통한 한국의 서원문화 연구를 기획하여 2011년부터 유교문화 심층연구 포럼을 운영하여 2012년에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3년에 『조선의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2014년에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사회사』, 2015년에 『조선후기 서원 위상』을 간행하였다.

목판은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소장된 책판과 함께 UNESCO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2015년 10월 9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2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었고, 1600년에 간행한 퇴계선생문집(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은 국가문화재 보물 제1894호로, 그 책판은 제1895호로 2016년 2월 22일에 각각 지정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08년부터 도산서원의 전적과 고서류를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다. 일괄하여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면 퇴계선생의 수필본과 수택본 그리고 내사본을 다른 문증과 서원 등에서 기탁한 자료에서 찾아 함께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도산서원 광명실은 퇴계학을 비롯한 유학儒學 전문도서관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전적수장고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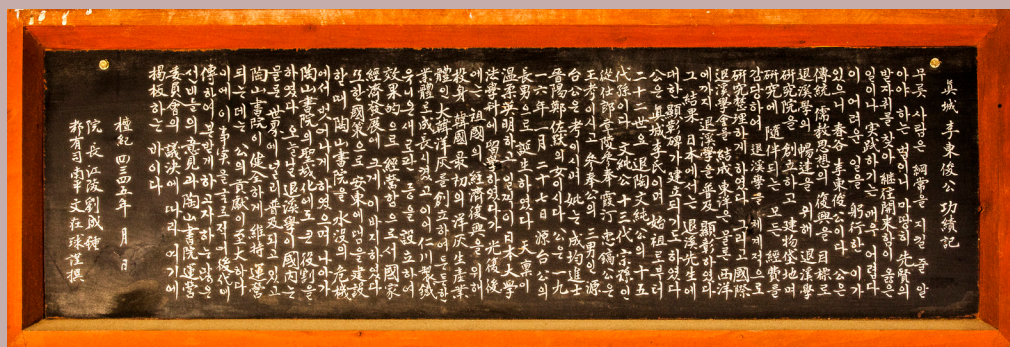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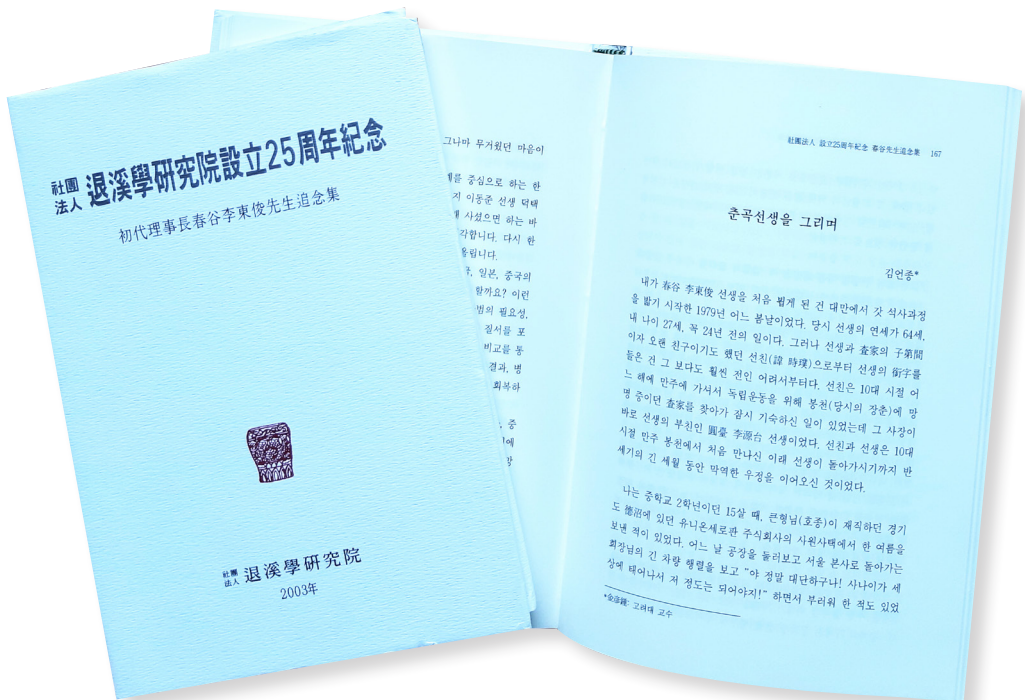
25

진성이동준공공적기

眞城李東俊公功績記



37.0×107.0cm



眞城 李東俊公 功績記

무릇 사람은 綱常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니 마땅히 先賢의 발자취를 찾아 繼往開來함이 옳은 일이나 實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어려운 일을 躬行한 이가 있으니 春谷 李東俊公이다. 公은 傳統 儒敎思想의 復興을 目標로 退溪學의 暢達을 위해 退溪學研究院을 創立하고 建物垡地며 研究에 隨伴되는 모든 經費를 감당하여 退溪學을 체계적으로 研究整理하게 하였다. 國際退溪學會를 結成 東洋은 물론 西洋에까지 退溪學을 普及 顯彰하였다. 그 結果 日本에서는 退溪先生에 대한 顯彰碑가 建立되기도 하였다. 公은 眞城李氏이며 始祖로부터 二十二世요 退陶文純公의 十五代孫이다. 文純公 十三代 宗孫인 章陵參奉 霞汀 忠鎬公은 王考이시고 參奉公의 三男인 源台公은 考이시며 妣는 成均進士 鄭佐默의 女이다. 公은 一九一六年一月二十七日 源台公의 長男으로 誕生하였다. 天稟이 溫柔英明하고 일찍이 日本大學 法學科에 留學하였다가 光復 後에는 祖國의 經濟復興을 위해 投身 韓國 最初의 洋灰生産業體인 大韓洋灰를 創立하여 튼튼한 業體로 成長시켰고 이어 仁川製鐵 유니온세로판 등을 設立하여 效果的으로 經營함으로써 國家經濟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國策으로 安東에 댐을 建設할 때 陶山書院을 水沒의 危機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나아가 陶山書院의 聖域化에도 큰 役割을 하였다. 오늘날 退溪學이 國內는 물론 世界에 널리 普及되고 있고 陶山書院이 健全하게 維持 運營되는 데는 公의 貢獻이 至大하다. 이에 이 事實을 글로 적어 後代에 傳하여 본받게 하고자 하는 많은 선비들의 意見과 陶山書院運營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여기에 揭板하는 바이다.

檀紀 四三四年 月 日

院 長 江陵 劉成鍾

都有司 南平 文在球 謹撰

춘곡公春谷公이 국가 경제발전과 퇴계학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추모하고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적을 새겨서 걸었다.

2010년 12월 26일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퇴계학 세계화에 공로가 많은 춘곡春谷(李東俊, 1915~1988)의 「공적기功績記」를 서광명실 북벽에 게시하고 기일에 제수비祭需費를 지원하여 영원히 후세들이 기리도록 의결하였다.

임진壬辰(2012)년 정알正調(양 1. 25.)에 상덕사尙德祠에 아뢰고 서광명실 북쪽 벽에 기판記版을 걸었다. 이때 서원 임사任司를 비롯한 유족과 친척 그리고 선비문화수련원 임직원 등 65명이 참석하였고상덕사에 아뢴 글은 아래와 같다.

유세차 임진년 정월계미삭 초삼일을유 후학 김병일은 삼가 고하나이다.

선생십오대손 동준의 공적기를 서광명실에 계판하고자 하나이다.

공은 만물일체관에 입각한 경철학과 사상을 국학의 범위를 넘어 세계만방에 널리 선양하여 후학의 모범이 되었기에 도산서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간략하게 그 공적을 기록하였습니다.¹⁾

퇴계학의 국제화國際化는 춘곡春谷의 의지와 노력이 기반基盤이 되었다

춘곡春谷은 해방 후부터 기업가로 활동하다가 1960년대에 대한양회, 유니온세로판, 인천제철 등 국가 기간산업을 크게 일으켜 국가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다가 신병치료를 위하여 영국에서 1년여를 머무르며 한국학의 세계화를 구상構想하였다. 1970년 4월경 귀국길에 먼저 퇴계학 선양宣揚을 결심하고, 그 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산서원성역화사업과 퇴계선생 400주기 기념사업四百週忌記念事業을 연계하여 기념사업회 결성과 퇴계학회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남산 시립도서관 앞에 퇴계선생 존상尊像을 모시고 퇴계학국제학술행사를 하였고, 연말에는 퇴계학연구원退溪學研究院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던 퇴계학을 문집 국역, 정기 학술회의 및 학술지 간행, 해외 퇴계학회 창립 지원 등으로 활성화와 국제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4년에는 연구원 원사院舍도 출연出捐(돈을 내어 도움)하였다. 퇴계학연구원은 춘곡春谷의 정성과 재력이 기반이 되어 퇴계학 연구의 초석礎石을 닦았고, 국제퇴계학회를 결성하여 퇴계학의 세계化世界化에 크게 기여하였다.²⁾ 춘곡을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BC 520?~BC 456?)에 비유하여 ‘퇴계선생의 자공’이라고 함이 옳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 자공은 이재理財에 밝아서 공문孔門 70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요富饒하여 스승과 학생들이 생계에 걱정을 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자 구실을 하였다. 자공은 스승을 모시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니 실리를 따진 투자일지 모르나, 춘곡은 500년 뒤의 후학으로서 퇴계선생

1) 李東翰, 「春谷公功績記揭板告由文」, 『告由文綴』, 陶山書院博約齋文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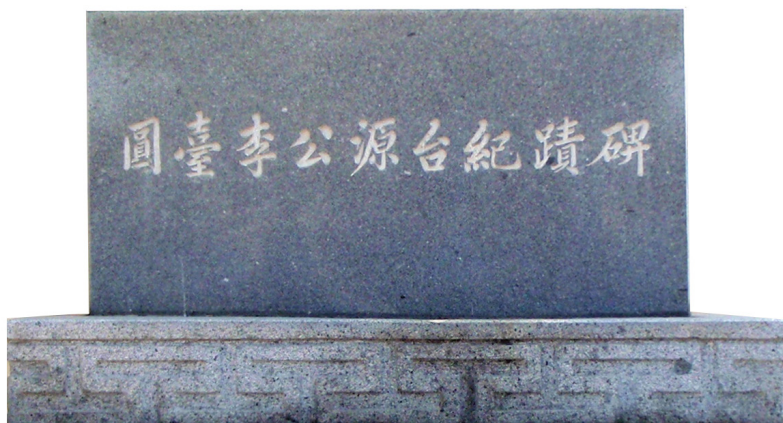
2) 李毓源, 「故 春谷 李東俊 理事長의 功績으로 돌아보며」, 『眞脈 제2호』, 2002.5, 93~100쪽.

3) 최덕환, 「春谷과 子貢」,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設立25周年紀念-初代理事長春谷李東俊先生追念集-』,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2003, 181~182쪽.

을 추앙하여 그 연구원을 설립하고 퇴계학退溪學이라는 독립된 학문영역學問領域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데 재정적 부담을 아끼지 않았으니 자공보다 훌륭한 생각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친도 항일운동을 하였고 개인서재를 기증하여 안동시립도서관이 되었다

선친先親이신 원대圓台(李源台, 1899~1964)공도 1916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에 활동하다가 1918년에 귀국하여 『배달족강역형세도倍達族疆域形勢圖』를 1923년에 완성하여 만주의 신흥무관학교⁴⁾ 교재로 사용되었다.⁵⁾ 이 책은 75% 정도가 만주지역에서 활약했던 한민족韓民族 계통을 파악한 것으로서 만주의 역사도 한민족의 역사임을 강조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적 이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⁶⁾ 또 본인의 서재書齋 육일관(六一館, 안동시 동문동 소재)과 장서 8,000여 권을 안동시에 기증하여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가 1981년 현재의 안동시립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⁷⁾ 도서관 남쪽 마당에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안동시립도서관 기적비

4) 新興武官學校: 1911년 서간도(만주 길림성 류하현)에서 개교한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 졸업생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해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

5) 박결순, 「日帝強占期 亡命 人士의 高句麗 渤海認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2004.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35~482쪽.

6)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527쪽

7) 안동시립도서관 홈페이지 [lib.andong.go.kr] '인사말'.





도·산·서·원·이·야·기

26

홍의재

弘毅齋



58.0×148.0cm



한자漢字의 뜻을 풀이하면 ‘넓고 굳세게 공부하는 방’이라는 것이다.

『논어論語』「태백편泰伯篇」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한다.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인仁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무거운 소임을 다해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¹⁾라고 하였다. ‘홍弘’은 마음이 크고 넓다는 뜻이고 ‘의毅’는 의지가 굳세고 결단력이 있다는 뜻이다.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멀고 큰일이다. 따라서 마음이 크고 넓어야하고 의지가 굳세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홍의재弘毅齋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인仁’은 공자의 중심사상이다. 인은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다. ‘인仁’은 이기적인 욕심이 제거된 인간의 순수한 본질적인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의지가 굳고 때로 결단력이 없으면 ‘인仁’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비는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만 인仁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글씨도 아주 힘차고 굳센 듯하다

현판의 ‘의毅’자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자전에서 찾기 어려운 글자이다. 그러나 『서도대자전書道大字典』에서는 찾을 수 있다.

아마도 글씨의 균형과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글자의 획을 변화시킨 듯하다. “강약이 어우러져 있는 해서로 한석봉의 편액서에서 보여주는 기풍이 엿보이는 글씨로 대단히 활달하면서도 숙달된 필치를 보여 주고 있다”²⁾고 한다.

현판 테두리에는 구름문양을 그려 기거하는 유생들에게 높고 넓게 공부하라는 것과 현판의 화려함을 더하였다.

홍의재弘毅齋는 비교적 젊은 유생이 거쳐하는 공간空間이다

뜻을 넓고 굳세게 가지라는 가르침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전교당의 오른쪽에 있어

1) 『論語』, 「泰伯篇」,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2)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도록, 45쪽.

서 서재西齋라고도 부르고 있다. 서쪽은 동쪽보다 서열이 낮다. 그래서 동재인 박약재博約齋에는 비교적 서열이 빠른 유생들이 기거한다. 말하자면 서원의 임사任司(임무를 맡은 삶)이거나 학생회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재유사齋有司가 거처한다. 서재인 홍의재는 아무 직책이 없거나 젊은 유생儒生이 기거하는 곳이다. 비교적 서원출입이 많지 않았던 유생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렇다 보니 언행이나 범절에 많은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도포와 갓을 쓴 복장으로 입재하면, 서원에서 지급받은 유건儒巾을 쓰고 생활하다가 그대로 귀가하거나, 갓 또는 도포, 신발 등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가족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예안禮安 장날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저마다 화제話題가 다양하다. 종든 싫든 잘 들으면 공부가 될 수 있으나, 말을 잘못 하면 큰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향사에 참례參禮를 위하여 입재하였던 어느 유생이 자기들의 종친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도산서원향사참례기」에 양반 자랑 늘어놓는 덜된 양반들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었다. 사람 행세하기, 양반되기가 무척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네 종친宗親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말조심하라는 경고로 보인다. 따라서 홍의재는 현판이 의미하는 선비는 넓고 굳센 뜻을 품고 극기복례克己復禮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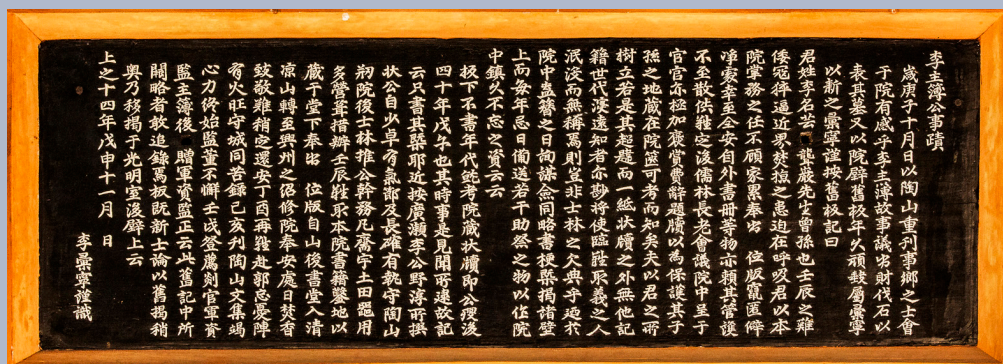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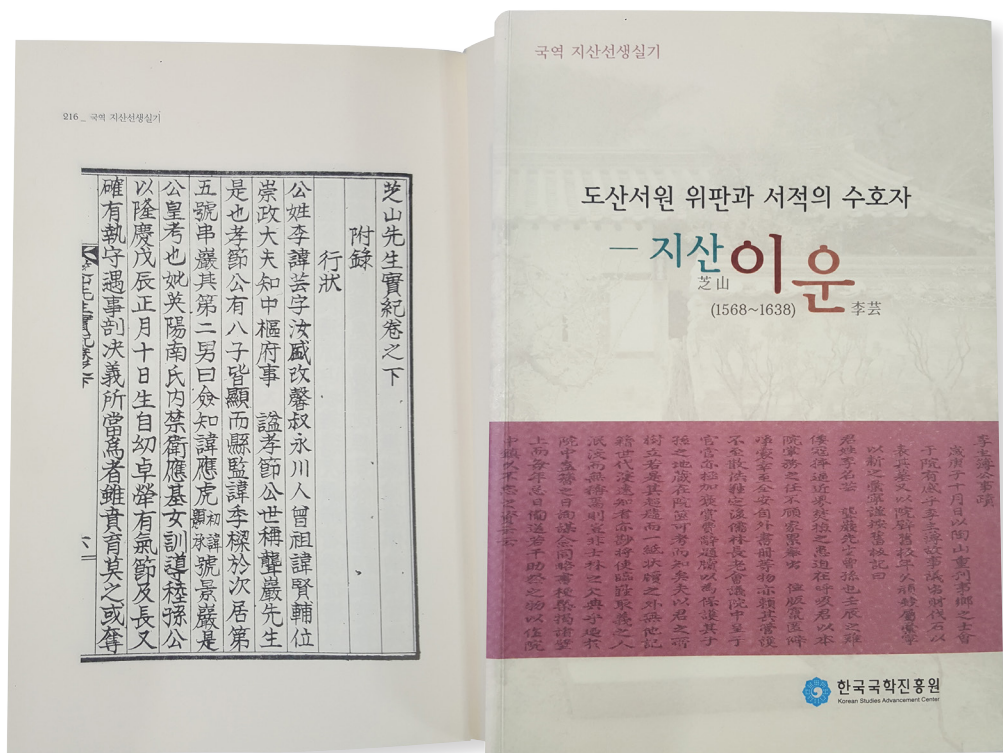
27

이주부공사적

李主簿公事績



35.5×96.5cm



李主簿公事蹟

歲庚子十月日以陶山重刊事鄉之士會于院有感乎李主簿故事議出財伐石以表其墓又以院壁舊版年久頑缺屬彙寧以新之彙寧謹案舊版記曰

君姓李名芸輩巖先生曾孫也壬辰之難倭寇猝逼近界焚掠之患迫在呼吸君以本院掌務之任不顧家累奉出位版竄匿僻淨處幸至全安自外書冊等物亦賴其管護不至散佚難定後儒林長老會議院中呈于官官亦極加褒賞費辭題牘以爲保護其子孫之地藏在院篋可考而知矣夫以君之所樹立若是其超躋而一紙狀牘之外無他記籍世代寢遠知者亦尠將使臨難取義之人泯沒而無稱焉則豈非士林之欠典乎迺於院中盍簪之日詢謨僉同畧書梗槩揭諸壁上而每年忌日備送若干助祭之物以作院中鎮久不忘之資云云

板下不書年代就考院藏狀牘即公沒後四十年戊午也其時事是見聞所逮故記云只書其槩耶近案廣瀨李公野淳所撰狀公自少卓有氣節及長確有執守陶山勅院後士林推公幹務凡齋宇土田器用多營葺措辦壬辰難取本院書籍鑿地以藏于堂下奉出 位版自山後書堂入清凉山轉至興州之紹修院奉安處日焚香致敬難稍定還安丁酉再難赴郭忘憂陣有火旺守城同苦錄己亥刊陶山文集竭力終始監董不懈壬戌登薦刻官軍資監主簿後 贈軍資監正云 此舊記中所闕略者敢追錄焉板既新士論以舊揭稍奧乃移揭于光明室後壁上云

上之十四年戊申十一月日 眞城李彙寧謹識「事蹟記版 寫」

이주부공사적

경자년(1840) 10월 어느 날 도산서원에서 퇴계선생 문집을 다시 간행하는 일로 지역 선비들의 모임에서 감탄하여 이주부공의 옛 일을 의논하여 재물을 내어 돌을 다듬어 그의 묘에 표시하기로 하고, 또 서원 벽에 걸려있는 판이 해가 오래되어 흐려져서 나에게 새로 지어 걸도록 하였다. 내가 삼가 옛 판의 기록을 살펴보니 ‘군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윤이니 농암선생 증손자이다. 임진난에 왜구가 갑자기 가까운 곳에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도적질 당하는 우환이 급박하게 목전에 있었다. 군은 서원의 일을 맡은 책임자로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위판을 받들고 나와 궁벽하고 조용한 곳으로 달아나 숨어서 다행히 온전히 불안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서책 등 물품도 관리와 보호에 힘입어 흩어지고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왜란이 평정된 후에 유림의 장로들의 회의를 거쳐 서원에서 관에 정문을 올렸다. 관에서도 또한 지극하게 포상을 내렸고 비사費辭와 제독題牘으로써 그 자손들의 처지를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서원에 갈무리된 상자에서 알 수 있다. 무릇 군이 세운 공로가 이와 같이 매우 훌륭하지만 한 장의 문서 외에는 다른 기록과 문헌이 없고, 세대가 점점 멀어져서 이 사적을 아는 사람이 또한 드물어진다면 장차 난리를 당해서 의를 실천한 사람이 사라지고 칭송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찌 사림의 흠결이 아니겠

는가? 이에 서원에서 합잠齎簪하는 날이 되자 의론과 도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략히 대강을 적어서 서원의 벽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기일에는 약간의 제수를 갖추어 보내서 서원에서 오랫동안 잊지 않게 하는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현판 아래에는 연대가 적혀있지 않았지만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를 찾아 살펴보니, 바로 공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무오년(1678)이었다. 그 당시의 일이 미친 바는 보고 들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記에 단지 그 대강만을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 광뢰 이야순 공이 지은 행장을 살펴보니 ‘공은 어려서부터 기질이 탁월하였고 장성해서는 집수執守에 확고하였다. 도산에 서원이 창건된 후 사림에서 공을 추대하여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무릇 재실과 사당, 토지와 기물과 일용 등을 경영하고 보수하며 조치하고 처리한 것이 많았다. 임진년 왜란에 본원의 서적을 챙겨서 땅을 파서 마루 밑에 갈무리하였으며 위패를 받들어 산 뒤의 서당으로부터 청량산으로 들어갔다가 전전하면서 순흥의 소수서원에 이르렀다. 불안한 곳에서는 날마다 분향하고 공경을 다했으며 난이 조금 안정되자 다시 봉안하였다. 정유재란을 당하자 망우당 곽재우 진영으로 달려갔는데 「화왕수성동고록」에 기록이 있다. 기해년(1599) 도산문집 간행에는 심력을 다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감독함에 해이하지 않았다. 임술년(1622) 천거로 관직이 군자감주부에 올랐고, 후에 군자감정으로 증직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옛 기문 가운데 빠뜨리고 생략한 것을 감히 추록하고 현판이 새 모습을 갖추자 사림의 의론에 따라 옛 현판이 조금 구석진 곳에 걸려있어 광명실 뒤 벽면에 옮겨 걸었다.

현종14년 무신년(1848) 11월 일 진성인 이휘령은 삼가 짓다.

‘이주부공사적’을 후세에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걸었다

이주부공이 서원을 위하여 한 일을 후세들에게 알려 오래도록 전해서 서원의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에 대해 귀감龜鑑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서원에서 이주부공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의미로 걸었다. 현판은 퇴계선생의 10대 종손인 고계古溪(李彙寧, 1788~1861)께서 지어 1848년 11월에 걸었다. 글씨는 누가 썼다는 기록은 없으나 퇴계선생의 서풍書風으로 해서체에다 가끔 행서를 썼다. 글의 내용에서 이 현판 이전에 이미 ‘이주부공사적’을 새겨 서원의 어느 벽에 걸었는데 오래되어 흐려져서 빠뜨린 사실을 더 기록하여 새로 건 것을 알 수 있다.

서책書冊과 장부帳簿도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광뢰廣瀨(李野淳, 1755~1831)공께서 지은 행장行狀¹⁾을 보면 이주부공은 본관은 영천이고 휘諱는 운츰이며 자字는 형숙馨叔(初字 汝盛)이고 호號는 지산芝山이다. 1568(선조 1, 무진)년에 태어나 1638년(인조 16, 무인)에 세상을 떠났다. 관직은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조선시대 군사물자 담당부서의 종6품직)를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후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증직贈職 받았다. 가계家系는 농암農巖(李賢輔, 1467~1555,諡 孝節)-다섯째 아들 관암串巖(李季樑, 1508~?)-둘째 아들 경암景巖(李應虎, 1541~1629)-지산芝山(李芸, 1568~1638)으로 이어진다. 농암선생의 증손자로서 도산서원 인근 영지산靈芝山 아래 부내에서 성장하며 농암선생의 가학家學과 퇴계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지산芝山은 25세에 도산서원의 장무掌務(행정업무 담당)의 직책을 맡아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쳐들어오자 서원의 모든 서책과 문서를 마루 밑에 감추고 퇴계선생 위판位版(위패)을 모시고 이곡(현재 의인과 내살미 마을 사이 계곡)으로 피하여 청량산에 들어가서 모시다가 순흥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봉안하여 매일 분향배알焚香拜謁을 하였다. 난亂이 평정된 다음에 도산서원 상덕사에 환안還安(돌아와 편안히 모심)하였고 서책과 장부를 다시 찾게 되니 왜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또 1599년 퇴계선생 문집간행 때에도 임진왜란을 막 겪어서 비용마련이 쉽지 않았으나 그 일을 맡아 주관하면서 문집 편찬을 마치는 데 심력을 다하였다. 또 서원 창설 후 부족한 재실齋室을 완성하고 기물을 갖추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에 1679년 도산서원에서는 이 사실을 예안현에 정문呈文(제출하는 문서)을 올려 경상감영에 보고토록 건의²⁾하고, 그 사적事蹟(사실의 흔적)을 기록하여 서원 벽에 붙여서 공적이 사라지지 않게 하였다.³⁾

제삿날에는 제수祭需를 갖추어 보낸다는 완의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도산서원 완의

농암선생 증손자 주부공께서 임진난을 당하여 본 서원의 위판을 받들어 나와서 전쟁의 화를 피했으니 그 공로를 잊을 수가 없다. 이에 당회의 논의에 따라 매년 3월11일 기일에 서원에서 쌀,

1) 李野淳, 「軍資監主簿永川李公行狀」, 『廣瀨文集卷之十一』.

2) 「陶山書院士林呈本官文」, 『芝山先生實記 卷之下』.

3) 李彙寧, 「墓碣銘, 1846. 4.」, 『芝山先生實記 卷之下』.

생선, 꿩을 갖추어 보내고 이를 영원히 시행토록 할 것.⁴⁾

또 조용한 곳에 사당 한 칸을 세워 봄가을 하정일(下丁日)에 받들어 은공(恩功)에 보답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나라의 금령(禁令)⁵⁾으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이미 조매(桃埋(가묘에 모셨던 신주를 땅에 묻는 행위))를 하여 서원에서 보내오는 제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묘소에 올리는 제사에 보태도록 다시 의논⁶⁾하여 현재까지 지산공 묘사(墓祀)에 제수대祭需代를 매년 보내고 있다.

1811(순조 11)년 서원 상유사 만한재(晩閑齋(李仁行, 1757~1833, 온계선생 후손))가 정알 모임에서 퇴계선생 9대 종손인 성류정(省流亭(李志淳, 1762~1807))의 유지(遺志)에 따라 협의하여 서원의 경비와 약간의 물품을 보태어 비석을 세우도록 부탁하였으나 돌을 다듬지 못하고 비문(碑文)이 완성되지 않아 1846(헌종 12)년에 돌을 다듬어 비문을 새겨서 세웠다.⁷⁾ 묘소는 처음에는 서취병산(현 주차장 西麓) 선친묘소 뒤였으나 1871년에 원편 기슭에 이장했다가 다시 1908년에 운곡리 도곡으로 이장하였다.

2011년 11월에 『지산공 실기(芝山公 實記)』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번역 출간하였는데 퇴계선생 16대 종손인 도산서원 운영위원장(李根必, 1932~)이 말미(末尾)에 붙인 「발문(跋文)」에 “도산서원에 출입하는 유사(有司)와 유생(儒生)들은 실기를 반드시 읽고 선현(先賢)의 정성을 가슴에 새겨 이를 귀감으로 삼아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하였다.

4) 「陶山書院完議」, 『芝山先生實記 卷之下』, “龔巖先生曾孫主簿公當壬辰亂奉出院位版以避兵禍其功勞不可忘茲以堂會齋議每年三月十一日忌日自院中米斗魚尾雉首備送以爲永久遵行之事”

5) 1703년(숙종 29) 서원을 사사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지방의 관리를 벌하고 이를 주도한 유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원금령이 내려졌고, 1713년에는 1714년 이후부터 서원의 설립을 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그후 1741년(영조 17)에 1714년 이후 건립된 서원을 조사하여 훼손하게 했다. 1868(고종 5)년에는 서원에 하사한 토지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이 서원의 장을 맡도록 했으며, 1871년에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손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훼손되었다. 『조선왕조실록 해당기사 요약』.

6) 李家淳, 「陶山齋任」, 『霞溪文集 卷之六 書』, “從前議建一屋於洞之靜?處春秋下丁祝以報之夫誰曰不可而特以 國有禁令鄭重而未敢焉今已?其主院之助需無所於薦所以吾林當日更議送助墓奠.”

7) 李彙寧, 「主簿李公墓碣銘[并序]」, 『古溪文集 卷之六』, “昔我先人知郡公. 因陶山院會. 諡于衆. 曰是墓也. 尙闕顯刻. 吾黨之責也. 其後. 院之士. 以我先公意. 託洞主翊衛李公仁行. 出院財而石之. 屬主簿廣瀨李公野淳. 狀而銘之. 不幸. 二公又歿. 石既具而未及銘. 公之後孫壽享時晦. 要彙寧以續成之. 乃就狀而簪次之. 如左



도·산·서·원·이·야·기

28

박약재

博約齋



53.5×141.5cm



이 현판은 학문을 넓게 공부하고 예禮로써 요약하라는 뜻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문文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예禮로써 요약하면 도道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¹⁾라고 하였고, 안연顔淵(顔回, BC 521~ ?,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현인)이 크게 탄식하여 말하기를부자夫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주셨다²⁾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박博’자와 ‘약約’자를 따서 ‘박약재博約齋’라고 하였다.

중화中和는 유교儒敎의 중심사상이다. 중中은 인간의 본질을 말한다. 화和는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 중화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을 통해 박학다식博學多識해야 한다. 이것이 박학어문博學於文의 의미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기심利己心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禮를 따라야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로써 행동해야만 한다. 이것이 약지이례約之以禮의 의미이다. ‘불반弗畔’이란 중화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박약博約’이란 ‘널리 배워 예로써 살며 중화의 도리를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공자의 제자인 안연顔淵의 공부방식이다.

서원은 인격도야를 하는 곳이니 ‘심心’자를 넣은 ‘박博’자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판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넓을 박’은 ‘博’자인데 여기는 ‘博’자이다. 두 글자의 사전적 의미는 똑 같다. 넓다는 뜻이다. 그러나 ‘博’자는 보통 사전에는 찾기 쉽지 않다. 『서도자전書道字典』에는 두 글자의 서체를 같이 찾을 수 있다. 서예에서 글자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보인다. 글씨는강하면서 아름답고 묵직하다³⁾고 하기도 한다.

변죽(테두리) 문양은 국화와 구름이다. 역시 진도문 현판에 그려진 문양과 같은 의미

1) 『論語』, 「顔淵篇」,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論語』, 傳統文化研究會, 2003, 243쪽.

2) 『論語』, 「子罕篇」, “顔淵喟然嘆曰 夫子循循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成百曉 譯註, 위의 책, 171쪽.

3)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도록, 45쪽.

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화의 꽃잎을 드러낸 문양은 바람개비 같은 역동성이 있으며 자연스럽고 품위가 있어 상품 문양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박약회(社團法人 博約會)가 이곳 박약재에서 발족되었다

1987년 7월 1일 퇴계선생의 학문을 공부하는 후학들의 학계(學契)로 시작되어 선현의 업적과 유학의 본질을 학습하여 도덕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실천적 사회운동단체로 발전하였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24개 시·군과 중국 청도(中國 靑島)에 지회가 결성되어 4,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매년 시군별로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여 학술발표와 선현유적 답사를 하고, 유학진흥과 인성 함양에 관련되는 책자를 출판하며,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함양(人性涵養)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역사문화 탐방사업도 하고 있다.⁴⁾

박약재(博約齋)에는 주로 재유사(齋有司)가 기거(起居)한다

향사 때는 축관(祝官)과 집례(執禮)도 함께 기거한다. 재유사(齋有司)는 서원을 운영하는 직책이다. 과거에는 임기가 2년이었으며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재유사는 요즘 학교로 말하면 교감과 교무 그리고 학생회 간부의 업무까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등 시설의 관리와 보수, 학습조직의 운영, 의례의 준비와 집전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축관과 집례는 향사 등 의례(儀禮)에 결례(缺禮)가 없도록 재유사를 지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집전하여야 한다. 또한 의례가 끝나면 이곳에 모든 집사를 불러 결례유무를 확인하는 제공사(祭公事)를 진행하여 다음에는 결례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서원에는 각재(各齋)의 서열에 의하여 기거와 출입자도 정해져 있다. 즉 한존재(閑存齋)에는 현관, 박약재에는 축관·집례·재유사 및 특별손님, 홍의재에는 일반유생이 기거하고 출입을 한다. 함부로 다른 방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아랫방에서 윗방에 용무가 있거나

4) 사단법인 박약회, 『2015년도 제38차 유교문화학술대회』 자료집, 2015. 4. 25, 계명대학교.

호출이 있으면 가급적 짧은 시간에 용무를 마치고 제자리로 와야 하고, 윗방에서 아랫방에 용무가 있으면 해당자를 불러서 잠깐씩 용무를 보고 돌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기거와 출입의 통제는 계층 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配慮이다.

실내외의 자리도 철저한 서열에 의하여 정해진다. 임사任司는 전임前任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연장자年長者를 우대한다. 각재에서는 아랫목 동쪽이 제일선임第一先任의 자리이고 그 오른편으로 서열에 의하여 앉는다.

또한 박약재에서는 서원창설 이래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 일찍 봉행하는 상덕사 분향알묘焚香謁廟를 위한 재유사들이 재계齋戒를 하고 있다. 재계는 제사 등 조상 또는 선현을 뵈기 위한 준비를 말한다.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오로지 뵈게 될 조상 또는 선현만을 마음에 새기며 경건히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저녁식사 후 2시간 정도 퇴계선생과 도산서원 관련 기록들을 읽는다. 당일 아침에는 의관정제를 하고 1시간정도 선생께서 자주 읽으셨던 경전들을 독송讀誦하고 분향알묘를 봉행하고 있다.



재계강독
(2016.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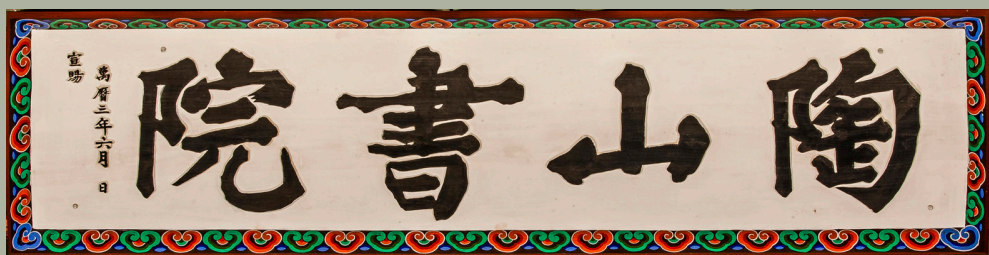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29

도산서원

陶山書院



57.5×206.3cm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제공)

도산서원에는 창설 당시의 기록이 없다

다만 문도들의 문집 등에서 약간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572(선조 5)년 4월에 제자들이 도산서당에서 모임을 갖고 상덕사를 세울 것을 논의하여¹⁾ 1574년에 공사를 시작²⁾ 1575(선조 8)년에 완공하여 여름에 사액³⁾이 내려왔다.

1576(선조 9)년 정월에 여강서원⁴⁾에서 도산과 여강서원의 위패봉안 의절에 대하여 논의하여⁵⁾ 2월 13일(丁丑, 陽 3. 13.)에 양 서원이 같은 날 위패를 봉안하였다.⁶⁾

도산서원陶山書院 현판은 석봉石峯공이 어전御前에서 썼다고 한다

현판 좌측에 작은 글씨로 ‘만력삼년육월 일 선사萬曆三年六月 日 宣賜’라고 써져 있다. 즉 ‘1575(선조 8)년 6월 어느 날 임금이 내리다.’라는 말이다. 가끔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안내자들이 ‘선사宣賜’를 선조宣祖임금이 내렸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원의 사액은 당시 임금 생존시生存時에 현판을 비롯한 서책과 전답 노비 등을 내렸던 것이다. 임금의 묘호廟號(明宗, 宣祖, 肅宗 등)는 사후死後에 정하기 때문에 생존 시에는

- 1) 『艮齋先生年譜』, 『艮齋先生文集年譜』, 隆慶五年辛未. ○四月與同門會陶山議建尙德祠.
『謙菴先生年譜卷之一』, 隆慶六年壬申 四月. 與同門諸友會陶山. 議建尙德祠. 祀退溪先生.
『勿巖先生年譜』, 『勿巖先生文集卷之五』, 隆慶六年壬申 四月. 與同門諸人會陶山議建尙德祠.
『惺齋先生年譜』, 『惺齋先生文集年譜』, 萬曆二年甲戌 與同門諸公. 議建尙德祠于陶山.
『松巖先生年譜』, 『松巖集別集年譜』, 宣祖五年壬申 ○四月往陶山與同門諸賢議建尙德祠祀李先生.
『月川先生年譜』, 隆慶六年壬申 先生四十九歲 ○四月. 會同門. 議建尙德祠于陶山.
- 2) 『梅軒先生文集年譜』, 萬曆二年甲戌. 監董陶山書院. 梅軒(琴輔)年譜 ○ 監董陶山書院.
- 3) 『年譜』, 『鶴峯先生文集附錄卷之一』, 萬曆三年乙亥 七月. 至陶山. 是夏. 陶山書院新成.
吳守盈, 『退溪先生履歷草記』, 『春塘先生文集卷之四』, 甲戌春建書院陶山之南翌年夏. 書院成. 賜額陶山書院.
『年譜』, 『臨淵齋先生文集卷之五』, 萬曆三年乙亥 七月至陶山. 陶山書院新成.
- 4) 廬江書院: 1575년(선조 8) 안동지역 사람들이 안동부 동북쪽 월곡 여산촌(현 예안면 도곡리)에 건립하고, 1576년 退陶李先生的 위패를 봉안하였다. 퇴계선생을 봉향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으며, 서원의 규모도 영남지역에서 가장 큰 서원이었다. 1605년 대홍수로 유실되었고, 1606년 북쪽으로 100보 위치에 중창하였다. 1676(숙종2)년에 사액되면서 虎溪書院으로 개칭되어 안동유림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다. 1869(고종6)년에 훼손되어 강당인 崇教堂만 남아 1973년 안동댐으로 인한 수몰위기가 되어 임하면 임하리에 옮겨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 관리하다가 2020년 도산면 서부리 한국국학진흥원 구역안에 복설하였다.
- 5) 『松巖先生年譜』, 『松巖集別集年譜』, 宣祖九年丙子 正月. ○往廬江書院. 議定陶山廬江立享儀節.
- 6) 『松巖先生年譜』, 『松巖集別集年譜』, 宣祖九年丙子 二月丁丑. 奉安李先生位版於廬江書院行享禮. 是日陶山書院亦奉安位版行享禮.
『謙菴先生年譜卷之一』, 萬曆四年丙子 春. 赴會陶山書院. 奉安退溪先生位版.
『月川先生年譜』, 萬曆四年丙子. ○二月草陶山書院奉安祭文. ○八月. 草陶山書院春秋享祀恒用祝文.
『蒙齋先生年譜』, 萬曆四年丙子. ○二月入參陶山書院奉安釋菜禮.

‘선조宣祖’라는 묘호가 없었다. 따라서 ‘선사宣賜’는 선조임금이 내렸다는 말보다 ‘임금이 베풀어 하사下賜하다’라는 뜻이다. 사액된 서원을 방문하여 보면 현판에 ‘선사宣賜’ 또는 ‘사액賜額’이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다. 그 서원은 나라로부터 사액된 서원임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이라는 현판은 석봉石峯(韓濩, 1543~1605)이 썼다고 하고, 글씨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일간지에 보도되어 소개한다.

1575년 6월 어느 날, 선조는 석봉을 어전에 불러 편액 글씨를 쓸 준비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부르는 대로 쓰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도산서원’ 편액 글씨를 쓰라고 하면, 젊은 석봉(당시 32세)이 퇴계와 도산서원의 명성이나 위세에 놀려 글쓰기를 양보하거나 마음이 흔들려 글씨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글씨 쓰는 순서도 거꾸로 하기로 했다. 선조는 그에게 첫 글자로 집 ‘원院’ 자를 쓰라고 했다. 석봉은 ‘원院’ 자를 썼다. 다음은 글 ‘서書’ 자를 쓰게 하고, 이어서 ‘산山’ 자를 쓰도록 했다. 석봉은 쓰라는 대로 여기까지는 잘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편액 글씨를 쓰는지 몰랐다. 마지막 한 자가 남았다. 바로 질 그릇 ‘도陶’ 자다. 이 자를 말하면 석봉도 도산서원 편액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조는 ‘도陶’ 자를 쓰라고 했고, 석봉은 그때 도산서원 편액 글씨를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도’ 자를 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잘 되지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붓을 떨며 가까스로 ‘도’ 자를 완성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도’ 자가 다른 세 자와 달리 약간 흔들린 흔적과 어색한 점이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봐서는 그 점을 알아채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닐 것이다. 도산서원 사액 글씨를 명필 석봉이 쓴 점을 모티브로 퇴계선생과 도산서원의 위상을 드러내는 설화라 하겠다.⁷⁾

또 월간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여기에 다시 소개한다.

한국 유교의 본고향에 세워진 도산서원陶山書院 현판은 이퇴계를 지극히 공경했던 나머지 선조임금이 특별히 당대의 명필 석봉 韓濩(石峯, 1543~1605) 서자관(書字官)을 어전에 불러 앉혀 쓰게 했다.

그때의 일화가 전설처럼 문중에 전해진다던데, 퇴계의 직계 종손 쪽이던 한문학자 연민 이가원

7) 김봉규, 「이야기가 있는 옛 懸板을 찾아서 11」 안동 '도산서원', 영남일보, 2013.4.3. 기사.

(淵民 李家源, 1917-2000)은 마치 어전에서 직접 목격했듯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문가 출신답게 붓글씨도 아주 선필(善筆)이었다. 소설가 박경리가 원주에 '토지문화관'을 세웠던 1999년에 연민 글씨로 현판을 만들고 싶다 해서 내가 그 심부름을 했을 적에 들었던 일화다.

임금의 스승인 큰 선비를 모시는 서원 이름을 바로 말하면 석봉이 부담을 느낄까 봐 선조는 학교 '원(院)', 글 '서(書)', 뒀 '산(山)'이라며 문구의 글자를 거꾸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어느 서원을 말함인지 석봉은 몰랐다. 유명 서원에는 '옥산(玉山)'도 있고 '도산(道山)'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언덕 '부(?)' 변(邊)이라 하자 질그릇 '도(陶)'임을 직감했다. 이어 임금이 쌀 '포(?)' 글자를 말하는데 석봉은 성인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끓어올라 그만 붓 손이 크게 떨었다는 것. 해서 글이 원만하지 못하다며 집에 가서 제대로 다시 적어 오겠다 했다. 집에서 아무리 써 보아도 처음 것만 못해 원래대로 새겼다. 이 일화를 듣고 나서 현장을 다시 찾아 현판을 다시 내가 면밀히 바라보았다. 거기서 손 떨림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하자, 그건 각수(刻手)가 “알아서 고친 결과”라고 연민은 시침을 뱉다.

그 현판에서 나는 또 다른 배움도 얻었다. 현판 한 구석에 '선사(宣賜)'라 새겨져 있었다. '선(宣)'자로 시작하니 선조 임금이 '내렸다(賜)'는 뜻일까? 나중에야 '선사' 보통명사는 '임금이 내렸다'가 본디 뜻을 알았다. 그렇게 나라의 공적 일의 성과에는 직책만 적었지 임금이나 고관대작의 이름을 내세워 적는 법은 없었다.⁸⁾

서원 창설 당시의 기록이 없어서 위 전설을 입증할 수가 없다. 글씨에 대하여 “‘도陶’자는 질그릇에 무언가 차곡차곡 담은 모양이다. ‘산山’자는 뿔이 내린 영지산과 동취병, 서취병을 그림처럼 형상화했다. ‘서書’자는 획 사이가 고르면서 필획筆劃을 굵고 가늘게 구사해 음양陰陽의 조화를 도모했다. 한마디로 질박質朴하며 건실하다. 역대 서예가를 혹평했던 원교圓嶠(李匡師, 1705~1777)도 한석봉韓石峯을 첫 째 가는 명필로 꼽았으니 이 현판에 무슨 토를 달겠는가. 다만 이 현판은 석봉체石峯體의 특징인 비후肥厚(살이 찌고 두터움)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評⁹⁾을 하기도 하고, 또 방정方正하면서도 근골筋骨이 강하다고 평¹⁰⁾하기도 한다.

테두리 그림은 여의두문如意頭文이라는 문양이다. 이 문양을 닮은 모양으로 감쪽지 또는 소코뚜레 문양이라고도 한다. 여의如意는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이고 형

8) 김형국, 「멸종위기 전통·현판」, 『월간조선 2016. 12월호』.

9) 김남인, 『名筆 역사와 해학의 글씨를 만나다』, 서해문집, 2011. 238쪽.

10) 이동국, 「[서예가 열전](13)조선중기 - 석봉한호 下」, 경향신문, 2006. 10. 20. 기사.

태는 영지靈芝나 서운瑞雲에서 본뜬 것이다. 또한 여의如意的 문양은 평안여의平安如意, 사사여의事事如意, 백사여의百事如意, 만사여의萬事如意, 길상여의吉祥如意 적인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축송하였다.¹¹⁾

도산서원의 강학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원의 주요기능이 존현양사尊賢養士이다. 존현은 상덕사 현판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양사養士에 대한 기록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지 않다. 「월천연보」에 창설 7년만인 1580(선조 13, 庚辰)년 음력 9월에 여러 유생들이 도산에 모여서 강학을 하고 지역의 동지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모여서 알묘를 하고 글을 읽는 등 강학을 하는 원규를 정하여 따르자고 약속했다는 기록¹²⁾이 처음이다. 이후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월천月川(趙穆, 1524~1606)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강학의 명맥은 이어졌을 것이다. 1607(선조 40, 丁未)년 6월 26일에 당시 안동부사安東府使였던 한강寒岡(鄭述, 1543~1620)이 알묘를 하고 『심경心經』을 강독하였고,¹³⁾ 1630(인조 8, 戊午)년 12월 11일에 당시 상유사 금사金沙(金確, 1572~1653)가 『소학小學』을 송독誦讀(소리 내어 읽음)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서 통문을 보내고 정해진 날짜에 서원에 가서 3일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⁴⁾ 당시의 북인들의 득세 등 정치 사회적으로 단체로 모여서 글을 읽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1792(정조 16, 壬子)년 도산별과 시행과 1794(정조 18, 甲寅)년, 1795(정조 19, 乙卯)년에 연이어 나라에서 서책이 하사되어 은혜에 보답하고 서원설립 목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1795년 2월 25~27일 동안 강회를 열어 하사받은 책 『주서백선朱書百選』, 『대학大學』을 운독하였다.¹⁵⁾ 또 1854(철종 5, 甲寅)년 12월 15~17일에 오랜 기간 이어지지 못한 강회를 이어가기 위하여 강회를 열었다.¹⁶⁾ 그리고 1866(고종 3, 丙寅)년 9월 1일에 강회를 위한 분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봐서

11) [네이버 지식백과], 如意頭文(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2) 「月川年譜」, 『月川先生文集 全』, 萬曆八年庚辰 會諸生于陶山講學 與鄉中同志約以朔望相聚謁廟仍講諸生所讀書遂爲院規.

13) 金光繼(申尙穆 譯), 『國譯 梅園日記 1』, 2018, 한국국학진흥원, 233쪽.

14) 金玲(申尙穆, 張在哲 譯), 『國譯 溪巖日錄 4』, 한국국학진흥원, 2013, 513쪽.

15) 「講會錄」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795.

16) 「講會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854.

이때에도 강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⁷⁾

조선후기, 특히 조선조말朝鮮朝末부터 정치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서원에서 강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끊어지지 않았다. 1901년 강학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하려는 강학소講學所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¹⁸⁾, 1909년 보문의숙寶文義塾(도산초등학교 전신)에 재정지원¹⁹⁾, 1926년 남봉南鵬(號 海洲)공의 서원양사기능 복원권유²⁰⁾ 등이 있었다. 1962년 6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지역선비들이 모여 농운정사에서 『퇴계선생문집』을 강독하고 그 소감을 읊기도 하였다.²¹⁾

근래에는 2001년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기념사업 이후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설립에 운영비로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성함양을 주로 하는 선비문화수련을 시작하였고, 거경대학(2003. 3. 개설), 참공부 모임(2015. 11. 결성) 등 학습조직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서원창설이래 끊이지 않았던 향알재계香謁齋戒에서 퇴계선생과 서원관련 기록물들을 읽는 강독을 음력 초하루와 보름 전날 저녁에 2시간 정도 시행하고 있다.

17) 「分定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866.

18) 「陶山書院廟變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901.

19) 皇城新聞, 1909. 12. 7. 자.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향일투쟁, 지식산업사, 재인용.

20) 南鵬, 「淸涼紀行」, 『海洲素言 卷之五』雜著, 1926.

21) 「留隴雲精舍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961.



강학장면
(2020. 8. 3.)



도·산·서·원·이·야·기

30
전교당
典教堂



76.1×208.8cm



전교당 개좌
(2011.3.22. 서헌강 촬영)

서원의 중심 건물인 강당의 현판이다

퇴계선생께서 역동서원의 정당正堂을 전교당典教堂이라 하고, 오전五典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오전五典은 인륜人倫을 밝히는 의리義理라고 하였다.¹⁾ 그러나 역동서원에서는 정당에 명교당明教堂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선생께서 지은 「역동서원기易東書院記」에는 “정당을 명교당明教堂이라고 한다”고 하고 바꾼 이유나 경위는 밝히지 않으셨다.²⁾

전교당典教堂의 ‘전典’은 ‘법’이란 뜻도 있고, ‘책’이라는 뜻도 있다. 합해서 풀이하면 주로 윤리와 도덕적 법法을 기록한 책을 지칭하는 글자이다. 본래는 글씨를 적을 수 있는 나무 조각, 즉 판板에 선례先例나 법을 기록한 책[竹簡 等]이다. ‘당堂’은 한 쪽에 방이 있고 중앙에 마루가 있는 구조로 된 집이다. 전교당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이란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라고 한다. 즉 오전五典이다. ‘전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기본적인 윤리인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말한다. 여기서 파생하여 오상五常과 오륜五倫이 나온다.

오상은 부의父義·모자母慈·형우兄友·제공弟恭·자효子孝이다.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장유유서長幼有序·부부유별夫婦有別·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중국 진ष나라 이후에는 오상五常을 오전五典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기도 했다. 『서경書經』에서 보이는 오전五典을 오상五常의 가르침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불투도不偷盜·불사음不邪淫·불음주不飲酒·불망어不妄語의 오계五戒를 말하고 있는데, 『천태인왕경소상天台仁王經疏上』에서는 “불상생은 인仁이고, 불투도는 지智이며, 불사음은 의義이고, 불음주는 신信이고, 불망어는 예禮이다”고 하여 인·의·예·지·신과 대비시키고 있다.³⁾

1) 李滉, 「易東書院堂齋名號」, 『退溪先生續集卷之八』, “正堂曰典教堂. 五典爲教, 明倫之義”

2) 李滉, 「易東書院記」,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二』, “其祠曰尙賢 正堂曰明教 左右翼室曰精一也 直方也 東西兩齋曰四勿也 三省也 門之大者曰入道 而總之以易東書院之號”

3) [네이버 지식백과],五常(종교학대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현판 글씨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도산서원은 창건당시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재당齋堂의 이름을 누가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전교당典教堂은 퇴계선생께서 역동서원의 당재의 이름을 정하실 때 풀이하신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았고 그 외 현판은 경서經書에서 찾았음을 확인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걸려있는 큰 글씨 현판은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제외하고는 성오省吾(李日三, 1626~1700)라는 분이 썼다는 말만 입으로 전해질 뿐 아직도 이를 증명할 만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성오省吾는 상주尙州사람으로 효종대에 출사하여 현종 숙종대에 능력 있고 청렴한 공직자였고 글씨도 잘 썼다고 한다. 성오省吾라는 분이 썼음이 사실이라면 서원 창설이후 성오省吾가 쓰기 이전에는 현판이 걸려 있지 않았다는 것일까? 1671(현종 12)년 손암損庵(趙根, 1631~1690)이 「심도산서원일기尋陶山書院日記」에 “강당은 ‘전교당’이라 하고 당의 서협西夾은 ‘한존재’라 하며, 동재는 ‘박약’이라 하고, 서재는 ‘홍의’라 한다. 문을 ‘진도문’이라 하고 사당을 ‘상덕사’라 한다. 편액은 모두 ‘심인조沈仁祚(1555~1605)’가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이 있다고 하고, ‘도산서원’ 네 글자는 선조임금이 사액한 것으로 석봉 한호가 임금 앞에서 가르침을 받들어 쓴 것이며 강당의 처마에 걸려 있다.”⁴⁾ 라는 기록이 있다. 손암損庵의 일기와 성오省吾가 썼다는 말을 연결시켜 보면 도산서원 현판은 석봉石峯(韓濩, 1543~1605)이 어전御前에서 썼다는 말은 일치하나 그 외 큰 글자 현판의 작가作家는 다르다. 심인조沈仁祚(1555~1605)는 소년 때부터 명필로 알려져⁵⁾ 있어서 사액 당시에 석봉은 33세이고 심인조沈仁祚는 21세였으니 사액현판賜額懸板은 어전에서 석봉이 썼고, 그 외 현판은 심인조沈仁祚가 썼다는 가설假說이 가능하다. 성오省吾가 언제 썼다는 말은 없으나 심인조沈仁祚 보다 60여년 이후 태어났으니 4,50대에 썼다고 가정하더라도 1670년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사액으로부터 95년 정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액당시에 석봉의 글씨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심인조沈仁祚의 글씨를 걸었으나 현판이 오래되어 변질變質되었거나, 글씨의 성숙미成熟美가 성오省吾의 글씨 보다 못했거나, 현판의 규격이 건물의 규모와 어울리지 아니했거나 하여 바꾸지

4) 趙根, 「尋陶山書院日記」, 『損菴集卷之四 記』, “講堂曰典教堂. 堂之西夾曰閑存齋. 東齋曰博約. 西齋曰弘毅. 門曰進道門. 廟曰尚德祠. 版額皆沈仁祚大字云. 宣賜陶山書院四字. 卽石峯韓濩御前奉教書者也”

5) 「鎭安公 仁祚 行狀記」, 『青松沈氏豐德公派世譜 券上』, 157面, “沈仁祚[1555~1605] 출생후 8~9세부터 名筆이 세상에 알려져 신동이라 했으며, 이로 인하여 國王이 招見하시고 紙筆을 下賜하시니 공이 지필을 받아 한폭의 글씨를 써서 왕에게 올렸다.”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또 전교당은 선생께서 쓰신 역동서원에 있던 현판을 옮겼다고 하고 다른 여러 편액은 선생 조카 기암企庵(李完, 1512~1596)이 썼다는 기록도 있다.⁶⁾

전교당 현판도 진도문 현판과 같이 화려하게 꾸몄다. 테두리를 전부 구름문양으로 조각하고 그림도 구름과 연꽃을 그렸다.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므로 전교당에서 공부하는 모든 선비는 군자君子가 되도록 높은 기상을 키우라는 의미로 그렸을 것이다.

전교당은 서원의 중심 건물이다

전교당은 언제 누구의 설계로 지었는지 기록이 전하지 않고 있다. 서원의 중심 건물이고 이곳에서 모든 의절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덕사와 함께 가장 먼저 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9년 상덕사 수리 때 대들보에서 묵서墨書가 발견된 것을 보면 1574년 4월 9일에 상량上樑하였다.⁷⁾ 전교당도 이 무렵에 상량하여 그 이듬해 봄쯤 준공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1575년 여름에 사액되었을 것이다.⁸⁾

전교당은 다른 서원의 강당보다 사치奢侈하지 않았고, 넓지 않고, 동쪽 협실이 없다. 사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연附椽이 없고 공포와 익공이 없으며 네모기둥에 주춧돌도 다듬지 않았다. 대체로 강당이 5칸 겹집이상인데 전교당은 4칸 겹집으로 방 2칸 마루 6칸이다. 같은 시기에 지은 안동 여강서원廬江書院 숭교당崇教堂은 15칸이었다.⁹⁾ 동쪽 협실이 없는 것은 뒤쪽 상덕사에 모신 퇴계선생이 영원한 정신적 원장이라는 공경심의 발로로 추정한다.¹⁰⁾ 고 하기도 하고, 퇴계선생께서 지은 도산서당이 전혀 사치스러움 없이 동쪽협실이 없는 건축관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¹¹⁾

여기는 가르침도 펴고 유생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향사享祀 등 서원에서 봉행하는 중요 행사의 의례儀禮를 집전執典하는 곳이다.

6) 李恒茂, 『江左行日記』, 『濟菴文集卷之 雜著』, “訖還問主人曰典教堂誰筆也曰先生曾寫三字揭于易東書院矣及此院成移揭于此堂者也其餘諸扁皆先生之姪子完氏書而定規云矣”

7) 陶山書院古文書, 『己亥廟宇重修時日記』, (韓國國學振興院 寄託), “諸員探尋 廟宇上樑文有無. 則樑木有書云. 皇明萬曆二年甲戌四月初九日上樑. 木手金莫同羅億壽劉銀金林千鄭石年金命同.”

8) 柳成龍, 『退溪先生年譜卷之二』, “萬曆三年乙亥. 夏, 書院成. 賜額 ‘陶山書院.’”

9) 權紀, 『永嘉誌』, 木版本, 1608, 書院條.

10) 이종호, 『유네스코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진한엠앤비, 2019, 224쪽.

11) 李相海,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退溪學報』, 통권110호, 퇴계학연구원. 2001.10. 509-565쪽.

이곳에는 사액현판賜額懸板을 처마 끝에 게시하였고 벽과 천정에는 공부하는 유생이 명심銘心하여야 할 잠명箴銘과 서원운영의 헌법이라고 할 원규院規와 향사 등 존현의식에 필요한 헌관집사분정판獻官執事分定版과 기일忌日 및 선생께서 향촌사회 계도啓導를 위하여 지으신 향립약조鄉立約條 그리고 왕명인 전교傳敎와 치제문致祭文 등을 게시하여 유생들의 공부와 의례봉행 등 서원운영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전교당에서는 언행을 조심하여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한다. 의식의 집전과 회의를 하는 장소이고 강당이며 강의실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거나 뛰거나 떠들거나 드러눕거나 벽에 기대어 앉아서도 안 된다.

서원에서 앉는 자리는 나이순으로 정해진다

서원에서 나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퇴계선생의 가르침¹²⁾이기도 하고, 나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므로 사물의 올바른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老長幼 天分秩序 不可悖理 而傷道也]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전교당에서는 동쪽에서 서향으로 좌측이 제일 윗자리가 되고, 방에서는 남쪽에서 북향(아랫목)으로 우측이 제일 윗자리가 된다. 향사 때 분정 등 개좌開座를 예례로 든다면 동쪽의 제일 남쪽에서부터 초初·아亞·종終·분헌관分獻官 순順이고, 북쪽에서 남향으로 제일좌측이 축관·집례로 하며 그 다음부터는 나이순으로 마주보면서 빙 둘러서 초헌관 앞에는 가장 젊은이의 자리가 되나 그 곳은 재유사齎有司들의 자리가 된다. 재유사는 향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끝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재유사는 스스로 재말齎末 또는 말석末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치제致祭 등의 임금 사신使臣이나 대통령은 북쪽 중앙에서 남향하여 자리를 정하고 그 외에는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남북으로 마주 보고 앉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인 듯하다. 궁궐에서 임금의 자리가 남향이기도 하고,¹³⁾ 상덕사에 주향인 퇴계선생의 위패를 남향으로 모셨으니 아무나 북벽에서 남향으로 앉는 것은 결례로 여겼기 때문이다. 서원에 전해지는 「치제의절致祭儀節」에 사신使臣은 사당에 분향을 할 때도 꿇어앉지 아니하

12) 金誠一, 「退溪先生言行錄」, 『鶴峯先生文集續集卷之五』, “鄉人志學者. 或恥隨品官之列. 先生曰. 鄉黨. 父兄宗族之所在. 以隨行爲恥何意. 或曰. 門地卑微者居右. 實有牛後之恥. 先生曰. 鄉之所貴者齒也. 雖居下. 於禮於義. 有何不可.”

13) 김기현, 『선비』, 민음사, 2012, 120쪽.

며 분향을 하고는 남향으로 돌아서서 묘정에 있는 유생들로부터 사배四拜를 받는다.¹⁴⁾ 또 1969년 10월 14일에 박정희대통령이 서원에 방문하였을 때 북벽에서 남향으로 앉았음을 필자가 목격하였다. 조선시대 임금의 사신이 사당에서 남향으로 서서 절을 받고, 전교당에서도 북벽에서 남향으로 앉았다.

어느 선비의 일기에 관련기사가 있다. 1637(인조15)년 2월 25일에당시 예안현감¹⁵⁾이 도산과 역동 두 서원 사당에 참배하고 친척과 아들 조카 5~6명을 거느리고 서원 안에서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마시며 종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다 저녁 무렵에 돌아갔었다. 그런데 예안현감이 밤을 틔타 사람을 보내어 원장의 장노壯奴와 집사 유생의 종을 잡아들였는데 그 자형姊兄의 말에 따라 중지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두 서원의 장무掌務를 잡아들였다. 대개 서원에서 주벽主壁(北壁)에 자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원설립 이후 어찌 감사와 수령 중에 북벽에 앉은 사람이 있었던가.라고 하였다.¹⁶⁾ 전교당 북벽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을 대신하는 사신이나 그와 버금가는 지위에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사대부 집이나 공청公廳(관아, 향교, 서원, 루정 등) 마루에는 걸터앉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손님이든 지인이든 용무가 있으면 마루에 올라 인사를 나누고 용무를 보는 것이 전통사회의 풍습이었다. 다만 하인배가 상전에게 불러오거나 용무가 있어서 오면 감히 마루에 오를 수 없어 축대에서 또는 마루 끝에서 용무를 아뢰었던 것이다. 요즘은 의자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꿇어앉거나 책상다리로 앉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서원에 오면 마루에 걸터앉기를 쉽게 하고 있다. 1999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방문하여 유림들과 걸터앉은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여 의자가 없으면 앉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근래에 유명인사가 서원을 방문하여 전교당 마루 끝에 걸터앉아 동행한 분들과 대화를 하니 서원 관리인이 ‘걸터앉지 말고 마루에 올라앉아 이야기 하시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도산서원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였다.

14) 『笏記帖』, 陶山書院, 博約齋 所藏.

15) 金慶厚(1636. 12. 21. ~1637. 6. 在職), 사람됨이 庸劣하고 政事를 下吏에 맡겼다는 狀啓로 파직됨. 『禮安鄕校誌』, 2002년 刊, 335쪽.

16) 金鈴(申尙穆, 張在哲 外 譯), 『국역 계암일록 6』, 한국국학진흥원, 2013, 35쪽.



전교당
(1920년대)



도·산·서·원·이·야·기

31

한존재

閑存齋



57.1×147.1cm



한존재 헌관 입재
(2011.3.22. 서헌강 촬영)

한존재閑存齋는 상유사上有司의 집무실이자 거처하는 곳이다

“한존재閑存齋를 글자 그대로 풀면 ‘한가한 존재의 방’이라는 뜻도 된다.”고 풀이하고는 “한존재를 풀이한 안내 글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기록한 답사기도 있다.¹⁾ 어이없는 풀이와 변명이다.

퇴계선생께서 “1570년에 창건된 역동서원易東書院²⁾강당인 명교당明教堂의 동쪽 방을 한존재閑存齋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시기도 하셨다.³⁾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덕은 바르고 가운데 함이니, 평상시 말을 미덥게 하며, 행실을 삼가, 간사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하며, 세상을 착하게 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덕을 넓게 펼쳐 교화시키니, 하늘의 능력이 마음속에 있어 위대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이롭다는 말은 군자가 실천해야 할 덕을 말하는 것이다.”⁴⁾라고 하셨다.

한존재閑存齋는 앞의 ‘간사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라는 말씀에서 따왔다. 수신修身하는 덕목德目을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중정中正의 덕으로 마음을 닦아 가면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심인 성실誠實함이 자연히 보존되고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邪’란 쓸데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된 생각을 말한다. 수신修身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에는 잡된 생각을 없애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한사閑邪’의 의미이다. 중도中道의 올바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자연히 인간의 본심이 드러난다. 인간의 본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존기성存其誠’의 의미이다. 도덕적인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신이 으뜸이기에 서원의 중심이 되는 곳에 붙인 것이다. ‘재齋’는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간사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유학의 가르침에서 표방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표준이다.

1) 장영훈, 『우리 문화재 풍수답사기③ 조선시대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도서출판 담디, 2005, 114쪽.

2) 역동서원(易東書院): 고려말 성리학자인 역동 우탁(易東 禹倬, 1262-1342)선생을 향사(享祀)한 안동지방의 최초 서원이다. 역동선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퇴계선생께서 발의로 지역의 사족과 수령들이 협력하여 1570(선조 3)년 예안 오담(현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에 낙성하여 위패를 모셨다. 1684(숙종 10)년에 사액되었다가, 1868(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철되었다. 1969년 11월에 현 위치(안동시 송천동) 복설하고 창건지에는 유허비를 세웠다. 이때 도산서원에 보관하던 현판 11점을 회수하여 게판하였다. 1991년 국립안동대학교 교지로 편입되면서 안동대학교에 기부되어 안동대학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향사 등 존현의례는 유림들이 봉행하고 있다. 2003년 9월 22일 경북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3) 李滉, 「退溪先生續集卷之八/雜著」, “作閑存齋亦何如. 乾卦閑邪存其誠. 雖言聖人之學. 程子用此語於聽箴. 則學者可通用也”

4) 『周易』, 「乾卦」,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 君德也”

전교당 동편 벽에 걸린 「사물잡四勿箴⁵⁾」의 ‘청잠聽箴’에도 ‘사특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해서 예禮가 아니면 듣지 말라[閑邪存誠 非禮勿聽]’고 하였다.

한존재는 서원 상유사가 기거하며 원무院務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이다. 상유사는 서원을 경영하는 자리이다. 상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소한 말을 물리쳐야 하고, 정성스런 말을 받아들여 바른 판단으로 서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현판 테두리에 연꽃문양이 그려져 있다. 역시 군자를 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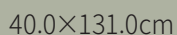
한존재는 서원에서 가장 윗 어른이 계시는 방으로아무나 함부로 드나들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의관을 갖추어야 하고, 전교당 마루를 거쳐서 출입하여야 하며, 벽에 기대거나, 잠잘 때가 아니면 누워서도 안 되고, 건전하지 못한 수작酬酢을 하여서도 안 되며, 앉는 자리도 남쪽에서 북향으로 가장 윗 어른이 우측에서부터 차례로 앉는다. 쓸데없이 아랫사람을 부르거나 아랫사람의 방에 드나드는 것도 지양止揚하고, 아랫사람 역시 쓸데없이 드나들지 말아야 하며, 용무가 있거나 부름을 받으면 의관을 갖추는 물론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용무를 끝내고 나와야 한다.

한존재는 정당동두正堂東頭의 서각書閣인 광명실을 마련하기까지 200년간 서원의 서고書庫 역할을 하였고, 상덕사를 수리할 때에는 위패를 이곳에 모시고 매일 아침 봉심奉審하며 받들던 곳이기도 하다.

5) 四勿箴: 顏淵이 孔子에게 ‘克己復禮’條目を 청함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는 네 가지의 조목을 제시하였다. 송나라 때에 程頤는 이를 “후세에 성인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을 가슴 속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고 4가지 조목에 註釋을 하였으며, 주자 역시 정이의 해석이 탁월하므로 더욱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春秋享祀時 分定版





향사 헌관집사 분정장면
(2011.3.22. 서헌강 촬영)

향사 때 헌관과 집사 임무를 수행한 명단이다

향사 헌관과 집사에게는 향사享祀를 봉행해야 할 날이 속한 달의 초하룻날 대상자를 결정하여 망기望記(임무를 맡아달라고 하는 통지서) 또는 회문回文(돌려보는 문서)을 보낸다. 봄과 가을 가운데 달 간지干支가 두 번째 ‘정丁’자가 있는 날이 향사를 봉행하는 날이다. 즉 음력으로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이다. 따라서 2월과 8월 초하룻날 망기 또는 회문을 보낸다.

서원의 인사任司를 정하는 절차는 옛날에는 3년마다 각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자격을 심사하여 정알正調 또는 별도의 정한 날 당회堂會에서 확정하였다. 이 후보자 가운데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를 골라서 망기望記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다. 지금은 도산급문陶山及門 또는 사숙私淑한 제자의 주손 또는 주손을 버금하는 후손과 안동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와 한국국학진흥원, 선비문화수련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서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¹⁾

이렇게 결정된 후보자 가운데 향사봉행 때 참례할 헌관, 축관, 집례와 집사를 수행할 유생儒生을 선발하여 망기 또는 회문을 작성하여 보낸다. 이 행사를 도산서원은 차제差祭, 경주 옥산서원은 초집抄執, 영천 임고서원은 초선抄選 등 서원마다 용어는 다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우편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서원 도사령都司令(심부름 하는 사람)이 망기를 받들고 해당자 집에 찾아가서 대문 앞에서 ‘도산서원 망기 아뢰오.’라고 아뢰면 당사자가 의관정제하여 대청에 서원을 향하여 초석草席을 펴고 소반이나 안상案床을 놓으면 도사령은 망기를 올리고 옆으로 비켜서면, 망기를 받는 자는 재배再拜하고 꿇어앉아 망기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도사령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약간의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여 보낸다. 회문은 역시 도사령이 각자의 집에 찾아가서 보이고 서명을 받아서 오게 된다. 요즘은 망기와 회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망기를 받는 의례를 수행遂行하는지 알 수 없다. 망기를 받거나 회문을 확인한 당사자들은 그 날부터 재계齋戒를 시작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하며 서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서원에서는 제주祭酒를 담고, 제수祭需를 준비하며 향사봉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대비하게 된다.

1) 도산서원 원무처리 규정 제8조.

향사봉행 전일에 정한 개인별로 수행할 업무를 분정판에 기록한다

초헌관初獻官은 첫 번째 술잔을, 아헌관亞獻官은 두 번째 술잔을, 종헌관終獻官은 마지막 술잔을 주향위主享位에 드리고, 분헌관分獻官은 종향위從享位에 술잔을 드린다. 축祝은 초헌관이 술잔을 드릴 때 축문祝文을 읽고 음복수조飲福受胙를 할 때 초헌관에게 음복을 드리며, 찬자贊者(執禮)는 향사봉행 순서를 읽고, 알자調者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은 아헌관과 종헌관 및 분헌관을 인도하고, 사준司鑪은 제주祭酒 향아리를 맡아 헌작 때 잔에 술을 따르고, 봉향奉香은 향합을, 봉로奉爐는 향로를 맡아서 초헌관의 분향을 도운다. 봉작奉爵은 사준으로부터 제주 작爵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고, 전작奠爵은 헌관에게 받은 작을 제상祭床에 올린다.

도산서원 헌관집사 분정은 다른 서원에 비하면 많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퇴계선생의 근검절약 정신과 의례는 복잡하고 번거로움보다 간소화로 정성精誠스러움을 강조하신 가르침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다른 서원에는 담당할 업무를 더 나누어 진설陳設 장찬掌饌 사축司燭 등이 더 보태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업무와 담당자의 기록을 헌관집사록獻官執事錄이라고 한다. 헌관집사록은 분정판에 기록도 하지만 따로 문서로 작성되어 서원에 영원히 보존된다. 도산서원에는 창설 이래 74년간 기록이 분실²⁾되었으나 그 이후의 헌관집사록獻官執事錄은 최근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寄託되어 보관되고 있다. 분정에 기록되는 헌관 및 집사는 향사봉행 달의 초하룻날 차제시差祭時에 망기望記와 회문回文을 받고 향사전일에 서원에 들어온 헌관 및 유생들이다.

정재일알묘整齋日謁廟 후 제일 먼저 분정례부터 봉행奉行한다

차제差祭날 통보된 망기를 받은 헌관·축관·집례와 회문으로 향사에 참례하라고 한 유생이 향사 이틀 전 일몰日沒 때까지 입재入齋하여, 한존재 및 동·서재에서 재계한다.

2) 우인수, 「도산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277쪽.

陶山書院古文書, 『前任案』, 韓國國學振興院 寄託.

향사 하루 앞 일출 전에 정재일알묘整齋日謁廟를 하고 아침 식사 후 전교당에 모여 향사 때 맡아서 수행할 직무職務를 개인별로 나누어 정하고 그 내용을 분정판分定版에 붙여서 게시揭示하였으나 2009년 춘계향사부터 향사 하루 전 10시까지 입재하여 11시에 정재일알묘를 봉행하고 분정례를 시행하고 있다. 분정판은 다음 향사 때까지 게시되어 있게 된다.



향사 독축
(2011. 3.23.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도·산·서·원·이·야·기

33

기일판

忌日版



63.0×35.0cm



2017.1.5. 퇴계선생 기제사 봉행
(안동콘텐츠박물관 제공)

분정판 옆에 세로로 만들어 건 작은 현판이 있다

여기에는 상덕사에 모신 퇴계선생과 월천조공^{月川趙公}의 기일^{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 십이월초팔일^{先生 十二月初八日}' 좌측에 낮추어 '종향위 십월이십구일^{從享位 十月二十九日}'이라고 써져 있다. 즉 '퇴계선생의 제삿날은 12월 8일이고, 월천공의 제삿날은 10월 29일이다'라는 것이다. 음력으로 돌아가신 날이다. 서원에서 직접 기제사^{忌祭祀}를 봉행하지는 않지만 서원의 행사는 모신 선현의 기일을 피해야 하기도 하고, 기일에 제수^{祭需}를 서원에서 준비하여 종택에 봉상^{捧上}해야 하기 때문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제사는 종택^{宗宅} 가묘^{家廟}에서 불천위^{不遷位}¹⁾로 모시고 있다. 퇴계선생 종택은 서원에서 멀지 않은 상계^{上溪}에 위치하고, 월천 종택은 종손의 직장을 따라 부산에 있다가 최근에는 경기도 분당으로 옮겼으나 고향^{故鄉}인 도산면 동부리(다래마을)에 종택을 복원하여 돌아 올 계획이라고 한다.

서원에서 기제사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종택에 봉상^{捧上}한다

퇴계선생 기일에는 서원의 재유사와 별유사가 전일^{前日} 아침 일찍 시장^{市場}에서 제수^{祭需}를 구입한다. 제수를 아침 일찍 구입하는 이유는 그 날 시장에 나온 물품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함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이 나쁜 감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값도 흥정하지 않는다. 흥정을 하다보면 시비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입한 제수는 서원으로 운반하여 각 품목마다 근봉^{謹封}을 하고 물목단자^{物目單子}를 작성하여 종택 사랑마루에 진열한다. 종손이 제수의 품목과 수량과 품질까지 점고^{點考}한 다음 제수청^{祭需廳}에 인계한다.

재유사는 종손이 계시는 사랑방에서 참례하는 제관^{祭官}을 접빈하며 종손을 보좌하다가 제사봉행 때 봉향^{奉香}과 봉로^{奉爐}를 수행한다.

1) 不遷位: 조선시대에 조상의 제사를 4대를 모시고 5대 이상 조상은 4대째 되는 다른 자손이 받들게 되는데 이를 遷遷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조상은 나라 또는 지역유림에서 체천하지 않고 영원히 주손이 받들도록 한 조상.

월천공 기일에는 건어乾魚 1마리를 보냈으나 현재는 건어 값을 제삿날 전에 보내고 있다.

기제사 절차는 차이가 없으나 상차림에는 차이가 있다

퇴계선생 기제사는 축시丑時(새벽 1시 경)에 단설單設로 모셨으나, 시속時俗에 따라 갑오甲午(2014)년부터 초저녁(6~7시)에, 기해己亥(2019)년부터 합사合祀(부인 제사도 함께 봉행)로 받든다. 진설은 맨 앞에 6가지 과일과 가운데 건어(魚鱸), 다음 줄에 3색 나물, 자반, 찜, 간장, 김치, 다음 줄에 도적都積(가오리, 고등어, 상어, 방어, 문어, 소고기, 닭을 익히지 않고 찜음), 다음 줄에 면麵, 5탕(羽·毛·鱗·蔬·貝), 맨 뒷줄에 시저匙箸, 반飯(밥), 술잔, 갹羹(국), 편飴(떡)으로 차린다.

퇴계종택에는 제사상에 유밀과油密果는 올리지 않는다. 즉 기름에 지지거나 꿀을 발라 만든 과자류는 제물祭物로 쓰지 않는다. 이는 퇴계선생께서 소수서원 향례의절을 개정하면서 설미褻味라고 지적²⁾하였고, 돌아가시기 전 유계遺戒(조심하고 삼가하라는 가르침)에 서도 쓰지 말라³⁾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올리는 것은 무방하다⁴⁾고 하셨다.

월천공 기제사는 합설合設(부인과 함께 차림)이며 맨 앞줄에 7가지 과일과 좌측에 포, 다음 줄에 3색 나물과 5탕, 다음 줄에 고기전과 도적과 자반, 다음 줄에 간장과 술잔과 시저를 위수별位數別로, 맨 뒷줄에 면, 반, 갹은 위수별位數別 각 1그릇씩 차린다.

퇴계종택의 기제사를 단설單設로 모셨던 것은 선생의 가르침⁵⁾에 따랐던 것이나 시대의 변천과 사정에 따라 합사合祀로 모시기로 자손들의 문회門會에서 결정하였다. 월천공 종택은 종손의 말에 의하면 월천공 이전부터 처향妻鄉(權氏)의 영향을 받아 합설合設로 모시는 것 같다고 하였다.

2) 李滉, 「安文成公春秋享圖 改正文」, 『退溪先生親筆笏記』, 昭修博物館 所藏 “豈可以蜜果褻味用之於學中乎”

3) 「考終記」, 『退溪先生 言行錄 卷五』, “四日 命兄子寓 書遺戒 一 毋用禮葬 該曹循例請用 必稱遺令 陳疏固辭 一 勿用油蜜果” 이하 생략.

4) 「考終記」, 『退溪先生 言行錄 卷五』, 鄭子中 曾以是意 稟於先生 故 只於家中不用 來奠者皆受之.

5) 「禮論」, 『退溪先生 言行錄 卷四』, “先生曰. 人於忌祭時. 常並祭考妣. 甚非禮也. 考祭祭妣. 猶之可也. 妣祭祭考. 豈有敢援尊之義乎. 吾門亦嘗如此. 而非宗子. 故不敢擅改. 只令吾身後. 勿用俗耳”



도·산·서·원·이·야·기

34

숙종대왕 전교

肅宗大王 傳敎



34.5×75.0cm

肅廟丙辰十月初十日夜對時同副承旨權 所啓臣奉 命嶺南回還之時過禮安陶山書院卽先正臣李滉藏修之所也 宣廟朝旣給奴婢又給一店以爲永久守護之地而一道多士之所聚會猶不足以支給又募民人得以給使用而供多士矣頃以重臣建白諸書院募入者搜出以充閹伍之故募入人等皆懷渙散之計將無以守護云書院募入誠不無其弊搜出之舉出於不得已而至若 文廟從祀諸賢 則有功百世建立書院實出於右文興道之意設有些少弊端有不足爲念者且禮安有高麗祭酒禹倬書院而此乃先正臣李滉所創建者也如此書院則事當勿合搜出其募入人民俾無渙散之弊以爲士子聚會講習之所實合於 聖廟儒化之道以足爲聳動士林之一助矣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皆立書院雖不可一一皆用 特典而至若禮安之陶山書院慶州之玉山書院玄風之道東書院安陰之龍門書院楊州之道峯書院延日之烏川書院則曾所募入者仍存勿侵似當矣

上曰令該曹稟處

庚午七月初三日大臣引見入侍時右贊成沈 回啓內

上曰書院所屬還爲出給事曾已 傳教而尙不出給事甚無據卽爲出給可也

숙종 병진(1676, 숙종 2) 10월 10일, 야대夜對할 때 동부승지 권모¹⁾가 아뢰기를,²⁾ “신이 영남에 명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의 도산서원을 들렀는데 바로 선정신 이황先正臣 李滉이 물러나 학문하던 곳입니다. 선조대왕 때 이미 노비를 주고, 또한 일점一店을 주어 영구히 수호하는 처지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선비가 모이는 데도 오히려 지탱하기에 부족하여 또한 백성을 모아 부리게 해서 선비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중신重臣이 ‘여러 서원에서 모집해서 부리는 사람을 색출해서 부족한 군역에 충당해야한다.’는 건의를 한 때문에, 서

1) 권愈(1633~1704): 조선 중기 숙종 때의 문신, 본관 안동, 자 退甫, 호 霞溪.

2)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1월 13일 기사, “又以兵曹言啓曰, 今月初十日夜對時, 參贊官權愈所啓. 頃者臣, 奉命嶺南回還之時, 過禮安陶山書院, 卽先正臣純公李滉藏修之所也. 宣廟朝, 旣給奴婢, 又給一店, 以爲永久守護之地, 一道多士之所聚會, 猶不足以支給, 又募若干民人, 得以給使用而供多士. 頃以重臣建白, 諸書院募入人等, 皆懷渙散之計, 將無以守護云, 書院募入, 誠不無其弊, 搜出之舉, 出於不得已, 而至若文廟從祀諸賢, 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不可不厚爲之地, 設有些少弊端, 有不足爲念者. 且禮安, 有高麗祭酒禹倬書院, 而此乃先正臣李滉所創建者也. 似此書院, 則似當勿令搜出其募入民人, 俾無渙散之弊, 以爲士子聚會講習之所, 實合於敦儒化之道, 而足爲聳動士林之一助矣.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峯書院, 延日之烏川書院, 則曾所募入者, 仍存勿侵, 但勿令一向缺募似當矣”

원에 모입募入한 자들이 모두 흩어져 돌아갈 처지이므로 앞으로 서원을 수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모집한 것은 진실로 그 폐단이 없지 않으나 색출하는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문묘文廟에 모신 제현의 경우에 백세토록 功을 전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은 실로 학문을 숭상하고 도道를 흥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령 사소한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예안에는 고려 채주 우탁³⁾의 서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신 이황이 창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원은 마땅히 그 모입한 사람을 색출하지 말게 하여, 흩어져 돌아가는 폐단이 없도록 해서 선비들이 모여 강습하는 장소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성스런 조정에서 유학으로써 감화하는 길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묘에 모신 여러 선현들이 평생에 경과하던 곳에는 모두 서원이 있습니다. 비록 일일이 특전을 주는 것은 불가하기는 하나,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⁴⁾ 현풍의 도동서원,⁵⁾ 안음의 용문서원,⁶⁾ 양주의 도봉서원,⁷⁾ 영일의 오천서원⁸⁾ 같은 데는 전에 모입한 자들을 그대로 두어 침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왕이 이르기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품신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경오(1690, 숙종 16) 7월 3일 대신이 인견하고 입시할 때 우찬성 심모가 심의하여 상주한 글에 “상이 이르기를 ‘서원에 속한 것을 도로 내어 주도록 한 것은 전에 이미 전교를 내렸는데 아직도 내어 주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근거가 없다. 즉시 내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 3) 禹倬(1263~1342): 고려 후기의 유학자, 본관 丹陽. 자 天章 卓甫. 호 白雲 丹巖. 시호 文僖. ‘易東先生’이라 불렸다. 成均祭酒를 지내다가 致仕하였다. 經史와 易學에도 통달하였다. 역동서원은 1570년(선조 3) 퇴계선생 발의로 예안유림의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 1683년(숙종 9) ‘역동’으로 사액이 내렸으나, 1871년(고종 8)에 훼손되었다가 1969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복원하였고 1992년부터 안동대학교가 위임관리하고 있다.
- 4) 玉山書院: 경북 경주 안강에 1573년(선조 6) 창건하여 유학자 晦齋 李彦迪을 제향한다. 1574년에 ‘옥산’이라는 편액과 서책을 하사받았다. 일제 말기에 화재로 옛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곧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포함되어 등재되었다.
- 5) 道東書院: 대구 달성 求智面 道東洞에 있는 조선 초기의 名儒 寒暄堂 金宏弼와 조선중기 문신 寒岡 鄭逋를 배향한 서원이다. 1604년(선조 37)에 건립되었고, 講堂과 祠堂과 담장이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2019년 유네스코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포함되어 등재되었다.
- 6) 龍門書院: 경남 함양 안의에 1583년 一菴 鄭汝昌을 기리기 위해 창설하였고 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당은 훼손되고 뒷산 언덕에 遺墟碑만 남아 보존되어 경남문화재자료 제239호로 지정되었다. 葛川 임훈이 글을 짓고, 篆字는 柳世漢, 碑文은 石谷 成彭年이 썼다.
- 7) 道峯書院: 서울 도봉구에 1573년 趙光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창건 때 賜額을 받았고, 1696년에는 宋時烈을 배향하였다.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으로 헐리게 되었고, 1903년에 단이 설치되어 향사를 봉행해 오다가 1972년 복원되었다.
- 8) 烏川書院: 경북 포항 오천에 1588년(선조 21) 고려시대의 문신 鄭襲明(?~1151)과 鄭夢周(1337~139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1613년(광해군 5)에 賜額을 받았으며, 1740년(영조 16)에는 고려 말의 문신 鄭思道(1318 -1379)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 鄭澈(1536~1593)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고, 고종 말엽에 복원하였으며 1975년에 재건하였다.

조선중기부터 사액서원에 소속된 노비는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의 양민이 서원의 노비로 신분을 위장하여 면제받으려고 하는 폐단이 만연하였다. 따라서 군정軍政이 문란해지고 병역충당이 어려워 1635(인조 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서원 노비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를 철폐하게 되었으나, 1676(숙종 2)년 권유權愈(1633~1704, 號 震溪)가 영남지방을 돌아보고 문묘文廟⁹⁾에 모신 선현을 향사하는 서원의 노비는 병역면제 제도를 부활하자고 건의하여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에는 차질이 있어 1690(숙종 16)년께 건의하여 시행을 촉구하는 전교傳敎를 판에 새겨서 걸었다.

이것은 병역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서원임을 후세에 알려 서원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9) 文廟: 유교의 聖人인 孔子를 모시는 祠堂. 중국 唐나라 때 공자가 文宣王으로 追封됨에 따라 문선왕묘라고 부르다 元代 이후로 문묘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漢나라에서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공자에 대한 국가적 규모의 제사를 행하였다. 처음에는 그 출생지인 闕里에 한정되었으며, 隋나라 때까지는 周代의 문물제도를 정비했다고 하는 周公이 國學의 사당에서 先聖의 자리를 차지하고 공자는 先師로서 配享되었을 뿐이다. 그 후 당의 태종이 유교정치를 표방하면서 공자가 先聖의 자리에 모셔지고 顏回가 先師로 배향되었으며, 송대에 朱熹가 의리와 명분에 입각한 正統의 확립을 강조함에 따라 문묘의 향사제도가 정비되었다. 한국에서 공자 사당의 유래는 통일신라 때인 714년(성덕왕 13) 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그 제자인 10哲, 72弟子의 畫像을 가지고 돌아와 왕명에 의해 國學에 모시게 되었다. 고려 시대에도 중국의 享祀제도를 따라 운영되었으며 주자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大成殿 건립이나 배향자 정비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군현의 향교에 세워졌다. 태종대에 공자에 대해 顏子 曾子 子思 孟子 등 四聖과 그 밑의 十哲을 배향함으로써 유학의 큰 道通은 정리가 되었으나, 士林派의 이념적 정치적 완결된 시점을 광해군대에 이른바 五賢이 문묘에 從祀된 때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최종적으로 공자를 正位에 모시고, 좌우에 4성 10철 및 중국 송대의 六賢을 배향하고 東廡와 서무에 각각 중국의 명현 47위와 한국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광복 후에는 동무와 서무의 중국인의 위판을 땅에 묻고 한국의 명현은 대성전에 올려 모셨다. 현재 성균관에 전해오는 문묘는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01년(선조 34)에 중건하고 중수를 거듭한 것이다.



도·산·서·원·이·야·기

35 원규 院規



55.5×145.0cm



상읍례 장면
(2011.2.7. 서헌강 촬영)

院規

-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 一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 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 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經叛道 醜言辱親 敗群不率者 院中共議擯之
- 一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 一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偲 相觀而善
- 一 泮宮明倫堂 書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 一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刑謂諸生或有司 以私怒捶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 則不可全赦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 同議論罰
- 一 院有司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 一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 一 院屬人完恤有司與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不幸甚
- 一 童蒙 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入德門內
- 一 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 乃升院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一 雜著>

- 一 선비들이 독서하는 데는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아서 국가의 양성하는 방법을 좇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만萬가지 착한 것이 본래 내게 갖춘 것을 알고 옛 도리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힘써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바탕[體]을 깨끗하게[明] 하고 쓰임[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을 할 것이며 제사자집¹⁾ 문장의 과거공부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널리 통하도록 힘쓸 것이나 마땅히 내외내

1) 『諸史子集』: 여러 歷史冊(史記와 漢書 등)과 子類(老子, 莊子, 荀子 등)의 冊모음.

外 본말本末 경중輕重 완급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원내院內에 들어 눈 가까이 하여 도道を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유생들은 뜻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길을 정직하게 하여 학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는 좋은 학문이 되는 것이며, 그 마음가짐이 비천하며 얻고 버리는 것이 현혹하며 지식은 저속하고 속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의지와 소망이 오로지 탐욕에만 있는 자는 나쁜 학문이 되는 것이다. 만일 행실이 괴이하여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경서를 어지럽히고 도리를 거슬러서 추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어 예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서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물리칠 것이다.
- 유생들은 항상 각방에 조용히 있으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진하여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강론하는 일이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방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로 날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여 공부를 폐해서는 아니 된다.
-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무릇 의관과 행동거지와 언행에 각기 착실하게 살피고 힘쓰며 서로 살피주어 착해져야 한다.
- 성균관의 명륜당²⁾에 이천선생의 사물잡과 회암선생의 백록동규 열 가지 가르침과 진무경의 속흥야매잠을 써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서원에도 또한 이것을 벽에 써서 걸어 서로 타 이르고 일깨운다.
- 책은 문밖에 나갈 수 없고,³⁾ 여자는 문에 들어올 수 없으며,⁴⁾ 술은 빚을 것이 아니고, 형벌을 쓸 것이 아니다. 책은 나가면 잃기 쉽고, 색은 들어오면 더러워지기 쉽고, 술은 학사學舍에 마땅한 것이 아니고, 형벌은 유생儒生의 일이 아니다. 형벌은 말하자면 유생이나 혹은 유사가 사적인 노여움으로 외인을 때리는 것이니 이것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원에 소속되어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대로 용서할 것이 아니면 작은 것은 유사가 큰 것은 상유사와 상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품관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알고 행동이 옳게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따를 수 있는 선비 한 사람을 골라서 상유사를 시키되 모두 2년 만에 교대한다.

2) 明倫堂: 本來 孔子廟 옆의 學校 이름이나, 우리나라 成均館에서 講學하던 곳의 이름, 泮宮(반궁)은 성균관의 다르게 부르는 이름.

3) 동·서광명실 소장 서책과 장판각의 목판을 도난과 화재 등 재난의 위험이 예상되어 2003. 4. 1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국학진흥원(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에 위탁보관하게 되어 서책이 진도문을 출입하게 되었음.

4) 근대 교육제도시행으로 서원 강학기능이 소멸하여 여성들의 진도문 출입이 자연스러웠으나, 상덕사에는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사당참배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2.4.14. 大堂會의 의결로 여성들의 상덕사 참배를 허용하였다. ※ 道東書院院規에 '異色 如武夫雜術之徒'라는 註釋이 있음(鄭述, 『院規』, 『寒岡先生續集卷之四 雜著』)

유생과 유사는 힘써 예절에 맞게 서로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여야 한다.

-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완전히 돌봐 준다. 유사와 유생은 하인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서원의 일과 동서재의 일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개인의 노여움으로 벌주지 못한다.
-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문치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새로 길러내는 뜻을 받들이니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 일에 대하여 그 제도에 더함에 있고 그 약조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문에 어찌 다행하지 않겠는가?
- 아이들은 수업을 받거나 불러오는 일이 아니면 입덕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 기숙생은 어른과 아이를 불구하고 정한 수는 없으나 재능을 이룬 뒤에 서원에 들어온다.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⁵⁾ 원규를 그대로 도산서원에 적용하고 있다

퇴계선생 59세(1559년) 때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를 짓고 더불어 「원규」도 제정하였다.⁶⁾ 이 「원규」는 서원 운영의 정형화定型化를 제시한 것으로 퇴계선생께서 살아 계실 때 창건된 역동서원에 적용하였고, 역책 후에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많은 서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이를 기본으로 제정하였다. 특히 이산서원보다 먼저 창건된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1552년 창건) 「원규」는 이산서원 「원규」의 끝에 2조條⁷⁾를 더하였고, 이산서원보다는 늦게 창건되었지만 도산서원보다는 먼저 창건된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1572년 창건)은 소수서원과 이산서원 「원규」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빼고 편집되어 있다.⁸⁾ 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도 역시 이 「원규」를 세분화하였다.

5) 경북 영주에 1558년(명종 13)에 군수 안상이 창건하였으며, 1572년(선조5)에 퇴계선생 위패를 봉안, 1574년(선조 7)에 사액을 받았다. 이산리에는 선비양성을 위한 기금이 약간 마련되어 있었으나, 館舍가 없어서 선비들이모일 장소가 없었다. 마침, 새로 부임한 안군수가 인재양성, 교학부흥에 뜻이 있어, 선비들의 뜻을 수렴하여 學舍를 건립하였고, 기문과 원규는 1559년 퇴계선생께서 지으셨다. 그후 1868(고종 5)년에 훼손되었다가 강당만 1996년 복원하였다가 2017년 서원부지가 영주댐 수몰지로 편입되어 현 위치에 2020년 복설하였다.

6)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三十八年己未[先生五十九歲] “作 伊山書院記, 寫扁額及定院中規約”

7) 「濫溪書院誌」: 一.院之經始期傳永久若不以時修葺易至墮廢如有雨漏敗毀處有司即申于官及時修理 一.凡院生及尋院士子謁廟時以程子冠黑團領行禮黑團領若無則以紅團領無妨.

8) 李東耆 編, 『UNESCO世界文化遺產 韓國의 書院 儀節』, 世界文化遺產 韓國의 書院 協議會, 2013, 26~27, 52~53쪽.

이 원규에는 선비를 기르는 목적이 모두 착(善)하게 하는 데 있다

착하게 하기 위하여 『소학小學』⁹⁾과 『가례家禮』¹⁰⁾를 기본으로 하고 『사서오경四書五經』¹¹⁾을 필수교양과목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공부의 순서와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등을 가려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서원은 젊은 유생들이 수양修養하는 곳인 만큼 수양에 방해되는 음란서적淫亂書籍은 가져오지도 말고 여자는 출입할 수 없고¹²⁾ 술은 만들지 못하고, 하인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가 자애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 일 없이 함부로 들락거려서도 안 되며 무릇 의관을 갖추고 말과 행동을 서로 살피는 데 힘을 써서 간절히 타일러서 모두 착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선생께서 서원을 장려한 목적으로 여겨진다. 선생께서 이미 49세 때 지은 시 「화도집음주이십수 기십구和陶集飲酒二十首 其十九」에서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하였다. 이것이 천지가 제자리를 잡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¹³⁾

9) 『小學』: 宋나라 朱熹(註7참조)가 아이들의 행할 바와 마음가짐 등을 敍述하여 編纂한 冊.

10) 『家禮』: 『禮記』 또는 『朱子家禮』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정의 冠禮·婚禮·喪禮·祭禮 등을 規程한 것이다. 朱子家禮는 周나라 周公이 국가통치의 방편으로서 禮法을 제정하였는데, 그 후 역대의 왕조가 이것을 보강하였다. 周나라 이후 많은 학자들이 家禮를 저술하였는데, 宋나라 때에 이것을 集大成한 것이 『朱子家禮』이다. 『朱子家禮』의 編者は 朱熹인데, 이에 대해서는 後世의 學者가 朱子의 이름을 盜用한 것이라는 說도 있다.

11) 四書

• 『大學』: 『禮記』의 한 編인데 宋나라 以後 四書의 하나가 됨, 著者는 曾子라고는 하나 확실치 아니하고, 三綱領 八條目으로 된 倫理·政治의 理念을 가르친 經典. 朱子가 經一章·傳十章으로 나누어 註釋한 것을〈大學章句〉라 한다.

• 『中庸』: 原來『禮記』의 한 編인데 四書의 하나가 됨, 孔子의 孫子 子思가 지음.

• 『論語』: 孔子와 그 弟子 및 當時 人們의 問答·言行 등 孔子死後弟子들이 엮은 儒家의 經典.

• 『孟子』: 孟子의 弟子들이 孟子의 言行을 모아 記錄한 經典.

五經

• 『易經』: 卜筮의 理致에 의하여 倫理·道德을 풀이한 책. 周易.

• 『書經』: 中國 堯舜부터 周代까지 政事에 관한 글을 孔子가 收集 編纂 한 冊.

• 『詩經』: 中國 最古의 詩集, 各地의 民謠를 採集 三千餘篇中에 孔子가 305篇을 選定하였다.

• 『禮記』: 周代의 禮에 관한 經書로 漢代의 儒者에 의하여 編纂되었다. 周禮 儀禮와 함께 三禮라 함.

• 『春秋』: 魯의 隱公에서 哀公까지(BC 722-BC 481) 12代 242年間의 事跡을 魯나라 史官이 編年體로 記錄한 것을 孔子가 筆削한 歷史冊.

12) 여기서 色을 일반적으로 女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寒岡 鄭述는 잡술(무속)의 무리들(도동서원 원규 세주)이라고 하고, 정진영 교수는 기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정진영, 「도산서원, 또 하나의 하늘」, 『도산서원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회사』, 2014, 새물결, 224쪽.)

13)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小少聞聖訓, 學優乃登仕. 偶爲名所累, 輾轉徒失己. 龍鍾猶強顏, 竊獨爲深恥. 高蹈非吾事, 居然在鄉里. 所願善人多, 是乃天地紀. 四時調玉燭, 萬物各止止. 畢志林壑中, 吾君如?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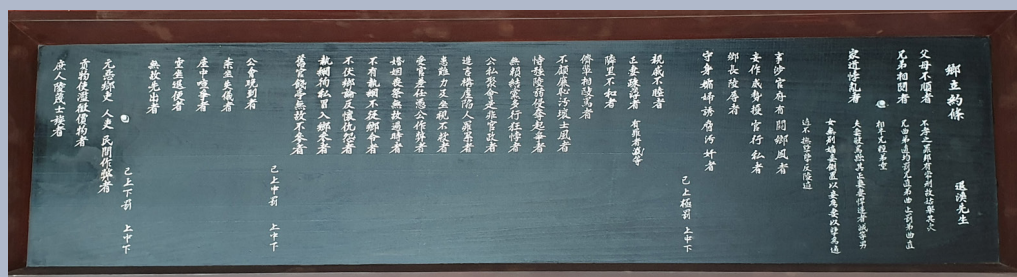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36

향립약조

鄉立約條



35.0cm×138.0cm



독약(讀約) 장면
(2017.10.7. 이중호 촬영)

鄉立約條 _ 退溪先生

父母不順者

兄弟相鬩者

家道悖亂者

事涉官府有關鄉風者

妄作威勢擾官行私者

鄉長陵辱者

守身孀婦誘脅污奸者

已上極罰上中下

親戚不睦者

正妻疎薄者

隣里不和者

儕輩相毆罵者

不顧廉恥污壞士風者

恃强陵弱侵奪起爭者

無賴結黨多行狂悖者

公私聚會是非官政者

造言構虛陷人罪累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作弊者

婚姻喪祭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鄉令者

不伏鄉論反懷仇怨者

執綱徇私冒入鄉參者

舊官餞亭無故不參者

已上中罰上中下

公會晚到者

紊坐失儀者

座中喧爭者

空座退便者

無故先出者

已上下罰上中下

元惡鄉吏. 人吏民間作弊者. 貢物使濫徵價物者. 庶人陵蔑士族者.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二>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자
일이 관부(官府)에 간섭되고
향풍鄉風에 관계되는 자
망녕되어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향장鄉長을 능욕하는 자
수절守節하는 상부孀婦를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이상은 극벌極罰에 해당한다. 상·중·하의 구분이 있다.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자
본처[正妻]를 박대하는 자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친구들과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강強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고 침탈侵奪하여 다투는 자
무뢰배와 당을 만들어 횡포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공사公私의 모임에서 관정官政을 시비하는 자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자
환란患亂을 보고 힘이 미치는 데도 가만히 보고 구하지 않는 자
관가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혼인婚姻과 상제喪祭에 아무 이유 없이 시기를 넘기는 자
집강 좌수座首를 업신여기며 유향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유향소의 의논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집강執綱이 사사로이 향안鄉案에 들인 자
구관舊官을 전송하는데 연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이상은 중벌中罰에 해당한다. 상·중·하의 구분이 있다.
공회公會에 늦게 이르는 자
문란하게 앉아 예의를 잃은 자

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자리를 비워 놓고 물러가 편리한 대로 하는 자
 연고 없이 먼저 나가는 자
 이상은 하벌下罰에 해당한다. 상·중·하의 구분이 있다.
 지위를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지방관서의 향리는 아전으로서 민가民家에 폐를 끼치는 자
 공물貢物 값을 범람하게 징수하는 자
 서인庶人이 문벌 있는 자손을 능멸하는 자이다.

「향립약조」는 다른 말로 예안향약 또는 퇴계선생 향약이라고도 한다

예안지방의 향촌사회를 계도하기 위하여 퇴계선생께서 지으셨으니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 퇴계선생은 1556(명종 11)년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을 기본으로 경상도 예안현(오늘날 안동시 도산면, 녹전면, 예안면 일부)의 향촌사회를 계도啓導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대체로 향약은 주자학적朱子學的 가치관에 입각하여 향촌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을의 공동규칙이다.¹⁾ 퇴계선생께서 「향립약조鄉立約條」서문序文에 “농암선생聶巖先生(李賢輔, 1467~1555)께서 생전에 향촌사회 교화를 위해 여씨향약을 시행하시고자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지역 어른들이 후손과 나에게 그의 뜻을 이룰 것을 책임 지웠기에 대강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서 가부可否를 살핀 후에 정하였다.”²⁾고 하셨다.

이 향약은 극벌極罰 중벌中罰 하벌下罰의 3대 항목으로 나누어 과실을 징벌懲罰하는 조목을 들고 있다. 즉, 극벌은 6항목, 중벌은 16항목, 하벌은 4항목을 설정하였지만 구체적인 벌을 다스리는 방법은 명기하지 않았다. 끝에 원악향리元惡鄉吏 등 4조목을 더 보태었으나 이것 역시 징벌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완비된 향약은 아니지만 과실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입교예속立敎禮俗 등은 학교교육에서 권장할 것을 주장한 퇴계선생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징계하여 가풍家風과 향풍鄉風을 진작케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향약은 퇴계선생이 살아계

1) <http://blog.daum.net/kumho>

2) 李滉, 「鄉立約條序 附約條」, 『故崇政知事聶巖先生 愚是然也. 嘗欲爲之立約條. 以厲風俗. 鄭重而未及焉. 于今知事諸胤. 方居喪境內. 滉亦守病田間. 鄉丈皆欲令我輩數人. 遂成先生之志. 委責甚至. 辭不獲已. 乃相與商議. 而舉其梗槩如此. 復以備示鄉人而審可否. 然後乃定』

실 때에는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뒤 영남학파의 전통을 이은 제자, 문인들에 의하여 영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용되었다.³⁾

향림약조 판은 『선생문집 42권』에 수록된 것을 2019년 전교당 보수를 하면서 국기일판國忌日版을 내리고 걸었다, 종17대손(從十七代孫) 경규慶奎(1947年生, 居 安東)가 썼으며, 제작비용은 안동시에서 부담하였다.

「향림약조」가 걸린 자리에 본래 조선시대 ‘국기일판’이 걸려 있었다

2019년 전교당 보수공사를 하면서 향림약조 판으로 교체하여 걸었다. 국기일판國忌日版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제삿날을 기록한 판이다. 즉 임금과 왕후의 제삿날에는 서원에서도 추모를 위하여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향사의 『헌관집사록獻官執事錄』에 보면 향사 날(8월 중정일)이 국기일과 겹쳐서 ‘국기퇴행國忌退行’이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서원 일에 국기일을 피하기 위하여 걸었던 것이다.

근대국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궁중의 제사의절이 시행되지 않고 다만 종묘宗廟에서 1975년부터 정기행사 1년에 한 번 합동(5월 첫째주 일요일) 전통제례의식으로 대제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종묘제례宗廟祭禮는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서원에서는 2008년까지는 국기일을 피하여 향사를 봉행하였다. 2009년 향사의례를 낮(11시)행사로 변경하면서 국기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기일판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었다. 큰 것은 태조太祖부터 정종正宗(후에 정조로 개칭)까지이고, 작은 것은 순조純祖부터 고종비 명성황후高宗妃 明成皇后까지의 기일忌日(제삿날)이 기록되어 있었다. 큰 것은 순조연간에 제작되었고, 작은 것은 고종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국기일판은 2019월 10월 24일에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기탁하였다.

3) Daum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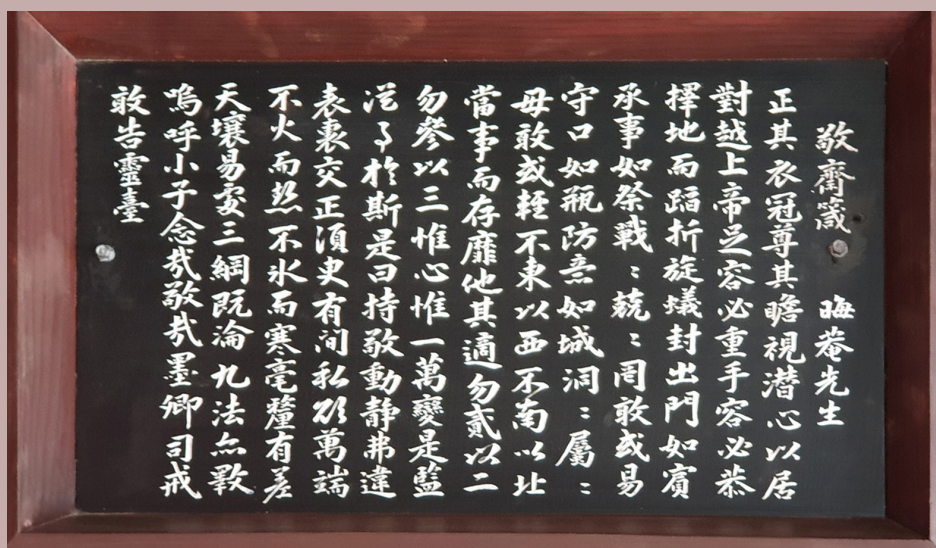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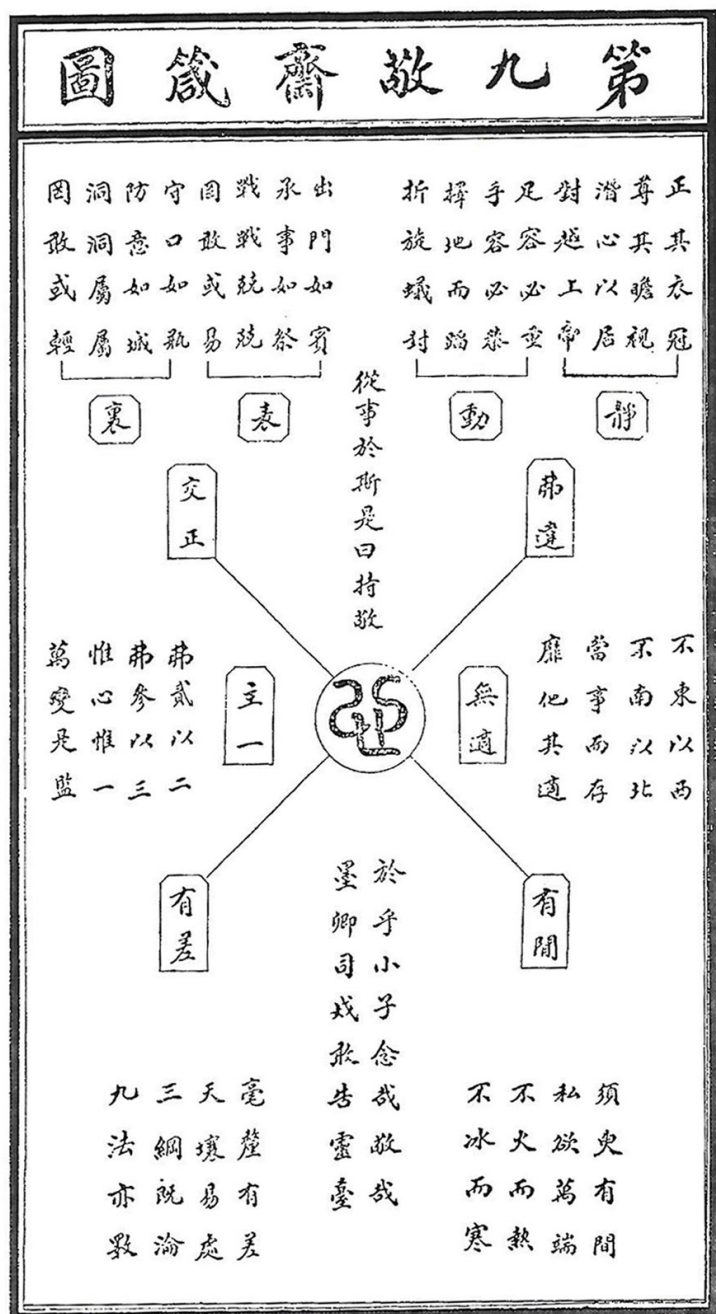
37

경재잠

敬齋箴



35.0cm×57.0cm



경재잠도

敬齋箴_晦庵先生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弗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從事於斯,
是曰持敬, 動靜弗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旣淪,
九法亦斁, 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여 예모禮貌를 갖추며, 나의 생명인 모든 존재를 존경하라. 모든 생각을 끊고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하느님을 마주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리라. 신중히 걸으면서 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손놀림도 공손히 하며 그 모습을 살피라. 땅을 밟을 때는 밟는 곳을 알고 밟으며, 개미집을 돌아가듯 신중히 살피고 걸어라. 집을 나가 만나는 이 마다 손님 대하 듯 하고, 하는 일 마다 제사 모시듯 정성을 다 하며, 모든 것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여 혹시 어느 것 하나에라도 방심하지 말라. 때로 침묵하여 내면을 빠짐없이 살피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문 지키듯 하라. 정신을 또렷이 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피서 혹시 어느 것 하나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동으로 해야 할 것을 서로 하지 말고, 남으로 해야 할 것을 북으로 하지 말며, 하는 일에 정신을 쏟아 그 마음을 살피서 다른 데로 마음을 가게 하지 말라. 두 가지 일에도 두 마음으로 하지 말며, 세 가지 일에도 세 마음으로 하지 말라. 잡념 없이 오직 한 몸으로 순수해지면 세상의 모든 이치 거울 같이 비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의식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경敬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니라. 동과 정의 모든 생활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겉모습과 속마음은 서로를 바르게 하리라. 잠시라도 마음과 몸을 살피는 데 틈이 생기면 온갖 사사로운 욕심이 어지럽게 치솟아 올라 불을 만나지 않아도 뜨거워 괴로울 것이고 얼음 속이 아니라도 추위를 면하지 못하리라. 조금이라도 바른 길에 어긋나면 하늘과 땅은 서로 바뀌며 재앙이 일어나고 인간 사회의 질서도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 세상 온갖 것이 허물어져 망하리라. 아! 마음이 어리고 배움 길에 있는 사람들아 깊이깊이 생각하여 경敬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글로 적어 경계하여 당부하니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 더욱 힘쓰고 닦으라.

주자의 서재書齋인 경재敬齋에 붙였던 잠명이다

주자朱子는 서재書齋 왼쪽 방을 경재敬齋라고 부르고, 오른쪽 방을 의재義齋라고 불렀다.

퇴계선생께서 「이산원규」에 “성균관 명륜당明倫堂에 이천선생 「사물잡」, 진무경 「숙흥야매잡」과 더불어 회암선생 「백록동규집훈」을 걸었는데 서원에도 이것을 벽에 걸어서로 타이르고 일깨운다.”고 하셨다. 실제로 성균관 명륜당에는 위 3종 외에 「경재잡」도 걸려 있다. 2019년 전교당을 보수하면서 「경재잡」을 이정환(거 대구, 1948년생)이 새긴 것을 걸었다.

퇴계선생 65세 때 25살인 손자 몽재蒙齋(諱 安道, 1541~1584)에게 내린 『잠명제훈箴銘諸訓』에 수록된 선생친필이다. 『잠명제훈箴銘諸訓』은 보물 제548-2호로 지정(2010. 1. 4.)된 선생필첩 18책 중 1책이다. 이 책을 도산서원 참공부 모임에서 우리 글로 옮기고 해설을 더하여 선생유묵 영인본과 함께 2018년 8월에 간행하였다.

성학십도의 제9도가 경재잠도이다

퇴계선생은 그림 아래에 설명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주선周旋이 규規에 맞는다는 것은 그 회전回轉하는 곳이 규規(킴파스)를 대고 그린 것처럼 둥글게 되고자 하는 것이요, 절선折旋이 구矩(직각자)에 맞는다는 것은 그 꺾어 도는 곳이 구를 대고 그린 것처럼 모나게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의봉蟻封은 개미집이다. 옛말에 말을 타고 의봉 사이로 굽어서 돌아갔다.” 하니, “이것은 의봉 사이의 골목길이 구부러지고 좁아 말을 타고 그 사이를 구부러져 돌아가면서도 말 달리는 절도를 잃지 않은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기를 병처럼 하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요, 뜻을 방비하기를 성처럼 한다는 것은, 사악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옴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경(敬)은 반드시 하나를 주장해야 한다. 처음에 한 개의 일이 있는데 또 한 개를 더하면 곧 둘이어서 두 개를 이루고, 본래 한 개가 있는데 또 두 개를 더하면 곧 셋이어서 세 개를 이룬다는 것이다. 잠깐 사이라는 것은 때를 가지고 말한 것이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난다는 것은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임천 오씨 臨川吳氏(吳澄, 1249~1333, 원나라 유학자)는 말하기를, “『경재잠 敬齋箴』은 모두 10장으로 장마다 4구씩이다.

1장은 정靜이 어김없음을 말한 것이요, 2장은 동動이 어김없음을 말한 것이다.

3장은 표表의 바른 것을 말한 것이요, 4장은 이裏의 바른 것을 말한 것이다. 5장은 마음이 바르고 일에 통달함을 말한 것이요, 6장은 일을 하나만을 주장하되 마음에 근본을 둔 병폐를 말한 것이요, 7장은 앞 6장을 총괄한 것이요, 8장은 마음이 옮겨 가는 병폐를 말한 것이요, 9장은 일을 하나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10장은 1편을 총결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산 진씨 西山眞氏(眞德秀, 1178~1235, 남송시대 성리학자)는 말하기를, “경의 뜻은 여기에서 더 이상 더 설명할 것이 없으니, 성학에 뜻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되풀이해서 익혀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경재잠」 제목 아래에 주자가 쓰기를, “장경부 張敬夫(張軾, 1133~1180,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의 「주일잠主一箴」을 읽고 그가 남긴 뜻을 주워 모아 「경재잠」을 만들어 서재의 벽에 써 붙이고 자신을 경계하노라.” 하고, 또, “이 잠은 경의 조목으로, 그 설은 여러 경우에 해당됨이 있다.” 하였습니다.

신은 나름대로 각 경위의 설이 공부를 하는 데에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 여겼는데, 금화인 金華人인 노재 魯齋(王柏, 1197~1274,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가 각 경우를 배열하여 이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명백하고 가지런하게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으니,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고 생각하는 사이에 몸소 음미하고 깨닫고 살펴서 얻음이 있다면, 경이 성학의 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¹⁾

1) 朱子曰, 周旋中規其回轉處, 欲其圓如中規也, 折旋中矩其橫轉處, 欲其方如中矩也, 蟻封蟻垤也, 古語云承馬折旋於蟻封之間, 言蟻封之間, 港路屈曲狹小, 而能乘馬折旋於其間, 不失其馳驟之節所以爲難也, 守口如瓶不妄出也, 防意如城閑邪之入也, 又云敬須主一, 初來有个事又添一个, 便是來貳他成兩個, 元有一个又添兩個, 便是參他成三个, 須臾之間以時言, 毫釐之差以事言.

臨川吳氏曰, 箴凡十章章四句, 一言靜無違, 二言動無違, 三言表之正, 四言裏之正, 五言心之正而達於事, 六言事之主一而本於心, 七總前六章, 八言心不能無適之病, 九言事不能主一之病, 十總結一篇. ○西山眞氏曰, 敬之爲義, 至是無復餘蘊, 有志於聖學者宜熟復之.

右箴題下朱子自叙曰, 讀張敬夫主一箴, 掇其有意作敬齋箴書齋壁以自警云, 又曰此是敬之目, 說有許多地頭去處, 臣竊謂地頭之說, 於做工好有據依, 而金華王魯齋排列地頭作此圖, 明白整齊皆有下落又如此, 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目之間而有得焉, 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 출처: <https://chul2638.tistory.com/3775> [아름다운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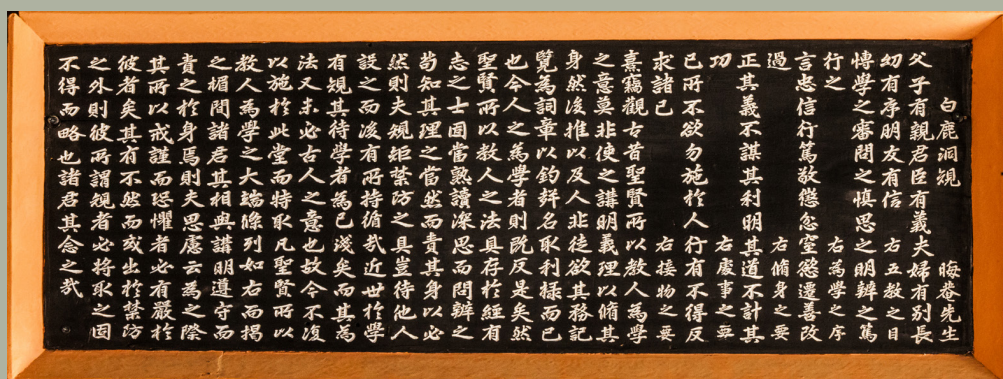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아·기

38

백록동규

白鹿洞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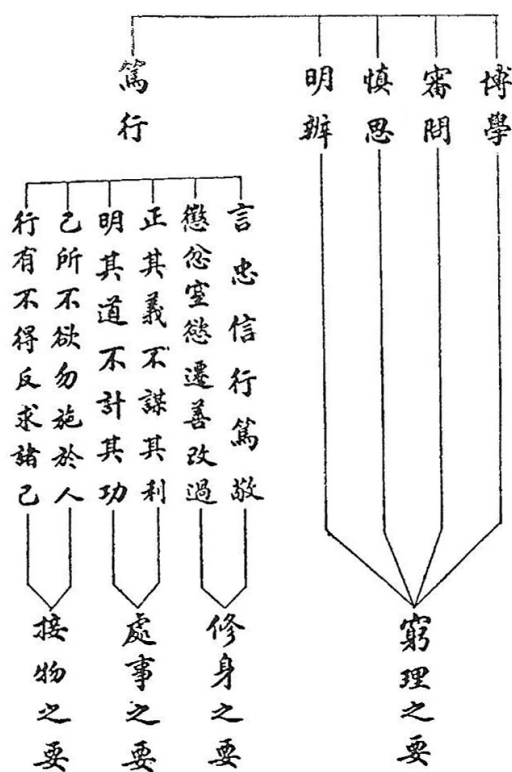
38.0×98.0cm

第五白鹿洞規圖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教敷五教卽此是也學者學此而己其所以學之之序亦有五焉



백록동규도

白鹿洞規_晦菴先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使之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名聲取利祿而已也 今人之爲學者 則旣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具存於經 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 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以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 爲學之大端條列如右 而揭之楣間 諸君其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謹而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禁防之外 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亦念之哉 <篇額 寫>

아버지와 자식은 사이가 좋아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의 사이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위는 다섯 가지의 가르침이다. 넓게 배워야 하고, 상세히 물어야 하고, 깊게 생각하여야 하고, 밝게 분간을 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위는 학문을 하는 순서이다.

말은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실은 두텁고 충실하게 공경하여야 하며, 분노는 참아야 하고 욕심은 막아야 하며, 착한 데로 옮겨가야 하고 허물은 고쳐야 한다.

위는 몸을 닦는 중요한 비결이다. 의리는 바로잡되 개인적 이익은 꾀하지 말고, 도리는 밝히되 자기의 공로는 헤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는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행해서 얻지 못할 때에는 돌이켜 자기에게 찾아야 한다. 이는 사물을 만나는 중요한 비결이다.

내[朱子]가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 성현聖賢들이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뜻은 그들로 하여금 의리義理를 논하고 풀이하여 그 몸을 닦는 뒤에 이를 미루어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니, 비단 읽고 기억하는 데 힘쓰고 사장詞章을 지어서 명성名聲을 구하고 이록利祿을 취하고자 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 중에 공부하는 이들은 이미 이와는 반대이

다. 그러나 성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은 경서經書에 갖추어져 있으니, 뜻이 있는 선비들은 진실로 마땅히 속독熟讀하고 깊이 생각하여 물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이치理致의 당연함을 알아서 자신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책임지운다면 그 일상생활의 법도와 금지하고 말리는 규정을 어찌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기를 기다린 뒤에 지켜 행할 것이 있겠는가. 요즈음에도 학교에 규정이 있지만 학문을 기대함이 너무 천박하고, 그것이 법法 됨이 꼭 고인古人의 뜻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당堂에는 더 이상 그 규정을 쓰지 않고, 특별히 성현들이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별로 열거하여 미간櫺間에 게시한다.

그러니 제군들은 서로 논하고 풀이하여 준수하고 이것을 몸에 실천하기를 책임지운다면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경계하고 삼가여 두려워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저 규정보다 엄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혹 금지하고 말리는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른바 규정이란 것을 반드시 장차 취해야 할 것이요, 진실로 간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니, 제군들은 명심할지어다.

퇴계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새겨서 전교당 동쪽 벽 위쪽에 걸었다

퇴계선생께서 「원규院規」에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¹⁾에 이천선생伊川先生의 「사물잡四勿箴」과 회암선생晦庵先生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열 가지 가르침²⁾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써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서원에도 또한 이것을 벽에 써서 걸어서로 타이르고 일깨운다.’고 하셨다. 서원에서는 지식습득보다 마음공부를 하여 착하게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항상 명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균관 명륜당에도 「백록동규白鹿洞規」,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 여러 현판이 걸려 있다. 모두 궁리수신窮理修身과 처사접물處事接物의 정주사상程朱思想³⁾을 기본으로 삼은 것들이다. 이러한 게시문들은 명륜당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유생들에게 항상 눈에 띄게 하여 지식 습득에만 치우치지 않고 마음공부를 하라고 일깨우려는 것이다.

1) 明倫堂: 고려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유학을 가르치던 강당.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각 향교에 있는 건물로, 성균관 명륜당은 조선에서는 1395년부터 성균관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명륜당은 1398년(태조 7) 대성전 북쪽에 건립되었다. 이때의 건물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지금의 명륜당을 비롯한 주요 건물은 선조 말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현판은 1606년(선조 39) 명나라 사신 朱之蕃이 쓴 것이다.

2) 白鹿洞規十訓: ‘五教之目’과 ‘爲學之序’를 이른다. ‘修身之要’와 ‘處事之要’와 ‘接物之要’는 ‘爲學之序’의 마지막 단계인 ‘篤行之’를 위한 方案(要諦)이다.

3) 程朱思想: 중국 宋나라 때의 유학자 程顥(1032~1085), 程頤(1033~1107), 형제와 朱熹(1168~1224)의 사상을 일컬음. 즉 性理學 또는 程朱學이라고 한다.

「백록동규」, 「숙흥야매잡」, 「사물잡」의 글씨는 퇴계선생의 글씨인 듯 하나 확실하지 않았다. 2021년 1월에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서각가 이정환(1947년생, 대구 거주)에게 의뢰하여 다시 재작하면서 「백록동규」는 앞의 편액을 목각했으나, 「숙흥야매잡」과 「사물잡」은 『잠명제훈』에 수록된 선생유묵을 새겨서 걸었다. 옛 편액은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기탁하였다.

「백록동규白鹿洞規」는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⁴⁾ 학칙이다

주자朱子가 강학을 하면서 학칙學則으로 오륜五倫이 유학의 근본목적임을 확인하고, 배우는 순서로 이치를 탐구하는 박학博學(넓게 공부함) · 심문審問(자세 질문함) · 신사愼思(깊이 생각함) · 명변明辨(밝게 판단함)과 몸을 닦는 일부터 사물에 접하는 것까지 모든 실천을 포괄하는 독행篤行(철실히 실천함) 등 다섯 항목을 들고 있다.

이 규범은 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에 근원을 두고 이치를 규명하고 열심히 실천하여 심법心法の 절실하고 요긴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규범은 성인聖人으로 나아가는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었다. 이러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대부분의 서원 강당에 걸었다.

주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백록동규」를 만들어 후기後記에 해당하는 「동규후서洞規後書」를 지어 ‘학문의 목적은 의리를 밝게 자각하여 몸을 닦아 남에게 베푸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큰 단서만 기록하여 처마에 걸어두고 자발적으로 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

퇴계선생은 「백록동규」가 학생들에게 제시된 것이지만, 『성학십도聖學十圖』⁵⁾의 제5도로 요약하여 제왕帝王의 학문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에 근거해야 하므로 이 그

4) 白鹿洞書院: 지금의 중국 江西省 星子縣 북쪽 廬山五老峯 아래 있었는데, 唐나라때 李渤이 白鹿을 기르며 독서를 하여 백록동이라 하였다. 宋나라 때 백록동서원이 건립되어 지방자제를 교육하였다. 南宋시대에 朱熹가 南康軍의 知事가 되어 再興시켜 백록동서원 원장이 되어, 三綱五倫과 『중용』을 강의하는 동시에 천하의 학자를 초청하는 등 儒敎의 이상 실현에 힘썼다. 한국에서는 1543년(중종 38) 豐基郡守 周世鵬이 고려시대의 학자 安珦을 기리기 위하여, 백록동서원을 본떠 경복영주 순흥에 白雲洞書院(현 紹修書院)을 세웠는데, 한국 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5) 『聖學十圖』: 1568년(선조 1) 퇴계선생께서 聖學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선생께서 經筵에 임시하였을 때 宣祖가 聖君이 되기를 바라면서 聖學의 大綱을 강의하시고 心法の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圖說에서 골라 책을 엮고, 각 도식 아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十圖란 太極圖 西銘圖 小學圖 大學圖 白鹿洞規圖 心統性情圖 仁說圖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의 10가지이다. 1681년(숙종 7) 吳道一이 간행하였으며, 1741년(영조 17)에 왕명으로 경상감영에서 중간되었다.

림을 잠언箴言으로 삼으라고 선조宣祖임금께 권하는 보충해설⁶⁾을 실었다.

오른쪽의 규약은 주자가 지어 백록동서원의 학생들에게 게시한 것입니다. 이 백록동은 남강군南康軍⁷⁾ 북쪽, 여산廬山⁸⁾ 남쪽에 있는데 당의 이발李渤⁹⁾이 여기에 은거하여 흰 사슴을 기르며 지냈으므로 백록이라는 것이 그 동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남당南唐 때에 서원을 세워 국상國庠¹⁰⁾이라 불렀고 배우려고 오는 자들이 언제나 수백 명씩 되었습니다. 송宋 태종은 서적을 나누어주고 동주洞主에게는 관직도 주어 아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주자가 남강지사南康知事로 봉직하였을 때 조정에 청하여 그 서원을 다시 고쳐 세웠고, 학생들을 모으고 규율을 세웠으며, 도학을 널리 밝힌 것입니다. 마침내 서원의 가르침이 천하에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이 이제 삼가 규약에 담겨 있는 기본 되는 목차에 의거하여 이 그림을 만들어 전하께서 편하게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개 당우唐虞시대 요순의 가르침은 오품¹¹⁾에 있었고, 3대의 학문은 전적으로 인륜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약에 담겨 있는 원리를 끝까지 탐구하고 힘써 실천하는 것도 모두 이 오류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학문에서 그 지켜야 할 규범과 금지하는 구체적 사항이 전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같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오류이나 인륜 같은 인간관계에 근본을 두고 끝까지 탐구하고 애써 실천하는 것이 마음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과 함께 이 그림을 바쳐 전하께 아침저녁으로 아뢰는 설어贊御¹²⁾의 잠箴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다섯 그림은 천도天道에 근본을 두고 있는데, 이것의 활용은 오류를 밝히고 애써 덕업德業을 닦는 데 그 공이 있습니다.

「국역: 李東翰, 2008년 거경대학 교재」

6) 李滉. 「第五圖白鹿洞規圖」, 『聖學十圖』, “右規 朱子所作 以揭示白鹿洞書院學者 洞在南康軍北匡廬山之南唐李渤 隱于此 養白鹿以自隨 因名其洞 南唐建書院 號爲國庠 學徒 常數百人 宋太宗 頒書籍官洞主 以寵勸之 中間蕪廢 朱子知南康軍 請於朝重 建築徒設規 倡明道學 書院之教 遂盛于天下 臣今謹依規文本目 作此圖 以便觀省 蓋唐虞之教 在五品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 故規之窮理力行 皆本於五倫 且帝王之學 其規矩禁防之具 雖與凡學者 有不能盡同者 然本之彝 而窮理力行 以求得夫心法切要處 未嘗不同也 故拜獻是圖 以備朝夕贊御之箴 以上五圖 本於天道 而功在明人倫懋德業”

7) 南康軍: 중국江西省 파양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地名이다.

8) 廬山: 중국 강서성 파양호 북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서 匡廬라고도 부른다.

9) 李渤: 唐 나라 때 洛陽 사람으로 字는 潛之였다. 그는 백록동에 은거하다가 뒤에 강주 刺史가 되어 백록동에 臺榭(정자)를 만들었다.

10)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학교를 國庠이라 한다. 南唐 때는 937~975년 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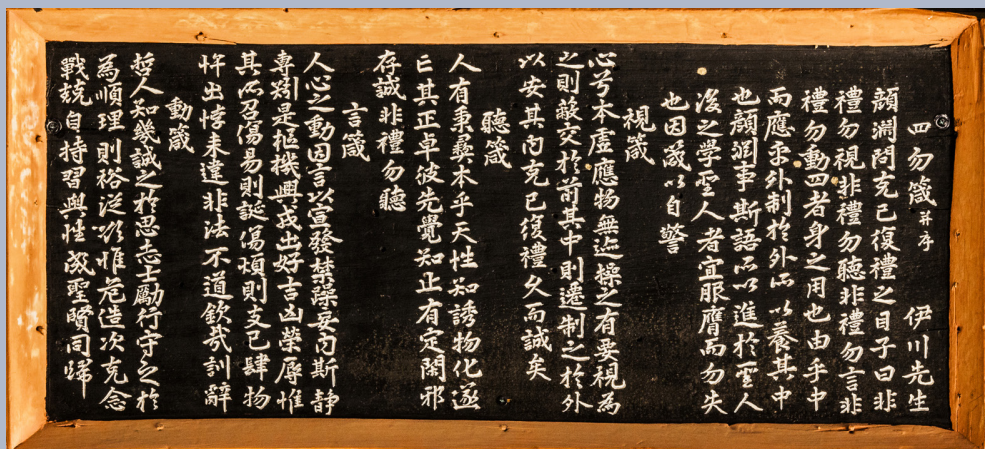
11)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간의 윤리적 관계를 五品이라 말한다. 오품을 五常 또는 五典이라고도 한다.

12) 贊御: 임금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신하의 충고나 권유 또는 그런 일을 맡은 관직을 말한다.



도·산·서·원·이·아·기

39 사물감 四勿箴



37.0×81.0cm

四勿箴 并序_伊川先生

顔淵問克己復禮之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身之用也 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所以養其中也 顔淵事斯語 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 宜服膺而勿失也 因箴以自警

視箴 心兮本虛 應物無迹 操之有要 視爲之則 蔽交於前 其中則遷 制之於外 以安其內 克己復禮 久而誠矣

聽箴 人有秉彝 本乎天性 知誘物化 遂亡其正 卓彼先覺 知止有定 閑邪存誠 非禮勿聽 言箴 人心之動 因言以宣 發禁躁妄 內斯靜專 矧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易則誕 傷煩則支 己肆物忤 出悖來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動箴 哲人知幾 誠之於思 志士勵行 守之於爲 順理則裕 從欲惟危 造次克念 戰兢自持 習與性成 聖賢同歸

안연이 문기를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의로 돌아올 조목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하셨다.

이 네 가지는 몸의 쓰임인데, 마음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응하는 것이니 밖에서 제재함은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안연이 이 말씀을 따랐으니 이 때문에 성인에 나아간 것이다. 후세에 성인을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가슴속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르침[箴]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노라

보는 가르침, 마음은 본래 비어있으니 사물을 응함에 자취가 없다. 마음을 잡는 데 요점이 있으니 보는 것이 그 법이 된다. 사물의 막힘이 눈앞에 사귀면 마음은 그리로 옮겨가니 이것을 밖에서 제재하여 그 안을 편안히 해야 한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옴을 오래하면 참되고 거짓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듣는 가르침, 사람이 떳떳함을 잡을 양심을 가지고 있음은 천성에 근본으로 하였으나 아는 것[慾心の知覺]이 외물에게 유혹되고 동화하여 마침내 그 바를 잃게 된다. 높으신 선각자들은 그 칠 데를 알아 정함이 있었다. 사특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해서 예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

말하는 가르침, 인심의 움직임은 말로 인하여 베풀어지니 말을 할 때에 조급함과 경망함을 금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전일해진다. 하물며 이것은 중요한 기틀로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를 맺게도 한다. 오직 길하고 흥하고 영화와 치욕은 그 말이 부르는 바가 된다. 남을 해치는 말을 쉽게 함은 거짓이 많고 해치는 말을 번거로이 하면 지리支離해진다.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고 나가는 말이 어긋나면 오는 말도 어긋난다. 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이 훈계 이 말을 공경하라

움직이는 가르침, 명철한 사람은 느낌을 알아서 생각을 정성스레 하고 뜻있는 선비는 행실을 가다듬어 그 지킬 것을 생각한다. 이치에 따르면 넉넉하고 욕심을 따르면 곧 위태롭다. 잠깐 동안이라도 성인의 언행을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조심하여 지키고 습관과 더불어 좋은 성품이 이루어지면 성현과 함께 돌아가리라.

퇴계선생께서 직접 써서 선조임금께 올리신 잠명이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이천伊川(程頤, 1033~1107, 字 正叔)이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編」에서 안연顔淵이 공자에게 인仁을 물으니 극기복례克己復禮(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의로 돌아옴)라 하였고, 다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하니 공자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신 데 대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덧붙여 지은 「사물잠四勿箴」이라는 가르침이다.

1568(宣祖元)년 9월 6일 저녁에 퇴계선생이 선조임금께 「사물잠四勿箴」을 강의하기 위하여 두 부를 써서 한 부는 손에 들고, 한 부는 임금께 올리고 학덕學德을 진보시키는 방도를 상세히 설명 드리니 선조임금께서 곁에 두고 항상 경계하겠다고 하셨다.¹⁾

「사물잠」만 명확하게 꿰뚫으면 논어를 다 본 것과 다름없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²⁾에서 읽은 「사물잠四勿箴」에 대한 설명에는 “잠箴이란 바늘을 가리키는데, 바늘 끝처럼 날카로움을 가지고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혼탁한 시대에는 너무나 요원해 보이기도 하다. 더구나 조문으로 명확히 정해진 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예禮’라는 개념도 막연하고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물잠」의 이치만 명확하게 꿰뚫을 수 있다면 논어를 다 본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안자顔子가 인仁을 물으니 공자는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구체적 조목을 물으니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

1) 『宣祖實錄 2卷』, 1年(1568 戊辰) 9月 6日(壬子) 壬子/有朝夕講. 夕講 『小學』, 『四勿箴』, 李滉入侍, 手寫二本, 一進于榻上, 一持而誦白. 皆因 『小學』, 『四勿章』, 詳陳勸學進德之方.

2) <http://blog.naver.com/weemin21>

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란 하늘의 이치에 대한 규정이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과 같이, 천리天理에 마땅하지 않으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는 말이다. 즉, 인仁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욕을 이겨 예禮에 회복해야 하는데 예禮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학이란 심중에서의 깨달음만을 얻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바대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옳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자는 것이 유학儒學이다.”라고 하였다. 「사물잡」의 이치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며 누구라도 이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진정 옳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의 학문적 완성은 물론 유학의 발전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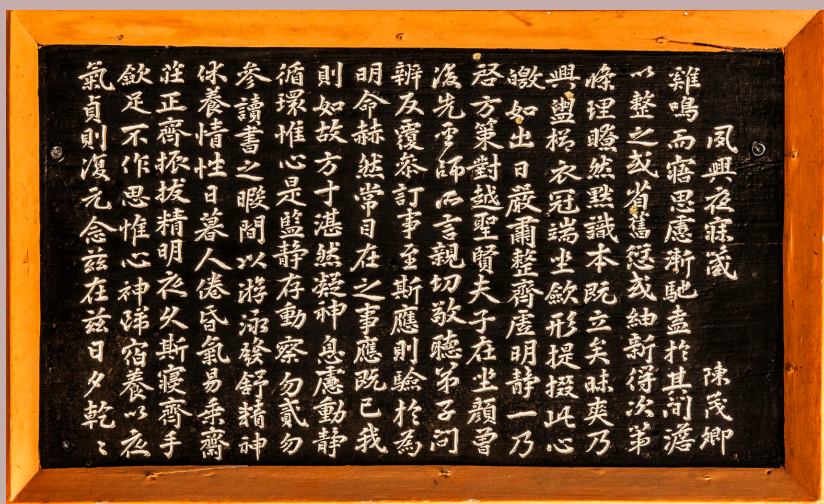


도·산·서·원·이·야·기

40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37.0×61.5cm



夙興夜寐箴_ 陳茂卿

鷄鳴而寤 思慮漸馳 盍於其間 澹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默識 本既立矣 昧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皦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 聖師所言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覆參訂 事至斯應 則驗于爲明命赫然 常目在之 事應既已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參 讀書之餘 間以游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日暮人倦 昏氣易乘 齋莊整齊 振拔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 養以夜氣 貞則復元 念茲在茲 日夕乾乾

닭이 울 때 깨어나면 여러 생각이 점차로 달리기 시작하니, 어찌 그 사이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지난 허물을 반성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뽑아내어, 차례로 조리를 세워 명쾌하게 묵묵히 마음속에 새겨둘지이다.

근본을 세우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차리고 단정히 앉아 자세를 바르게 한다.

마음을 다잡아 떠오르는 태양같이 밝게 하고 엄숙하게 단정히 하여 마음을 비워 밝게 하고 정일하게 한다.

이때에 책을 펴고 성현을 마주 대하듯 한다. 공자께서 자리에 계신듯 안자 증자가 앞뒤에 계신듯이 한다.

위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몸소 간절히 경건하게 듣고 공자와 제자들의 묻고 따지는 말을 반복해서 참고하여 바로 잡으라.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응하여 배운 바를 경험해야 할 것이며 환하게 밝은 하늘의 뜻이 항상 눈앞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에 대한 대응이 끝나면 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마음속을 맑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게 한다.

움직임과 멈춤이 순환할 때 오직 마음을 살피고 고요할 때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 행동을 살피어 두 갈래 세 갈래로 하지마라.

책을 읽다가 쉬는 여가에 마음을 풀고 쉰다. 정신을 푸근히 하여 인정과 성질을 쉬게 한다.

해가 저물면 사람은 지쳐 혼미한 기운이 타기 쉬우므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떨쳐 밝히라.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때 손발을 가지런히 거두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심신을 잠들게 한다.

깨끗하고 맑은 밤기운을 길러 저축하면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생각을 언제나 여기에 두어 밤낮

으로 부지런히 노력한다.

「國譯」李東翰」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은 중국 송나라 성리학자 진백(陳柏)(字 茂卿, 號 南塘)이 지은 선비의 마음공부를 위한 일상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숙흥야매(夙興夜寐)’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¹⁾로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잔다’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다. 「숙흥야매잠」은 하루라는 시간적 상황을 설정하여 ‘공경스러움’을 설명한 글이다.

1554(명종 9)년경 소재(蘇齋)(盧守愼, 1515~1590)가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뜻을 풀이하고 해설을 하여 퇴계선생과 하서(河西)(金麟厚, 1510~1560)에게 질정(叱正)을 청하였고, 1560(명종 15)년에 퇴계선생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완성하여 1568(선조 1)년 임금께 올려 교서관(校書館)²⁾에서 처음 『숙흥야매잠주해(夙興夜寐箴註解)』를 간행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간행하여 인격수양의 잠명으로 많은 선비들이 익혀 실천하고자 하였다.

『성학십도』의 마지막이 「숙흥야매잠도」이다

경敬의 수양론적(修養論的) 실천을 위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퇴계선생은 그림을 「경재잠도」를 모방하였다고 하고 공자 손자인 자사(子思)(중국 노나라 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학문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보충해설에서 강조하였다.

위의 잠은 남당 진무경(南塘 陳茂卿) 백栢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금화 왕 노재(王魯齋)³⁾가 태주(台州)의 상채서원(上蔡書院)에서 가르치는 일을 주관 할때 오로지 이 잠으로써 가르쳤으며,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외우고 실천하도록 하였나이다. 이제 신이 삼가

1) 『詩經』 「小雅」 小宛篇: 題彼脊令 載飛載鳴 我日斯邁 而月斯征 夙興夜寐 無忝爾所生(날아가는 할미새를 보니 날면서 울어 대네. 나는 나날이 힘을 쓰고 달을 따라 노력하여,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이 들며 낳아주신 부모님 욕되게 말아지지).

2) 校書館: 1392년(태조 1) 經籍의 인쇄와 제사 때 쓰이는 향과 祝文 印信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3) 王柏(1197~1274): 남송 말기 婺州 金華 사람. 자는 會之 또는 伯會, 호는 魯齋 또는 長嘯, 시호는 文憲이다. 黃幹의 문인, 何基를 좇아 공부했고, 질박하고 착실하면서 건실하고 굳세게 살았다. 일찍이 麗澤書院師와 上蔡書院師를 지냈다.

노재魯齋의 경재잠도敬齋箴圖를 본떠서 이 그림을 만들어 그의 그림과 비슷하게 하였나이다. 대개 경재잠에는 여러 가지 경敬 공부하는 공간적 상황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 따라 배열하여 그림을 만들었나이다.

이 잠에는 여러 가지 경 공부하는 시간적 상황이 있으므로 그 시간적 상황에 따라 배열하여 그림을 만들었나이다. 대개 도의 유행이란 일상생활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으므로, 리理가 없는 곳이란 한 군데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인들 경 공부를 그만 둘 수 있겠나이까. 잠깐 사이도 그만 둘 수 없으므로 순식간도 리理가 없는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나이까.

자사子思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나지 못한다. 도는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하였나이다. 또 이르기를 “가장 은밀한 곳 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만 아는 자기의 마음을 삼간다.”고도 하였나이다.

이것은 한 번 멈추고 한 번 움직일 경우에나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마음을 보존하여 좋은 성품을 기르고 내면을 잘 살피서 서로 번갈아 공부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나 털끝만한 어김도 없을 것이요, 어느 때나 잠시의 중단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잠[경재잠과 숙흥야매잠]으로 다 함께 정진한다면 성인이 되는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서원의 강당인 전교당에 새겨서 건 것은 공부하는 선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길(道)을 익히고 공경스러움(敬)을 실천토록 하기 위함이다.

4) 右箴，南塘陳茂卿柏所作以自警者 金華王魯齋嘗主教台州上蔡書院，專以是箴爲教，使學者人，人誦習服行。臣今謹倣魯齋〈敬齋箴圖〉作此圖，以與彼圖相對。蓋〈敬齋箴〉有許多用工地頭，故隨其地頭而排列爲圖。此箴有許多用工時分，故隨其時分而排列爲圖。夫道之流行於日用之間，無所適而不在，故無一席無理之地，何地而可輟工夫？無頃刻之或停，故無一息無理之時，何時而不用工夫？故子思子曰“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又曰：‘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此一靜一動，隨處隨時，存養省察，交致其功之法也。果能如是，則不遺地頭理無毫釐之差，不失時分而無須臾之間。二者並進，作聖之要，其在斯乎。以上五圖，原於心性，而要在勉日用，崇敬畏。



41

도산서원 건각신치제문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54.0×73.0cm



도산별시 재현 고유
(2013.5.4. 이광훈 촬영)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大東元氣 養得眞儒 天人性命 孔孟程朱 執厥繩尺 正我步趨 渾渾姿性 進進工夫 道不墜地 實在先生

穆陵側席 洞開通英 丘園帛賁 屢甄經橫 角巾南歸 介石之貞

維陶有山 永矢衡泌 口餐杞菊 手披籤帙 味哉深造 毫縷四七 萬人山仰 一方泉達 青衿蹈矩 紅女知讓 仁人利博 太和胎蠶 縱有異端 載胥以誑 環嶠七十 一不迷向 是謂鄒魯 繫誰之功 觸類伸長 如挹高風 几杖林壑 繪素之中 六條十圖

請師我公與配食故參判趙穆共饗之

上之十六年壬子暮春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奎章閣檢校直閣知

製 教臣李晩秀奉

教謹書

해동의 큰 원기가 참 선비를 나오셨네, 천인성명의 원리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정자와 주자로 이어지고 그 법도 잡으시어 우리의 길 바로 잡아 주셨네, 크고 넓은 성품이시여 끊임없는 공부로다. 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음은 오로지 선생 때문이라네, 선조임금 옆자리서 밝은 슬기 열어주셨도다. 전원에서 국왕조서 내리고 궁궐에서는 경연에 입시해서 횡경문란에 응했으며, 두건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깨끗한 지조로다. 아! 도산이여 길이 은둔하길 맹세했네, 구기자와 국화를 먹고 책과 서산대를 펼치도다. 깊은 경지에 나아가 사단칠정의 이치를 자세히 분석하니 모든 이들이 태산처럼 우러르고 한 지역이 가르침을 입었네. 가르침은 유생에 미치고 바른 도의는 아낙에까지 이르렀네, 어진 사람은 사양할 줄 알고 이를 평화롭게 퍼지게 하였네, 비록 이단이 들어와 이에 미혹되었으나 영남 땅 70고을은 하나도 미혹되지 않았으니 이에 추로지향이라 이르네. 이 누구의 공덕인가 만물이 모두 영향을 받았네. 높은 풍모를 우러러 보아 임학에 궤장을 내렸고 무진육조소와 성학십도를 그려서 병풍으로 꾸몄다네, 청컨대 우리 스승이시여, 참판 조목공과 함께 흠향하옵소서.

정조16년(1792) 임자 늦은 봄에 통정대부승정원좌부승지검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규장각검교직각지제교 신이만수 교지를 받들어 삼가 씁니다

1792(정조16)년 3월 24일에 상덕사에 치제한 정조의 제문祭文이다

전교傳敎와 함께 원편에 걸었다. 치제문 현판 글씨를 당시 사신使臣 이만수가 썼다¹⁾고

1) 감남인, 앞의 책, 238쪽.

하는데 『사제일기賜祭日記』에는 “예관이 성상의 교지를 받들어 3일 전교 및 친히 지은 제문을 베껴서 예안현감으로 하여금 전교당에 걸게 하니…”²⁾하였다.

이 당시의 치제의절을 서원에 보관하였던 「홀기笏記」³⁾에 보면 먼저 집사執事(업무를 맡은 사람들)들이 묘정廟庭(사당 마당)에 들어와서 재배하고 손을 씻은 다음 묘우廟宇(사당)에 들어가 위패位牌 동남쪽에서 서쪽으로 서서 향합과 향로 촛대를 위패 앞에 진설하고 예찬禮饌(모셔진 분께 드리는 음식)을 진설한다. 그리고 사신이 손을 씻고 알자謁者(사신을 안내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향과 축문을 받들어 들어오면 모두 허리를 굽혀 읍례揖禮하며 맞이하여 계단아래 이르면 집사자가 사신 앞에 나아가 공경히 향과 제문을 받아 안상案床(작은 책상)에 안치하고 사신은 계단을 올라 묘우에 들어가서 위패位牌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면 묘정에 있는 모두는 북쪽으로 서서 네 번 절을 한다. 그리고 알자가 사신을 향상香床 앞으로 인도하여 북쪽으로 서면, 집사자가 꿇어앉아 향합과 향로를 들고 사신에게 나아가면 사신使臣(임금이 파견한 신하)은 서서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술을 따라 나아가면 이어서 석 잔을 올리고, 종향위從享位(퇴계선생을 모신 분의 위패 즉 월천조공)에는 한 잔을 올린다. 알자가 사신을 향상 앞으로 인도하여 북쪽으로 서면 축관은 제문祭文(추모하는 글)을 받들어 위패位牌 오른쪽에서 동쪽으로 서서 제문을 읽는다. 알자는 사신을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여 남쪽으로 서면 모두가 네 번 절을 한다. 알자는 사신을 인도하여 막차幕次(사신이 대기하는 장소)에 나아가고 제집사는 내려와서 재배再拜하고 사당에서 나온다.

치제를 위하여 이틀 전 아침부터 유생들이 수없이 왔다고 한다.

『심원록尋院錄』에 차례로 기록하기 어려워 각각 책장을 나누어 주고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였다고 한다. 하루 전(3월 23일)에 사당에 고유를 올리니 「고유문告由文」은 다음과

2) 『조선시대 서원일기-원문-』, 한국국학진흥원, 2007, 327쪽. “禮官奉 聖教繕寫初三日 傳教及 親製祭文令本官刊揭于典 教堂上”

3) 『笏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諸執事及諸生入就階間拜位 ○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諸執事詣盥洗位 ○西向立 ○盥水 幌手 ○就 神位東南 ○西向立 ○執事者設香盒香爐及燭於 神位前 ○次設禮饌 ○使者盥洗 ○謁者引 使者奉 香及 祭文以入 ○諸執事及諸生鞠躬祇迎 ○使者至階下 ○執事詣 使者前祇受 香 祭文安於案上 ○使者陞自正階立於 神位之東 ○南向 ○諸生北向 ○三拜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謁者引 使者詣 香案前 ○北向立 ○執事者奉香爐香盒跪進於 使者 ○使者立三上 香 執事者酌酒進於 使者前 ○連奠三爵 ○從享位奠單爵 ○謁者引 使者詣 香案前 ○北向立 ○祝奉 祭文就 神位之右 ○東向立讀 ○謁者引 使者復位 ○南向立 ○諸生四拜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謁者引 使者出就幕次 ○諸執事以下降跪 ○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以次出

같다.

임금의 높고 밝은 덕이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붙드시니 이에 보살핌이 남으로 돌아보아 제사로 융숭히 보답하고 선비에게 과거를 보이시니 사문이 더욱 기뻐하여 장차 일을 시작하려 함에 삼가 그 사유를 아립니다.⁴⁾

이때의 일기를 보면 고유를 올리고 내일 치제를 위한 도회道會(도내 선비회의)를 운영대雲影臺 아래에서 열었는데 몇 천 명인지 헤아릴 수 없었고 시도유사時到有司(도착한 선비를 기록하는 사람)가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오에 서원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다 제공할 수 없었고 이상한 행동도 없지 않아 중단하였다. 또 치제致祭(임금내린 제사)봉행 후 사신일행을 전교당에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 예폐禮幣(예의를 표시하는 선물)를 사신에게는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10책, 『언행록言行錄』 3책, 『매화시첩梅花試帖』 1책, 비단 1단, 수화주 1단이고, 집사관은 『언행록』 3책, 『매화시첩』 1책이고, 장용위는 비단 1필과 종이 1뭉음을 주었고 기타 수행한 승정원 관리와 교서관 노복에게도 선물을 하였다고 하였다.

4)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원문-』, 2007, “告由文 聖明 闢異扶道 乃眷南顧 明禮崇報 申以造士 斯文益休 將事之始 謹告厥告”





도·산·서·원·이·아·기

42

정조대왕 전교

正祖大王 傳敎



56.0×82.0cm



도산별시 재현
(2017.4.21. 안동문화원 제공)

壬子三月初三日

傳曰欲尊正學宜尊先賢以奉使行之入其境昨有致祭玉山書院之命而更思行於玉山不爲於陶山其可乎哉向來邪學之漸染也惟嶠南人士謹守先正正學不撓不奪不涅不污自是以往增我曠慕方春廚傳恐貽民弊有意未免咨且聞其道里不甚於迂回仍遣閣臣李晚秀奉命回路馳至禮安縣先正文純公李滉書院致祭祭文製下先令內閣知委道臣處道臣似在巡路亦即直關該邑爲先正子孫及隣邑人士之來參致祭者預須會待祭之日閣臣坐典教堂招諸生立於進道門內庭以賣去書題揭示各令應製收捧試券還朝日以啓如是則小邑支應爲弊必當不少令廟堂申飭道伯區劃穀物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奎章閣檢校直閣 知製 教 臣李晚秀奉

教謹書

전교에 이르기를 정학을 높이려고 하면 마땅히 선현을 높이 받들어야한다. 사신이 그 지역에 들어감에 어제 옥산서원에 치제토록 명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옥산서원에만 치제를 하고 도산서원에는 치제치 않는다면 옳겠는가? 요즈음 사학[천주교]이 점차 퍼지고 있다. 오직 영남의 인사들만이 선정의 정학을 조심스럽게 지켜 꺾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나의 한없는 그리움이 더해졌다. 이 봄철에 먹고 자는 데 민폐를 끼칠까 두려운 뜻이 있으니 걱정을 버리지 말라. 또 들으니 그 길의 거리가 멀지 않아 돌아오도록 거듭 보내니 각신 이만수가 명을 받들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으로 달려가 선정 문순공 이황의 서원에 치제토록 하라. 제문은 지어 내려 보내겠다. 미리 내각에 당부하여 감사가 알도록 하고 감사가 순시하고 있으면 즉시 해당 고을에 알려라. 선정의 자손들과 인근 고을 人士들이 와서 치제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모여 기다리도록 하라. 치제 날에 각신은 전교당에 자리를 정하여 앉아 여러 유생들을 불러 진도문 안뜰에 세우고 지니고 간 서제를 걸어 보이도록 하여 각각 글을 짓도록 하고 시권을 거두어 조정에 돌아오는 날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면 작은 고을에 준비하느라 폐가 반드시 많은 것이니 조정에 당부하여 경상감사가 곡식을 준비토록 하라.

통정대부승정원좌부승지경경연참찬관추관수찬관규장각검교직각지제교 신이만수 전교를 받들어 씁니다.

위 「전교傳敎」는 1792(정조16)년 정조임금께서 중희당重熙堂¹⁾에서 우승지 조연덕右承旨 趙衍德 등에게 내린 임금의 명령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²⁾에는 「전교」 말미에 정조正祖께서 치제致祭의 범절과 별과에 대하여 하명하니 좌부승지 이만수左副承旨 李晩秀(1752~1820, 號 屨翁)가 받드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으나, 「사제일기賜祭日記」³⁾에는 「전교」 말미에 작은 글씨로 영남지방에 사학邪學(바르지 않은 학문, 여기서는 천주학)에 물들지 않음을 칭찬하고 특별히 회재 후손晦齋(李彦迪, 1491~1553) 後孫 이정규李鼎規(1735~?, 號 養閒堂)는 병조참판에, 퇴계사손退溪 嗣孫 이지순李志淳(1762~1807, 號 省流亭)은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⁴⁾ 1권에 수록된 「전교」에는 욕존정학欲尊正學이 욕존성학欲尊聖學으로, 부지어우회不至於迂回를 불심어우회不甚於迂回로, 초제생립우진도문내정招諸生立于進道門內庭이 초치제생립어진도문내정招致諸生立於進道門內庭으로 기록되어 있고 끝에 「전교」를 각신 이만수가 받들었다는 기록을 추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때 사제賜祭와 별과別科를 치른 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교」와 「치제문」이 3월 8일에 도산서원에 도착하여 3월 9일에 당회堂會를 열어 치

- 1) 重熙堂: 1782년 정조 임금이 의빈성씨에서 태어난 문효세자(1782~1786, 순조의 이복 형)를 위해 동궁으로 지은 창덕궁 내 전각이다.
- 2) 『承政院日記』, 11792(정조16)년 3월 3일 ○ 壬子三月初三日辰時, 上御重熙堂. 右承旨左副承旨入侍, 稟事閣臣同爲入侍時, 右承旨趙衍德, 左副承旨李晩秀, 假注書鄭尙愚, 記事官洪樂游·徐有聞, 檢校直閣徐榮輔, 以次進伏訖. 上命讀公事書判付訖, 命晩秀書傳敎曰, 欲尊正學, 宜尊先賢, 以奉使行之入其境, 昨有致祭玉山書院之命, 而更思行於玉山, 不爲於陶山, 其可乎哉? 向來邪學之漸染也, 惟嶠南人士, 謹守先正正學, 不撓不奪不涅不汚, 自是以往, 增我曠慕, 方春廚傳, 恐貽民弊, 有意未免越趨, 聞其道里, 不至於迂回. 仍遣閣臣李晩秀, 奉命回路, 馳至禮安縣, 先正文純公李滉書院致祭, 祭文製下, 先令內閣知委道臣處, 道臣似在巡路, 亦即直關該邑, 爲先正子孫者及隣邑人士之來參致祭者, 預須會待, 祭之日, 閣臣坐典教堂, 招諸生立于進道門內庭, 以齋去書題揭示, 各令應製, 收捧試券, 還朝日以啓, 如是則小邑支應, 爲弊必當不少, 令廟堂申飭道伯, 區劃穀物. 上曰, 今此致祭, 特命閣臣進去祭品凡節, 必另飭精備, 俾盡致敬. 仍命書賦義題訖. 敎曰, 齋去此御題, 儒生試取以來. 晩秀曰, 伽倻國始祖陵, 特命侑祭, 實是令典, 聖教又如, 臣敢不各別虔誠乎? 又有儒生試取之命, 嶠南多士, 必當簞勸矣. 上曰, 嶠南異於他道, 所經列邑, 民瘼之可以採探者, 風謠之可以陳聞者, 須詳細知來, 可也. 命晩秀先退, 命榮輔書御製陶山書院致祭文訖. 命退, 諸臣以次退出. 始祖陵, 特命侑祭, 實是令典, 聖教又如, 臣敢不各別虔誠乎? 又有儒生試取之命, 嶠南多士, 必當簞勸矣. 上曰, 嶠南異於他道, 所經列邑, 民瘼之可以採探者, 風謠之可以陳聞者, 須詳細知來, 可也. 命晩秀先退, 命榮輔書御製陶山書院致祭文訖. 命退, 諸臣以次退出.
- 3)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원문)』, 2007, 305쪽.
- 4) 조선 후기의 문신 李晩秀가 1792년(정조 16) 왕명에 의해 陶山書院에서 科場을 열어 試士한 기록과, 1796년 퇴계선생을 성균관에서 致祭한 때의 일기를 모아 편찬한 책.

제와 별과를 위한 준비를 의논하고 「어제 치제문御製 致祭文」을 봉람奉覽(받들어 열람)하였다. 3월 14일 치제 집사관과 경상감영의 관문官文이 도착하였고, 3월 15일 원임原任과 장로長老들이 와서 행사거행의 범절을 논의하고 낙천洛川에 교량가설을 안동부安東府에 요청하였다. 3월 17일 도산서당 밖에 도회道會를 열었으니 수백여 명이였다. 중요한 업무를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명하고, 치제와 별과를 위한 절목節目(순서를 정함)을 정하여 게시하니 대체로 ①차례를 어지럽히거나 의절을 잃지 말 것, ②치제 때 공경하고 삼가며 예의를 잃지 말 것, ③별과에 시제試題(시험문제)를 게시하면 공손히 사배례四拜禮하고, ④「시권試券(답안지)」을 모을 때 경쟁하는 모습은 없게 할 것, ⑤도산서당의 유정문幽貞門 안에는 들어가지 말 것 등이였다. 3월 19일 가설한 교량에 많은 사람이 다투어 건너니 무너져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였다고 한다. 하루 만에 많은 유생이 도착하여 분천, 의인, 상계, 하계 등지에 모두 수용하지 못해 온혜, 부포에 이르기까지 가득하였고, 3월 22일에 내일 고유할 「고유문」과 집사를 정하고, 3월 23일(사제일기에는 일자표기가 없음) 오전에 치제 제물이 도착하였고, 오후에 사신使臣이 도착하여 과거시험장소를 점검하여 강 건너 소나무 숲으로 정하고, 3월 24일 묘시卯時(오전5~7시)에 향축香祝을 받들기 위하여 운영대雲影臺 아래에 개좌開座하니 사신이 이르러 사시巳時(9~11시)에 치제가 봉행되었다. 이때 참제원參祭員이 서원은 물론이고 부내汾川까지 이어져 묘정廟庭에서 집례가 창홀唱筭하면 진도문과 곡구 등에서 복창復唱하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3월 25일 진시辰時(오전 7~9시)에 유생이 가득하여 만 명으로 제한하여 사시巳時에 「시제試題」를 소나무에 걸었고 「시권試券」은 신시辛時(3~5시)에 거두니 모두 3,730장(『교남빈흥록』에는 3,632장)이였다. 3월 26일 각신閣臣이 『사문수간師門手簡』8책을 지참하여 떠나고, 예관禮官이 예안현감에게 성상聖上的 「전교」와 「제문」을 새겨서 전교당 위에 걸도록하여 여러 번 교감과 교정을 거쳐 4월 20일 오시午時(12시경)에 고유례告由禮를 올리고 붉은 비단으로 싸서 강당[전교당]의 이중 들보에 「전교」는 동쪽에, 「제문」은 서쪽에 걸었다고 한다. 한편 별과의 결과가 4월 15일에 임금의 「전교」와 함께 도착하니 30명에 대하여 각각 등급이 통보되고 경상감영에 불러 잔치를 베풀어 「시권試券」을 나누어 주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며 판본板本은 도산서원에 보관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현판은 정조임금의 「치제문」과 함께 1792(정조6)년 4월 20일에 붉은 비단에 써서 처음 걸었음이 「사제일기」에서 확인된다

1823년 가을에 서원을 방문한 선비의 여행기에도 확인된다.⁵⁾

현판을 걸었던 목적은 현판에 기록된 글을 서원에 방문하는 유생들이 읽고 임금의 뜻을 받들도록 함일 것이다. 그런데 붉은 비단을 써서 걸었음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 지금은 아무것에도 쓰여 있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 비단이 퇴색되기도 하였고, 전교당 중수重修를 하면서 현판을 내렸다 다시 걸면서 쓰인 비단이 삭아서 다시 사용이 어려워 쓰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판의 말미를 확인해 보면 각신 이만수가 기록하였고, 테두리에는 세로선대만 있고 국화의 꽃과 잎이 그려져 있다.

5) 河範運, 「東征日記」, 『竹塢集卷之四』, “十一月初一日乙丑. 早起. 焚香謁祠. 登典教堂. 堂中揭正宗大王壬子賜祭文. 而籠以紗”



도·산·서·원·이·야·기

43

상덕사

尙德祠



70.0×169.5cm



세계유산 등재 고유시 참례 장면
(2019.11.12. 서부훈 촬영)

주향主享에 퇴계선생, 종향從享에 월천조공月川趙公¹⁾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이다

서원의 가장 높고 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퇴계선생을 제자 월천조공이 모시는 곳으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행동해야 하는 곳이다. 사당祠堂은 선생을 뵈는 의례를 봉행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열어 놓는 곳이 아니다. 상덕사尙德祠라는 글자를 바로 우리말로 옮기면 ‘덕德을 숭상崇尙하는 사당’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덕을 숭상함이 로다, 이 사람이여!’(子曰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²⁾ 공자의 제자이면서 질서姪婿(조카사위)인 남궁괄南宮括(중국 춘추시대 말기 노나라 사람)이 활을 잘 쏘는 사람과 힘센 사람은 죽음을 당하였는데 농사를 짓던 사람은 임금이 된 사례를 공자에게 아뢰니 공자는 남궁괄이 나간 뒤에 남궁괄이 군자임을 밝히고 덕을 숭상崇尙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 즉 군자는 무예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보다 덕을 숭상하여야 한다는 『논어』의 가르침이다. 여기서는 퇴계선생의 학덕學德을 숭상하는 사당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덕사尙德祠는 예禮를 갖추어 퇴계선생의 덕을 숭상하여군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실천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일반적으로 자손子孫을 있게 한 조상의 신주神主 혹은 존상尊像(肖像畵, 胸像 等)을 모신 가묘家廟에는 묘호廟號가 없다. 그러나 훌륭한 선현先賢을 모시고 가르침을 계승繼承하고자 하는 서원書院이나 세덕사世德祠에는 묘호가 있다. 묘호에는 지명이나 모셔진 선현의 호 또는 시호諡號를 쓴 경우도 있지만 가르침을 요약한 묘호가 많다. 예외로 달성도 동서원道東書院(主享: 寒暄堂 金宏弼)과 함양 남계서원南溪書院(主享: 一蠹 鄭汝昌) 사당은 묘호가 없다. 공자를 모신 성균관이나 향교의 사당은 대성전大成殿이라고 하고, 석가모니를 모신 사찰의 본전을 대웅전大雄殿이라고 하여 성현聖賢을 모신 사당의 묘호에는 전殿을 쓴

1) 趙穆(1524~1606): 조선 중기 학자. 본관 橫城. 자 士敬. 호 月川 東臯. 퇴계선생의 문인. 15세부터 평생 동안 퇴계선생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선생역책 후에도 서원창설과 문집간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552년(명종 7) 生員試에 합격, 成均館 儒生이 되었다. 벼슬은 1576년 奉化縣監을 거쳐 1594년(선조 27) 軍資監主簿로서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고 이듬해 掌樂院正으로 전임, 1601년 司宰監正을 거쳐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평생을 청빈하게 지내며 학문 연구에만 뜻을 두어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집에 『月川集』, 저서로 『困知雜錄』과 퇴계선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편집한 『師門手簡』이 있다.

2) 『論語』「憲問篇」: “南宮适 問於孔子曰 羿 善射 奡 盪舟 俱不得其死 然禹稷 躬稼而有天下 夫子不答 南宮适 出 子曰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

다. 그러나 선현先賢을 모신 사당은 묘廟³⁾를 쓰거나 사祠⁴⁾를 쓴다. 묘와 사는 특별히 의미가 다르거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옛날에는 묘廟를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사당역사祠堂歷史를 보면, 서기전 24년(동명왕 14) 고구려국왕모신묘高句麗國王母神廟, 서기전 2년(온조왕 17) 백제국모묘百濟國母廟를 건립하였고, 358년(내물왕 3) 왕이 친사親祀하였다는 사실史實로 미루어 우리 민족의 사당[廟] 문화의 발상은 매우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꽃핀 유교문화는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군현郡縣마다 문묘文廟를 세웠으며, 서원에는 명현사우名賢祠宇를 세웠다. 상덕사는 1572년(선조 5)년 4월에 선생 제자들이 도산서당에 모여 사당을 창건創建할 것을 논의하여⁵⁾, 1574년(선조 7)년 4월 9일에 상량上樑을 하고⁶⁾ 이듬해 봄에 완공하여 여름에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1576(선조 9)년 2월 13일(丁丑, 陽3.13) ‘퇴도이선생退陶李先生’ 위패를 봉안奉安하였다.⁷⁾

그리고 1614(광해군 6)년 11월 9일(丁巳, 陽 12. 9.)에 월천조공月川趙公(諱 穆)을 종향從享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수리를 하였을 것이나 「기해묘우중수시일기己亥(1959년)廟宇重修時日記」서문에 1753(영조 18)년에서 1901(광무 6)년 사이에 5번 하였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3번을 수리하였다는 기록이⁸⁾ 전해지고 있다.

원위元位(退陶李先生)는 1576(선조 9)년 2월 13일(양력 3월 13일)에 모셨다가 1901년 11월 1일 묘변廟變으로 12월 17일(양력 1902년 1월 26일)에 다시 모셨고, 종향위從享位(月川趙公)는 1614(광해 6)년 11월 9일(양력 12월 9일)에 모셨다가 1809년 독櫓에 뱀이 들어 있어 개제改題하였다가 1901년에 또 개제하였다

3) 소수서원의 文成公廟, 옥산서원의 體仁廟 등.

4) 돈암서원의 崇禮祠, 필암서원의 祐東祠 등.

5) 「月川先生年譜」, 『月川先生文集』, “壬申(1572) 四月.會同門.議建尙德祠于陶山”

6) 「己亥(1959)廟宇重修時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十一月初四日 朝. 諸員探尋 廟宇上樑文有無. 則樑木有書云. 皇明萬曆二年(宣祖7. 1574. 甲戌)四月初九日上樑. 木手金莫同羅億壽劉銀金林千鄭石年金命同. 又其傍斗盤子內有書云”

7) 吳守盈, 「退溪先生履歷草記」, 『春塘文集卷之四』 “甲戌春.建書院陶山之南. 一鄉士子議以陶山先生講道之所. 不可無書院. 乃就書堂後數步而闢地營建焉. 翌年夏. 書院成. 賜額陶山書院. 丙子二月丁丑. 春. 奉安位版於陶山書院行釋菜禮. 是日. 廬江書院亦奉安位版行祭”

8) 「己亥(1959)廟宇重修時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寄), 「癸卯(1963)尙德祠重建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寄託), 「도산서원중수지」, 문화공보부, 1970.

『도산서원묘변시일기陶山書院廟變時日記』⁹⁾에 1901(고종38.신축)년 동짓달 초하루 아침 일찍 분향례焚香禮를 위하여 묘정에 들어가니 사당문 자물쇠가 부서졌고, 사당에는 원위의탁元位椅卓(퇴계선생)이 비어있고 독?은 제상위에 있었으며, 종향위從享位(月川趙公) 위판은 서쪽 협문 안에 옮겨져서 분면粉面(위패 앞면)이 벗겨져 있었다. 또 서쪽 담에 도적이 남은 흔적도 있었다. 사당의 퇴계선생 위판이 없어진 변고變故가 생겼다. 이 사건이 『황성신문皇城新聞』에 보도되고 11월 21일에 임금(高宗)께서 위판목位版木을 내려 12월 17일 10시경에 윤정雲庭(李元鎬, 1860~1919)이 다시 써서 봉안하고 예안군수禮安郡守를 겸임한 봉화군수[朴柱東]가 위안제慰安祭를 봉행하였다. 이 위안제에 5,6천명이 참례하였다고 하였다.

구위판舊位版은 이듬해 2월 28일(양력 4. 6.) 월란정사月瀾精舍 앞 강 가운데 바위에서 발견되어 도산서당에 모셨다가 3월 7일 상덕사 뒤 깨끗한 곳에 매안埋安하였다.¹⁰⁾

월천초공月川趙公은 1614(광해군 6)년 11월 상정上丁일에 위패를 처음 종향위從享位로 모셨다¹¹⁾. 그리고 1809(순조 9)년 5월 초하룻날 함안에 사는 박형욱朴馨郁 등이 알묘 후 봉심을 할 때 종향위 독櫨이 열려 뱀이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원임院任들에게 알렸지만 처음 있는 중대한 일이어서 의논을 거듭하다가 9월 4일 당회에서 결정하고 김종수金宗壽(1761~1813)가 개제改題하여 11월 16일 아침 6시경에 다시 모셨고,¹²⁾ 또 1901년 11월 1일 묘변시에 종향위 위패에도 분면이 벗겨져서 함산菡山(李康鎬, 1851~1894) 글씨로 개제하여 12월 17일 원위봉안 때 다시 모셨다.

상덕사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의례가 봉행되고 있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정월 초닷새 날 정알례正謁禮(다른 서원에서는 歲謁이라고도 함),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째 달의 중정일中丁日(日辰에 ‘丁’자가 있는 가운데 날)에 향사례享祀禮,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향알례香謁禮를 봉행하고, 비정기적으로는 조선시대 왕명王命으로 7번¹³⁾

9) 『陶山書院廟變時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0) 『舊位版埋安時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1) 『月川先生年譜』, 『月川先生文集』, “甲寅 十一月上丁. 啓請從享于陶山書院”

12) 『己巳從祀位改題時日記』,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13) 1615(광해 6)년 12월 27일, 1733(영조 9)년 12월 17일, 1756(영조 32)년 1월 18일, 1781(정조 5) 5월 22일, 1792(정조 16)년 3월 24일, 1816(순조 16)년 8월 20일, 1840(헌종 5)년 12월 13일.

의 치제致祭가 있었고, 퇴계선생과 서원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안事案을 퇴계선생께 아
되는 고유례告由禮와 선비들이 인사를 드리는 알묘례謁廟禮가 봉행된다. 정기적으로 봉
행되는 의례는 새벽(1시경) 또는 이른 아침(日出前)에 봉행하였으나 향알례를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낮(11시)에 봉행한다. 비정기적 의례는 정하여진 시각은 없으나 일몰日沒 후
에는 봉행하지 않는다.

경자(2020)년 봄 향사는 소략疏略하여 고유를 올렸다

2019년 12월 중국 무한武漢에서 발생한 신형페렴(Corona Virus Disease: COVID-19)
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특히 대구·경북지방에 만연하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어서 향사의 참례범위와 절차를 소략疏略하여
2020년 3월 5일(음력 2월 11일, 丁未) 11시에 봉행하였다. 즉 원위元位(退陶李先生) 제물은 삼
변삼두三邊三豆(말린대추, 잣, 말린 문어, 무우, 미나리, 생선젓갈), 종향위從享位(月川趙公)는 이변이
두二邊二豆(잣, 말린 문어, 무우, 생선젓갈)를 진설하여 원위에 헌관이 한 잔을 드리고 소략으로
봉행하는 사유를 아뢰고, 종향위에 유사가 한 잔을 올렸다.

본래는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유산 등재에 공로가 많은 이배
용李培鎔(74세, 女)박사를 초헌관으로 봉행하여 시대적으로 여성 뿐 아니라 외국인도 향
사에 잔을 올리는 등 성별과 국적 구분 없이 참여범위를 넓혀 서원문화의 세계화에 발
돋움하는 계기로 하고자 하였었다.

그리고 가을에 이배용李培鎔(74세, 女)박사를 초헌관으로 초빙하여 한국 서원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헌작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때 여성이기 때문에 당의唐衣
를 예복으로 착용하고 그 외 의절은 변함이 없었다.

사당을 출입할 때는 예복禮服을 입고 관리인[廟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퇴계선생을 뵈는 마음의 표현이며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예복은 전통
한복에 도포道袍를 입고 갓을 쓰는 것이다. 다만 유생은 갓 대신에 유건儒巾을 쓴다. 그
러나 향사 때에는 헌관獻官만 조선시대 관복官服을 착용하고 혁화革靴를 신고 각대角帶를
두르고 사모紗帽를 쓴다.

그런데 향사 때 헌관이 관복을 착용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교의식에 관복이 예복으로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서원은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림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벼슬아치가 의례를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원로元老들에게 질문을 하니 1960년대 이전에는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썼으나 1963년 9월에 상덕사 중수 후 고유 때 참례參禮하였던 당시 박경원朴敬遠(1921~?)경상북도 지사가 기증하여 관복을 입게 되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1747(영조 23)년 11월 25일에 영조英祖임금이 입직승지였던 청대靑臺(權惟一, 1679~1759, 諡 偉靖)에게 “제향 때 원장은 어떤 관복을 입고 유생은 어떤 관복을 입는가?”라고 물어서 청대는 “도산서원은 원장이 복두幘頭¹⁴⁾와 단령團領¹⁵⁾을 입고, 우리 도남서원道南書院(경북 상주시 소재)은 원장이 관을 쓰고 단령을 입으며 유생은 두 서원이 모두 두건을 쓰고 청금靑衿¹⁶⁾을 입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¹⁷⁾는 기록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는 복두와 단령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백관복百官服(一名 金冠朝服)을 착용하는 서원(돈암서원)도 있고, 흑직령黑直領(검은 도포)에 갓을 착용하는 서원(도동서원, 옥산서원)도 있다.

헌관 이외에는 도포와 갓 또는 유건을 착용하나 의례봉행 시각이 낮으로 바뀌면서 도포와 갓이 아니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참례를 허용하고 있고, 선비문화수련생 알묘에 별도의 재복齋服(남성: 옥색단령에 유건, 여성: 연두색 단령에 화관)을 착용하고 봉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여성헌관女性獻官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은 당의唐衣¹⁸⁾를 입도록 검토하고 있다.

가정의례에 집집마다 의절儀節이 약간씩 다르듯이 서원도 서로 같지 않다. 묘정廟庭과 묘우廟宇 출입 시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산서원 묘정廟庭은 평소에 동쪽 문으로 출입하다가 위패位牌의 이안移安과 환안還安 때와 사제賜祭 때 사신使臣은 중문中門으로 출입을 한다. 실례實例로 1970년 12월 8일 박정희 대

14) 幘頭: 紗帽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고, 뒤쪽 좌우에 날개가 달렸으며,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이다.

15) 團領: 깃을 둥글게 만든 袍로서 조선말까지 모든 관원이 평소 집무 복으로 착용한 공복이다.

16) 靑衿: 청색의 깃을 단 옷으로 유생들이 입는 옷이다.

17) 권상일(장재석 역), 『국역 청대일기 3』, 한국국학진흥원, 2015, 265쪽.

18) 唐衣: 조선시대에 상층 신분의 여자들이 입었던 예복의 하나. 활옷 원삼과 더불어 중국 당대의 복식에서 유래했다. 비(妃), 빈, 상궁, 사대부 부인들이 입었는데 저고리 위에 덧입었다. 색에 따라 연두 자주 남색 백색 당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연두당의이다. 계절에 따라서 겹당의 홑당의가 있으며, 겨울에는 주로 겹당의, 여름에는 홑당의를 입었다.

통령이 알묘를 위해 중문으로 출입하였다. 그때 사용하였던 나무로 만든 임시계단이 지금도 상고직사 고방庫房 문 앞에 있다. 대통령이 조선시대 임금과 같지는 않지만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임금에 버금가는 예우를 한 듯하다. 묘우廟宇출입은 동쪽 계단을 올라 축대의 기둥을 바깥으로 돌아서 중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동문으로 나와 기둥을 안쪽으로 돌아서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많은 알묘객이 중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중문은 일반적으로 신문神門으로 위패位牌, 제수祭需, 제기祭器, 축판祝板만 출입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교나 다른 서원에는 중문이 신문神門으로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기둥 바깥과 안쪽을 돌아서 출입하는 것은 조심하여 결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향사의절에도 홀기를 간단하고 요지만 읽도록 되어있고, 절차도 청행사講行事(행사를 청함), 전폐례奠幣禮(폐백을 드리는 의례), 헌작재배獻爵再拜(술잔을 드린 후 재배)가 생략되고, 음복수조飮福受胙(복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음) 다음 배례는 수희배受禧拜(복을 받는례)의 의미가 있다.¹⁹⁾ 또 예필禮畢(의례를 마침)은 전교당에서 파좌罷座(자리에서 흠어짐)를 한다.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의절儀節도 변變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물질만능 풍조가 만연되어 유교적 인성함양에는 소홀해지고 있다. 따라서 유교적 질서도 무너져 일부 유림들이 겨우 이어 오면서 극히 형식적 의례절차儀禮節次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선생을 모신 서원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으로 전통적 범절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여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

도산서원에서도 세속世俗을 거스를 수 없어서 2002년부터 여성의 상덕사 출입을 허용하고,²⁰⁾ 2009년부터 새벽[丑時, 01時頃]에 봉행하던 향사 등 의례를 낮[午時, 11時頃]에 봉

19) 李滉, 「文成公廟祭 笏記 改訂文」, 1549, 陶山書院古文書(韓國國學振興院 寄託), “釋奠儀受胙後四拜爲受禧拜也”

20) 陶山書院, 「陶山書院院規施行細則 및 儀節草」, 第5條(謁廟)③婦女子도 男子에 準하여 謁廟할 수 있다.(신설 2002. 4. 14. 대당회, 2002. 5. 13. 운영위원회 의결)

행하고,²¹⁾ 2012년부터 알묘시에 부득이하여 예복을 갖추지 못하여도 단정한 복장이면 참례가 가능토록²²⁾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전통적 범절을 무시無視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궁儒宮(선비들이 모이는 집)에서 지켜지는 의례나 범절은 유림儒林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모시는 선현先賢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성인聖人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 위 시행세칙, 第8條(享禮)①行祀=진설감정이 끝나면 諸員은 衣冠을 整齊하고 꿇어앉아 午時(午前 11時)를 期하여 獻官은 各己 官服을 갖추고 典教堂上에 南上西向 序立하면 諸執事들은 北을 上으로 庭中에 相向序立하여 庭揖禮를 행한 다음 享禮笏記에 依하여 享祀儀禮를 마치고 堂揖禮를 행한 뒤 各自 處所로 돌아간다(제1차 개정 2009. 2. 6. 당회 의결).

22) 위 시행세칙, 第5條(謁廟)②禮服이 準備가 되지 않았으면 端正하고 敬虔한 服裝으로 謁廟를 奉行할 수 있고, 再拜를 하기 어려울 程度로 人員이 過多하거나 拜席에 氷板 등 事情에 따라 鞠躬敬禮로 禮를 代身할 수 있으며, 希望者에 限하여 다시 廟堂안에 들어가 元位와 從享位를 各各 奉審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4. 운영위원회 의결).



향사 때 진설
(2014. 9.18.)



도·산·서·원·이·아·기

44

옥진각

玉振閣



80.5×177.0cm



‘옥진각’은 퇴계선생의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다.

1970년 서원보수공사를 하고 별도의 선생유물을 전시할 건물을 농운정사 서편에 세우고 당시 퇴계선생의 14대손이며 한학자인 연민淵民(李家源, 1917~2000)박사가 쓴 현판을 걸었다. 연민淵民은 우리나라의 선현과 서예 대가들의 필법을 두루 익혀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¹⁾고 한다.

공자를 찬미한 글에서 ‘옥진玉振’을 인용하였다. 『맹자孟子』의 「만장장구 하萬章章句 下」에 나오는 “공자는 ‘집대성集大成’한 분이라 말할 수 있다. 집대성은 금성옥진金聲玉振(善과 德)이다. 금성金聲[善]은 먼저 이뤄지고, 옥진玉振[德]은 그 다음에 이뤄진다. 처음에 이뤄지는 것은 지궤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뤄지는 것은 성궤의 일이다.”²⁾ 라고 하였다.

옥진玉振은 마음속에서의 울림이다. 이 울림으로 나타나는 음을 옥음玉音이라 하고, 이 옥음이 곧 성궤이며 덕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선생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며 아끼시던 생활 도구와 문방구, 심신수련의 집기와 직접 쓰신 선현들의 잠명, 그리고 책장을 펼치시던 서책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편지글들에서 선생을 뵈고 성궤스런 덕성德性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으로 전시관의 이름으로 정한 듯하다.



중국 곡부의 공묘 문에 새겨진 금성옥진

중국 곡부의 공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석방石闕에 금성옥진金聲而玉振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이니 공자의 옥음을 받들어 성스런 덕성을 감읍感泣하라는 뜻으로 새겼을 것이다.

1) [네이버 지식백과] 李家源(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孔子之謂集大成，集大成也者，金聲而玉振之也。金聲也者，始條理也；玉振之也者，終條理也。始條理者，智之事也；終條理者，聖之事也。

금성옥진金聲而玉振을 악기의 연주에서 시작과 마침을 비유하여 해석하였으나 근세에 본뜻에서 벗어난 해석이라는 연구 결과³⁾가 있다

1993년에 출토된 『곽점초간郭店楚簡』⁴⁾ 중에 「오행五行」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맹자보다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자사子思의 작품이다. 이 책에 금성金聲은 선善이고 옥음玉音은 성聖이다. 선善은 인도人道이고 성聖은 천도天道이다. 오로지 유덕有德한 사람만이 금성金聲을 실현한 다음에 옥진玉振을 울리게 한다. 오행은 인의예지성仁義禮智聖이다. 이 오행의 화해和諧가 덕德이고, 사행四行(仁義禮智)의 화해가 선善이다”라고 했다. 오행 안에 '신信'이 아니라 '성聖'이 들어 있다. 그 동안 '신信'이라고 한 것은 착오라고 한다.

이를 보면, 금성金聲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善이며, 옥진玉振은 마음속에서의 울림이다. 이 울림으로 나타나는 음을 옥음玉音이라 하고, 이 옥음이 곧 성聖이며 덕德이라는 것이다. 선善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화해라 했는데, 지智로부터 인의예仁義禮가 나오므로 지智가 곧 사행을 대표하는 품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성金聲 즉 선善이 첫 순서이고, 지智의 일이다’라는 말은 무리 없는 표현이다.

덕德을 구성하고 있는 오행의 안에 옥음玉音이라는 성聖이 들어 있다. 이 성聖은 성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가 없다. 덕德이나 성聖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금성옥진金聲玉振 즉, 선善과 덕德의 품성을 지닌 유덕한 군자가 성인인데 공자가 바로 성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금성옥진金聲玉振’을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이유로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첫째, ‘금성金聲’과 ‘옥진玉振’이라는 용어가 악기의 이름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옥진은‘옥경玉磬’이라는 타악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주악에 비유해서 설명하다 보니 본뜻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둘째, ‘시조리始條理’와 ‘종조리終條理’의 ‘시始’와 ‘종終’을 음악의 연주에 비유하여 ‘시

3) <http://onewings.blog.me/90154041178>.

4) 1993년 10월 중국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에서 발굴된 『곽점초간』에 실린 글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조 간문은 「노자」 갑, 을, 병, 「太一生水」, 「說之道」로서 도가의 문헌들이고, 제2조 간문은 「緇衣」, 「五行」, 「魯穆公問子思」, 「窮達以時」이고, 제3조 간문은 「唐虞之道」, 「忠信之道」이며, 제4조 간문은 「性」(「性自命出」, 「教」(「成之聞之」), 「六位」(「六德」), 「尊德義」이고, 제5조 간문은 「父無惡」, 「物由望生」, 「名數」로서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가 문헌들이다.

작'과 '종료'의 뜻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덕德의 핵심 요소인 성聖은 유시有始이나 무종無終이다. '종終'자를 '종료'의 뜻으로 해석하면 모순이 생기나, '연후然後'란 뜻으로 보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

'금성이옥진金聲而玉振'은 '선善과 덕德'의 뜻이다. 공자가 집대성集大成한 것은 고대 성인들의 선善과 덕德이고, 이를 모두 한 몸에 지닌 성인이라고 맹자가 공자를 찬미하는 글이다.

선생 유물은 본래 도산서당 완락재에 전시되어 있었다

옛 선현들이 심방시尋訪詩에 완락재玩樂齋에서 유물을 보면서 퇴계선생을 뵈는 듯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 옥진각은 1969년 10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지어진 건물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처음부터 부실공사不實工事を 하여서 온습도 조절이 되지 않고 비가 오면 누수漏水가 되어 유물을 적시기도 하였다. 원래 그 자리는 고직사를 드나드는 오솔길이 있었고, 디딜방앗간이 있었고, 기와지붕을 얹은 뒷간도 있었다. 오솔길은 열정淵井에서 기른 물을 물지게로 지고 다녔고, 강 건너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저 나르는 길이기도 하였다.

옥진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좌우대칭左右對稱으로 건물배치가 잘되어 있는 서원에 균형을 잃었다. 고색창연한 목조건물 군群에 웬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나. 건물구조가 유물전시에 맞지 않다는 등의 불평不評이다. 특히 문화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물도 본래대로 완락재에 전시하여 퇴계선생의 체취體臭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안동시에서 2013년에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서원을 둘러싼 사괴석 돌담도 헐어버리고, 옛날의 흙과 강 돌로 쌓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옛 건축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서원 건축의 역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산서원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외국의 건축전문가들 여러

사람이 다녀갔다.⁵⁾ 이 사람들은 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없애면 안 된다고 하였다. 담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원의 건축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풍수해 등 재난災難에 더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옥진각이나 돌담을 뜯어내는 것도 짓는 만큼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왕 지어져있는 것인데 그대로 두고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도산서원의 모든 건축물이 한꺼번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새로 짓거나 옮겨 짓기도 하였다.⁶⁾ 도산서원의 건축물은 418년 동안 지어졌다. 1557년 도산서당을 시작으로 1970년에 옥진각을 준공하였다. 곡구를 매몰하고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주차장을 닦아서 상가를 짓고, 관리사무소를 짓기까지 한다면 서원의 건축사는 더 길어진다. 안동시의 종합정비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도산서원의 건축역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5) 2014. 4. 6(일) Christina Cameron(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건축학 교수), 2015. 4. 29(수) Gu Zhan(郭전: 전 중국ICOMOS부위원장), 2015. 6. 9(화) Kristal Buckley(호주, 57세, 여성, 전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부위원장), 2016. 9. 16(수) Lynne D. DiStefano(여, 71세, 캐나다 출신, 홍콩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현 ICOMOS 캐나다 회원, 2009.9. 하회·양동 역사마을 실사자), 2018. 5. 28. 荻谷勇雅(Yuga KARIYA . 男. 1948年生) 日本 ECOMOS 副委員長. 2018. 9. 4. 鄭軍(ZHENG Jun) / 54세(1964年生) 中國 ICOMOS事務局長.

6) 1557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착공, 1561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준공, 節友社 構築, 1565년 亦樂書齋 建築, 1575년 典教堂과 尙德祠 竣工, 1775년 書閣 光明室 新築(正堂東頭 현재 없음), 1796년 試士壇 構築 및 碑閣新築, 1819년 東光明室 新築, 1867년 亦樂書齋 現 위치 重建, 1939년 西光明室 増建, 1932년 下庫直舍 移建, 1970년 玉振閣 新築, 1975년 進入路 移設.



도·산·서·원·이·야·기

45

역락서재

亦樂書齋



42.0×120.0cm



역락서재는 서원대문 밖 오른편에 담장이 따로 둘러쳐진 건물이다

1564(명종 19)년 처음 지어서 1781(정조 5)년에 옮겼으나 터가 맞지 않아 1867(고종 4)년에 지금의 자리인 서원대문 오른쪽에 다시 지었고,¹⁾ 1970년 정부에서 도산서원보수정화공사 때 보수하고 흙담을 돌담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농운정사 서편에 마루를 깔고 왼편에 부엌을 만들고 가운데 방을 둔 4칸 집이었다.²⁾

역락서재를 지현芝軒(鄭思誠, 1545~1607)의 아버지가 17세의 아들을 퇴계선생께 처음 가르침을 청하면서 지었다고 하여³⁾ 우스갯소리로 기부금 입학의 전통적 사례라고 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정사성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짓지 않았다.⁵⁾ 퇴계선생 시 「역락재 제군들에게 글 읽는 모임에 보낸다, 1564년[寄亦樂齋諸君文會 甲子]의 자주自註 ‘여러 사람이 서쪽 기슭에 띠집을 짓고 역락재라고 하였다.[諸人構茅舍於西麓.名曰亦樂]’라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지금의 역락서재는 정사성 후손이 주도하여 지역의 선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다고 한다.⁶⁾

역락서재를 처음 건립한 경위는 1561년에 월천月川(趙穆, 1524~1606)을 비롯한 제자들이 농운정사 곁에 몇 칸의 재실齋室을 짓고자 하여 선생께서 허락하니 일부 제자가 일을 크게 벌여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우려되어 선생께서 중단하라고 하였다가 그 후 1564년에 처음 시작한 제자들과 지현芝軒의 아버지가 예정했던 집을 짓고 이름을 역락재亦樂齋라고 하였다.⁷⁾

1) 李彙載, 「亦樂書齋移建記」, 『芝軒先生文集 附錄增錄』, “齋始構於嘉靖辛酉 正廟辛丑移建 基地不協 以今上四年丁卯 改卜院大門之右”

2) 鄭以周, 「亦樂齋記」, 『西原鄭氏文獻錄』, 淸州鄭氏花樹會, 1988 “隴雲之西 俾爲讀書肄業之地 東爲廳 而西爲廚 中爲室 凡四間也”

3) 鄭以周, 위의 기록, “吾先祖芝軒府君 亦其一也 府君之大人右尹公 築齋于”

4)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창작과 비평사, 1997, 150쪽.

5) 李野淳, 「童蒙齋記疑」, 『廣瀨文集卷七』, “亦樂之構亦非獨鄭公之事”

6) 李彙載, 앞의 책, “公之後孫諸人 主其事 鄉土助而成之”

7) 琴蘭秀, 「陶山書堂營建記事」, 『惺齋先生文集卷之三』, “辛酉李君美與趙士敬琴士任金愼仲琴夾之壩之金惇紱及蘭秀約搆數間齋室於隴雲之側以爲讀書肄業之所先生嘉其意而許之李君欲張大其事兩度出文遠近願入者亦多以至設施之境矣先生與士敬書曰齋姪輩欲於陶山構小屋意與聞遠德弘等隨便草造故不爲禁止今聞兩道出回文與於其事者二十餘人云爲今之計不得已又當止之速以此意通于聞遠若往竹溪必過榮川而見齋等詳告俾之云云其後始事諸人與鄭士誠搆齋於前日所擬之地名曰亦樂齋”

‘역락亦樂’은 『논어論語』 맨 첫머리에 나오는 글에서 따왔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몰라주어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⁸⁾이다.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공부하는 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선생 64세(1564년) 때 제자들이 역락서재에서 공부하다가 흠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으라는 면려勉勵의 시를 보내셨다.

역락재 제군들의 글 읽는 모임에 보낸다, 1564년

여러 사람이 서쪽 기슭에 띠집을 지었다. 이름은 역락이다.

寄亦樂齋諸君文會 甲子

諸人構茅舍於西麓.名曰亦樂

물가 바위에 의지하여 지은 띠집에
책을 끼고 어울려 얼마나 다녔던고
병들어 글 못 읽으니 한스럽구나
부디 여러분은 열심히 힘쓰시게나
함께 모여 글 읽는 즐거움이 어떠한가
역시 열심히 글 읽고 함께 갈고 닦는 것이지
계장에 혼자 누웠으니 생각이 끝이 없구나
달빛 일렁이는 냇가에 낚시터만 우뚝하네
요즈음 들으니 모두 돌아가겠다는군
돌아가서 구해보면 믿을 스승이 있으리
짧은 시간이라도 아까운 줄 알게 되면
그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차츰 터득하리라

依巖臨水搦茅齋
負笈○○幾往來
病廢攻書吾所歎
百千功力付羣才
羣居樂事問如何
亦在劬書共切磨
獨臥溪莊思不歇
滿川風月釣臺峨
近聞諸子各言歸
歸去求之信有師
能到寸陰堪惜處
此間眞樂漸因知

「退溪先生續集卷之二」

8) 『論語』 「學而篇」, “學而時習之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퇴계선생유묵
(111×52cm.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퇴계선생은 동몽재童蒙齋라고 하셨다가 역락서재亦樂書齋라고 하시고 현판글씨도 써 주셨다.⁹⁾ 이 글씨는 선생께서 61세에 쓰신 것으로 원본을 동광명실에 보존하다가 2004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보관하고 있다.

선생의 글씨에 대하여 도산서당 설명에서는 조선시대의 평을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는 현대인들은 어떤 평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였던 벽사碧史(李佑成, 1925~2018)는 “선생의 글씨는 평범한 듯하면서도 격格이 지극히 높고, 담백淡泊한듯 하면서도 신채神采가 드러나고, 온유溫柔한듯 하면서도 엄整嚴整한 기상이 배어 있고 정상正常 그대로이면서 변화가 잠재潛在해 있어서 보면 볼수록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¹⁰⁾ 고 하였고, 간송미술관의 최완수崔完秀(1942~, 號 嘉軒)는 “송설체의 유려한 필법 위에 왕희지 부자의 굳세고 단정한 필법을

9) 鄭以周, 위의 기록, “老先生命扁以童蒙者 -中略- 仍復以亦樂者”, 李彙載, 『亦樂書齋移建記』, 『芝軒先生文集 附錄增錄』, “以其意命名 又書與亦樂書齋四字”

10) 李佑成, 「서문」, 『한국서예사특별전(21) 退溪 李滉』, 예술의 전당, 2001, 7쪽.

보태려 하였으니 유려하면서도 굳세고 단정한 기품이 넘쳐난다.”¹¹⁾고 하였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兪弘濬(1949~ , 踏査記作家)은 “위나라 중요鍾繇¹²⁾의 부드러운 듯 힘 있는 서체를 구사하였다.”¹³⁾고 하였고, 안동대학교 교수 이효걸 李孝杰(1950~ , 동양철학)은 “선생의 글씨는 쓰면서 흐트러지기 쉽고 꾸미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을 빈틈없이 다지면 서도 원만하고 온유하게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붓끝 하나하나에서 또 붓의 흐름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요컨대, 퇴계선생의 글씨는 마음의 다스림을 글씨로 형상화하는 필법, 즉 심필의 새 세계를 열어낸 것이다. 그것은 결코 형태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거나 다스려지지 않는 내면적 예술정취를 쏟아내는 예필藝筆이 아닌 것이다.”¹⁴⁾라고 하였으며, 한국국학진흥원의 임노직 林魯直 박사는 “송설체의 유려한 필법 위에 왕희지 부자의 굳세고 단정한 필법을 모범으로 삼아, 글씨가 단정하면서도 근엄한 기품이 넘쳐 난다.”¹⁵⁾고도 하였다.

11) 崔完秀, 「서문」, 『한국서예사특별전(21) 退溪 李滉』, 예술의 전당, 2001, 10쪽.

12) 鍾繇(151~230): 중국 위나라 시대 정치가로 조조를 섬겼으며, 서예를 익히는 데 남다른 노력을 하여 예서와 해서에 특히 뛰어나 송대의 서예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서법사상 예서에서 해서로 발전해가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함으로써 왕희지와 더불어 종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진 남북조를 거쳐 당 송대에 이르기까지 서예계의 최고 본보기로 추앙받았다. 저서로는 「서법십이의」가 있으며, 훗날 양 무제와 장욱 안진경 등이 이에 대한 자세한 주석서를 써서 학에 공헌했다.

13) 유홍준, 『유홍준의 미술사 강의 3』, (주)놀와, 2013, 424쪽.

14) 이효걸, 「현판과 퇴계글씨」, 『향토문화의 사랑방 안동』, 2001년 11월(통권 77호)호.

15) 임노직, 「편역에 대한 이해」, 『한국국학진흥원 현판도록① 뜻이 담긴 현판 扁額』, 한국국학진흥원, 2009, 248쪽.



도·산·서·원·이·야·기

46

도산십이곡비

陶山十二曲碑



345×280×85cm

300×245×50cm



도산십이곡비 목판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陶山六曲之一

其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草野愚生이이러한대다 하도 하도 泉
石膏肓을니타미스름을보

其二

煙霞로지불삼니風月로반들사마太平 聖代에病으로들거가노이와와비
라니이르하미리니안미리자

其三

淳風이죽다하니眞實로거즈마리人性이이다하니眞實로우하미리天下
애許多英才를스지만도우하가

其四

幽蘭이在谷하니自然이든다도해白雪이在山하니自然이모다도해인들
에彼美一人를다오니다도해와애 一가인대위하인우하니다도해다도해

其五

山前에有臺하니臺下에有水로다때만하를타기이아명가명하니도있
다皎皎白駒를타미리다도해와거니

其六

愚夫도인대하거니이아니심우가聖人도존다하거니이아니어려우가심거
나어려우니심우에하거니를타미리

도산육곡의 첫 번째

[1]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골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들 어떠리.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 하리.

[2]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빛으로 벼를 삼아
평화롭고 성스런 시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러한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3]

순박한 바람이 죽었다 하는 말이 진실로 거짓말이.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하는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

하늘 아래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을 속여서 말씀할까?

[4]

그윽한 향기의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히 좋아.

흰 구름이 산에 걸려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아.

이러한 가운데 저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5]

산 앞에 대臺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떼를 지어서 갈매기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새하얀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6]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와 그것이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 다 행하니, 그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늪어가는 줄을 모르노라.

陶山六曲之二

其一

天雲臺도라드러琬樂齋蕭洒호디萬卷生涯로樂事ㅣ無窮호야라이등에
往來風流를닐어므스름은그

其二

雷霆이破山호야도聾者는모든느니白日이中天호야도聾者는모든느니
우리는耳目聰明男子로聾聾느디마로리

其三

古人도남몰보고나도古人몰외古人를몰봐도너덜덜알피이니너덜덜알
피잇지든아니너고엇덜고

其四

當時에너덜것을면히를트려두고어디가느니다이제사도라온고이제
나도라오나나년의미숨마로리

其五

靑山는엇대호야萬古애프르며流水는엇대호야晝夜애긋다아니느고
우리도그치디마라萬古常靑호리라

其六

春風에花滿山호고秋夜애月滿臺라四時佳興ㅣ사롭과호가지라호믈며
魚躍鳶飛雲影天光이아어느그지이슬고

[1]

천운대를 돌아서 완락재가 맑고 깨끗한데
많은 책을 읽는 인생으로 즐거운 일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오고가는 풍류를 말해 무엇할까.

[2]

벼락이 산을 때려도 귀먹은 사람은 못 듣나니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어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나니
우리는 눈 귀 밝은 사람으로 귀 먹고 눈 먼 사람 같지 말아라

[3]

옛 어른이 나를 못 보고 나도 옛 어른을 뵈지 못해.
고인을 뵈지 못해도 가시던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가시던 길 앞에 있으니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떨고?

[4]

그 당시에 가시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 온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5]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오래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6]

봄바람에 꽃이 산을 덮고 가을밤에 달은 누각에 가득 차누나.
네 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천지조화의 오묘함이야 어느 끝이 있을까.

도산십이곡비는 퇴계종택으로 가는 길 입구에 세워져 있다

안동시에서 2001년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퇴계선생 시비
공원과 함께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다. 2020년 3월 안동시에서 탐방객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추로지향 비 옆)에 옮기고
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하니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2020. 3.

11. 14:00~19:10)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옮기지 못했다.¹⁾ 다시 심의를 요구하여 많은 탐방객이 읽고 퇴계선생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후육곡後六曲」중 다섯 번째 시조는 부산어린이대공원 구역 내'시가 있는 숲'이라는 곳에도 근현대 시인들의 작품과 함께 돌에 새겨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목판을 만들어 도산서원 장판각에 보관하면서 탁본拓本을 하였으나 2004년부터 화재와 도난의 우려가 있어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위탁보관하고 있다.

비석은 자연석에 한자의 예서와 비슷하게 황재국黃在國(서예가, 강원대 교수)이 쓰고, 이창호(조각가, 문경 '조각하는 사람들' 운영)가 새겼다.

선생께서 도산서당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여 성정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선생 65세(1565년)에 도산에 은거隱居하신 뜻을 밝힌 「전육곡前六曲(言志)」과 학문과 수양으로 성정性情 순화를 위한 「후육곡後六曲(言學)」을 짓고, 3월 16일에 그 경위와 이유 그리고 활용방안까지 밝힌 발문²⁾이 『퇴계선생문집권지사십삼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三』에 수록되어 있고, 시조는 『청구영언靑丘永言』³⁾에 실려 있다.

도산십이곡 발문

위(右)의 도산십이곡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 가곡이 대체로 음란한 소리가 많아서 말할 수가 없다. 한림별곡과 같은 종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자랑하고 뽐내며 방탕한데다가 하는 짓이 무례하고 장난삼아 가까이 하는 것이니 더

1) 문화재청. 2020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문화재청 홈페이지)

2) 李滉, 「陶山十二曲 跋」,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三 跋』,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吾多淫蛙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哉 其有溫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顧自以蹤跡頗乖 若此等閑事 因以惹起鬧端 未可知也 又未信其可以入腔調備音節與未也 姑寫一件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 覽者之去取云爾.嘉靖四十四歲己丑 暮春 既望, 山老 書”

3) 金天澤 編, 『靑丘永言』, 1728:조선 영조 때의 歌人 南坡 金天澤이 여러 사람의 시조를 모아 1728년(영조 4)에 엮은 고시조집, 『海東歌謠』, 『歌曲源流』와 함께 3대 가집으로 꼽히는 책이다

육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었다. 다만 요즘 이별李離의 육가六歌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많이 전하는 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보다는 낫지만, 또한 애석하구나.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적고 세상을 희롱하니 공경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으며 온유돈후한 내실이 적다. 노인이 본디 음률[雅樂의 五音六律]을 이해하지 못하나 세속적인 음악을 듣기는 싫어하였다. 한가하게 살며 자연을 좋아하다가 무릇 성정性情에 감응하는 것이 있으면 매번 시로 표현하곤 하였다.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 읊조릴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일 이를 노래하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말로 엮어야 하는데, 이는 대개 우리말 음절이 부득불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별의 육가를 대강 모방하여 도산 육곡 두 편을 지었다. 기일其一에는 ‘지誌’를 말하고, ‘기일其二’에는 ‘학學’을 말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히어 노래하게 하고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하였다. 바라건대 가히 더럽고 인색한 마음을 말끔히 씻어 느낌이 나오게 되고 융통하게 되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나의) 자취가 (세속과) 매우 어긋나서, 만일 이러한 한가로운 일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꼬투리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또한 그것이 곡조腔調에 잘 들어맞을지 미덥지 않고 음절音節에 잘 어울릴 지도 알지 못하겠다. 우선 한 부를 베껴 상자에 보관하며 때때로 꺼내어 봄으로써 스스로 반성하고, 또한 후일을 기다려 현명한 자가 버리거나 거두기를 기다릴 뿐이다. 1565년 3월 16일 도산노인(李滉) 씀.

[翻譯: blog.naver.com/min652]

선생의 수많은 저술 가운데 한글로 지은 글은 많지 않다. 더욱이 당시의 한글 표기 등 국문학상 중요한 작품으로 연구되고 있으며,⁴⁾ 또 최근에는 현대음악으로도 작곡되어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성교수가 작곡하여 발표⁵⁾한 악보이다.

4)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http://u-lib.nanet.go.kr:8080/>)한 바 단행본 4권(도서 2, 세미나자료 2), 학위논문 21편(박사 5, 석사 16), 학술지 게재논문 60편의 연구서가 발표되었다.

5) 김종성.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樂은 마음의 움직임이다.』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88~91쪽

The Way They've Gone

그분들이 가신 길

<도산십이곡>

퇴 계 작사

김종성 작곡

English by Sami Lee

현대 말 도산서원참공부모임

남성(여성) Male (Female) 



- | | | | | | | | | |
|-----|---------|-----|-----|-----|-----|----|-----|------|
| | Someone | you | ne- | ver | met | me | be- | fore |
| | 옛 | 사 | 람 | 도 | 날 | 못 | 보 | 고 |
| 9. | 고 | 인 | 도 | | 날 | 몬 | 보 | 고 |
| 1. | 이 | 런 | 들 | | 엇 | 다 | ㅎ | 며 |
| 2. | 연 | 하 | 로 | | 지 | 블 | 삼 | 고 |
| 3. | 순 | 풍 | 이 | | 죽 | 다 | ㅎ | 니 |
| 4. | 유 | 란 | 이 | | 재 | 곡 | ㅎ | 니 |
| 5. | 산 | | 전 | | 유 | 대 | ㅎ | 고 |
| 6. | 춘 | 풍 | 에 | | 화 | 만 | 산 | ㅎ |
| 7. | 천 | 운 | 대 | | 도 | 라 | 드 | 러 |
| 8. | 뇌 | 정 | 이 | | 파 | 산 | ㅎ | 야 |
| 10. | 당 | 시 | 예 | | 녀 | 던 | 길 | 흘 |
| 11. | 청 | 산 | 느 | | 엇 | 데 | ㅎ | 야 |
| 12. | 우 | 부 | 도 | | 알 | 며 | ㅎ | 거 |
| | | | | | | | | 니 |

Am(Dm) C(F) E7(A7) Am(Dm)



Someone I ne- ver met you be- fore
 9. 나 도 고 사 람 인 뵈 몬 지 못 해 뵈
 1. 더 런 돌 엇 다 하 료
 2. 풍 월 로 버 들 사 마 리
 3. 진 실 로 거 즈 마 리
 4. 자 연 이 든 디 도 해
 5. 대 연 하 에 유 수 도 로 다
 6. 추 야 애 월 만 대 라
 7. 완 락 재 소 췌 혼 디
 8. 농 자 는 몬 든 는 니
 10. 몇 희 를 브 러 두 고
 11. 만 고 아 프 르 르 운 며
 12. 귀 아 니 켜 쉼 가

G(C) F(Bb) G(C) E7(A7)



Though we never me- t e- ver be- fore
 9. 옛 고 사 람 들 뵈 몬 지 못 해 도
 1. 초 야 평 우 생 이
 2. 태 인 성 평 어 다 대 예
 3. 인 성 이 어 다 하 니
 4. 백 운 이 재 산 하 니
 5. 때 만 이 곁 며 기 는
 6. 사 시 시 가 흥 |
 7. 만 권 권 생 애 로
 8. 백 일 이 중 천 하 야 도
 10. 어 되 가 든 니 다 가
 11. 유 수 는 엇 데 하 야
 12. 성 인 도 몬 다 하 시 니



- What lies a- head is their way
가 시 던 길 앞 에 있 네
9. 녀 던 길 앞 에 있 네
1. 이 러 타 엇 다 흥 료
2. 병 오 로 늘 거 가 뇌
3. 진 실 로 을 훈 마 리
4. 자 연 이 보 디 도 해
5. 오 명 가 명 호 거 든
6. 사 롬 과 훈 가 지 라
7. 낙 사 무 궁 흥 보 애 라
8. 고 자 는 못 보 는 니
10. 이 제 사 도 라 온 고
11. 주 야 아 에 디 아 니 고
12. 귀 아 니 어 려 운 가



- A- s the way lie- s a- head
가 시 던 길 앞 에 있 으 니
9. 녀 던 길 앞 에 있 으 니
1. 흥 물 며 천 석 고 황 을
2. 이 등 에 천 브 라 는 이 른
3. 천 하 애 허 다 영 재 를
4. 이 등 에 고 온 흥 니 물
5. 엇 다 에 교 백 구 는
6. 흥 들 며 아 연 비 운 천 광 이 사
7. 이 등 에 왕 래 풍 류 를
8. 우 리 는 이 목 충 명 남 자 로
10. 이 제 나 도 라 오 나 니
11. 우 제 리 치 디 마 라
12. 쉽 거 나 어 렵 거 닷 둥 에



- With a fa- vor I will follow them
아 니 가 고 어 쩌 겠 나
9. 아 니 녀 고 엇 덜 고
1. 고 터 므 슴 흐 료
2. 허 므 리 나 므 업 슴 흐 료
3. 소 겨 말 슴 홀 고 자
가
4. 더 옥 닛 디 몬 흐 뇌
5. 머 리 므 슴 흥 는 고
6. 어 녀 그 지 이 슬 고
7. 닛 어 므 슴 홀 고
8. 농 고 큰 디 마 호 로 리
10. 년 디 므 슴 마 로 리
11. 만 고 상 청 호 리 라
12. 늙 는 주 를 물 래 라



목상버전

The Way They've Gone
그분들이 가신 길
<도산십이곡>



라이브버전

"휴대폰의 <QR코드리더>를 위 그림에 대시면 음악 나옵니다"

「도산십이곡」 해설

퇴계선생은 스스로 「도산십이곡」을 「이별육가李離六歌」를 모방해서 지었다고 밝히고, 아울러 전육곡前六曲 후육곡後六曲으로 나눈 후 전자를 ‘언지言志’, 후자를 ‘언학言學’이라고 규정했다. ‘언지’의 ‘지志’는 성정의 올바른으로서 정감이 아닌 이성理性을 의미하고, ‘언학’의 ‘학學’은 주자학의 심오한 이치이거나 혹은 배움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은 현대의 서정시와 같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작품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쉽다. 퇴계선생은 「도산십이곡발(후기)」을 지어 독자에게 그 시세계詩世界를 밝혔다. 시를 창작한 것이 아니다. 가곡歌曲의 노랫말을 지

었다. 동방가곡東方歌曲의 주제가 대체로 음란하고 건전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함께 불려도 좋을 건전가요를 보급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다. 당시 가곡의 음란성은 물론이고 당대 현실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워 했다. 따라서 퇴계선생은 당시의 대중가요인 세속의 음악을 듣는 것을 꺼렸다. 「도산십이곡」을 완성한 후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르게 하고, 춤까지 추게 하고자 하셨다. 「도산십이곡」은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정서가 순화되고 원만한 심성을 갖게 하는 가곡이며,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어 온유둔후溫柔敦厚의 경지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퇴계선생은 생각했다. 「도산십이곡」에 대한 작자의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동방가곡의 음란성과 「한림별곡」류의 교만 방자함과 「이별육가」의 세상을 비아냥거리는 따위의 성격을 지닌 당시 속악俗樂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우리의 가곡을 속악으로 인식한 것은 아악雅樂을 염두에 둔 시각이다.

「도산십이곡」은 동양의 예악사상禮樂思想과 연결된 단가短歌의 가사歌詞이다. 퇴계선생은 조정의 아악이 아닌 향당鄉黨의 가곡으로 「도산십이곡」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고, 또 그 기대가 십분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영남의 가곡으로 되었으며, 아울러 선비들의 대표적 가곡으로 발돋움했다. 「도산십이곡」은 명종 20년(1565) 퇴계선생 65세에 완성된 만년의 작품이다. 원숙의 경지에 이른 대석학의 심오한 학문과 고매한 인격이 고도의 미적 구도 속에 용해되어 있다. 퇴계선생은 전육곡 언지 네 번째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히 듣디도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히 보디도해, 이듬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하애라고 노래했다. 도산은 은둔지隱遁地가 아니다. 임금님(彼美一人)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연장선상이다. 깊은 숲 속의 난초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윽한 향기를 발한다. 남들이 주변에서 자신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향기를 발하지 않는 법은 없다. 산마루를 넘나드는 흰 구름 역시 그렇게 있는 것이다. 깊은 숲속의 난초와 산마루의 구름처럼 의연한 자세를 지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후육곡 여섯 번째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 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한가지라, 하말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그지 이슬고에서 봄날 산을 뒤덮은 흐드러진 꽃들과 정대亭臺에 교교하게 비치는 달빛을 묘

사하면서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구가했다. 사계절의 가흥을 사람과 함께 한다. 라고 노래한 구절은 정호程顥(1032~1085)의 시 「추일秋日」의 사계절의 흥취로 사람과 함께 한다(四時佳興與人同)와 거의 흡사하다. 물아일체는 흔히 서정자아抒情自我가 강호江湖의 미경美景에 몰입하는 경지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강호에 존재하는 갖가지의 자연물 하나하나를 모두가 그들 나름의 흥이 있다는 인식은 고대의 만물유령萬物有靈의 사유思惟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 모든 자연물에 있다고 여겼던 '영혼'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서 성리학적 '리理'와 '흥취'를 넣었다. 위에 인용한 단가에 등장하는 꽃과 고기 등의 자연물도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과 함께 대등하게 리理를 가졌거나 또는 흥취를 공유하는 경지가 바로 물아일체이다. 연못에 뛰노는 고기와 하늘을 나는 술개 등은 사람의 종속물이 아니고 대등한 독립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외물인식外物認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은 서양의 서정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가문학(時調)을 서양의 서정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학의 후육곡 여섯 번 째 우부愚夫도 알며하니 괴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몰다하시니 괴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중에 늙난주를 몰래라에서 퇴계선생은 학문의 특성을 극명하게 밝혔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학문이다라는 속설俗說을 시로 형상하여, 스스로 어리석고 재주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학문에 뜻을 두게 했다. 그러나 범부凡夫가 물색없이 학문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나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聖人도 다하지 못할 만큼 광대무변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마도 '학문'을 제재로 하여 쓴 시가작품 중에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도산십이곡」을 따라잡을 작품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근래에 분방한 감성을 노래한 작품들을 무리하게 추켜세우고, 단아端雅한 이성理性을 형상한 시가들을 지나치게 폄하한 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溫厚敦厚한 품격品格으로 창작된 「도산십이곡」은 현대에서도 재평가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도산십이곡」은 한국의 시조, 즉 단가문학史短歌文學史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작품이다. 단가를 여흥 차원에서 격상시켜 정서 순화는 물론이고 진일보하여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百姓을 교화하고 이끌어 간다는 중세의 예악사상이 깔려 있다. 퇴계선생은 백성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건강한 민족가요民族歌曲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지녔다. 「도산십이곡」은 이 같은 퇴계의 악무인식

樂舞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었다. 「도산십이곡」 발문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게 했다(自歌而自舞)’라고 밝혔다. 「도산십이곡」을 노래할 때의 춤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세속에 유행하는 춤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의 주제는 ‘지志’와 ‘학문’이다. 신바람 나는 정감도 아니고 이른바 남녀 상열男女相說의 애정도 아니다. 이같이 딱딱한 주제를 형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퇴계선생이 창작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작품으로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퇴계선생은 탁월한 미의 식美意識을 지니셨다. 당시 범 동양권의 주된 주제의식主題意識은 문이재도文以載道였다. 문학은 성리학적 도道를 형상해야 한다는 풍조는 조선조 사단詞壇의 주류였다. 이는 자칫 시가를 사변적인 도학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뒤따른다.

퇴계선생은 이 같은 유가적 문예의식의 약점을 강호의 미경美景을 매체로 활용하여 생경生硬에 흐를 소지를 제거했다. 「도산십이곡」은 주리적主理的 성정性情을 강호를 매개로 하여 형상形狀한 단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조선조 시조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산·서·원·이·아·기

47

석간대

石礪臺



142.0×35.0×19.0cm



석간대 암각시

본래 석간대石礪臺는 지금의 석간대 아래 선착장 자리이다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강 쪽으로 내려가면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줄기가 강변에 닿는 끝에 터를 닦고 목책을 두른 곳에 오래된 비석碑石이 하나 세워져 있다. 무심코 보면 낡은 돌기둥 같다. 자세히 보면 ‘석간대石礪臺’라는 글씨를 찾을 수 있다. 이곳은 안동댐으로 인하여 1975년에 터를 닦고 비석을 옮겨 설치한 곳이다.

안동댐이 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주차장에는 논과 밭이 있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있었다. 지금의 선착장은 계곡의 입구였다. 도산서원에서 온혜 합강이라는 마을로 통하는 고개 길이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도산서원을 찾아 올 때 이 길을 이용하였다. 퇴계선생도 새벽에 온혜에서 도산서당에 이 길로 오셨다는 시를 남기셨다.

새벽에 온혜로부터 성현을 넘어 도산에 이른다

晨自溫溪，踰聲峴至陶山

새벽에 이슬 내려 옷 젖어 촉촉하고

曉霧侵衣濕

여윈 나귀 채찍해도 고개넘기 어렵네.

羸鞭越峴艱

길고 짧은 소나무는 나란히 서있고

短長松並立

희고 누른 국화는 서로 아롱지네.

黃白菊相斑

고요한 사립문은 멀게만 보이고

閑寂柴門迥

성긴 대나무가 있는 집은 차가울 뿐이네.

蕭疎竹院寒

저녁나절 가까우니 날씨가 좋아서

晚來風日好

말없이 홀로 앉아 가을 산을 바라보네.

凝坐望秋山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이 계곡을 한문으로 쓴 문헌에는 성동聲洞이라고 하였고, 주민들은 ‘삼골’이라고 하였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았으며, 장마가 아니면 거의 일정한 수량水量으로 흐르고 있었다. 제법 넓적한 바위를 넘어서 떨어지는 작은 폭포도 있었고 가재도 많이 살고 있어서 여름이면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였다. 퇴계종택으로 넘어가는 길에서 동쪽으로 임도林道를 따라 가다보면 길 아래에 작은 습지濕地가 있다. 이 습지가 겨울에도 얼지 않고 가물어도 일정량의 물을 흘려 보내고 있다.

퇴계선생께서 농암讐巖선생을 모시고 노니셨고, 당시 경주부윤 귀암公龜巖公을 송별送別하신 곳이기도 한다

석간대石間臺를 청계대淸溪臺라고도 하였다. '석간石間'은 주자朱子 시 「기산중구지寄山中舊知」 칠수七首가운데 첫째 수 '구름 골짜기 떠집 지으니 산골짜 개울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네(結茅雲壑外 石間流淸泉)'에서 인용하였다¹⁾고 하나, '청계淸溪'라는 이름은 어느 글에서 근거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아마도 맑은 개울이었으니 '청계淸溪'라고 한 듯하다.

퇴계선생이 62세(1562년) 3월 3일에 도산서당에서 나오셔서 배를 타고 청계에 이르러 시냇가에 대를 쌓고 청계대淸溪臺라고 하셨다.²⁾ 또 석간대石間臺 또는 간석대礪石臺라고도 하신 듯하다. 이날 옛날 이곳에서 농암선생을 모시고 노닐던 감회를 읊으신 시의 제목에는 간석대礪石臺라고 하셨다.

간석대에서 답청놀이 하다

푸른 돌 깨어 여니 샘이 날으듯 솟으니
메는 끊겨 문이 되고 물은 앞을 돌렸네.
난정을 모방하려고 모여 되새기고
구장³⁾의 뒤를 따라 올랐던 일 생각나네.
선선놀이 함께 못해 구름 돌아가고
기쁜 일 끝없어 느낌 절로 얹혔도다.
돌을 포개어 대를 쌓음이 좋은 일 아니나
옛 자취 못 잊어 뒷세상에 전하련다.

礪石臺踏靑

擘開靑石出飛泉
山斷如門水抱前
擬作蘭亭追勝會
憶陪鳩杖破荒烟
仙遊不與雲俱返
樂事無端感自纏
壘石作臺非好事
欲將陳跡永流傳

讐巖先生嘗遊此澗 「退溪先生文集卷之三 詩」

1) 안동문화연구회 편, 『안동의 바위글씨』, 안동시, 2002, 170쪽.

2) 『退溪先生年譜卷之二』, 六十二歲, “三月上巳. 出陶山. 乘舟抵靑溪. 臨溪築臺. 名曰靑溪臺”

3) 鳩杖: 손잡이 꼭대기에 비둘기 모양을 새긴 지팡이. 국가의 공신이나 원로대신으로 70세가 넘는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날 때 임금이 하사하였다. 비둘기는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으므로 체하지 말고 건강하라는 뜻에서 구장을 주었다고 한다. 『後漢書』에 의하면 70세가 넘는 고관에게 玉杖을 주었는데, 이 옥장이 바로 비둘기를 새긴 구장이라 하였다. 한 국에서도 신라 때부터 70세가 된 사람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고, 杖을 주었는데, 이것도 구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농암선생을 이른다.

같은 달 16일 경주부윤 귀암龜巖(李楨, 1512~1571)이 도산서당에 와서 3일간 머무르다가 돌아 갈 때 퇴계선생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작별한 곳이기도 하다. 이때 생각을 시를 지어서 보내려고 하였는데 유상劉商(? ~?, 중국 당나라 시인)의 「동곡으로 돌아가는 왕영을 합계에서 전송하다合溪送王永歸東郭」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이를 써서 보내주었다.⁴⁾

| | |
|------------------------|---------|
| 그대 가니 이 봄을 누구와 더불어 노닐꼬 | 君去春山誰共遊 |
| 새 울고 꽃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 | 鳥啼花落水空流 |
| 이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 | 今朝送別臨流水 |
| 그리워 만나려면 물가로 다시 오리라. | 他日相思來水頭 |

창설재蒼雪齋가 도산서원 동주(洞主:上有司) 재임 때 축대를 수리하고 표석을 세우고 절벽에 시를 새겼다

1715(숙종 41)년 창설재蒼雪齋(權斗經, 1654~1725)가 도산서원 동주洞主로서 계상일원에 도학연원방道學淵源坊을 복원하였다. 이때 석간대도 역시 중국 성현聖賢들의 유적을 보존하는 사례를 들어 후학들이 반드시 보수하여 보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⁵⁾ 돌을 쌓고 흙을 얹어 축대를 수리하였다. 또 서쪽 암벽에 퇴계선생 6세손 병암屏巖(李守仁, 1690~1737)이 쓴 유상劉商의 시와 경위⁶⁾를 새겼다. 육유재六有齋(金鑄, 1657~1732)가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 한 구절의 뜻을 보내와 창설재는 운자를 받아 답을 받든다고⁷⁾ 하고 또 석간대를 수리한 감회를 읊었다.

4) 鄭錫胎,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3』, 退溪學研究院, 2005, 165~166쪽.

5) 權斗經, 「溪上遺址建屋表坊考證」, 『蒼雪齋先生文集卷之十一』, “以刻劉商絕句爲太多事者觀於朱夫子惓惓於陶公醉眠之石者則庶可以反求而得其意矣朱子又自長沙趨朝趙趙清獻公遺墟致恨於三亭之蕪沒不得追尋晚步遺跡有高山仰止之歎而冀其有以復之又以司馬溫公獨樂園囑儲行之使刻石以傳後曰前賢遺迹正爾何關人事而使人想像愛慕不能忘至欲見之圖畫之間使其流傳之遠而不至泯滅云爾則其所以懼遺墟之蕪沒欲無至於泯滅者所感之深用意之遠豈非後學之所當體念而講會者歟”

6) 이 시는 당나라 사람의 절구이다. 1562년 3월 노선생께서 이귀암을 이 대에서 송별하며 이시를 써서 보냈다. 1715년 2월(此唐人絕句也 嘉靖壬戌三月 老先生送別李龜巖於此臺書 此詩贈行 乙未二月).

7)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卷之六 詩』, 耆後稿, “陶山下流數百步. 有石礪臺. 老先生遺蹟在焉. 嘉靖壬戌. 先生送李龜巖於此. 適值春暮. 遂寫劉商絕句君去春山誰共遊. 鳥啼花落水空流. 今朝送別臨流水. 他日相思來水頭之詩以贈其行. 歲久而毀. 行人取路踏破. 過者莫復省識. 余爲洞主. 使院僕疊石畚土. 修而築之. 雜植花木. 刻石以表之. 又刻劉商絕句於臺西巖面. 使後人摩挲想像而寄懷於當日. 金兄鳴久 鏞 聞而喜之. 寄一絕致意. 次韻奉答. 浮世滄桑遞變更. 山頽石老古臺傾. 欲知補築慇懃意. 此地曾經送遠行.”

도산 하류 수백 보에 석간대가 있으니 여기에 노선생의 유족이 있다. 가정 임술(1562)년에 선생께서 이귀암을 이곳에서 전송하셨는데 마침 늦은 봄을 맞았다. 유상劉商의 절구 시를 써서 그가 가는 길에 선물로 주셨다.

세월이 오래되어 허물어지니 행인들이 길을 내어 짓밟아 지나가는 자들이 다시 알아볼 수 없었다. 내[權斗經]가 동주洞主가 되어 서원의 노비들로 하여금 돌을 쌓고 흙을 가져다가 붓고 수리하여 쌓고 꽃과 나무를 섞어 심게 하고 돌에 새겨 표시하였다. 또 유상劉商의 절구를 대臺의 서쪽 바위 면에 새겨 후인들로 하여금 어루만지며 생각하게 하고 당시의 감회를 붙였다. 김형 명구鳴久 용鑄이 듣고 기뻐하여 절구 한 수를 부쳐와 뜻을 전하니 차운次韻하여 공경하게 답하였다.

| | |
|---------------------------|---------|
| 덧없는 세상 상전벽해처럼 바뀌고 고쳐져, | 浮世滄桑遞變更 |
| 산 무너지고 돌 닳아 예전의 대가 기울어졌네. | 山頽石老古臺傾 |
| 보충하고자 하는 은근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 欲知補築殷懃意 |
| 이곳에서 일찍이 먼 길 전송해봐야 하리. | 此地曾經送遠行 |

| | |
|----------------------------|----------|
| 석간대 수축하는 일을 마치고 절구 한 수를 짓다 | 既修石礪臺成一絕 |
| 회상컨대 선생께서 여기서 전송하실 때는, | 緬憶先生此送行 |
| 봄 산에 꽃 지고 새들이 앵앵거렸지. | 春山花落鳥嚶嚶 |
| 지금은 물과 돌이 쟁그랑하며 부딪치는 곳, | 至今水石鏘鳴處 |
| 당시의 패옥 소리 방불케 하네. | 彷彿當年玉佩聲 |

「蒼雪齋先生文集卷之六 詩 耆後稿」

그리고 옛날 농암선생을 모시고 답청놀이를 한 것을 회상 하면서 1562년에 지은 시 「간석대에서 답청놀이를 하다[礪石臺踏靑]」와 ‘경주부윤 귀암과 헤어질 때 써서 준 시’를 앞뒤에 새긴 비석을 2017년 관리사무소(소장 박기현)에서 현재의 석간대 뒤편에 세웠다.



석간대 앞 섶다리
(1960.11.23 국가기록원 제공)



석간대 시비
(2010. 1. 29. 이동구 촬영)



도·산·서·원·이·야·기

48 마무리

부록

퇴계선생 위패봉안 서원현황

퇴계선생 관련 유물유적 문화재지정내역

도산서원 연혁

도산서원의 현판 등을 주제로 발표된 연구서나 논문 그리고 해설 책자는 많지 않다

아마도 다른 서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사찰이나 누정의 현판과 비석에 대한 저술들은 많으나 서원은 그렇지 못하다.

다행히 1998년에 도산서원 현판에 대하여 어원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편집한 책이 간행¹⁾되어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열렸던 워크숍에서 2012년 4월에 김덕현 교수金德鉉 教授(경상대학교 지리학과)가 현황과 과제를 제시²⁾하여 같은 해 11월에 주제로 채택되어 의미와 가치를 대략적으로 논의하고 현판 현황과 어원語源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³⁾ 또 권진호 박사(한국국학진흥원)가 도산서원 현판을 주로 연구하여 「서원 편액의 가치」라는 논문을 『안동학 17집(2017. 12.)』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많은 여행가들이 도산서원을 다녀간 기행문에 단편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특히 「영남일보」 ‘이야기가 있는 현판을 찾아서’라는 연재기사에 2013년 4월 3일 보도되었고, 안동MBC에서 뉴스데스크 기획보도 ‘유교책판이야기’에 2017년 7월 17일 방영되었다. 이 두 기사는 『현판기행(김봉규 저, 2014, 답앰북스)』과 『안동의 유교현판(권진호 저, 2020, 민속원)』에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도산서원도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 창설부터 건물과 시설물의 이름을 경서經書와 선현들의 저술에서 골랐음은 물론이다. 도산서원의 전교당과 광명실은 퇴계선생께서 역동서원 창설 때 지으신 이름을 걸었고, 그 외 현판도 경서에 근거하여 이름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에 설치된 현판, 비석, 표지석, 암각서 만이라도 자세히 알 수 있다면 퇴계선생을 비롯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다.

“공공장소에 붙어있는 현판은 역사·문화 공부의 좋은 매체가 된다. -중략- 역사적 명품이 개인 손에 있다면 구걸하듯이 간청한 연후에 큰 절을 올려야 겨우 볼 수 있음에

1) 권영한, 『도산서원과 현판』, 도서출판 한빛, 1998.

2) 김덕현,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제2차 서원전문가 워크숍, 한국서원학회, 2012. 4. 14, 27~37쪽.

3) 김덕현,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이해준, 「서원 현판류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권진호, 「서원 현판류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 제4차 서원전문가 워크숍, 한국서원학회, 2012. 11. 9.

견주어, 공공재로 남은 좋은 현판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 그 아니 좋은가.⁴⁾라고도 하였다.

현판 등 보이는 문자文字에서 도산서원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도산서원은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형지물과 관련한 경관, 문명의 발달과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천된 길(진입로 등), 도산서당 창설 이래 증·개축된 건축물,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전해 온 의례 등 이야기할 것이 많다. 전문적 지식과 방대한 자료를 찾아야 하기도 하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를 우선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판 등 보이는 문자文字를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설명을 하고자 한 주제(현판, 비석, 암각서)보다 부수적으로 연관된 설명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서원 인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아 느낀 바를 정리했을 뿐이다. 예술적 조형미는 지식도 없지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자세히 기록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소개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도산서원에 대하여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며, 도산서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으로 여기고, 나아가 서원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서원 별유사 소임을 맡아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료를 찾아 모았으나 이를 책으로 엮어서 세상에 내 놓을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다. 2019년 하반기에 부임한 홍순학 관리소장이 서원을 설명하는 해설사와 수련원 지도위원 등에게 배부하여 서원 설명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제의에 용기를 내어 원고를 정리하였다. 여기에 남천 장종규 서예가께서 표제를, 검돌 이호신 화가께서 표지그림을, 서현강·황대영 등 사진작가들께서 글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을, 권갑현 박사와 이원봉 별유사는 한문과 한시 번역과 교열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용기를 준 홍순학 소장께 깊이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4) 김형국, 「멸종위기 전통: 현판」, 『월간조선』, 2016. 12월호.

退溪先生 位牌奉安 書院現況

| 連番 | 書院名 | 所在地 | 創設 | 賜額 | 毀撤 | 復設 | 主享 | 備考 |
|----|------|---------------|------|------|------|------|---------|------|
| | 計 | 34곳(조선32,일제2) | | 19 | 31 | 9 | 主22.配12 | |
| 1 | 研經 | 대구시 연경동 | 1565 | 1660 | 1871 | 推進中 | 主享 | |
| 2 | 南江 | 경북 영덕군 | 1571 | | 1868 | | 配享 | |
| 3 | 伊山 | 경북 영주시 | 1572 | 1574 | 1868 | 推進中 | 主享 | |
| 4 | 陶山 | 경북 안동시 | 1574 | 1575 | | | 主享 | |
| 5 | 虎溪 | 경북 안동시 | 1575 | 1676 | 1871 | 2020 | 主享 | |
| 6 | 紹賢 | 황해 벽성군 | 1578 | 1610 | 1871 | | 配享 | |
| 7 | 南塘 | 충북 제천시 | 1580 | | 1868 | | 主享 | |
| 8 | 景賢 | 전남 나주시 | 1584 | 1609 | 1868 | 1977 | 主享 | |
| 9 | 正源 | 황해 신천군 | 1588 | 1701 | 1871 | | 配享 | |
| 10 | 鳳覽 | 경북 청송군 | 1602 | 1630 | 1868 | | 主享 | |
| 11 | 道東 | 황해 송화군 | 1605 | 1698 | 1868 | | 配享 | |
| 12 | 道南 | 경북 상주시 | 1606 | 1677 | 1868 | 1969 | 配享 | |
| 13 | 文巖 | 강원 춘성군 | 1610 | 1648 | 1871 | | 主享 | |
| 14 | 仁山 | 충남 아산시 | 1610 | | 1871 | | 配享 | |
| 15 | 文巖 | 경북 봉화군 | 1611 | 1694 | 1871 | | 主享 | |
| 16 | 龜溪 | 경남 사천시 | 1611 | 1676 | 1868 | 1931 | 主享 | |
| 17 | 鼎山 | 경북 예천군 | 1612 | 1677 | 1869 | | 主享 | |
| 18 | 白鶴 | 경북 영천시 | 1618 | | 1868 | | 主享 | |
| 19 | 花巖 | 충북 괴산군 | 1622 | | 1868 | 1956 | 主享 | |
| 20 | 竹林 | 충남 논산시 | 1626 | 1665 | 1871 | 1946 | 配享 | |
| 21 | 靜退 | 충남 아산시 | 1634 | | 1871 | | 配享 | |
| 22 | 三江 | 경북 예천군 | 1643 | | 1869 | | 配享 | |
| 23 | 英山 | 경북 영양군 | 1655 | 1694 | 1868 | 2018 | 主享 | |
| 24 | 德谷 | 경남 의령군 | 1656 | 1660 | 1871 | 1992 | 主享 | |
| 25 | 鳳崗 | 황해 신천군 | 1656 | 1675 | 1871 | | 配享 | |
| 26 | 丹岩 | 충북 단양군 | 1662 | 1692 | 1871 | | 配享 | |
| 27 | 郁陽壇所 | 경북 영주시 | 1662 | | 1868 | 設壇 | 主享 | |
| 28 | 雲田 | 함남 함주군 | 1667 | 1727 | 1871 | | 配享 | |
| 29 | 淸溪 | 평남 강동군 | 1672 | | 1868 | | 主享 | |
| 30 | 孤山 | 대구시 수성구 | 1694 | | 1868 | | 主享 | |
| 31 | 松鶴 | 경북 청송군 | 1702 | | 1868 | 2013 | 主享 | |
| 32 | 培山 | 경남 산청군 | 1771 | | 1868 | 1919 | 主享 | |
| 33 | 鵲島精舍 | 경남 사천시 | 1914 | | | | 主享 | 紙榜行祀 |
| 34 | 迎勝 | 경남 거창군 | 1925 | | | | 主享 | |

退溪先生關聯文化財指定內譯

【문화재청(www.cha.go.kr)>문화유산지식>문화재검색>문화재검색에서발취】

| 指定區分番號 | 指定日字 | 數量 | 名稱[先生遺墨名] | 所在地 | 所有者 | 管理者 |
|----------------|--------------|--------------------------|--|-------------------|----------|----------|
| 보물 제210호 | 1963. 01.21 | 建物1동 | 陶山書院典教堂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안동시 |
| 보물 제211호 | 1963. 01.21 | 建物2동 | 陶山書院尙德祠附正門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안동시 |
| 보물제522호 | 1970. 8.27. | 山水畫1폭 | 姜世兒 陶山書院圖 | 서울용상구 서빙고로 137 | 大韓民國 | 국립 중앙박물관 |
| 보물 제548호 | 1971. 08.30 | 遺墨21장 | 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 |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 觀物堂 | 한국 국학진흥원 |
| 보물 제585호 | 1975. 05.01. | 遺墨 1첩 | 退尤二先生眞蹟 [陶庵書節要序] 鄭敼 風景畫 [溪上靜居圖]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 三星文化財團 | 三星文化財團 |
| 보물 제902호 | 1986. 11.29 | 典籍(8종14점) [先生遺墨1帖] | 沖齋權穰宗孫家所藏遺墨[退陶先生書] |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9 34 | 沖齋宗宅 | 권정우 |
| 보물 제1109호 | 1991. 12.16. | 典籍(7종13책) [先生贈呈本6冊] | 臨阜書院所藏典籍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4 | 臨阜書院 | 영천시 |
| 보물제524-2호 | 2006. 07.18 | 典籍(13종15책) [先生簡札2通] | 驪州李氏玉山門中所藏典籍[退溪先生手札] |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1600-1 | 獨樂堂 | 이해철 |
| 보물제526-2호 | 2006. 09.01 | 遺墨17점 [先生遺墨2點] | 驪州李氏玉山門中所藏遺墨 [元朝五箴][四山五臺] |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1600-1 | 獨樂堂 | 이해철 |
| 보물제548-2호 | 2010. 01.04 | 遺墨 18첩 | 李滉筆蹟[先祖遺墨] |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 眞城李氏上溪宗宅 | 韓國國學振興院 |
| 보물 제1894호 | 2016. 02.22. | 文集46권24책 | 退溪先生文集 [庚子本]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1000-2 | 啓明大學校 | 童山圖書館 |
| 보물 제1895호 | 2016. 02.22. | 冊版752장 [內709,外15,別28] | 退溪先生文集木板[庚子板] |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 陶山書院 | 韓國國學振興院 |
| 보물 제2105호 | 2020. 12.28. | 建物1棟 | 陶山書堂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안동시 |
| 보물 제2106호 | 2020. 12.28. | 建物1棟 | 隴雲精舍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안동시 |
| 사적 제170호 | 1969. 05.28 | 史蹟地324,945㎡ | 陶山書院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안동시 |
| 국가민속 문화재 제295호 | 2018. 11. 1. | 建物4棟 | 眞城李氏溫惠派宗宅 |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 | 老松亭宗中 | 李昌建 |

| 指定區分番號 | 指定日字 | 數量 | 名稱[先生遺墨名] | 所在地 | 所有者 | 管理者 |
|--------------------------|-----------------|---------------------------|-------------------|-----------------------|---------------|-------------------|
| 명승 제23호 | 2007. 03.13 | 林野4,090,322㎡ | 淸凉山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 | 국유,공유,사유 | 봉화군,진성이씨 상계파종중 |
| 명승 제53호 | 2008. 12.26 | 林野7,396㎡ | 搜勝臺(先生詩岩刻)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890 | 國有 | 거창군 |
| 명승제116호 | 2020. 04.20. | | 直沼瀑布一圓 (先生詩作地) |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95-1 | | 전북 부안군 |
| 문화재자료 제4호(광산구) | 1984. 02.29 | 建物1동 | 風詠亭(先生詩揭板)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852 | 光山金氏門中 | 광산김씨문중 |
| 문화재자료 제15호(수성구) | 1984. 07.25 | 建物1동 | 孤山書堂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산22 | 孤山書堂 | 孤山書堂儒契 |
| 문화재자료 제174호(안동시) | 1986. 12.11 | 建物1동 | 鳴玉臺 |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76 | 鳴玉臺儒契 | 鳴玉臺儒契 |
| 문화재자료 제244호(봉화군) | 1991. 05.14 | 建物1동 | 淸凉精舍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45 | 眞城李氏 上溪派宗中 | 眞城李氏 上溪派宗中 |
| 시도유형 문화재 제33호(안동시) | 1973. 08.31 | 建物1동,碑石 | 試土壇 |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556 | 陶山書院 | 안동시 |
| 시도유형 문화재 제82호(단양군) | 1981. 05.01 | 岩刻1기 | 復道別業岩刻字 |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산 17 | 丹陽郡 | 단양군 |
| 시도유형 문화재 제81호(단양군) | 1981. 05.01 | 岩刻1기 | 濯吾臺岩刻字 |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산 17 | 丹陽郡 | 단양군 |
| 시도기념물 제42호(안동시) | 1982. 12.01 | 2,119㎡ | 退溪宗宅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2 | 退溪宗宅 | 이근필 |
| 시도민속자료 제60호(안동시) | 1985. 10.15 | 建物4동 | 退溪胎室 |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 | 老松亭 | 李昌建 |
| UNESCO 世界遺産 한국의 서원 | 2019. 7.10. | 陶山書院一圓 | 陶山書院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陶山書院 |
| UNESCO 世界記錄遺産 | 2015. 10.10. | 冊板3,924점 (64,226장에 포함) | 儒敎冊版 |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 陶山書院 | 韓國國學 振興院 |
| UNESCO 亞·太 記錄遺産 | 2016. 5.19. | 扁額 15점 (550점에 포함) | 陶山書院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韓國國學 振興院 |
| UNESCO 亞·太 記錄遺産 | 2018. 5.30. | 思悼世子推 尊萬人疏 | 陶山書院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陶山書院 | 韓國國學 振興院 |

도산서원 연혁

- 1557(명종 12). 03. 퇴계선생이 도산 南洞(현 도산서당 터)을 서당 옮길 터로 정하다.
10. 낙천변 언덕에 대를 쌓고 창랑대(후에 天淵臺)라 함.
- 1558(명종 13). 11. 25. 「陶山精舍圖」를李文樞와 趙穆에게 보내어 승려 法蓮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함.
- 1559(명종 14). 09. 09. 도산 동쪽 봉우리에 올라 중구놀이를 하고 翠微峯이라 하였다.
- 1560(명종 15). 여름. 도산서당 주변 景物을 읊어 「陶山雜詠」이라는 詩集을 엮다.
겨울. 자력부족으로 도산서당 공사를 中斷하다
- 1561(명종 16) 03. 節友社를 축조하다.
가을. 도산서당이 완공하고 시 「陶山言志」를 지었다.
11. 06. 「陶山記」를 완성하다.
- 1562(명종 17) 03. 03. 담청놀이로 청계에 이르러 淸溪臺(후에 石礪臺)를 쌓음
03. 16. 경주부윤 李楨이 방문하여 3일간 묵고 석간대에서 작별하였다.
- 1563(명종 18) 09. 28. 왕세자[順懷] 訃音을 듣고 도산서당에 靈位를 모시고 服制期間이 끝나는
10. 4.까지 禮를 다했다.
- 1564(명종 19). 문도들 재력에 정사성의 아버지가 보태어 亦樂書齋를 지었다.
- 1565(명종 20) 03. 16. 한글시조 「陶山十二曲」을 짓고 그 발문에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 모두가
성정순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바랐다
04. 13. 문정왕후 부음으로 도산서당에서 哭臨禮를 하고, 17일 성복하였다.
04. 「경재잡」「백록동규」「명당실어」등을 써서 완락재 벽에 붙였다.
- 1566(명종 21). 03. 임금의 상경하라는 교지를 받고 1.26.에 길을 떠나 날씨와 득병으로 여러 번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해 풍기. 예천. 광흥사. 봉정 사 등지를 옮기며
두 달이 지나 도산에 오니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07. 선생이 거듭 상경을 불응하자 명종임금이 陶山을 그려 그 위에 「도산 기」와
「도산잡영」을 써서 병풍을 만들어 臥內에 둘러치게 하다.
- 1567(명종 22) 10. 05. 도산서당에서 明宗의 卒哭禮를 봉행하다.
- 1568(선조원) 06. 26. 선조의 召命을 받아 상경 길을 나섰다. 이때가 마지막 상경이었다.
- 1569(선조 2) 03. 04. 夜對廳에서 귀향을 허락받고, 正午에 都城을 나온다.
03. 17. 도산서당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매화를 감상하였다.
- 1570(선조 3) 05. 13. 도산서당에서 『啓蒙』 강의를 시작하다
11. 09. 가묘에 時祀[冬至]를 모시기 위해 온계에 가서 감기로 득병하다.
11. 22. 병세가 危重하여 제자들이 모였다.
12. 04. 조카 穽에게 遺戒를 받아 기록하게 하다
12. 08. 계상 寒棲庵에서 오후 5시경 앉아서 평안히 逝去하셨다
12. 18. 선조임금은 訃音을 듣고 領議政으로 추증하고 禮葬을 하명하다.
- 1571(선조 4) 01. 16. 右承旨 俞泓이 왕명으로 致祭하다
01. 24. 禮曹佐郎 趙仁後가 왕명을 받아 致祭하다
03. 21. 예안현 蹇芝山 남쪽에 장례를 지내다.

- 1572(선조 5). 04. 상덕사 건립을 동문(同門)들이 논의하다.
- 1574(선조 7) 도산서원 창설(선생서거 후 3년)
- 1575(선조 8). 06. 서원낙성, ‘도산서원’사액. 『朱子大全』 『朱子語類』 『性理大全』
『論語集註大全』 『春秋胡氏傳』 『詩傳大全』 『禮記集說大全』 『大學 章句
大全』 內賜.
- 1576(선조 9). 02. 13.(양 3. 13.) 위판봉안.
11. 시호 ‘문순(文純)’. 『송계원명이학통록』 초간
- 1585(선조 18) 07.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內賜
- 1588(선조 21) 01. 『小學諺解』 內賜
- 1590(선조 23) 07. 『孟子諺解』 『論語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內賜
- 1600(선조 33) 『퇴계선생선생문집』 (초간). 『啓蒙傳疑』 刊行
※ 『퇴계선생선생문집』 : 2016.2.22.국가보물지정(문집 제1894호, 책판 제1895호)
- 1601(선조 34) 『퇴계선생연보』 간행. 천연대 刻字(이산해 필)
- 1607(선조 40) 『古鏡重磨方』 간행
- 1609(광해 1) 『四書釋義』 『三經釋義』 琴應壩 수정 보완 刊行
- 1610(광해 2) 퇴계선생 문묘종사 및 종묘배향
- 1614(광해 7). 11. 09. 제자 월천 조목 종향봉안
12. 27. 치제(예조좌랑 임성지)
- 1718(숙종 44) 『퇴계선생 언행통록』 간행
- 1724(영조 1) 『퇴계선생 문집』 개간
- 1732(영조 8) 『퇴계선생 언행록』 간행
- 1733(영조 9) 07. 『師門手簡』 買得.
12. 17. 치제(홍문관 부수찬 정형복)
- 1743(영조 19) 『송계원명이학통록』 再刊. 『朱子書節要』 간행
- 1746(영조 22) 『퇴계선생속집』 간행
- 1753(영조 29) 07.~09. 묘우, 신문, 담장, 암서헌, 농운정사, 역락재 보수
- 1755(영조 31) 10. 02. 묘우수리
- 1756(영조 32) 01. 18. 치제(홍문관 수찬 이석상)
- 1772(영조 48). 『운계선생일고』 간행
03. 『溪巖先生文集』 간행
- 1775(영조 51). 05. 15. 정당동두 서각 광명실 건립 서책이관
- 1781(정조 5). 05. 22. 치제(승정원 좌부승지 이양정)
- 1792(정조 15). 03. 24. 치제(내각검교직각 이만수)
03. 25. 도산별과 시행
- 1794(정조 18) 『論語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中庸章句大全』 『大學章句大全』
『詩傳大全』 『書傳大全』 『周易傳義大全』 『朱書百選』 內賜
- 1795(정조 19). 02.25.~27. 『어정주서백선』 3책 등 내사본 강화
- 1796(정조 20) 시사단 설단. 『교남빈흥록』 간행
08. 『御定奎章全韻』 內賜.
- 1797(정조 21) 06. 『鄉禮合編』 內賜.

- 1798(정조 22) 09. 『五經百篇』 內賜.
 10. 『春秋左氏傳』 內賜.
 1799(정조 23)10. 『雅誦』 內賜.
 1801(순조 1) 시사단 파훼(채제공 추탈관련)
 1816(순조 16) 08.20. 치제(예조정랑 홍우섭)
 1817(순조 17) 『퇴계선생 문집』 중간
 1819(순조 19). 04. 동광명실 신축
 1824(순조 24) 시사단 다시 건립
 1826(순조 26) 봄 雲影臺隄防 築造
 1835(헌종 1) 윤6. 廟宇修理
 1836(헌종 2). 07. 典敎堂重修
 1839(헌종 5) 12.13. 치제(영해부사 최명현)
 1843(헌종 9). 『퇴계선생 문집』 중간
 1850(철종 1). 03. 26.~28. 청량오산당강회 개최
 1854(철종 5). 12. 15.~17. 경서 및 퇴계선생 저술 강학
 1866(고종 3). 9. 01. 강학(분정기록만 있음)
 1867(고종 4). 04. 역락서재 현위치 중건
 1869(고종 6). 01.~04. 『퇴계선생전서(번남본)』 교준(校準)
 1870(고종 7).10. 예안현감 원장겸임(依 1868. 9. 3. 朝令)
 1885(고종 22). 庶類事變
 1901(광무 5). 11. 01. 廟變發見, 12. 22. 新位版 奉安
 1902(광무 6) 02. 28. 舊位版 發見, 3. 7. 舊位版 埋安
 1911. 『농암선생문집속집』 간행
 1913. 06. 『도산급문제현록』 간행
 1930. 07. 17. 암서헌 중수 고유
 1932. 09. 10. 농운정사 중수 고유
 1939. 08. 15. 서광명실 증건.
 11. 18. 상덕사 · 전교당 국가보물지정(조선총독부)
 1953. 03. 천연대암석사변(지하수로 굴착)
 1963. 01. 21. 상덕사 · 전교당 국가보물 지정(대한민국)
 08. 09. 상덕사 중수 고유(양 9. 26.)
 1968. 11. 18. 전국유림대표 도산서원보호진정 청와대 방문(안동댐 수몰관련)
 1969. 05. 28. 도산서원일대 사적 지정(제170호)
 10. 06. 보수정화공사 기공식
 10. 14. 박정희대통령 상덕사 알묘
 1970. 12. 8. 보수 정화사업 준공식, 박정희대통령 기념식수
 1975. 선생초상 서당전경 투호 한국은행권 지폐 도안
 1975. 곡구매물 진입로 이설
 1977.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설치,
 1981. 퇴계학 학술상 제정(격년시상)

| | |
|---------------------|--|
| 1999. 10. 07. | 김대중대통령 도산서당, 농운정사, 옥진각 관람 |
| 2001. 10. | 선생탄신오백주년 작헌례 학술연구성과 공유 |
| 2001. 10. 5 ~ 12. 9 | 퇴계선생 탄신 50주년 기념 퇴계선생 유물 특별전(안동문화예술의전당, 한국국학진흥원) |
| 11. |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원사: 2011년준공) |
| 2002. | 부녀자 상덕사 알묘 허용 |
| 2003. 03. | 거경대학 개강. |
| 04. | 고전적 및 목판류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
| 2011. | 도산서당 창설 450주년 특별전시(한국국학진흥원) |
| 2013. 06. |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안동시) |
| 2014. 10. 14. | 도산서원 모형(강학공간) 중국 악록서원 박물관 상시전시 |
| 2015. 05.15. | 농운정사 보수고유. |
| 10. 10. | 책판3,923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등재 |
| 11. 14. | 참공부 모임 결성 |
| 2016. 2. 22. | 초판 선생문집과 그 목판 국가문화재 보물지정 |
| 05. 02. | 도산서원 특별전시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마음’(국립대구박물관) |
| 05. 19. | 편액 15점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한국의 편액’ 등재 |
| 06. 13. | 선비문화수련원 2원사 준공 |
| 2017. 8. 10. | 이낙연 국무총리 내원 |
| 09. 20. | 상덕사 및 삼문 보수 고유 |
| 2018. 05. 30. | 「사도세자추조만인소(철종 5)」가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만인의 청원, 만인소’로 등재 |
| 08. 29. | 혼천의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안동MBC 복원 혼상과 혼천의 수탁하여 옥진각에 전시 |
| 11. 27. | 금송(1970. 12. 8. 박정희대통령 기념식수) 중수기념비 좌측 이식 |
| 2019. 01. 13. | 참공부 모임에서 선생유묵 『잠명제훈』 국역 간행 |
| 04. 9.~21. | 선생 마지막 귀향 450주년 기념 재현행사 *매년 걷기행사 |
| 04. 28. | 은악양선실천운동본부 창립 |
| 07. 10. | 유네스코 도산서원 등 9곳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 등재 선포 |
| 07. 30. | 도산 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특별전 개막(한국국학진흥원) |
| 10. 26. | 전교당 보수(飜瓦) 완공 |
| 11. 12.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고유 및 표지석 설치 |
| 2020. 04. 23. | 상덕사와 전교당 방염도포(防炎塗布) |
| 08. 01.~10. | 야간 공개(22:00까지) |
| 10. 01. | 추향시 최초 여성초헌관 헌작 (초헌 李培鎔 서원관리단 이사장, 세계유산 등재 유공 분헌 李貞和 동양대 교수. 선생 詩 연구 유공) |
| 11. 27.~28. | 선생 서세 450주년기념 추모행사 |
| 12. 28. | 도산서당(제2105호), 농운정사(제2106호) 국가문화재 보물지정 |

도산서원이야기

현판·비석·표지석·암각서를 중심으로

초판 인쇄일 : 2020. 5. 4.

초판 펴낸일 : 2020. 5. 7.

재판 인쇄일 : 2021. 4. 28.

재판 펴낸일 : 2021. 4. 30. (보완 재판)

펴 낸 이 : 유창원

펴 낸 곳 :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글 쓴 이 : 이동구(dongg49@hanmail.net)

교 열 : 권갑현, 이원봉

인쇄한 곳 : 도서출판 청솔(054.841.3750)

ISBN 978 89 89441 71 7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다.

